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 선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Morita Akemi (일본 동양대학교 교수)
	박 지 윤 (부산대학교 특임 교수)
위탁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 2019-23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정인애드 02-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23-4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 방위로 추진 중이나 그 추이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접근에서 더 나아가 실제 육아 환경인 지역사회 중심의 면밀한 정책 검토와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온 마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를 2019년부터 3개년 연구로 기획하였다.

1차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지표 및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모형을 도출하였다. 2차년 연구는 대도시와 신규조성단지,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모형을 적용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3차년 연구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와 모형을 수정하고 매뉴얼을 구성하고 현장 안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혁신기업 더함, 유엔 NGO 아동권리협약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여 추진하였고, 국제세미나도 공동개최하며 상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함께 한 연구진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모형의 적용을 지원해주신 시흥시청과 인천 서구청 담당자 여러분, 주민참여 토론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협력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이 3개년 동안 성공적으로 구성되어 아이 기르는 가족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요약	1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6
4. 연구개요 및 범위	31
II. 육아친화마을 개념과 구성요소	35
1.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37
2. 육아친화마을에의 요구 및 조성 필요성	56
3.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	67
4. 소결	76
III.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	81
1. 지자체 마을공동체조성 사업 중 육아친화적 사례	83
2. 국내 육아친화적 마을 조성 사례: 사회혁신기업 ‘더함’	95
3. 일본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	102
4. 호주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	117
5. 소결	130
IV.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 개발	133
1. 지표개발 연구개요	135
2. 지표개발을 위한 쟁점 검토	139
3. 육아친화성 측정지표의 개발	143
4. 지역의 육아친화성 측정 및 분석	164
5. 소결	214

V.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개발	217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219
2.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 풀(pool) 개발	222
3. 주민참여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	238
VI.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와 체크리스트 적용사례	253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적용 사례	255
2.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적용 요구 조사	264
3. 소결	349
V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355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357
2.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KICCE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366
3.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367
4.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정부의 역할	370
5. 향후 추진 계획	373
참고문헌	375
Abstract	387
부록	389
부록 1. 면담질문지	389
부록 2. 설문지	391



표 목차

〈표 Ⅰ-3- 1〉 설문조사 개요	29
〈표 Ⅰ-3- 2〉 응답자 특성: 전체	30
〈표 Ⅰ-3- 3〉 심층면담 참석자	31
〈표 Ⅱ-1- 1〉 살기 좋은 마을의 영역별 구성요소에 따른 가족친화마을 모델 사례 ...	42
〈표 Ⅱ-1- 2〉 UN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4대 기본권	47
〈표 Ⅱ-1-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	48
〈표 Ⅱ-1- 4〉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52
〈표 Ⅱ-1- 5〉 각종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54
〈표 Ⅲ-1- 1〉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센터의 기능	84
〈표 Ⅲ-1- 2〉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1: 안전한 환경 조성	85
〈표 Ⅲ-1- 3〉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2: 공동육아 및 돌봄 제공	87
〈표 Ⅲ-1- 4〉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3: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도서 공간 운영	88
〈표 Ⅲ-1- 5〉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4: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	90
〈표 Ⅲ-1- 6〉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5: 공론의 장(場), 수다방 마련	92
〈표 Ⅲ-1- 7〉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6: 생활 나눔	93
〈표 Ⅲ-1- 8〉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7: 문화공동체 운영	94
〈표 Ⅲ-1- 9〉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8: 기타	95
〈표 Ⅲ-2- 1〉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거주 예상 미성년자	97
〈표 Ⅲ-2- 2〉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어린이집 시설 논의 내용(어린이집 내부 공간) ...	99
〈표 Ⅲ-2- 3〉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초등학교후 학교 시설 논의 내용	102
〈표 Ⅲ-3- 1〉 일본의 저출산·육아지원대책의 흐름	104
〈표 Ⅲ-3- 2〉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 조례: 2002년 시행, 2013년 개정 ...	110
〈표 Ⅲ-3- 3〉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양육사업 연표	113
〈표 Ⅲ-4- 1〉 호주의 가족 및 아동 지원정책	119
〈표 Ⅲ-4- 2〉 가족친화적 도시지표 2013: suncorp bank report	121
〈표 Ⅲ-4- 3〉 2013 가족친화적 도시결과: suncorp bank report	123
〈표 Ⅲ-4- 4〉 가족친화적 도시지표 2014: suncorp bank report	124
〈표 Ⅲ-4- 5〉 2014 가족친화적 도시결과: suncorp bank report	125
〈표 Ⅳ-2- 1〉 연구의 수행절차개관 주요쟁점별 지표검토 사항	140
〈표 Ⅳ-2- 2〉 쟁점검토사항 및 시사점 도출	143

〈표 IV-3- 1〉 양육 사회화 영역별 지표정의 및 관련 지표 예시	145
〈표 IV-3- 2〉 유사 지표의 정의 및 주요 구성요소	147
〈표 IV-3- 3〉 기존 유사지표 개괄	149
〈표 IV-3- 4〉 유사지표 중 질적 지표를 차용한 예	154
〈표 IV-3- 5〉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157
〈표 IV-3- 6〉 육아친화성 측정지표 1차 재분류	159
〈표 IV-3- 7〉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2차 재분류: 선행연구1	161
〈표 IV-3- 8〉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2차 재분류: 선행연구2	162
〈표 IV-3- 9〉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최종)	163
〈표 IV-4- 1〉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상·하위 지역	165
〈표 IV-4- 2〉 어린이집 시설 상·하위 지역	166
〈표 IV-4- 3〉 유치원 시설 상·하위 지역	167
〈표 IV-4- 4〉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168
〈표 IV-4- 5〉 초등학교 시설 상·하위 지역	169
〈표 IV-4- 6〉 지역아동센터시설 상·하위 지역	170
〈표 IV-4- 7〉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상·하위 지역	171
〈표 IV-4- 8〉 공원개소 상·하위 지역	172
〈표 IV-4- 9〉 공원면적 상·하위 지역	173
〈표 IV-4-10〉 어린이공원개소 상·하위 지역	174
〈표 IV-4-11〉 어린이공원면적 상·하위 지역	175
〈표 IV-4-12〉 지역별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176
〈표 IV-4-13〉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상·하위 지역	177
〈표 IV-4-14〉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상·하위 지역	178
〈표 IV-4-15〉 교통안전지수 상·하위 지역	178
〈표 IV-4-16〉 지역안전 상대유형(화재)별 지역	179
〈표 IV-4-17〉 지역안전 상대유형(범죄)별 지역	181
〈표 IV-4-18〉 지역안전 상대유형(생활안전)별 지역	182
〈표 IV-4-19〉 산부인과 의원 수 상·하위 지역	183
〈표 IV-4-20〉 소아과 의원 수 상·하위 지역	185
〈표 IV-4-21〉 가정의학과 의원 수 상·하위 지역	186
〈표 IV-4-22〉 종합병원 상·하위 지역	187
〈표 IV-4-23〉 지표별 행정수요대비 적정성	188
〈표 IV-4-24〉 영유아기 직접자원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치	191

〈표 IV-4-25〉 아동기 직접자원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윳값	192
〈표 IV-4-26〉 공원녹지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윳값	192
〈표 IV-4-27〉 여가문화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윳값	192
〈표 IV-4-28〉 교통안전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윳값	193
〈표 IV-4-29〉 보건·의료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윳값	193
〈표 IV-4-30〉 육아친화성 수준에 따른 분류표	194
〈표 IV-4-31〉 요인별 각 분위에 따른 요인점수(절대)	194
〈표 IV-4-32〉 세부요인별 지자체 분포: 절대적 육아친화성	195
〈표 IV-4-33〉 지역유형별 육아의 직접적 자원 분포: 절대적 육아친화성	197
〈표 IV-4-34〉 지역유형별 육아 인프라 분포: 절대적 육아친화성	198
〈표 IV-4-35〉 요인별 각 분위에 따른 요인점수(상대)	199
〈표 IV-4-36〉 세부요인별 지자체 분포: 상대적 육아친화성	200
〈표 IV-4-37〉 지역유형별 육아 인프라 분포: 상대적 육아친화성	202
〈표 IV-4-38〉 지역유형별 육아의 직접적 자원 분포: 상대적 육아친화성	203
〈표 IV-4-39〉 상위 10개 지역 요인별 요인점수	205
〈표 IV-4-40〉 하위 10개 지역 요인별 요인점수	206
〈표 IV-4-41〉 총량유형별 세부지표수준 분석: 절대적 육아친화성	209
〈표 IV-4-42〉 총량유형별 세부지표수준 분석: 상대적 육아친화성	212
〈표 V-1- 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별 지표와 체크리스트(pool)의 특성 및 차원 비교	220
〈표 V-2- 1〉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철학과 가치 체크리스트	226
〈표 V-2- 2〉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체크리스트	228
〈표 V-2- 3〉 보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230
〈표 V-2- 4〉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231
〈표 V-2- 5〉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	233
〈표 V-2- 6〉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	234
〈표 V-2- 7〉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	235
〈표 V-2- 8〉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236
〈표 V-2- 9〉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	237
〈표 V-2-10〉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행정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237
〈표 V-3- 1〉 워크숍 진행순서	240

〈표 V-3- 2〉 인천 서구지역 최종 도출 체크리스트	246
〈표 V-3- 3〉 인천 서구지역 각 타겟 대상별 최종 도출 우선 체크리스트	248
〈표 V-3- 4〉 시흥 지역 최종 도출 체크리스트	249
〈표 V-3- 5〉 시흥 지역 각 타겟 대상별 최종 도출 우선 체크리스트	250
〈표 VI-1- 1〉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별 현황	257
〈표 VI-1- 2〉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책현황	259
〈표 VI-1- 3〉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육아친화성 비교	261
〈표 VI-1- 4〉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분위와 요인별 요인점수 ..	263
〈표 VI-2- 1〉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범위: 전체	265
〈표 VI-2- 2〉 현재 동네에 거주한 기간: 전체	266
〈표 VI-2- 3〉 현재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한 이유: 전체	267
〈표 VI-2- 4〉 자녀 양육에 있어 현 동네 환경 평가: 전체	268
〈표 VI-2- 5〉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자녀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전체	269
〈표 VI-2- 6〉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자녀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전체	270
〈표 VI-2- 7〉 마을 전반에 대한 인식: 전체	271
〈표 VI-2- 8〉 마을 내 시설 유무 1: 전체	273
〈표 VI-2- 9〉 마을 내 시설 유무 2: 전체	274
〈표 VI-2-10〉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 보건소: 전체	275
〈표 VI-2-11〉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2) 종합병원: 전체 ..	276
〈표 VI-2-12〉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3) 일반병원: 전체 ..	277
〈표 VI-2-13〉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4) 어린이집: 전체 ..	278
〈표 VI-2-14〉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5) 유치원: 전체	279
〈표 VI-2-15〉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6) 초등학교: 전체 ..	280
〈표 VI-2-16〉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7) 놀이터: 전체	281
〈표 VI-2-17〉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8) 공원/녹지: 전체 ..	282
〈표 VI-2-18〉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9) 문화공연장: 전체 ..	283
〈표 VI-2-19〉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0) 체육시설: 전체 ..	284
〈표 VI-2-20〉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1) 도서관: 전체	285
〈표 VI-2-21〉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2) 백화점·복합쇼핑센터 : 전체	286
〈표 VI-2-22〉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3) 박물관: 전체	287

〈표 VI-2-23〉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4) 영리시설: 전체	· 288
〈표 VI-2-24〉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5) 주민자치센터: 전체	· 289
〈표 VI-2-25〉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6) 사회복지관: 전체	· 290
〈표 VI-2-26〉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7)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체	· 291
〈표 VI-2-27〉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8)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	· 292
〈표 VI-2-28〉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9) 장년감도서관: 전체	· 293
〈표 VI-2-29〉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20) 어린이도서관: 전체	· 294
〈표 VI-2-30〉 자녀 양육에 가장 도움 된 서비스-1순위/2순위: 전체	· 296
〈표 VI-2-31〉 응답자 특성: 인천 서구	· 297
〈표 VI-2-3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 299
〈표 VI-2-3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진단: 인천 서구	· 300
〈표 VI-2-34〉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인천 서구	· 301
〈표 VI-2-3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 303
〈표 VI-2-3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 인천 서구	· 304
〈표 VI-2-37〉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 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인천 서구	· 306
〈표 VI-2-3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 308
〈표 VI-2-39〉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진단: 인천 서구	· 309
〈표 VI-2-40〉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 관련 서비스 인프라: 인천 서구	· 311
〈표 VI-2-4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 314
〈표 VI-2-4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진단: 인천 서구	· 315
〈표 VI-2-4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인천 서구	· 317

〈표 VI-2-4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319
〈표 VI-2-4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진단: 인천 서구 ..	320
〈표 VI-2-46〉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인천 서구	322
〈표 VI-2-47〉 응답자 분포표: 경기 시흥	324
〈표 VI-2-4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	325
〈표 VI-2-49〉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진단: 경기 시흥	326
〈표 VI-2-50〉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경기 시흥	328
〈표 VI-2-5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329
〈표 VI-2-5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 경기 시흥	330
〈표 VI-2-5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경기 시흥	333
〈표 VI-2-5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335
〈표 VI-2-5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진단: 경기 시흥	336
〈표 VI-2-56〉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경기 시흥	338
〈표 VI-2-57〉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	341
〈표 VI-2-5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진단: 경기 시흥	342
〈표 VI-2-59〉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경기 시흥	345
〈표 VI-2-6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346
〈표 VI-2-6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진단: 경기 시흥 ..	347
〈표 VI-2-62〉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경기 시흥	348
〈표 VII-1- 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359
〈표 VII-1-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361
〈표 VII-4- 1〉 시설확충 및 관리전략	371



그림 목차

[그림 Ⅰ-1- 1]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23
[그림 Ⅰ-2- 1]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3개년 연도별 연구내용	24
[그림 Ⅰ-2- 2]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1차년도 연구내용	25
[그림 Ⅰ-4- 1] 육아친화마을 개선방안 연구개요 및 범위	32
[그림 Ⅱ-1- 1] 가족친화마을 구성요소	40
[그림 Ⅱ-4- 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의 내용	78
[그림 Ⅲ-2- 1]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거주 예정 입주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	97
[그림 Ⅲ-2- 2]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커뮤니티 시설 조감도	98
[그림 Ⅲ-2- 3]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어린이집 시설 논의 내용	101
[그림 Ⅲ-4- 1] 호주의 인구현황	118
[그림 Ⅳ-1- 1] 연구의 수행절차 개관	138
[그림 Ⅳ-3- 1] 지표개발 절차 개관	144
[그림 Ⅳ-4- 1] 지역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유형분포	196
[그림 Ⅳ-4- 2] 지역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유형분포	201
[그림 Ⅳ-4- 3] 지역별 육아친화성 총량 값 분포현황	207
[그림 Ⅴ-1-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222
[그림 Ⅴ-2- 1] 육아친화마을 공간 도식도	223
[그림 Ⅴ-3- 1] 연구진 연구 개요 및 지역선정 이유 설명	239
[그림 Ⅴ-3- 2] 참여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241
[그림 Ⅴ-3- 3] 워크숍 토론 결과	244
[그림 Ⅴ-3- 4]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과정	245
[그림 Ⅵ-1- 1]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263
[그림 Ⅵ-1- 2]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264
[그림 Ⅵ-2- 1] 마을 전반에 대한 인식	271
[그림 Ⅵ-2- 2] 마을 내 시설 유무	272
[그림 Ⅵ-2- 3] 자녀 양육에 가장 도움 된 서비스-1순위/2순위 합산: 전체 ..	295
[그림 Ⅵ-2- 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301

[그림 VI-2- 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302
[그림 VI-2- 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305
[그림 VI-2- 7]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 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인천 서구	306
[그림 VI-2- 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310
[그림 VI-2- 9]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인천 서구	312
[그림 VI-2-1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316
[그림 VI-2-11]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인천 서구	318
[그림 VI-2-1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321
[그림 VI-2-1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인천 서구	322
[그림 VI-2-1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327
[그림 VI-2-1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328
[그림 VI-2-1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331
[그림 VI-2-17]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경기 시흥	333
[그림 VI-2-1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337
[그림 VI-2-19]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경기 시흥	339
[그림 VI-2-2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343

[그림 VI-2-21]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경기 시흥	344
[그림 VI-2-2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347
[그림 VI-2-2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 워크 형성: 경기 시흥	348
[그림 VII-1-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358
[그림 VII-2- 1]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순환모형	367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역사회 자생력 생성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고려되고 있음.
 - 이는 2018년 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에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추진 영역으로도 반영됨.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하기 위한 ‘온 마을’이 무엇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는 과정을 제시할 것임.
- 본 연구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단일 척도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친화적 요소를 마을에 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과정적 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첫째,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함.
 - 육아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기본요건을 파악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함.
- 둘째, 국내외 육아친화마을 사례발굴을 통해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조성사업들을 검토함.
- 셋째, 육아친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와 기존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도출(Top-down 방식)함.
 - 해당 지표는 지역단위별로 공개된 객관적·양적 데이터 중심의 거시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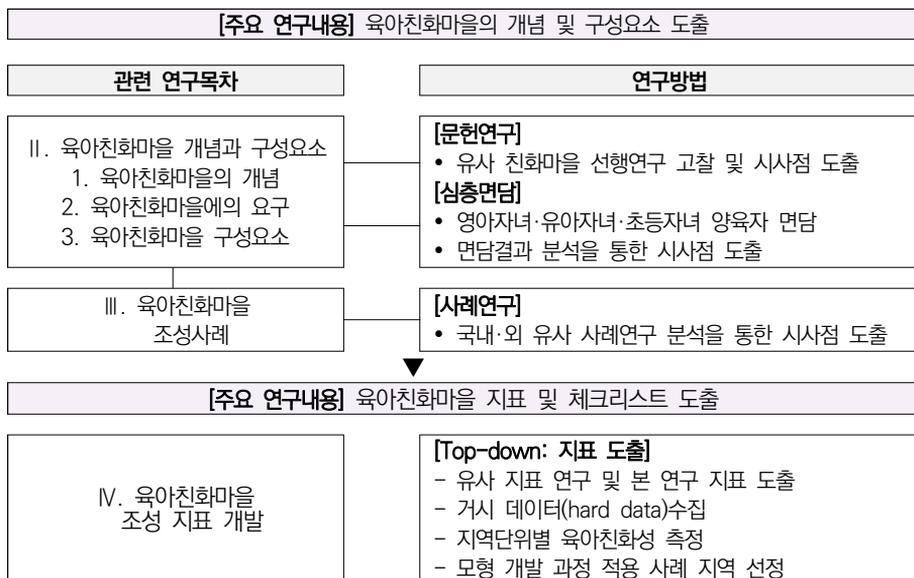
- 넷째, 거시지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없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요소 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Bottom-up 방식)함.
 - 해당 체크리스트는 지역사회에 실거주하는 수요자들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미시적 지표임.
- 다섯째, 수요자중심 지역별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을 제시함.
 - 도출된 육아친화마을지표와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육아친화마을을 만들어가는 절차와 추진체계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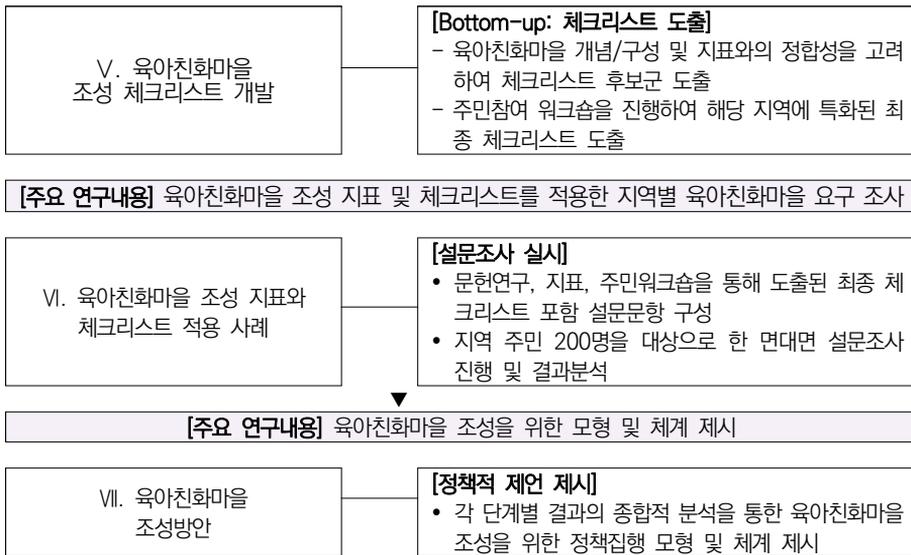
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정의부터 육아친화마을의 조성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광범위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어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한 방법을 사용함.
 - (질적연구방법) 문헌연구, 사례연구, 심층인터뷰, 주민참여워크숍, 전문가 세미나
 - (양적연구방법) 통계분석(기초통계분석, 요인분석, QGIS), 설문조사

라. 연구개요 및 범위

-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반영한 연구 개요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2. 육아친화마을 개념과 구성요소

가. 육아친화마을 개념

-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가족·아동·청소년친화마을 등 기존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정책을 검토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기존 친화마을은 가족과 아동,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위해 특화되는 것과 달리 육아친화마을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육아’라는 행위를 위해 특화됨.
- 육아친화마을의 육아친화성은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며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인 부모권과 노동권에 초점을 뒤야 함. 이와 동시에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권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육아관점의 이용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육아친화성,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마을조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함.
 - **(육아친화성)**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특정 대상이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로 이해함.

- **(육아친화마을)**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님.
- **(육아친화마을 조성)** 온 마을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그런 마을이 지나는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과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적용해가는 과정임.

나. 육아친화마을에의 요구 및 조성 필요성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수요자가 인식하는 마을의 범위와 육아친화마을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 면담을 실시함.
- **(마을의 범위)**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 동단위, 구단위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되는 특징을 보임.
- **(거주 공간 이동이유)** ‘육아(혹은 돌봄)’라는 큰 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이유가 가장 강하게 드러남(직장과 거주공간의 근접성, 혈연가족의 양육도움).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적인 요소가 강해짐 등임.
-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육아·아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안전하지 못한 환경,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부담 등임.
- **(양육에 도움이 된 시설 및 기관)** 공원, 키즈카페(Kids cafe),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대형쇼핑몰 등임.
- **(육아지원 시설 및 기관 이용 시 어려움)**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용 기회 부족, 이용자에 대한 배려부족 등임.

다.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육아친화마을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육아친화적 철학과 가치)** 아이·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아이다움을 인정,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 성평등한 육아문화, 육아친화 가치 공유 기회 확대
- **(서비스 인프라 및 물리적인 환경)** 소통의 공간, 육아정(育兒亭) 신설, 활용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 육아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 (지역적 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통한 품앗이 육아, 공동육아 네트워크 지원인력, 공동체 육아활동 거점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그림 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의 내용



라. 소결

- 육아친화마을에서 마을이라는 범위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육아에 필요한 활동성에 기초하여 확장됨.
-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
-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확대와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과 함께 강조된 부분은 ‘육아정(育兒亭)’의 개념임.
- 소통하는 장(場)의 마련은 그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마을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의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 시, 육아친화적 환경조성에서 필수 요소로 사료됨.
-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적 분위기의 확산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3.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

가. 지자체 마을공동체 사업 중 육아친화적 사례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 사례 중 육아관련 공동체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개념화 함.

- **(지자체 마을공동체조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는 201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신설. 2017년부터는 마을공동체조성지원을 위해 시청에 ‘지역공동체 담당관’을 신설 자치기획팀, 기반조성팀, 마을협력팀 등 3개 팀을 배치함.
- **(육아관련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별 사례)** 육아관련 마을공동체에서 주로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안전한 환경조성, 공동체 육아로 키워드를 압축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업 항목은 안전한 환경 조성, 공동육아 및 돌봄 제공,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도서 공간 운영,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공론의 장(場)/수다방 마련, 생활 나눔, 문화공동체 운영 등임.

나. 국내 육아친화적 마을 조성 사례: 사회혁신기업 ‘더함’

□ 사회혁신기업 ‘더함’이 추진하는 위스테이사업(westay: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 공동체 서비스의 요구를 분석함.

- **(어린이집 요구)** 아동의 안전과 발달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공간배치, 교사들이 업무에 집중하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장애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공간설계, 전일적이고 긴급한 돌봄에 대한 대응
- **(커뮤니티 공간 요구)** 입주조합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일상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 공유 부엌을 활용한 이웃간 친목도모 등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 놀이광장, 어린이 도서관이 포함된 다목적도서관 등을 주요 시설로 계획
- **(초등 방과 후 돌봄 요구)** 마을 내부에서 돌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놀이, 휴식, 공부)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적 공간 구성 및 안전한 외부 놀이 공간 마련

다. 일본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

- 일본은 한국과 같이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임.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망라하여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994년도~1999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엔젤플랜과 연동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함. 1999년 6월에는 47도도부현에서 종합계획 책정을 완료하고 2003년에는 1,300여개의 시정촌에서 수립하였음.
 - **(2000년도~2004년)** 지역 중심의 육아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이 공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함.
 - **(2005년~2014년)** 2003년 7월 모든 시정촌에 육아지원사업의 시행과 시정촌 보육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시행. 그 결과, 모든 지방공공단체에 2005년도부터 5년간의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2015년~2024년)**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이 연장됨. 그 결과, 모든 지방공공단체에서 아동양육사업계획과 동시에 2015년도부터 10년간의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라. 호주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

- 호주의 가족친화적 도시 사례를 통해 육아친화마을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함의점을 모색함.
- 호주에서는 국가, 주정부차원에서 가족과 아동의 복지와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의 실질적 영향과 가족친화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Suncorp Bank는 각 지역별 가족친화도시(Family Friendly City) 조사결과를 2013년, 2014년 연속적으로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y Report로 발표함.
 - 가족친화적인 도시는 지표를 사용하여 등급을 분류함. 2013년에 선정된 지표는 1차 지표(primary indicators/범죄, 건강, 교육, 주거, 실업) 2차 지표(secondary indicators/소득, 보육, 건강, 연결성, 지역사회)로 분류함. 2014년에는 1차지표로 학교, 대출스트레스, 소득, 실업으로 2차지표로는 면역력, 지역사회참여, 건강, 도로안전, 지역사회안전이 선정됨.

마. 소결

- 민(民)에서 주도한 육아관련 마을 공동체 사업 분석 결과 수요자가 원하는 유
아친화적인 요소는 공동체를 통한 공동육아와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과 물리적 공간으로 압축됨.
 -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개별적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
와 각종커뮤니티 시설, 놀이터, 도서관 등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제반 시설
설립 시 마을 주민들의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더함과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탑다운(Top-down) 지원방법과는 달리 행정
과 지역주민, 지역자원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시민참가가 친
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되어야 함.

4.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 개발

가. 지표개발 연구개요

- “육아친화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나. 지표개발을 위한 쟁점 검토

- 지표를 개발하기 전 전술된 육아친화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정량지표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연구쟁점들을 검토함.
 - **(중앙정부 정책기조와의 정합성)**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
책로드맵 중 육아친화성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추진 영역의 지
역사회의 책임과 이를 위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깊음.
 - **(지표의 다양한 정책적 활용성)** 해당 지표는 상위정책과의 정합성을 갖고 지역
의 육아친화성 수준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음. 또한 육아친화
성의 개념을 데이터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 **(육아의 탈가족화와 사회적 책임)** 양육의 사회화 이론이라는 구조적 틀 안에
서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지표를 통해 강조함. 이를 위해서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 내 서비스인프라와 물리적 시설을 양육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중심으
로 재구조화함.

다. 육아친화성 측정지표의 개발

□ 육아친화성 측정지표 개발은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됨.

- **(지표구성 영역 확정)** 육아의 탈가족화를 지원하는 보육·돌봄 시설 인프라 중심의 육아 직접적 자원과 가족화를 지원하는 육아 인프라로 구역 확정함.
- **(세부지표 풀(pool) 구성)** 기존 유사 지표에 대한 검토 및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육아친화마을 지표 구성에 대한 전략방향을 도출. 이를 기반으로 가용 데이터를 검토를 통해 가용 지표 풀(pool)을 구성함.
- **(최종지표 선정)** 가용지표 풀(pool)을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1차지표와 2차지표로 분류함. 이후 해당 지표를 양육대상자의 생애주기와 및 전문가 FGI결과를 거쳐 최종지표를 선정함.

〈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 영유아 인구 천명 당 비율환산)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어린이집 시설	총합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https://www.familynet.or.kr	
	아동기 (상대지표 / 아동인구 천명 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http://www.hjy.kr/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읍면동			
육아 인프라 관련 7가지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상대지표 시 영유아+아동 총인구 1천명 비율)	공원 /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여가 /문화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광역시자체기본통계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 /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도로관리교통공단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범죄 생활안전	화재 범죄 생활안전	시군구	e지방지표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종합병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라. 지역의 육아친화성 측정 및 분석

- 최종지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합 후 각 지표별 요인분석을 한 후 요인값 분위별 등급을 통해 지자체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함
 - 1유형은 자녀의 생애주기별 육아의 직접적 자원·육아·인프라가 “상” 수준, 2유형은 “중상” 수준, 3유형은 “중” 수준, 4유형은 “중하”수준, 5유형은 “저” 수준임.

〈표 2〉 육아친화성 수준에 따른 분류표

구분	육아 직접적 자원		육아 인프라			
	영유아기	아동기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1유형	고	고	고	고	고	고
2유형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3유형	중	중	중	중	중	중
4유형	중하	중하	중하	중하	중하	중하
5유형	저	저	저	저	저	저

마. 소결

- 수도권의 절대적 규모 확충이 필요하며,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 관련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환경의 차별화된 특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육아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5.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개발

가.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 체크리스트는 마을마다 다른 여건을 구체화하고 해당 마을에 한 수요자의 체감을 반영하는 다소 주관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임.
-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첫 단계로 선행연구와 면담결과 등에서 나타난 육아친화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풀(pool)을 개발 후 각 지역별 주민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인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함.

〈그림 2〉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나.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 풀(pool) 개발

- 체크리스트는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에 바탕을 두되 육아친화마을 측정 지표와 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 육아친화마을과 관련된 요소별 정합성을 유지함.
- 체크리스트 경우 지표와는 달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중요도 등과 같은 수요자의 인식 수준과 관련된 좀 더 주관적 항목을 담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구체화함.
-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항목들은 최대한 세분화하여 포함하도록 함.
- 체크리스트 개발 시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되 가급적 면담 내용에서 나온 요구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함.

〈표 3〉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별 지표와 체크리스트(pool)의 특성 및 차원 비교

구분	지표	체크리스트(pool)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역 별 현황 진단 및 비교 • (지표특성) 시설의 존재유무, 시설 수 등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객관적 양적지표 (철학·가치, 인적네트워크 미포함) • (자료특성) 지역단위별 공공데이터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각 지역별 맞춤형 현황 진단 및 수요자체감형 요구 개선사항 도출 • (지표특성) 철학/가치, 인적네트워크, 물리적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만족도 중심의 주관적 지표 • (자료특성) 수요자 면담, 주민참여워크숍, 설문조사를 활용
철학/가치		• 포함
인적네트워크		• 포함
서비스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육아직접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분	지표	체크리스트(pool)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 • 교통/안전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 및 추가 • 교통/보행네트워크 • 치안/안전 • 행정 서비스 인프라

다.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

- 최종적으로 도출된 체크리스트 풀을 두 지역을 선정 후(인천광역시 서구, 시흥시),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함.
 - 체크리스트 도출 결과, 두 지역은 유사한 육아친화성 수준과 지역·인구·산업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체크리스트 결과가 도출되었음.

라. 소결

-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측정되어온 지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
-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인 측정지표로 고려 가능함.
-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형 숙의·토론 과정을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와 체크리스트 적용사례

가.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적용 사례

-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의 적용과 체크리스트의 적용과정을 인천 서구와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함.
- 본 연구는 각 지역별 수요자의 상황을 반영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인구·산업구조·육아친화성 수준을 갖는 수도권 지역을 선정함.
- 유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더라도 각기 다른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면 본 연구의 목적을 드러내는 데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됨.

- KICCE 육아지표를 통해 측정된 두 지역의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은 유사하였고(모두 1유형), 행정수요(영유아 수, 가임여성 수 등)를 반영한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은 시흥시는 3유형, 인천 서구는 4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적용 요구 조사

- 상기 서술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두 지역별 육아친화성 수준과 요구를 분석함.

〈표 4〉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인천 서구와 경기도 시흥시 거주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자녀의 부모 약 200명씩	
조사 시기	2019년 9월~10월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자녀 연령, 거주지, 거주 형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 등
	양육 현황	주 육아 담당자, 자녀 이용 기관, 부모의 육아 참여 정도, 양육 어려움 및 부담정도
	마을/동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마을 범위, 마을 거주 기간, 해당 마을 이사 이유,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마을 내 육아관련 시설 이용 만족도	거주 마을 인프라 평가, 인프라 이용 경험, 양육에 있어 도움된 서비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로의 요건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및 중요 정도
조사 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다. 소결

-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각 분야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평가가 두 지역이 차별화되게 나타남을 주목할 필요 있음. 다만,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고려가 필요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생애주기에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함. 현재 마을로 이사한 이유에서 일·가정 양립을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로 놓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수요자들은 육아친화적인 환경은 안전하고 자연환경이 좋고, 보육시설이 잘 마련된 곳으로 체감하고 있었음.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보육기관과 더불어 놀이터, 공원녹지의 조성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음.

7.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함.

- (1단계) 육아친화적 환경(육아 직접자원, 간접인프라)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을 통해 진단하는 과정임.
- (2단계) 육아친화마을에 담길 가치와 철학,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3단계)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KICCE 요구조사 초안'을 토대로 2단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을 구성하여 정책수요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함.
- (4단계)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함.

〈그림 3〉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1회의 진단과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성을 지닌 변화의 노력이 요구됨.
- 계획한 육아친화성 부여 방안(Plan)들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천하고(Do), 점검하고(Check),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Act) 일련의 과정이 요구됨.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마을의 범위는 구(區)단위 접근이 현실적이지만 동(洞)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야 함.
- 무엇보다 우선하여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는 구성원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기회들이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지자체가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네트워크가 기능하도록 할 때 효과적임.
- 육아친화마을 지표적용 분석결과는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시 계량적인 결과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도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라.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정부의 역할

- 중앙부처 차원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이 필수적임.
 -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며 자원을 ‘전체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절대지표의 수준이 높지만, 상대지표의 수준이 낮은 지역은 양육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향후 육아인프라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전국 지자체의 육아친화성 지표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하고, 지표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등 정책 처방을 제공함.

□ 지방정부 차원

-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육아친화지표 등급을 토대로 기초지방정부는 객관적 자료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함.
- 무엇보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조직, 인력과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제요건임.
- 주민을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수행함.
- 광역지자체는 여러 기초지자체 중에서 육아친화성 종합지표 상으로 등급이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및 정책 처방 정보 제공 등 지원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개요 및 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7명에서 2분기 0.97명, 3분기 0.95명으로 떨어져 0.97명 수준¹⁾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 방위로 추진 중이나 그 추이를 전환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모색되는 시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자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금이나 물품 제공 등의 수혜성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그 효과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작 정책의 수요자인 육아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육아지원정책들이 어떻게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역사회 자생력 생성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고려되고 있다. 저출산 기조 아래 ‘육아’는 이제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2018년 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추진 영역으로 반영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찾을 수 있다(경북매일, 2019. 10. 16. 보도²⁾). 본 연구는 이 ‘온 마을’이 무엇인지

1) 조선일보(2019. 1. 19). ‘작년 출산율 ‘0.96 쇼크’... 결국 무너진 저출산 한계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9/2019011900135.html(2019. 6. 5. 인출)

2) 경북매일(2019. 10. 16). 교육, 누가 하는가,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647>(2019. 12. 5. 인출)

를 찾아가는, 또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는 과정이다. ‘육아친화시’가 아닌 ‘육아친화마을’로 명명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육아친화(育兒親和)’ 환경이라 함은 기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와 유사하지만 연령층을 청소년에 한정된 청소년친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법에 근거한 가족친화 등과 차별성을 지닌다. 우선 육아친화환경은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보다 집중되어 있으며, 육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광범위하게 그 개념에 포함한다. 또한 육아친화환경은 아동친화나 청소년친화, 가족친화의 지표와 같이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 등을 진단하지만 육아친화환경은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인식 개선, 공동체적 지원 등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한다.

‘육아친화마을’은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강조된 것으로 ‘육아’하는 가정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 초점을 두고자 함이며, 기존에 주로 연구되어 온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기능 이외에 마을 조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육아친화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생활환경으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도시와 농산어촌의 육아환경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를 단일한 지표로 측정하여 육아친화성을 가늠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마을 단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필요도와 인프라와 환경 등의 개별성, 육아의 주체 및 대상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 때 육아친화(育兒親和)는 수요자 욕구에 기초하여야 정책 체감 향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하는 가정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발전적인 구성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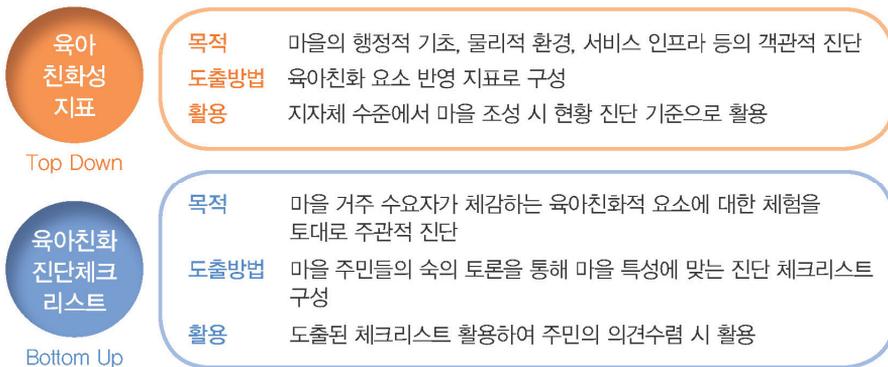
본 연구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단일 척도로의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친화적 요소를 마을에 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과정적 절차를 구현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는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를 병행하는 방

법으로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의 구성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는 지자체 수준에서 마을 조성 시 현황을 진단하여 필요도를 구체화하는 위로부터의 접근방법(Top-down)이라면,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는 마을의 특성이 반영되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라가는 형태로 주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의견수렴을 하는 도구로 아래로부터의 접근방법(Bottom-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1]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마을공동체 개념에서 더 나아가 ‘육아’를 중심으로 조망한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도모하고, 육아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역 규모별 지표 도출을 통해 향후 전국적인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개년의 연속 연구로 기획되었다. 1차년도에는 다면적인 기초조사와 현황자료 분석을 토대로 육아친화마을로의 지표 및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서 개발한 조성방안을 농어촌과 대도시 등 실제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여 육아친화마을 지표 및 조성 체계를 수정, 보완한다. 3차년도에는 개발 제안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인증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여 조성 정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간, 활동, 인적네트워크, 지원제도를 포함하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그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지표 및 관련 조성안을 설계한다. 2차년도에는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표 적용을 통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차년도에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와 모형을 수정하여 육아친화마을 지표와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3개년 연속과제로 각 연도별 연구 추진 내용은 [그림 1-2-1]과 같다.

[그림 1-2-1]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3개년 연도별 연구내용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인 1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차년도 연구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 육아친화마을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육아친화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성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 도출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협력하였다. 또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육아친화마을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을 위한 과정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2-2]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1차년도 연구내용



첫째,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육아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기본요건을 파악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외 친화마을의 구성에 대해 고찰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가족친화, 아동친화, 청소년친화 등의 유사 개념의 친화 조성 사례를 통해 이를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외 육아친화마을 사례발굴을 위해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조성사업들을 검토하였다.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네트워크, 활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는 지자체 중심의 육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과 호주 사례를 수합하고 분석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구성하였다. 육아친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지표구성 자료를 마련하고, 선행연구, 통계, 평가지표, 관련 문헌자료 분석을 토대로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으로의 요소를 구체화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하나의 조성 지표가 아닌 지역적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육아친화성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다섯째, 수요자중심 지역별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육아친화마을지표와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육아친화마을을 만들어가는 절차와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다음을 추진하였다.

첫째, 육아지원 환경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방향성과 방법, 조성방안 도출에의 시사점을 얻었다.

둘째, 가족친화, 청소년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 등의 선행 특화 도시 또는 마을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문헌자료를 정리하였다.

셋째, 온라인 검색을 통해 유사한 친화마을 사업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마을조성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사례조사

본 연구는 육아친화마을이라는 개념부터 구조화하는 연구이므로 기존의 유사 마을 조성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그로부터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육아친화마을은 아니지만 국내 지자체의 사례 중 육아에 특화된 경우를 선별하여 조사한다. 지자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중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육아친화적 요소를 찾아보았다.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마을조성에 연계 반영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모형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협력을 통해 사회혁신기업 더함³⁾의 사례를 고찰하여 육아친화마을을 위한 요구를 구체화하였다.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조합원 회의를 통해 논의된 육아기 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셋째, 일본의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사례, 육아친화적 마을의 도입 배경, 운영 프로그램, 지자체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등 조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지 전문가를 통해 사례를 수합하였다.

넷째, 호주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관련 사례를 비교 연구로 고찰하였다.

다. 연구협력(MOU) 체결 및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혁신기업 더함, 유엔 NGO 아동권리협약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정에 상호협력을 통해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개발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한 행정자료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자료 분석이 가능하며, 시군구 단위 수준에서의 지표 도출을 검토하였다.

둘째, 사회혁신기업 더함과의 협력으로 신규 주거단지 조성 시 육아친화적 요소를 도출하고 반영하는 사례를 고찰하였다.

셋째, 유엔 NGO 아동권리협약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아동권리, 가족 존중의 반영 방안을 고찰하였다.

3)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주거 개선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기업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기획·개발하고 있다(사회혁신기업 더함 홈페이지, <http://www.deoham.co.kr/about-us>, 2019. 5. 24. 인출). ‘더함’은 입주조합원을 구성한 이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의 설계와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조직하고, 정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런 협력을 기초로 2019년 7월 11일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9년 KICCE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본 연구에서 MOU를 체결한 유엔 NGO 아동권리협약연구소와 위탁연구기관이기도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사회혁신기업 더함과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발표자: Morita Akemi 교수)와 호주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발표자: 박지운 교수), 그리고 한국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로 꼽히는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위스데이 조성 사례(발표자: 사회혁신기업 더함 박성민 팀장),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사례(발표자: 본 연구 총괄 책임자, 권미경 연구위원)가 발표되었다. 발표 이후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가치 및 인프라 등 필요 요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라. 주민참여 워크숍

선행연구 분석, 문헌고찰, 전문가 인터뷰, 영유아 부모대상 심층면담 내용에 기초하여 구성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문항 풀(pool)을 구성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적용하여 시범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워크숍을 개최하여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그 도출과정은 4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연구진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풀을 가지고 다면적인 주민 참여 토론의 방식을 통해 그 마을에 적합한 리스트는 무엇인지 수렴하고자 하였다.

주민 참여워크숍은 시범지역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30여명 정도가 참여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조건을 찾아가는 속의 토론의 장이었다. 주민참여 속의 토론의 과정은 5장에 기술하였다.

마.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목적은 선정된 시범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육아친화에 대한 요구와 진단, 만족정도를 확인하여 육아친화적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함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주민 참여워크숍에서 토의를 통해 구체화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다.

1) 조사대상의 선정

도출된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적용한 시군구 대상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인천 서구와 경기도 시흥시를 1차년도 시범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두 지역은 객관적인 지표 분석 결과는 유사성을 지닌다. 이렇듯 지표상 유사한 두 개 지역에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요구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천 서구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육아정책의 주요 수요자인 영유아 자녀와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 각 207명(인천 서구), 208명(경기도 시흥시) 총 415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육아정책 수요자 만족도, 요구도 도출하여 육아친화도시 조성 시 모형의 구성과 구성요소, 운영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례자료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2) 조사개요

본 조사에서의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 <표 I-3-1>과 같다. 조사의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양육현황, 마을에 대한 인식 및 진단 및 평가, 마을 내 육아관련 시설의 인지, 이용 및 만족도,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의 요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설문지 내용으로 주민 참여워크숍에서 도출된 인천 서구와 시흥시의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로의 요건’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 2>로 첨부하였다.

<표 I-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인천 서구와 경기도 시흥시 거주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의 부모 약 200명씩	
조사 시기	2019년 9월~10월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자녀 연령, 거주지, 거주 형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 등
	양육 현황	주 육아 담당자, 자녀 이용 기관, 부부의 육아 참여 정도, 양육 어려움 및 부담정도
	마을/동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마을 범위, 마을 거주 기간, 해당 마을 이사 이유,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마을 내 육아관련 시설 이용 만족도	거주 마을 인프라 평가, 인프라 이용 경험, 양육에 있어 도움된 서비스
조사 방법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로의 요건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및 중요 정도
조사 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3) 응답자 특성

2019년 9월~10월 중 실시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415명의 특성은 다음 <표 I-3-2>와 같다. 영아와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참여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 31.8%, 400만원~600만원 47.7%, 600만원 이상 20.5%이다. 응답자의 36.1%가 맞벌이 가구이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9.9%이다.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6시간~8시간이 60.7%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하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근무 시간은 6시간~8시간이 59.7%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84.6%로 가장 많았다.

<표 I-3-2> 응답자 특성: 전체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 (415)		
자녀구분		부 하루 근무 시간	
영아	32.8 (136)	6시간 미만	1.0 (4)
유아	32.8 (136)	6시간~8시간	60.7 (252)
초등 저학년	34.5 (143)	8시간~10시간	31.8 (132)
가구 소득		10시간 초과	6.5 (27)
400만원 미만	31.8 (132)	부 하루 통근시간(편도)	
400~600만원	47.7 (198)	30분 미만	66.5 (276)
600만원 이상	20.5 (85)	30분~1시간	26.0 (108)
맞벌이 여부(1)		1시간 초과	7.5 (31)
외벌이	63.9 (265)	모 하루 근무 시간 ^{주1)}	
맞벌이	36.1 (150)	4시간 미만	10.7 (16)
맞벌이 여부(2)		4시간~6시간	11.4 (17)
부모 모두 취업	35.9 (149)	6시간~8시간	59.7 (89)
부 취업, 모 미취업	63.9 (265)	8시간~10시간	16.1 (24)
한부모 취업	0.2 (1)	10시간 초과	2.0 (3)
주택 유형		모 하루 통근시간(편도) ^{주2)}	
아파트	89.9 (373)	30분 미만	84.6 (126)
연립주택/다세대주택	7.5 (31)	30분~1시간 이하	10.7 (16)
단독주택	2.4 (10)	1시간 초과	4.7 (7)
기타	0.2 (1)		

주: 1) 전체 모 취업자 149명에 한정된 분석임

2) 전체 모 취업자 149명에 한정된 분석임

바. 심층면담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친화성의 개념 도출을 위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심층면담 질문지는 <부록 1>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심층면담자에 대한 일반적 특징은 다음 <표 I-3-3>과 같다.

<표 I-3-3> 심층면담 참석자

구분	면담자 연령	거주지	자녀 수	자녀 연령
영아부모	37세	서울 강서구	1명	16개월
	36세	서울 성북구	2명	4세, 7개월
	33세	서울 서대문구	1명	15개월
	34세	서울 마포구	2명	5세, 10개월
	32세	경기 하남시	1명	10개월
유아부모	39세	경기 일산	1명	만4세
	39세	서울 동작구	2명	만5세, 만2세
	38세	서울 서대문구	2명	만7세, 만3세
	38세	서울 서대문구	1명	만4세
초등저학년 부모	37세	서울 동작구	1명	초등학교 1학년
	42세	서울 동작구	1명	초등학교 1학년
	43세	서울 광진구	2명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35세	서울 마포구	2명	초등학교 1학년, 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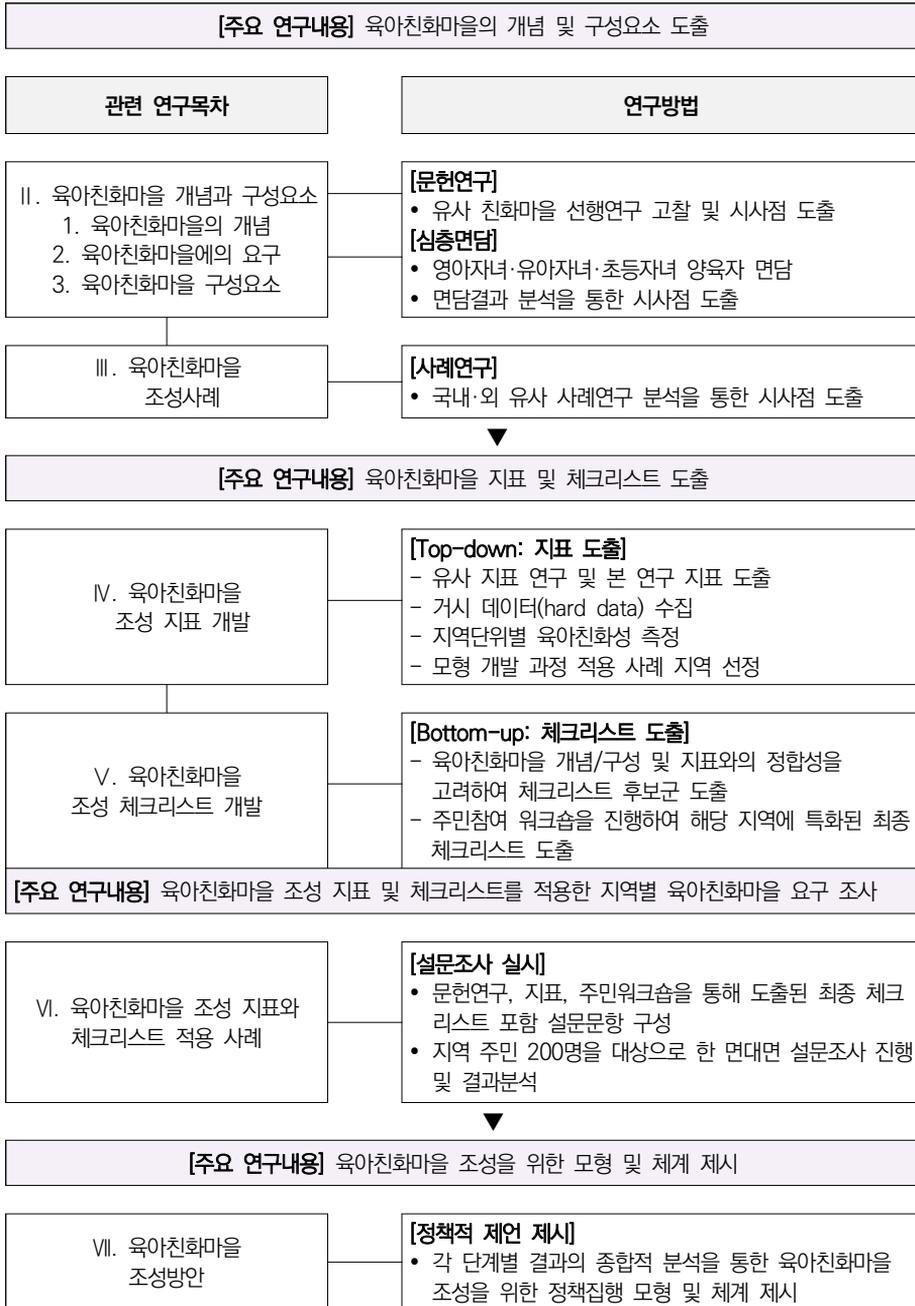
사. 정책 세미나 개최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 종료시점인 2019년 11월 28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족친화마을 선행연구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정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및 제언을 제시하였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연구개요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반영한 연구 개요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I-4-1]과 같다.

[그림 Ⅰ-4-1] 육아친화마을 개선방안 연구개요 및 범위



II

육아친화마을 개념과 구성요소

- 01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 02 육아친화마을에의 요구 및 조성 필요성
- 03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
- 04 소결

II. 육아친화마을 개념과 구성요소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육아친화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가족친화마을,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마을 등 기존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정책을 검토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육아친화마을만의 차별화된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요자체 감형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하는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의 구성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같은 배경 하에, 본 장에서는 기존에 유사한 개념인 가족친화마을, 아동친화마을, 청소년친화마을의 개념 및 조성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양육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화하고 그 안에 담길 가치와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가. 가족친화마을

1) 목적

‘가족친화마을’은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노약자 및 아동에 대한 돌봄의 기능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김도희, 2017: 92). 정부는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가족친화마을 조성 정책을 제시하였다(김도희, 2017: 92). 해당 정책은 「가족친화법」의 제정과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등 다양한 법, 제도적 기반을 바탕

으로 10년 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김소영·선보영·전미영·남지민, 2017: 2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 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말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가족과 이웃,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약화된 현대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노경혜, 2018: 136). 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인식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는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신애·진미정, 2012: 145).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전문가들이 성인남성 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가족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진미정, 2018: 346).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서 도시를 가족친화형 도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최근화·진수경, 2014: 255).

2) 개념 및 구성요소

서구에서 시작된 가족친화성이 내포된 지역사회라는 개념과 이러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이 혼합되면서 가족친화마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김도희, 2017: 94). 가족친화적이라는 의미에는 “가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이라는 의미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김도희, 2017: 94). 가족친화마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을 안에서 가족돌봄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가족, 다양한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차성란, 2010: 73).

법률에서는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한층 더 명료화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⁴⁾에서는 가족친화마을이란 “노인부양

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주제를 다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해당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김선미, 이승미, 노영주, 송혜림, 조영희 그리고 김소영(2011)은 가족친화마을을 정의할 때 공동체 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즉, 가족친화마을은 지역사회 주민조직이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돌봄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마을’이라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김선미, 2011: 30). 차성란(2010)은 살기 좋은 마을로서의 가족친화마을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이며, 좀 더 나아가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질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마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차성란, 2010: 65). 진미정(2018)에 의하면 가족친화성이란 가족을 둘러싼 환경체계가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이라는 가족기능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 일과 가정 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되도록 하는 정도이다(진미정, 2018: 345). 따라서 가족친화 지역사회란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이라는 가족기능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 일과 가정 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진미정, 2018: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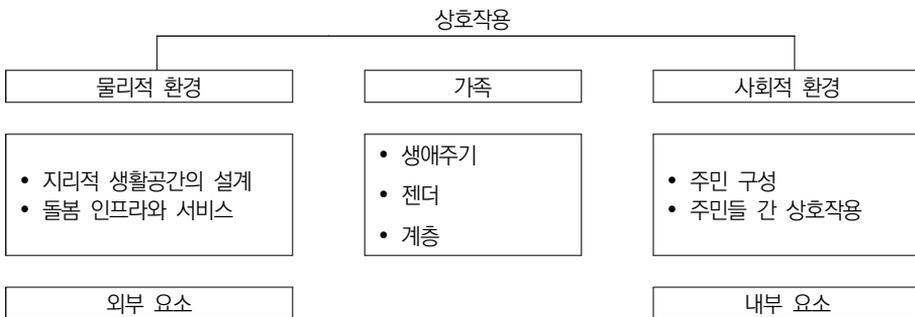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마을과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구별된 개념이다. 가족친화마을은 기존 가족이 수행해오던 돌봄의 기능을 마을 안에서 함께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성이 회복된 마을이라면,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이 같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제도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사업이 구체화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족친화마을은 해당 용어의 의미하듯, 가족 구성원을 모두 포괄하며 아동양육과 노인 등의 가족전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39호, 2016.12. 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홈페이지, [39](http://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19. 6. 20. 인출)</p>
</div>
<div data-bbox=)

반을 사회적 돌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주 돌봄 제공을 맡고 있는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같은 가족친화마을은 기능적 목적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관계 및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삶의 질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마을 안에서 돌봄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마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김도희(2017)는 가족 친화마을의 내용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를 “가족, 일정한 지역 단위, 돌봄, 공동체 의식 기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압축하여 정리하고 있다(김도희, 2017: 94). 진미정(2018)은 가족친화 지역사회는 가족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를 갖춘 거주지 중심의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진미정, 2018: 352). 물리적 환경에는 도시계획 및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돌봄 인프라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예: 영유아에게는 보육시설과 놀이공간)이 해당된다(진미정, 2018: 346). 사회적 환경에는 주민구성과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진미정, 2018: 346-347)(그림 II-1-1 참조).

[그림 II-1-1] 가족친화마을 구성요소



주: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2), p. 348’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여기서 물리적 환경 요소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공간설계 구성과 배치,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 지원되는 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양과 질(양육, 교육, 부양, 노인돌봄 등 가족관련)이 포함되고, 사회적 환경 요소에는 주민 구성과 주민 상호작용(사회자본)이 포함된다(진미정, 2018: 352). 물리적 환경 요

소 중 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는 자녀돌봄을 위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실내/실외 놀이터), 교육시설(학교, 도서관), 청소년시설(수련관, 상담시설, 아카데미) 가족 전체를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진미정, 2018: 352). 진미정(2018)은 돌봄 관련 시설은 시설의 수, 규모, 접근성 등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도 중요하다고 보았다(진미정, 2018: 352). 요컨대,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앞서 논의한 개념과 그 궤를 같이 하며 돌봄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활동”들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시설은 다시 보육·교육·청소년·복지 시설 등 양육 대상자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다.

그러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지각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유재언·진미정, 2012: 48). 이러한 배경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모델이 아닌, 지역사회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유재언·진미정, 2012: 49). 강은진, 유해미 그리고 윤지연(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 수요자의 만족도 및 요구를 반영하여 친양육적인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환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강은진 외, 2016: 252), 유재언과 진미정(201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강은진, 외, 2016: 256).

또한, 최근의 가족친화 정책은 정책대상 및 영역으로서 가족과 가족친화적 지역 환경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있다(김소영 외, 2017: 2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8년 이후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되돌아본 김소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가족 문화에 사회 구성원들과의 공존의 가치를 더한 새로운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한 가족 구성원 간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였

다(김소영 외, 2017: 88). 차성란(2010)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영역별 구성요소를 가족친화마을의 모델사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하였다.

〈표 Ⅱ-1-1〉 살기 좋은 마을의 영역별 구성요소에 따른 가족친화마을 모델 사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가족친화마을 모델에 적용
구분	구성요소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주거, 교육, 의료, 복지, 안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시설의 보행거리 내 이동/위계별 녹지 공간 •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연결망 •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 • 육아 및 노인 돌봄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마을 공동체 생활을 통한 가족내외 소통 및 관계 증진
경쟁력 있는 근로환경	기업, 근로,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환경 개선으로 인한 인구유입 • 가족 돌봄 부담 감소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 마을 환경 조성에 따라 마을 내 일자리 창출 • 가족친화적기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만족, 기업 생산성 증가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환경	문화, 예술, 경관, 환경, 위락,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가족여가시설 환경 조성 • 마을 내 여가활동을 위한 관계형성 • 보행 위주의 시설 이용을 통한 운동 효과 및 건강증진 •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출처: 행정자치부(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 연구;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p. 66에서 재인용

3) 사업 추진 개요

가) 법적·제도적 근거

가족친화마을,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근거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법」에 근거한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초기 가족정책은 약화된 가족의 기능(특히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족변화(특히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에의 대응함이 주요 목표였다(김소영 외, 2017: 10). 「가족친화법」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건강가족기본계획의 내용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가족친화마을을 통해 지원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은 ‘돌봄’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후 몇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으나 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직장 환경을 가족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관련 내용들이 주로 추가되었다(김소영 외, 2017: 13).

나) 추진 경과 및 내용

가족친화마을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추진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가족친화마을 조성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김소영 외, 2017: 14).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였던 시기에는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계획안에 가족형 모델로 포함시켰다(김소영 외, 2017: 21).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원도 영월, 충북 논산, 전남 장흥 등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김소영 외, 2017: 14).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해당 사업의 목적은 가족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의 구성에 좀 더 방점이 찍혔다(관계부처 합동, 2008: 18, 김소영 외, 2017: 14 재인용). 이러한 내용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판에 ‘나눔과 통합의 가족친화마을 구성’이라는 신규 과제 형식으로 제안되고 있다(김소영 외, 2017: 14).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자조모임·활동가·기업 등을 연계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김소영 외, 2017: 14-15).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지속적인 추진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가족친화마을 조성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김소영 외, 2017: 15).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공동체적 돌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는 계기는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김소영 외, 2017: 15).

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건강가족기본계획이 지속적으로 포함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마을 조성이 필요성이나 모델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사회 내에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출산과 양육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소영 외, 2017: 15).

4) 현황 및 평가

가) 연구용역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3년(2006년-2009년 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06. 7. 여성가족부),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07. 12. 여성가족부),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09. 보건복지가족부)가 산출되었다(김선미 외, 2011: 56).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영월, 논산, 장흥 지역에 '가족형' 마을만들기 라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한마을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09. 보건복지가족부)하여 총 6개 지자체에서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김선미 외, 2011: 56).

나) 평가 및 실태조사

대표적인 가족친화 마을 촉진 시책 중 하나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실태조사는 마을의 가족 친화적 요소를 평가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3년 마다 시행되며, 물리적 환경과 시설지표 중심으로 총 3차례(2009년, 2012년, 2015년) 이루어졌다(김소영 외, 2017: 16). 가족친화적 환경은 대체로 가족의 기능 및 활동(돌봄, 여가)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제 및 행정체계 현황, 생활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쾌적성 및 안정성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주로 물리적 환경과 시설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해왔다(김소영 외, 2017: 16). 그러나 지나친 시설지표 중심의 조사로 인해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실제적 욕구와 다양한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며, 지역사회별로 다른 가족의 상황과 욕구 또한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소영 외, 2017: 20).

5) 구축 사례

2006년 12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형 모델'로 강원도 영월, 충북 논산, 전

남 장흥 3곳을 선정하여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김선미 외, 2011: 56). 2009년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09, 보건복지부)을 시행하고, 6개 지자체에서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 운영(김선미 외, 2011: 56)하였고, 2011년 가족친화 마을 시범사업 실시와 8개의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 운영하였다(김선미 외, 2011: 60). 울산광역시에서는 2013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김도희, 2017: 92).

나. 아동친화마을

1)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화는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고 놀이 공간을 축소하는 등 가족 내에서 취약한 아동의 권리를 배제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친화수준을 진단하고 관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제도이다(이미화·이윤진·박상진, 2018: 11-12). 이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지역사회에 공유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구현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실현 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김용수, 2017: 486).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아동관을 수립하여, 아동의 시민권적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의 과정이다(박세경, 2016. 3: 62). 박세경(2016. 3)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 두 주체간의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동 스스로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생생한 의견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박세경, 2016. 3: 62).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8~17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애·이재연, 2011: 65). 동일 연구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고 기반시설, 공공 시설이 양호한 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애·이재연, 2011: 66). 실제 아동친화도시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도 있었다(김웅수, 2017).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김웅수, 2017: 485).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웅수, 2017: 485).

2) 개념 및 구성요소

한국에서의 아동친화도시란 UN 산하 민간 비영리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의미를 지닌다(이미화 외, 2018: 18).

그렇다면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이미화 외, 2018: 12). 해당 협약은 1996년 개최된 UN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그 후 2000년 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니세프 리서치 센터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이미화 외, 2018: 12). 현재 30개 나라, 1,300여개 도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을 받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이미화 외, 2018: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권리가 지역의 공공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환경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가 잘 알려지고 적용되고 있으

며, 아동이 아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결정에 주체가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박금식·박지영, 2018: 14). 홍승애(2013)는 아동친화도시를 '아동,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써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갖추어진 사회'로 정의하였다(홍승애, 2013: 17). 이미화 등(2018)은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환경이 구축된 도시'로 재정의 하였다(이미화 외, 2018: 18).

3) 사업 추진 개요

가) 법적·제도적 근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의미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 및 제도 수립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유니세프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이 아동친화도시의 법적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표 II-1-2〉 UN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4대 기본권

구분	내용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2019. 6. 16. 인출)

현재 우리나라에선 광역과 기초를 포함하여 전국에 7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8. 1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의 10가지 원칙을 다음 <표 II-1-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

구분	내용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 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관련 예산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한다.
정기적인 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아동권리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한다.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주: 홈페이지의 내용을 표 형식을 구성함.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a, https://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2019. 4. 28. 인출)

나) 추진 경과 및 내용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역사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UN Habitat II)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좋은 거버넌스의 궁극적 지표’임을 선언했다(박금식·박지영, 2018: 18). 2000년 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니세프 리서치센터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확산되었다(이미화 외, 2018: 12).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평가, 인정하고 있다(박금식·하정화·손주영·박지영, 2017: 21). 한편, 한국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우리나라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2019. 12. 6. 인출⁵⁾).

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2019. 12. 6. 인출)

4) 인증현황 및 평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박금식·박지영, 2018: 19). 국내의 경우,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다. 현재 33개 지역사회가 인증을 받았으며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2019. 12. 6. 인출)⁶⁾. 또한 2015년 전국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 및 발족하여 각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8: 4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협의회회의의 기능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이행 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교환하며 시민 교육을 촉진하는 일 등이다(박금식·박지영, 2018: 20).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평가-심사-인증완료-재인증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선정한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평가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이미화 외, 2018: 37).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된 지자체는 2년 이내에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재평가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미화 외, 2018: 37).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시설 및 도로변 등에 아동친화도시임을 알리는 표지를 세울 수 있다(이미화 외, 2018: 37).

5) 구축 사례

서울시 성북구는 2013년 11월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2019. 12. 6 인출)⁷⁾.

전북 군산시 2015년 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오해섭·김세광·정윤미, 2015: 164), 2016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2019. 12. 6. 인출)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2019. 12. 6. 인출)

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2019. 12. 6. 인출)

전북 완주군은 2014년 전국 첫 농촌형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 2016년 1월 전국 두 번째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이미화 외, 2018: 68). 인증 이후에는 각종 민간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협력도시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를 민관 협력 차원에서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미화 외, 2018: 69).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15년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이미화 외, 2018: 61). 2015년부터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2016년 2월에는 관련하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여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여러 아동 참여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6년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이미화 외, 2018: 61).

서울시 송파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최초로 2015년 1월 1일 아동청소년 전담부서인 ‘청소년과’를 신설한 바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동청소년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8: 76). 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6년 12월 인증을 받는 데 기여하였다(이미화 외, 2018: 76).

위의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33개 지역사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a, 2019. 4. 28. 인출).

다. 청소년친화마을

1) 목적

유니세프에 의해 시작된 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은 자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예: 대도시의 복잡한 교통, 환경오염, 녹지 공간의 부족, 유해환경 증가,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심화)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 있다(황옥경·김영지, 2011: 3). 청소년친화마을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살피며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황옥경·김영지, 2011: 95).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을 제시한 황옥경과 김영지(2011)의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건강한 지역주민,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충분한 자원과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 청소년 친화공간 확보, 청소년 참여 촉진 등을 청소년 친화마을 목표로 제시하였다(황옥경·김영지, 2011: 95-96). 또한, 이 과정에서 기본요건으로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청소년 영향평가, 예산확보, 청소년실태 보고서를 제시하였다(황옥경·김영지, 2011: 98-10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은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5가지와 세부영역 및 평가지표로 구성된다(황옥경·김영지, 2011: 102).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추진단계는 계획수립과 실행단계, 관리 및 평가단계를 통하여 수행하며(황옥경·김영지, 2011: 117-118),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청소년 친화마을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며(황옥경·김영지, 2011: 119)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황옥경·김영지, 2011: 122) 주장하였다.

2) 개념 및 구성요소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이다(UNICEF, 2005; 황옥경·김영지, 2011: 16 재인용). 황옥경과 김영지(2011)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의 기본 이념은 현행 청소년 정책의 이념과 동일한 범주에서 설정되어야 정책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황옥경·김영지, 2011: 16).

청소년 친화마을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건강한 가족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할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황옥경·김영지, 2011: 16). 이와 같은 이념을 근간으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은 ‘통합성’, ‘보편성’, ‘청소년 중심’을 설정하

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구분	내용
통합성	-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구현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가족, 여성정책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법정부적으로 교육, 고용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정책영역과의 연계발전
보편성 선별성 균형	- 모든 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의 역량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양성 - 성, 인종, 문화, 지역, 계층 등에 관계없이 소외,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망 구축 - 다양한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부모 및 양육자, 교사, 서비스 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의 요구를 충족 - 이 과정에서 특별한 요구 상황에 직면한 빈곤가정의 청소년, 폭력과 범죄 위험의 청소년 등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
청소년 중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와 상황 중심에서 고려 - 이 과정에서 청소년,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중간수요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층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

주: 황옥경·김영지(2011).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6-17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는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청소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충분한 자원과 공평한 발달기회 제공, 청소년 친화공간의 확보, 청소년의 참여 촉진으로 요약된다(황옥경·김영지, 2011: 95-97).

3) 사업 추진 개요

가) 법적·제도적 근거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은 준비단계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수행된 상태이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4) 구축 사례

실제로 ‘청소년 친화마을’,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거나 구축된 마을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도출: 기존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육아친화마을 특성

가족친화·아동친화·청소년 친화마을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마을 안에서 해당 정책 혹은 사업을 목표로 하고 대상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중점 대상 별로 해당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차별화된다. 가족친화마을의 경우는 가족의 돌봄 기능의 사회화라는 뚜렷한 기능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의 아동의 권리와 참여 보장하고 예산, 조례, 인력 등을 행정적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청소년친화마을의 경우 아동친화마을과 목적과 제도적 주문이 유사하나 그 대상을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아친화마을 또한 기존 마을과 유사하게 육아의 대상이 되는 자녀와 그 자녀를 둘러싼 양육자(혹은 가족)들이 마을 안에서 행복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그 대상이 가족이니 만큼 가족친화, 아동친화, 청소년친화의 마을의 대상 범위와 완전히 배타적일수는 없다. 그러나 차별화되는 지점은 육아친화마을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육아”라는 행위를 위해 특화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마을,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마을은 가족과 아동,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위해 특화되는 것과 대조가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친화마을의 육아친화성은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며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인 부모권과 노동권에 좀 더 초점을 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권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간적 이용성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육아친화 환경’이라 함은 기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와 유사하지만 연령층을 청소년에 한정된 청소년친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법에 근거한 가족친화 등과 차별된다. 즉 육아친화마을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그 환경 안에 배태된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며 해당 환경은 직접 “육아”라는 행위를 수행하는 대상자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친화환경은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육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수렴된 결과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초등 저학년까지로 국한하려 한다.

둘째, 육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광범위하게 그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교육기관,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 놀이터와 각종 문화시설 등 인프라, 행정서비스, 도시 환경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육아친화환경은 아동친화나 청소년친화, 가족친화의 지표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 등에 집중된 것과 일치하면서도 육아친화환경은 지역사회 내 육아에 대한 가치 부여와 배려,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육아 지원제도, 지원적 인적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표 II-1-5〉 각종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구분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가족친화 ¹⁾	아동친화 ²⁾	청소년친화 ³⁾	육아친화
정책대상	가족	아동	청소년	아동, 자녀를 기르는 가족
개념	가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주인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도시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프라와 물리적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목적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지역사회에 공유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조성	육아하기 좋고,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이 행복한 마을 조성
법적·제도적 근거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법	UN아동권리협약	*별도 근거는 없음	*별도 근거는 없음
평가 및 실태조사	2009년, 2012년, 2015년 실태조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구분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가족친화 ¹⁾	아동친화 ²⁾	청소년친화 ³⁾	육아친화
구축 사례	울산시 등	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서울 송파구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주: 1) II 장 1절(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의 '가. 가족친화마을'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2) II 장 1절(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의 '나. 아동친화마을'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3) II 장 1절(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의 '다. 청소년친화마을'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2) 육아친화마을 개념 정의

이상의 유사한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성,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육아친화성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⁸⁾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육아친화마을

본 연구에서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님'을 의미한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육아친화마을 조성’이란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에서의 온 마을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그런 마을이 지니는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과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적용해가는 과정이다.

2. 육아친화마을에의 요구 및 조성 필요성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대상 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육아친화마을의 요구를 구체화하였다.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범위와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이유,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양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 육아지원시설이나 기관 이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부모들의 특성은 1장에 제시한 <표 I-3-3>과 같다.

가. 마을의 범위

양육친화적 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자가 생각하는 마을의 범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기르면서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로 이동 가능한 거리,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차로 접근하는 인근 동 단위, 구 단위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주요 이동 수단에 따라 변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영아기에는 유모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마을의 범위라고 생각하다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활동범위가 확장되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이에 따라 ‘마을’의 인식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학교 친구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활동 반경이 구성됨에 따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조어로 ‘초폼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유아와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저는 원래는 동네가 넓은 개념이었는데 애를 딱 낳다보니까 내가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기까지가 딱 우리 동네인거예요 저한테는. 뭔가 유모차로 갈 수 없는 거리이거나 위치상 가까운 계단을 올라가야한다면가 하면 거기는 이제 내 동네라는 느낌이...(영아 부모 2).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서 외출은 좋아하는데 막상 차에 갇혀 있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보로 유모차로 이동할 수 있는, 제 체력이 유모차 끌고 20분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가 저의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영아 부모 3).

이제 좀 더 크면 애한테 경험시켜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어린이 박물관을 간다던지 전시회를 간다던지 할 수 있잖아요. 주차를 위한 공간이 또 있어야 돼요 좀. 유모차 꺼내고 짐 꺼내고 애기 꺼내고, 카시트에서 꺼내주고 하면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영아 부모 1).

지하철 한 네 정거장 정도. 제가 걷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와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느낌이면 저희 마을이란 생각이 들고...(유아 부모 1).

제가 주로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반경이 버스로 두 정거장 정도?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식점이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근데 사실 둘 데리고 이 질문 보면서 둘을 같이 데리고 그 정도 돌아다니기에도 사실은 약간 먼 느낌이 조금 있어요. 첫째 유아 기준에서는 그냥 걸어가거나 킥보드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도서관도 이용하기엔 괜찮은데, 동생까지 데리고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다니려면 조금 먼 느낌이 있더라고요(유아 부모 2).

15분, 20분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가 우리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다 종로 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구 정도?(유아 부모 4).

만 7세 초등 1학년 여자 아이랑 만 4세 여자 아이 엄마인데요.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게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랑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 어릴 때는 많이 못 걸었잖아요. 유모차 끌고 다니고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산책도 잘 하고 잘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까지가 저희 마을이라고 생각해요.(초등 부모 3).

큰 애가 오히려 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 주변 정도가 저는 그 마을의 의미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애 학교 보내고 나서는 주말에 어딜 못 나가거든요. 친구랑 놀겠다고 해서 오히려 버스 타고 전혀 안 다니는데(초등 부모 1).

저도 그 정도. 걸어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초등 부모 2).

또한 행정적, 공간적 범위의 마을 뿐 아니라 마을의 의미에는 편안함과 안전감을 느끼는 심리적 거리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마을의 개념도 있음이다.

저는 딱 마을이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 자체도 마을 같지는 않아요. 낯설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공동 육아를 참여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OO에서 장을 보는데 거기 가면 만나는 사람들? 도서관이 좀 많이 있는 동네인데, 자주 가면 얼굴이 익잖아요. 작은 도서관 마을 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 정도가 저한테 마을 같은 느낌이 들어요(초등 부모 3).

나. 현재 동네로 이사한 이유

육아 중인 부모들이 현재의 마을로 이사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결혼하고 거주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육아보다는 남편의 회사 인근지역으로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하였다. 영아 자녀를 두면서는 친정, 시댁 근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는 양육이 서툰 시기 확대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보다는 자녀의 양육에 좋은 환경을 고려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교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거주지의 선택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의 요건 또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저는 제 모든 생활근거지가 다 OO에 있는데 남편 회사만 믿고, 남편 회사 때문에 다 같이 이사를 온 거죠.(영아 부모 4)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영아 부모 5)

저는 OO구가 친정 근처였고 계속 살았었고 너무 좋았는데, 신랑 회사가 갑자기 OO으로 이전을 했고...(유아 부모 1).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시댁도 이쪽에 있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OO에서 살게 됐는데...(초등 부모 2).

저는 신혼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정착을 했어요. 아이 아빠 직장이 그쪽이어서 신랑이 편한 곳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살게 됐어요(초등 부모 1).

원래 남편 직장 옆에 살다가 공동 육아하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원체 혼자 독박 육아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공동 육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도 되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어서 이사한 후로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신혼 때는 남편 위주였는데 이제 아이들 생기니까...(초등 부모 3).

이번에 학교 가면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곳을 찾다가 저의 직장이나 시부모님이나 친정엄마랑 더 멀어지지만... 근데 초등학교에 맞춰서 갔는데 땀 공간이 많으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산책을 하면서 뛰어노는 게 가능해지고,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안 해도 그냥 앞에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아이들은 즐겁더라고요(초등 부모 5).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학습과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학교 중심으로 거주지가 정해지고, 초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의 학군까지 고려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데 저의 고민은 여기서 '학군'인 거예요. 저는 요 친구들이 그대로 올라갔으면 다 같이 이사 안 가기로 약속하면 좋겠는데, 욕심 있는 엄마들은 떠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학군을 찾아서, 좋은 학원이 있는 데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유아 부모 3).

살다보니까 '어 여기가 학군이 좋다' 그래서 소문이 나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살고 있는 상태고요(초등 부모 2).

아이가 좀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는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특히 여아가 갈만한 데가 없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부모들의 관계나 아이의 관계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쪽 정착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초등 부모 4).

다.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1) 육아, 아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많아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고, 아이와 함께 들어가면 눈치를 주거나 아이를 위한 의자가 없어 이용의 불편함이 있다.

방문하려고 전화를 하면 노키즈존이 진짜 많은 거예요 거의. 요즘 유행하는 카페 그런데 가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노키즈존이 많아서 아이가 없는 시간에 잠깐 갔다오던지 아이가 있으면 못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가면 대놓고 싫어하는 데도 있고 아이 의자가 설치 안 되어있는 곳도 너무 많고...(유아 부모 2).

아이를 데리고 커피 한잔 잠깐 뭐 10분 마시려고 카페에 딱 들어가면 나를 딱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재가 소리 지르나 안 지르나 봐야지, 재가 우나 안 우나 봐야지, 막 이런 눈빛. 그니까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굵신거리게 되고 그럴 때 스스로 슬퍼드라고요(영아 부모 3).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 아무도 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애랑 어딜 가면 반기질 않고... 노키즈존, 요즘 노보이존이 있어요. 딸은 되고 아들은 안 됩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저희 애가 막 왁자지껄하는 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면 죄인처럼 '조용히 해, 뛰지마.'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문화, 너무 힘듭니다(유아 부모 3).

아이의 육아과정인데 기저귀 같이 등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 때론 민망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니 개도 저기서 싸도 뭐라고 안하는데 더럽다고 생각 안하고, 버리면 되는데. 우리 애는 기저귀를 가는 게, 심지어 오줌만 갈아도 사람들이 불쾌해서 쳐다보고 하니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재는 저기서 싸는데 사람인데 왜 더 안 되는 거지?(영아 부모 1)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 기관이 있고요. ‘애들 다 그런 거잖아요’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훨씬 다르죠. 격려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키운다는 생각이 들죠(초등 부모 3).

2)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병원 등 의료 기관, 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여 아이 기르는 데 필요한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유모차를 끌고 가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 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큰 병원이 하나도 없고, 혹시나...새벽에 아팠을 때 좀 걱정이기도 하고, 큰 병원 말고 작은 소아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영아 부모 4).

저는 예전에 살던 데가 일단 걸어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곳에 소아가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영아 부모 2).

앞에 나가면 유모차 끌기도 길이 안 좋고 정말 비포장도 많고...(영아 부모 5).

전지도 없고 공연도 없고 특히나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연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연 일정을 한번 쪽 봤거든요. 혹시 있을까 해서...(영아 부모 4).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 맞벌이 가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돌봄을 이유로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초등 저학년 대상 다양한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에의 요구가 많았다.

아이가 초등에 갔더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 돌봄 공백이 확 생기는 거예요. 유치원은 그래도 어쨌든 5,6시까지 봐주셨으니까. 근데 학교는 1,2시에 마치니까. 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가 돌봄 교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섭대요. 그러다보니 돌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갈 수 있는 영어, 끝나고 미술, 끝나면 피아노 그러면 딱 6시에 마쳐가지고 6시에 끝나서 픽업해서 올 수 있는...(초등 부모 2).

자유롭게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학원으로 계속 안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 엄마들 사이에서 ‘저기 보내라. 싸고 좋다.’ 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 애들 픽업해서 병설유치원 다녔는데 1시에 데려가서 4시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시간을 때우긴 때워야 하는데, 그런 공공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육 개념에서(초등 부모 3).

사실 유아까지는 (돌봄 기관 및 서비스가) 좀 있어요.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유아 숲 체험장. 이런 것들이 사실 영유아 위주로는 많이 되어있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면 사실상 이용, 그러니까 돌봄 개념인지 교육 개념인지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좀 끊기는 느낌?(초등 부모 2).

그런 기관이 대부분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OO구. 아니면 OO시. 이런 정부기관은 저렴하고요. 안정적인 건물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초등 부모 3).

3) 안전하지 못한 환경

성인들을 위한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아이들을 배려한 환경이 아니어서 노상 흡연이 많아 아이와 돌아다니기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성인을 위한 지역과 육아친화적 환경은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이 되면서 활동성이 증가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 마을의 안전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저는 그때 000 근처에 살았어서 카페 거리 조성한 쪽에 쪽 있었는데 일단 도로에서 카페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상으로 흡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돌아다닐 수가 없고. 주말에 플라마켓 같은 거 짝 열리는데 거기 사이를 유모차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영아 부모 2)

확실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유아 때는 보호자가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일단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알아서 걸어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초품아가 얘기가 나온 게, 엄마가 문만 열고 나가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초등 부모 4).

주거 단지의 환경이 큰 도로와 가깝고, 놀이터가 낙후되어 위험한 환경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양육이 방해된다는 지적이다.

차가 옆으로 계속 달리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안 좋은 점이 많고, 놀이터도 되게 낙후되어 있고. 놀이터 가려 그러면 언덕을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단점들

이 있어요(영아 부모 5).

아기가 걸어 다니는데... 이제 딱 단지 나가면 바로 도로거든요. ... 남자를 키우다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보였고 실제로 몇 차례 사고도 있었어요. 애기 사고가 몇 번 있어가지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영아 부모 2)

그 놀이터도 조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 놀이터에서 튀어나가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게 좀 많이 있었었어요(영아 부모 2).

4)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부담

자녀가 유아,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된 면담의 내용이 학습으로 수렴되었다. 특히 과도한 사교육이나, 교육열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담스럽지만 주류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힘들었고 이런 건 없는데 대신에 주위에서 교육이 너무 치열하니까. 특히 동네에서도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애가 숙제하다가 잠들고, 제 마음은 숙제를 빨리하고 남는 시간에 엄마랑 대화도 하고 같이 좀 놀자 그런데 결국은 숙제하고 잠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게 제일 스트레스예요(초등 부모 2).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다 같이 영어 공부를 안 하기로 약속하면 좋겠대요. 그럼 자기도 안 하겠대요.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게 싫어서 뭐를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학군이 뭐라고 다 같이 뭐 우리가 다 강남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목동에 가서 살 수는 없고...(유아 부모 4).

만나서 얘기해보면 1학년도 뭐 안 시키냐고 저만 안 시키고 있는데, 불안하긴 하지만 또 지금도 되게 바쁜데 대체 저 아이들은 저 학원들을 다 다닐까 궁금하긴 하거든요...이게 어린 이집 묶임으로 공동체가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기를 쓰고 정보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게 이제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초등 부모 1).

그 메인에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엄마 친구를 애들 친구로 맺어주는 엄마들이 문화를 주도해요. 학원을 보내고. 맞벌이 엄마들이 거기에 끼여지지 못해요. 친구를 사귀려면 6,7세도 학원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학원이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안돼요(유아 부모 4).

엄마들의 그런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가끔 듣는 말이 너는 그러면 아이를 그런 main stream에 안 집어넣을 거냐, 지금 안 들어오면 나중에 너의 아이는 공부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요(유아 부모 1).

그렇지 않아도 길게 봤을 때는 다른 길로 더 행복한 친구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많고, 공부를 그때는 안 했지만 뒤늦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내가 믿는 가치가 이건데 애가 정말 그렇게 될까 했는데, 딱 초등학교 가는 순간부터 엄청 흔들리고 힘들긴 한데(유아 부모 3).

라. 양육에 도움이 된 시설 및 기관

1) 공원, 키즈카페(Kids cafe)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근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 공원이 육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의 변화가 자녀와 이용하는 공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OO공원. 공원을 진짜 제일 많이 이용했어요. 남자 아이니까 아빠랑 같이 나가서 실내 시설은 많이 안 이용한 것 같아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좀 어렵긴 했지만(유아 부모 1).

저희는 한강. 미세먼지만 없으면 밖에서 한강공원을 자주 이용했어요. 먼지가 없으면...그런데 너무 오래 못 뛰어놀았다 하면 키즈카페 가는 거죠(유아 부모 2).

영아 때 놀던 키즈카페랑 좀 달라요. 유아가 가는 데는. 좀 크게 트램펄린이 있고 징검다리 같은 것도 흔들다리로 엄청 큰 데가 많아요. 근데 되게 비싸요(유아 부모 4).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지가 양육지원의 관건이라고 하였다. 어린이집 입소 가능성 및 접근성이 중요하다.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바로 바로 연락오고...(영아 부모 5).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부모와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저희 동네에 000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그런데 시설에 일단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가서 거기 계단 다 거어다니고 다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영아 부모 3).

4) 도서관

자녀를 양육하면서 도서관은 많이 이용되는 공간이다.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규모가 작더라도 근거리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제가 느낀 게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보로 가능하지 않으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이 조금 작은 규모로 가깝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유아 부모 1).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은 엄마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자체 도서관 있죠? 제가 애들 데려가면 봉사활동으로 종이접기도 알려주고 서로 서로 같이 키운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다음에 색종이를 많이 가져오면 더 많이 알려 주겠다 그런 곳이 있을 때 그럴 때 막 '살기 좋은 마을이다'는 마음이 들고...(초등 부모 3).

최근 공공 기관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았다.

요즘에 (공공서비스가) 뭔가 발전된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OO구 통합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디 하나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책이 동사무소로 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책을 빌릴 수가 있어요. 또 북스타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기가 태어나서 몇 세까지 책을 보내준다고. 저희 아이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초등 부모 1).

5)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비용을 줄여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되어 장난감 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아이가 한 장난감을 몇 달 동안 갖고 놀지 않잖아요. 딱 2주 갖고 놀면 질리니까 그때 딱 처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영아 부모 3).

장난감도서관이 구마다 있어요. 그래서 000 살 때 구청에 가서... 그것도 차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게 큰 장난감 가지고 주로 큰 장난감을 많이 빌리긴 했거든요. 작은 장난감은 입에 좀 많이 넣게 되고 그러니까(영아 부모 1).

저희 동네 장난감 대여하는 곳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영아 부모 3).

000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시설이 있는데 되게 잘 되어있어요. 아이들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게 있고 장난감 대여도 해주고 해서,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천원이 안 됐던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영아 부모 3).

6) 대형쇼핑몰

뜻밖으로 영아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제시한 곳이 대형쇼핑몰이었다. 대형쇼핑몰은 날씨,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장소이며, 또래 부모들이 많이 모여 서로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가 마련되어 있어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날씨 영향을 안 받아서 일단(영아 부모 4).

그리고 수유실이나 기저귀 너무 중요해서... 애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울더라도 별로 눈치가 안 보이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엄마들이 많으면 확실히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다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서로 보이니까(영아 부모 2).

마. 육아지원 시설 및 기관 이용 시 어려움

1) 안전성에의 우려

이용 시설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새 건물일 경우,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지가 불명확한 점을 들었다.

안에 내부 자재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냄새가 아직 좀 많이 나고 가면 어른인 나도 머리가 아픈데 아이들도 머리가 좀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고...(영아 부모 3).

2) 이용 기회 부족

시설 및 서비스가 있지만 수요자에 비해 그 이용기회가 많지 않아 대기하는 기간이 길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육아지원시설의 이용 시 월령, 시간, 인원 등의 제한 기준이 융통적이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이용시간이 실수요와 맞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장난감 도서관도 아직 이용 못해봤고요. 시간제 보육 그것도 계속 안 되다가 2019년 4월인가 3월인가 그때 들어서 처음 000센터 안에서만, 00시 전체에서 그걸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지금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거예요. 분명히 아이 키우는 집이 많을텐데 그걸 늘릴 계획이 있는지...(영아 부모 4).

000안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키즈카페 같은 게 있는데 월령제한이 18개월 이상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애가 놀기 너무 좋은, 돌 이전 아이도 놀 수 있는데 입장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영아 부모 3).

000육아종합지원센터도 되게 좋은데 거기는 시간제한, 한 시간에 인원제한, 이런 게 있어서...(영아 부모 1).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5시부터 애들이 좋아할만한 시설은 다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세요. 장난감 대여도 그렇고 키즈카페도 그렇고. 사실은 엄마들이 4시에 아이들 하원 시키고 그 쯤이 피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아 부모 3).

3) 이용자에 대한 배려 부족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작은 크기의 문 하나로만 되어 있어, 짐이 많은 어머니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 등 기관 시설이 수요자들이 실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비 오는 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갔는데... 문이 자동문이 아니고 저는 그 짐을 들고, 걷지 못하는 애와 유모차를 어깨에 메고 짐을 들고 킁킁거리면서 가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동문이 왜 아닌지 너무 답답하고...(영아 부모 3).

장난감을 실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어쩔거나 애들 장난감이 엄청 큰 것도 되게 많은데...아니면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는 택배 라든지 배달을 하던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영아 부모 2)

저는 독박이어서 집에 혼자 있으면 갈 수 없어요. 거기를 애 데리고 간다는게...그리고 한번 마음잡고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 빌리려는 장난감이 없는거죠. 인기 있는 장난감은 이미 없는 거죠(영아 부모 3).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이들을 위한 배려와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파트 놀이터도 어른들이 많이 사시다보니까 8시 이후로는 못 놀게 하고 몇시부터 놀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아 시끄러우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애들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

이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 되면 들어가야 하니까...(초등 부모 4).

장난감 빌리는 데는 써 있어요. 거기서 놀면 안 된다고. 애기를 데리고 거기 갔어 그럼 애기가 타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영아 부모 1).

수요자 친화적인 부모 교육 및 행사가 필요하다. 주요 이용자인 부모들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모교육 같은 거를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려고 하면 꼭 아이를 동반하면 불편한 상황이거나 아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럼 아이를 봐주거나 할 수 있는 게 같이 동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해도(영아 부모 3).

요즘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그 시간에 애를 어디다 두지,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7시에 오라고 해서 누가 가지? 애들 잘 시간이고 밥 먹을 시간이고(영아 부모 2).

그런 거를 하실 때 엄마들도 엄마들이 확실히 아이들을 많이 돌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빠들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영아 부모 4).

3.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대상 면담, 육아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을 도모하는 기업담당자, 입주민과의 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육아친화적 마을이 지녀야 할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및 물리적인 환경, 지원적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 철학과 가치

1) 아이,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육아친화적 마을은 마을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歡待)가 필요하다. 육아를 존중하고,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에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층간소음의 문제, 노키즈존 등의 문제로 표출되는 현상 안에 내재된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이 저는, 중요한 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환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 노키즈존...(유아 부모 3)

제가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 게 환대를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어디 가려고 해도,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는 사회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조금만 아이가 시끄러워도 긴장되고 그러는데 정말로 환대해주는...(유아 부모 3)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마인드가 없고 같이 키운다는 마인드가 없고 너무 우리 아이만 너무 귀하고 아니면 네 애는 너의 것, 네가 알아서 조용히 시켜, 못 뛰게 해, 들어오지 마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쁘면 남의 아이도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는 우리 아이만 예쁜 거예요... 모든 아이가 귀하고 같이 키우는 문화면 좋겠다 생각해요(유아 부모 3).

2) 아이다움을 인정

아이와 부모를 위해 아이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서투르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기다려주는 문화. 천천히 하는 문화. 간절해요(영아 부모 3)

저도 보면 아이를 아이답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활발하게 놀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큰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는 건 확실히 규제를 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분위기?(초등 부모 4)

결국 약간 여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들 그게 너무 없어요. 빨리 해야 하니까 빨리 가야하고, 자기가 먼저 가야되고, 피해보기 싫고...(영아 부모 2)

애기의 특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은 원래 소리 지르고 애들은 원래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애들은 원래 느리고 그런 거요(영아 부모 4).

근데 애가 아장아장 걷거나 잘 걸어도 애들은 탄칭피면서 걷거든요. 근데 깜빡깜빡하면 빵빵하고 난리 나요.(영아 부모 1)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되게 눈치 많이 보여서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봤는데 당연히 애가 답답하니까, 아기 띠에 묶여있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창피하고 중간에 내렸다 타고 지하철을 심지어(영아 부모 3).

밑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안 뛰는 게 비정상이지.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애들이 시끄럽지 않냐 여쭙보면 그런 얘기 해주시고 좋은 이웃들 만나서 그래도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유아 부모 2).

3)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

아이 뿐 아니라 아이 엄마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아이와 같이 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아이 기르는 가족들도 아이 기르지 않는 입장을 고려하여 함께 배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애기엄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애를 데리고 가면 엄마도 어쨌든 같이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에서 떠나서 혼자서 온전히 성인으로서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랑 있으면, 아이 엄마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영아 부모 2).

유모차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편하려고 한다기보다 짐이 되게 많아요. 애기를 안고 짐을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짐을 다 싣고 애를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건데 그런 부분들 거의 배려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늘 욕먹을 각오하고 다니는(영아 부모 3)

‘배려할 거예요’ 할 때 저는 양쪽 측면을 다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비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배려하고 너희도 배려하자 양측의 것을 꼭 캠페인에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유아 부모 4).

그리고 외국 식당 가면 키즈 키트 같은 걸 주더라고요. 색칠할 수 있고 엄마 먹을 때, 키즈 카페 같은 공간 없어도,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반겨주는 것 같고 되게 좋았어요(유아 부모 4).

4) 성평등한 육아 문화

남성의 육아참여를 여성의 육아참여와 동등하게 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 저 아빠는 훌륭한 아빠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대단해. 어쩔 이렇게 아빠가 애를 잘 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애 보는 건데(영아 부모3).

내가 애를 메고 가면 ‘아빠 어딿어요’ 묻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애를 데리고 가면 ‘엄마 어딿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이 우리 애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데 ‘애가 되게 아빠를 잘 따르네요’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영아 부모 1).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있다.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아파트 분이 ‘어머 어린이집 가?’ ‘네. 얼마 전부터 가기 시

작했다'고 하니까 '아유, 이렇게 어린데'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엄마가 매정해서 애를 보내는구나' 이런 눈빛이.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영아 부모 2).

5) 육아친화 가치 공유의 기회 확대

육아친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보아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이를 공유하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과도한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문제라는 시각에서 그런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원칙을 만들어서 마을 곳곳에 비치하고 교육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마을 전문가 2).

영유아기부터의 사교육. 나도 그렇게 안 컸고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해서 굳이 내가 이 아이한테 지금 세대가 이러니 너도 빨리 이 stream에 들어가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유아 부모 1).

부모교육 필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 동사무소에 노는 공간 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유아 부모 1).

나. 서비스 인프라 및 물리적 환경

1) 소통의 공간, 육아정(育兒亭)

마을 내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품앗이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난감 도서관 같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언제든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활성화된 노인정과 같이 엄마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희망하였다.

노인정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저게 노인정이 아니고 저기서 애기 엄마들이... 거기에 애기 엄마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자주 했어요.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되게 잘되어 있는데 애기 엄마들을 위한 공간들은 되게 없고, 길거리에 서 가지고 만나서 인사하고...(영아 부모 2).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필요한 거는 육아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밥 먹고 수다 떨 수 있는 거...엄마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수다 떨 수 있는 육아정이 필요하다(유아 부모 2).

아까 육아정이라고 했는데, 情을 뭔가 쌓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유아 부모 3).

육아친화마을에는 옛날에 사랑방처럼 그런 공간에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얘기를 잠깐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서로 품앗이가 되는 거죠. 마을 어르신도 오시고. 그러니까 애기 낳가지도 않고,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모니까(영아 부모 1).

일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광장'이라고 해요. 별 거 없어요. 그냥 그 공간에서 직원이 딱 한 명인데 전문적인 직업이 아닌데 관리하는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용 주변 나머지는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간식 먹이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마을 전문가 1).

2) 활용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는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 쓸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복유립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써야지만 엄마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영아 부모 1).

10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은 부모가 일찍 집에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영아 부모 1).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보통 직장에서 늦게 마치는, 특히 아버지는 공동육아하면서 좋아진 거는 억지로 일을 멈춰야 하니까, 활동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줄일 수 밖에... 아버들이 변하고. 친구들이 생기고, 나이는 다르지만. 사회관계도 확대되고, 동네에 무슨 일 생기면 품앗이 하고(유아 부모 1).

3) 육아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아이와 아이 기르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병원, 공원, 운동시설 등이 근처에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와 함께 걸어 다니기 편한 곳을 뜻한다.

000으로 이사를 했는데... 길도 다 평지고 근처에 공원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세 군데 정도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가깝고 지하철도 걸어서 평지로 갈 수 있고 소아과도 여러 개가 있고 일단 공원이 많고, 그 공원도 애들이 다 뛰어놀 수 있고 놀이터 시설도 잘 되어있고 분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영아 부모 5).

모르는 사람들도 막 놀러가고 하는 그런 공원보다 정말 이렇게 작지만 잘 구성된 공원, 그래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영아 부모 2).

휠체어 장애인이 계세요. 그분을 모셔서 설계 당시부터 같이 논의하면서 공용공간에는 여러 혁신을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휠체어 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제일 반가운 사람들은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모들이다(마을 전문가 2).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병원이나 시설이나 문화 공간, 도서관, 미술관 다 있고, 저는 잘 가지는 않지만 키즈 카페 같은 곳도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OO은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유아 부모 1)

평화롭고, 공원을 중심으로... 가족문화가 되게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통해요. 횡단보도 없이 안전하게 아이랑 같이 킥보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중간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쉴 수 있고(유아 부모 2).

마을 공간에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필요하며, 주유소 위치 알림 어플과 같이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 표시 어플이 있으면 장소 선택이 편해질 것이다. 특히,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가 필요하다.

아이 데리고... 갈 때, 그 때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애기가 혹시 증가하면 어떡하지? 보통 요즘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기저귀교환대 없고, 여러 가지 뭐 세정제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수도꼭지 이런 것도 이용하기 힘들 때도 많고 하니까. 좀 어디 어디 몇 군데라도 기저귀교환대가 있고 공지가 되면 엄마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밖으로 외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영아 부모 3).

외출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어디에 기저귀 갈 데가 있는가, 수유실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어딜 가도 생각을 안 하고 가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 저도 그 생각도 했어요. 무슨 앱 같은데 위치에 표시라도 해줬음 좋겠다. 주유소는 뜨는데. 수유실이 있는 곳. 보통 수유실 있는 경우는 기저귀 가는 데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위치 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영아 부모 2).

기저귀 교환대가 되게 웃긴 게 여자 화장실에는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없어요. 만약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 화장실엔 있고 남자 화장실에 없어요(영아 부모 1).

공원, 도서관 등 부모와 자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시설을 만들 때 단지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도, 결국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영아 부모 5).

저는 도서관이나 그런 인프라가 조금 더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사는 동네 정도

면 도서관도 있긴 있고, 저희 집 바로 뒤가 공원이고 그래서 저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놀이터나 공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데(유아 부모 2).

직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 집값이 안정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찾아 가기에 어려움이 없기를 희망하였다.

사실 직장이 지하철 인근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한 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사실 진짜 중요해요. 퇴근을 한 시간 넘게 하면, 지하철에서 한 시간 넘게 걸리면 사실 애는 이미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육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더라고요(영아 부모 4).

집값이 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이거의 가장 큰 기준은 예산. 애 데리고 다니기 좋은 동네 어딘지 아는데 거기 비싸요(영아 부모 1).

다. 지원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

함께 키운다는 가치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사회 내 인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품앗이와 같이 여러 가족이 모여 돌아가면서 아이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아이의 돌봄 뿐 아니라 교육도 협력하는 것이다.

OO어머니 말씀처럼 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마을에서 함께 키웠잖아요. 아이랑 친분 관계 생기면 품앗이 육아도 하고, 내 아이처럼 함께 키우고 얘기하고 이런 게 많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초등 부모 4).

OO에서 육아품앗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한 4명 정도 한 그룹 모여서 운영한다는데 엄마든, 아빠든 각자 하나씩 특기 같은 걸 살려서 얘기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과학교사였으니까 간단한 생활실험 같은걸 하면 다른 부모가 동요 가르쳐 주는 식으로 품앗이 하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영아 부모 4).

큰 아이를 등원시킬 때 등하원시킬 때 둘째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든 생각이 다동이, 다자녀 집안에 등하원 시간엔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도 결국 친정엄마가 계속 오세요. 등하원 시간에(영아 부모 5).

그러려면 사실 직장맘들도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다행히 육아휴직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동네 엄마들하고 친해질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놀이터나 어린이집에서. 제가 안 되면 동네 엄마가 우리 애 대신 데려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좀 사실 어렵

쥬(유아 부모 2).

아직까지는 아파트 안에서 이뤄지는 건 노인정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도 그런 건 많거든요. 근데 전체 베희시장 말고는 육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유아 부모 2).

아버지들의 육아 커뮤니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맘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남성들에게도 있다면 육아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육아 이야기를 아빠들끼리 공유하다보면 육아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아빠들끼리도 육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맘카페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데, 남편이 맘카페 가입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를 만하기도 해요. 저한테 배우는 거 아니면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영아 부모 3).

애를 보면 남편 본인이 좋아해요 되게. 애가 본인을 시간 들인 만큼 따르고, 애가 커가는 걸 느끼고 하는 거를. 엄마가 느끼는 성취감을 남편도 하면 되기는 되더라고요. 엄마들은 그걸 얘기를 하고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면 아는데,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아빠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영아 부모 1).

부족한 문화시설의 한계도 지역 내 주민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다.

엄청 오래 전에 어떤 다큐를 봤었는데 마을 공동체... 모여서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뭘 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거 이모가 만든 곡이야." 하는데... 제가 음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과 같이 놀아도 재미있고 그런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행복한 프로그램 해보고 싶어요(유아 부모 5).

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대표입주회의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교육 파트, 무슨 파트 해서 동대표들이 10명이면 총 대표가 있고 분과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중에 한 파트가 영화 스크린 설치해서 만화영화 보여줘서 좋더라고요(유아 부모 4).

세대 간 협력을 계획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어르신들 중에 품앗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 다 키우고 우리가 공동체 활동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모르고 오셨다가. 교육을 받으시고 엄마들이 공동육아 한다고 하니깐 경험 살리셔서 도움 주실 수 있겠네.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에서 해결하면 하나의 일자리 창출 기회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마을 전문가 3).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첫걸음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자리가 마련되면 그 활성화는 주민들의 몫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마을 내 일자리 창출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다가 비슷한 또래 엄마고 비슷한 자녀가 있을 것 같은 엄마를 만나도 인사 한 번 해서 이런 거를 왜 할 수가 없을까? 그걸 정부한테 ‘내가 이웃과 잘 지낼 수가 없으니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하기도 웃긴 게 그 엄마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는 게 바쁘고, 좀 더 알고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을 텐데...(초등 부모 3)

저희 아파트 안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운영을 9시부터 5시까지만 해요. 주말엔 안 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러한 모임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공간도 많고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되어서 잠깐 나와서 해준다거나(초등 부모 4).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베품시장을 했어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애들 꺼, 지나서 못 쓰는 거. 백원 이백원에 물건 교환하고 사고 하고 나니까 물건도 물건인데 그날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거예요. 텐트 치고 돗자리 펴고 나와서 놓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물건들은 줄어들었는데 더 그런 노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애들도 기다렸고(유아 부모 2).

애들이 형제자매가 없다보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있는 아이처럼 클 수 있잖아요. 그건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공간 프로그램 같은 걸 마중물 역할처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건 주민들의 몫이고(초등 부모 4).

근데 그런 거를 리더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선발을 해서...누가 와서 월급 받고 관리자인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돈 받지 않아도 마침 어느 정도의 job은 필요했는데 또 더불어 내 아이도 갖다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가. 자치 쪽으로...(초등 부모 3).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구성과 참여를 위한 기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계획 말씀드리면...마더센터라는 제일 넓은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방과후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이 있고, 영유아를 위한 방이 있고, 바깥쪽 카페와 공유 부엌이 세팅이 되는

데 그런 전체 공간 개념으로 세팅해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측면으로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본인들의 성장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저희는 '100개의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커뮤니티 센터라는 공간에서 할 거예요. 돌봄과 부모님들의 성장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단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공동체 내에 나눔, 지역학교라는 개념으로 조합활동이나 서로 간의 품앗이 활동들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서로 품앗이 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이라고 해야하나? 참여 시스템이죠. 조합활동에 대한 참여시스템을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조합의 어떤 활동들이 있을 때 아기가 한시간 참여했다, 세시간 참여했다, 기록해서 서로 품앗이 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을 전문가 1).

"마더센터라고 하지 말자." 아,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마더센터라고 명명했다가 커뮤니티 센터로 바꿨어요(마을 전문가 2).

4. 소결

유사한 개념의 마을조성사업들과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정의하고, 영유아 부모들과 마을조성 전문가 대상 면담을 토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에 대한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마을이라는 범위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육아에 필요한 활동성에 기초하여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 유모차의 이동을 중심으로 마을을 범주화하나 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두면서는 이용하는 시설이 확대되면서 그 범위는 영향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로 온라인상의 정보(맘카페)의 공유와 활동이 활성화됨을 고려하면 마을 범위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또한 마을의 의미에는 편안함과 안전감을 느끼는 심리적 거리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뿐 만 아닌 온라인 범위로도 확장 가능하여 마을의 개념은 다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녀가 영아기에는 기저귀 같이 공간, 유모차 접근성, 대가족의 지원 가능성 등에,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증가하는 활동성을 수용할 놀이터 등에, 초등학교 시기에는 또래 친구의 형성과 교육에 육아친화 요구가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이 어느 연령대에 국

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공간의 조성과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와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면담에서 부모들이 가장 강조한 어려움은 아이와 육아과정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는 때라는 것이다.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배려,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 성평등한 육아 문화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 중 강조된 부분은 ‘육아정(育兒亭)’의 개념이었다. 이는 육아기 부모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대한 요구이며, 처음 해보는 엄마, 아빠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다. 모이는 공간, 소통하는 장(場)의 마련은 그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마을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의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육아친화적 환경조성에서 필수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도서관, 놀이터, 공원 같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다섯째,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담과정에 참여한 영유아의 부모들도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적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사용을 원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등 지원제도의 꾸준한 추진과 더불어 육아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향상하고, 양육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육아 담당자인 영유아 부모와의 면담 내용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 [그림 II-4-1] 과 같이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별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다. 육아친화적 마을이 담아야 하는 철학과 가치, 서비스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II-4-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의 내용



III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

- 01 지자체 마을공동체조성 사업 중 육아친화적 사례
- 02 국내 육아친화적 마을 조성 사례: 사회혁신기업 더함
- 03 일본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
- 04 호주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
- 05 소결

Ⅲ.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

본 장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사례를 담았다. 먼저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담당부서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은 육아친화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토대로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토대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지자체 마을공동체조성 사업 중 육아친화적 사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조성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육아친화적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본 연구가 제시하게 될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는 함께하는 이웃과 주민이 모여 주민스스로 마을일을 상상하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 공동체의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2018b: 4)

가. 지자체 마을공동체조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는 2013년 5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⁹⁾를 만들고 12월부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두어 교육과 학습, 마을활동가 양성 및 교육, 교류와 협력, 홍보,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9)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http://legal.incheon.go.kr/now_law/html/now_law.php?act=word_2&table=jomunT&type=0&id=11875&keyword=%B8%B6%C0%BB%B0%F8%B5%BF%C3%BC (2019. 3. 10. 인출)

권리와 책무, 이를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주민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사업지원,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는 마을공동체조성지원을 위해 시청에 ‘지역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하고 자치기획팀, 기반조성팀, 마을협력팀 등 3개 팀을 배치하고 있다.¹⁰⁾ 또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두어 다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1-1〉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센터의 기능

구분	내용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인프라 구축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자문위 구축,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컨설턴트 풀 구축, 마을공동체 규모와 성격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마을지원체계 구축,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인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류협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체 육성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사업, 주민,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공무원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사업, 주민자치인문대학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철학 정립, 마을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사업과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마을활동가 지원시스템 구축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확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발굴, 마을공동체 활동가 대화모임, 마을집담회 등을 통한 인천지역사회 소통, 마을공동체 정책 청안대회 등 마을활동가 자발적 사업지원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실현	정주하는 마을, 지속성 있는 마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제도를 활용한 주민자치력 강화, 주민자치포럼 등 공론장의 활성화로 주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incheonmaeul.org/?page_id=2135#center4, 2019. 3. 10. 인출)

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¹¹⁾

인천광역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680여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해마다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집인 ‘인천 마을을 잇다’ 시리즈¹²⁾를 발간하여 마을공동체의

10)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app/organize-www/6286530>(2019. 3. 10. 인출)

11) 본 자료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심층면담(2019년 5월 8일)과 제공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중 우수사례를 모아 인천 마을공동체 탐방기라는 부제를 붙인 ‘인천 마을을 잇다’를 해마다 발간함.

본 연구에서는 ‘인천 마을을 잇다’ 시리즈 중 2014년부터 2018년도 발간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680여개에 나타난 육아친화적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아이기르기 좋은 온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을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의 특징이 복합적 운영 요소들을 지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딱히 육아친화적인 요소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업의 내용 중 아이들과 아이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 기르는 가정에 초점을 둔 내용들을 육아친화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사업을 안내한 사례집 ‘인천 마을을 잇다’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나타난 육아친화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육아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공동육아,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도서 공간 운영,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공론의 장(場)인 ‘수다방’ 마련, 다양한 생활 나눔, 문화공동체 운영 등으로 유목화 할 수 있다.

1) 안전한 환경 조성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은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이어야 한다. 통학로, 교통이나 식품, 놀이터 등 아이들의 생활환경으로의 마을에 위험요소들을 줄이는 노력들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안전하지 못한 마을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의 방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찾는 과정으로 추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을에 관심을 갖고 서로 생각을 모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1: 안전한 환경 조성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안전마을 서포터즈가 되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표지판 붙이기 활동으로 아이들이 동네 환경에 자연스럽게 민감해지게 됨 - ‘안전한 통학로 조사활동’: 아동·청소년이 직접 통학로 주변 골목의 위험 요소, 안전요소 조사하는 활동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나는 골목놀이터':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는 토요 놀이 프로그램. 함께 뛰어 놀면서 안전한 공간에 대해 생각해보기 - '안전취약계층 성교육': 안전에 대한 자각, 올바른 성 인지, 영유아에게는 인형극으로 진행 - 마을의 외형적 문제요소는 '2014 안전허브 인천' 사업을 통해 해결. '무지개 희망길'이라는 벽화거리 조성하여 골목에 대한 인식 전환 - 매월 한 번씩 마을 청소하는 날 운영
다살림 레츠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엄마들이 점심식사 품앗이를 시작하다가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게 됨. - 2009년부터 회원이 늘어 품앗이 통장에 거래내역을 작성 - 주로 기타교실, 책 읽어주기 등 '교육품앗이'가 많았지만 아이돌보기, 집안정리 등과 같은 <돌봄품앗이>도 많아짐 - '녹색마당',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두 차례 운영 - '주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교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탐색 - '어린이 생태교실, 농부학교': 친환경 먹거리 생산 과정 - '기타 소모임 활동들': 수채화 교실, 손글씨 교실, 독서모임, 청소년교실, 진로교실 등
삼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나 복지보다 환경 사업을 중요하게 다룸 - '행복한 불끄기 행사'라는 에너지절약, CO2 줄이기 운동 진행 - '삼산 아카데미-놀토야 놀자': 초등학교 대상 골포천 생태학습 프로그램 제공 -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어 생태학습효과를 누림
안전마을 환경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의 흙을 뒤집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시작 - 어린이 놀이터 모래 뒤집기, 꽃밭 텃밭 가꾸기,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도서관 만들기, 아파트 벽화 그리기 등 진행
우당탕탕 푸른샘 해결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생각을 모아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 - 마을잔치 때 해결단 아이들이 동네 쓰레기를 줍는 역할을 함
송월동 37번길 주민모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가 쌩쌩 달리는 길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는 안전 문제가 발생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 - 플리마켓과 동네 놀이터를 만들고, 플리마켓을 하고 모은 돈으로 골목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벽화를 그림 - 향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함(2017년 기준)

주: 추진년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년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6).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7). 인천마을을 잇다.

2) 공동육아 및 돌봄 제공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중 육아 친화적 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공동육아를 꼽는다. 대부분은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돌봄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시작되었고,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하는 엄마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이전부터 공동육아를 운영하던 곳도 있고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자연스럽게 초등 방과후 지원사업으로 확장된 사례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2: 공동육아 및 돌봄 제공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해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초등 방과후 사업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부모가 출자금을 내고 직접 운영하는 공동육아의 형태로 1998년 3월 개원 -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부르며, '반'이 아닌 '방'으로 그룹지어 경계를 허물기. 조합원끼리 토론, 조합원 교육 실시 - 2007년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확장되자 생태건축 기법으로 어린이집 신축함 -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자연스럽게 초등 방과후 지원사업으로 확장된 사례 - 운영 중인 '계양 어린이 역사탐험대'는 답사 프로그램으로 현직 교사가 인솔하여 체험 중심 답사 진행
해남공부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수가 많고 갈 곳이 없는 빈민지역에서 탁아방 개념으로 시작 - 여성의 보육문제를 다루다가 자녀들이 성장하며 자연스레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으로 발전. - 부역팀: 공동생산활동, 여성교육(한문, 한글, 영어) - 공부방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활동을 함
함께하는 자녀돌봄협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양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공유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
세계평화의 숲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 활동을 하는 사업 - 어린이집을 대기하는 엄마들이 많아 공동육아센터를 이용하여 생태수업을 하기도 함

주: 추진연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연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7). 인천마을을 잇다.



3)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도서 공간 운영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중에는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도서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유난히 많다. 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의 부담이 적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여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서공간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부터 그림책 콘서트, 요리활동, 역사교육, 독서지도법, 부모교육, 생태교육, 영화제작 등으로 책을 매개로 확장된 다양한 사업추진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3: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도서 공간 운영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골목도서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같이 키우자는 것에서 시작된 '시장골목 탐험대'를 통해 아이들이 상인들과 가까워지도록 함 -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림책과 고사리손 요리' 프로그램: 엄마와 아이가 요리책을 보면서 음식 만들고 놀기. - 그 외에 아동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신나는 주말 놀이터: 역사문화 생태체험' 등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됨 - 주민대상 설문 결과 아이들이 5분 내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설립 -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에 느루 도서관 설립
마중물 도서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작은 도서관이나 운영과 특성은 종교와 분리하고 있음 - 어른들이 먼저 책을 읽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를 함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문제의식으로 직접 만든 도서관.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와 주부 - 예비 학부모 교실, 도서관 사서 학교,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교실, 생태 놀이, 찻집 만들기 모임, 과학교실 등의 활동을 함
꿈나무 도서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목적과 작은 도서관의 목적이 공존 -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엄마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여러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가 형성됨. - '나무이름을 해설해주는 컨텐츠':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과 이웃에게 동네에 있는 나무를 알아보고 이름을 소개해 줌
너나들이 도서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엄마들이 돌아가며 종이접기, 미술 등을 가르침 - 아이들이 쉬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으로 사용됨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짱뽕이 어린이도서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리네 한술밥> 동아리: 마을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줌 - <소금꽃>: 마을역사, 북아트 연구모임으로 마을 역사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책으로 만드는 활동 - <별난 놀이터>: '시소와 그네'라는 영유아 통합센터와 함께 전래놀이 및 행사를 진행함
책다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후활동을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하는 책 문화활동: 엄마와 함께 몸놀이, 찰흙놀이, 요리, 전래놀이, 그림자놀이 등 책을 놀이로 접근함 - 그림책 콘서트: 아이들이 책, 노래, 악기연주를 접목시켜 진행한 콘서트 - 책 읽어주는 엄마들: 등교 후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활용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도란도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대화법 등을 준비하던 엄마들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모임 -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팀: 연희동 돌봄기관, 교육기관의 영유아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활동 - 아이를 데리고 편히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좋은 장소 - 영화제작 활동으로 미디어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자리 잡음 - 아이들 스스로 시나리오, 출연, 촬영에 참여하고 요일별로 미디어 영상교육, 여성 대상 컴퓨터 교육 활용 교육
북틀꿈틀 도서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1단지 아이들의 엄마가 모여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놀이하는 공간 - 단기간 특강 형식으로 5세~초등 2학년까지 책놀이 수업진행
하늘나래 작은 도서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스카이뷰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함 -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음(전동놀이체험, 할로윈 이벤트, 부채 만들기 활동 등)
굴현 그림책마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함 - 계양구 내에 있는 다른 마을 초등학교로 수업을 나가기도 함 - '월간 그림책'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감정활동에 관한 수업을 진행함 - '찾아가는 그림책' 활동을 통해 외출이 힘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줌

주: 추진연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연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6).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8a). 인천마을을 잇다.

4)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공부방,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등의 이름으로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은 주로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다.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의 초등 방과후 돌봄 제공 및 교육으로 시작된 활동을 비롯하여, 대안적인

사교육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학생이나 교사의 자원봉사, 또는 엄마들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재능으로 가르치면서 시작된 공동체 등 다양하다. 또한 방과후 돌봄 제공, 교육제공에서 시작하여 부모교육, 특기적성 교육, 다문화교육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임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4: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마을과 이웃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어린이 공부방 이름을 '마을공동체학교'로 개명한 전국 최초의 방과 후 교실 - 기본 교과목 학습부터 한자교육, 사물놀이, 인성교육, 미술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체험학습 제공 - 교육비와 식비를 무상 제공하며 영유아 보육을 하기도 함
해님공부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수가 많고 갈 곳이 없는 빈민지역에서 탁아방 개념으로 시작 - 여성의 보육문제를 다루다가 자녀들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으로 발전. - 부역팀: 공동생산활동, 여성교육(한문, 한글, 영어) - 공부방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활동을 함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신나는 교실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교대 학생들의 교육봉사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 국가보조금을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됨 - 현재는 경제력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더 관심을 둬 - 학습보다 시민교육을 함(인권수업, 공동체수업, 토론수업), 부모교육, 연극, 풍물수업
나눔이 있는 교육협동조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들이 교사단체 프로그램을 운영 - 아이들의 성장과정, 시대의 변화에 맞춘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추진 - 교사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학부모 중심으로 옮겨감 - 청소년 행복배움 마을학교, 진로멘토 만남의 날, 심리상담 미술치료교실, 초중고 독서토론 동아리 등을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사업, 게으른 도시농부 클럽에서 텃밭 경작하며 먹거리 재배
교육공동체 고리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걸음 여행: 책읽기 수업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눔 - 우리는 학부모: 발도르프 부모교육을 통해 예술활동으로 잠재 의식을 들여다보고 이를 아이들과 함께 활동해보기 - 고리 소식지: 고리 활동이나 생활 글을 쓰는 소식지
계양에서 행복찾기 -꿈센터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외부는 '한우리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 안쪽 교실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꿈센터에서 영어뮤지컬 활동: 대본구성, 연기연습, 의상 및 소품 제작 모두 아이들이 직접 진행함
전래놀이 in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놀이를 아이들, 노인들에게 체험하도록 교육하는 마을 공동체사업 - 집중도, 친구관계, 가족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음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가온누리	2016	- 엄마들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각자 재능으로 가르치면서 시작된 공동체 - 경력단절 엄마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연습공간 되어주기도 함
몽클	2016	- 2014년에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 해 10월 학습공동체 시작 - 마을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학습 공동체로 지역 사회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와 교사가 함께 회복적 정의의 이해와 실천을 함
진강산 마을교육공동체	2016	-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공동체 - '시 낭송의 밤'(학생들의 자작시 낭송과 악기 함께하는 콘서트), '천문학 콘서트'(천문학 강의, 천체망원경으로 관찰)를 진행 - '사랑방'이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도록 환경 조성
청라 푸르지오 품앗이 마을학교	2017	- '청라 푸르지오 재능기부 봉사단'을 모집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으로 넓혀 강의를 진행함 -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주요 강사진임 - 무료이지만 질 높은 강의를 진행됨
독서치료연구회	2017	- 독서를 통한 성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느끼며 자존감과 자아 긍정성을 높여줌 - 초등 1~3학년까지 통합 수업함
꿈이은 교육협동조합	2017	- 대안적인 사교육, 전인격적 교육이 가능한 사교육을 목표임 - 초등 5학년~고등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과목 지도
산마을고등학교 협동조합 '마테'	2017	- 특성화고이자 대안학교인 산마을 학교 '마테'는 학교 뿐 아니라 강화지역 과 양도면에서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 입시보다 다양한 길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의 학교, 카페, 마을교육으로 나누어 활동함.
송도 그린워크3차 17블럭 이야기 '함께 어울림'	2017	-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 - '그린워크3차 17블럭 두돌 잔치'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 공연 및 체험 - 기타 배우기, 이웃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영어 스토리텔링 등의 수업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함 - 학습실을 만들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하고 독서하는 공간,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함
양사탐협대	2018	- 양사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만든 학교-학생-학부모가 같이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 학부모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함 - 방과후 수업, 급식모니터링,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등 활동함
다문화가정 보듬이	2018	-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마을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 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문화체험, 역사교육, 예절교육, 학습지도를 진행함
선학중학교	2018	- 학생들과 함께 학교공간을 만들어 감 - '다목적실 재구성', '급식실 공연무대 마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텃밭' 등을 진행함

주: 추진년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년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6).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7).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8a). 인천마을을 잇다.

5) 공론의 장(場), 수다방 마련

육아하는 과정에 경험하기 쉬운 소외감, 고립감을 해소하고, 어려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여 이야기 나누고,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육아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좌 2동의 경우 마을개선을 위한 의제가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로 정할 정도로, 센트맘스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인 센트레빌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할 정도로 육아친화적 요소가 살기 좋은 마을 구성에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5: 공론의 장(場), 수다방 마련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가좌 2동 주민 자치위원회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치위원회 기초토론, 주민토론회, 주민워크숍을 진행 - 1기 마을의제(2005-2014):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마을,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평생교육이 가능한 마을, 어린이 체험학습 지속 마을 - 2기 마을의제(2015-2024):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 이웃 어른들과 아이가 어울리는 안전한 마을, 꿈꾸는 도서관 마을 등
LH 11단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아이들이 많은 동네로 젊은 부부들의 온라인 상 교류 추진 - 가을주민축제, 주민 베품시장, 알뜰장터 주체적으로 진행 - 북카페, 작은 도서관을 단지 내에 마련하여 강습을 하기도 함 - 북카페는 뜨개질, 클레이, 영화상영 등 아이들 방학기간 중심으로 활동
센트맘스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자는 생각에 ‘차 마시는 모임’으로 시작함 ‘센트맘스’로 공식적인 모임이 만들어짐 -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인 센트레빌의 공간을 건강한 육아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위에 자체적으로 제안 -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뛰어 놀 수 있는 도서관), ‘맘스 존’이라는 공간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유실이 있음
검암애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암동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주로 결혼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회원으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많음 - 베품시장 개최, 사회복지시설 후원 활동을 함
항아리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어 마을을 변화시키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 - 아이들 교육, 먹거리, 재취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통 -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모두 활발히 함께 하며, ‘항아리’를 통해서 고학력자 엄마들이 아이들 과외를 하고 방학마다 강의 함 - 아이를 잠깐 맡기기도 하고 진학문제를 상담하는 커뮤니티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공동체라디오 서구 FM	2017	-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많이 듣다보니 육아방송을 하기도 하며 그 외 다양한 주제로 방송
송도 더샵 그린워크1차 아파트회의	2018	- 지구살리기 활동으로 불끄기 운동, 쓰레기 줍기,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 아버지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요리, 낚시, 캠핑 활동들을 계획함 - '주민 치맥 집담회'를 통해 주민들끼리 소통

주: 추진년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년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6).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7).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8a). 인천마을을 잇다.

6) 생활 나눔

마을공동체의 사업 중에는 아이들을 먹이고자 유정란을 공동 구매하다가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학습지, 도서를 돌려쓰는 경우도 있고, 생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육아에 필요한 생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6: 생활 나눔

사업명	추진 연도	개요
행복동 사람들	2014	-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동양동에서 생활의 필요를 주민끼리 직접 해결 - 온라인 카페를 통한 생활정보 나눔 - 엄마들은 도서관에서 문화교실 운영, 유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인천아이쿱생협	2015	- 1)사무국 2)매장 3)활동국 4)어린이집 활동을 함 - '예술 어린이집'과 방과 후 교실 활동을 함 -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법인으로서의 어린이집 운영 - 전국 아이쿱 중에 어린이집을 하는 유일한 곳 - 아이를 보내려면 조합원이 되어야하며 어린이집 출자금은 300만원이고 조합원교육을 받아야함 - 반찬거리, 친환경 생활용품 매장 운영도 함
마을기업 '다락'	2015	- 아이들을 위한 유정란을 공동구매하다가 시작됨 - 공유경제로 나누어 쓰고 바꿔 쓰는 활동을 하는데 주로 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특히 학습지를 돌려쓰 - 엄마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어른들이 과외선생님이 됨

주: 추진년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년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7) 문화공동체 운영

음악공연, 인형극, 그림자극,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공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례이다. 이는 주로 기획, 실행 또는 공연자로 아동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7: 문화공동체 운영

사업명	추진연도	개요
꾸물꾸물 문화학교	2014	- 학생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며 오디션을 보고 뽑을 정도로 호응이 좋음 -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기획자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스태프를 맡아 운영진이 됨
청천극장	2014	- 청천, 산곡동 <동네야놀자>의 외골 네트워크에서 하는 워크숍을 통해 지역 활동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회의실, 독서공간으로 쓰이던 공간을 밴드 연습실 형태로 바꾸었음 - 청천초등학교에서 5, 6학년 학생들이 악기 배우고 초등팀이 공연도 함 -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으로 이용하기도 하나, 악기레슨이 주된 활동이며, 악기를 배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침
청소년/청소년과 소통하는 부모들 모임	2014	-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자극을 만드는 활동 - 책과 친해지고,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 부모와 함께함 - 책 선정, 대본, 인형 제작 등을 모두 아이들이 직접 진행
맘스 인형극단	2014	- 초등학교 1학년이던 자녀와 또래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맘스 인형극단' 소모임 활동을 시작 -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마을사업 공모를 활용하여 인형극을 계속 진행하였고 '주혁야 미안해' 공연: 따돌림 문제를 다룸
뜻	2014	- 문화예술사업, 교육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나눔 - 그 중 주된 사업은 문화예술 사업과 교육사업임 - 청소년 문화기획, 동아리 인큐베이팅, 대관 사업, 체험 프로그램 등
인천 자바르떼	2015	- 육아라는 필요에 의해 시작됨 - 청소년들을 위한 밴드 만들기 -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동네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갈산 나빌레	2015	- 주로 아동·청소년 음악교실을 운영함. 총동문화, 주민자치단체회의, 동창회 등을 진행하기도 함 - 대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침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2015	-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됨 - 청소년 음반 제작활동, 사진 동아리, 소속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됨 - 청천극장과 자매기관
문화 갤러리 포털	2016	- 주민들이 요청한 강좌를 여는 곳 - 그 중 '공감적 놀이 기술'은 전문발달심리연구소 선생님이 참여하여 부모가 아이와 놀이하고, 문제행동 예방하며 개선을 하는 전문 프로그램

주: 추진연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연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6). 인천마을을 잇다.

8) 기타

이외에도 마을과 어린이집이 연계하여 지원순환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마을축제로 체험부스와 베틀시장을 여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는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마을공동체조성지원 사례 8: 기타

사업명	추진연도	개요
풍성한 마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 - '온 마을 학교' 사업으로 선정되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논문발표 - 청소년들과 DMZ, 백두산을 다녀오는 체험학습활동 추진 - 축구 동아리, 봉사활동 동아리, 미디어 동아리 등 다양한 모임운영 - 석바위 공원 가족축제를 매년 기획, 청소년 음악경연대회주최
남구 소나기 아파트 공동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화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 - 체험부스, 베틀시장을 들인 마을 축제를 열고 수익금을 공유 - 주민강사들이 아이들을 연습시켜 동화구연 공연을 함 -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도 함

주: 추진연도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선정 지원된 연도를 의미함.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7). 인천마을을 잇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8a). 인천마을을 잇다.

2. 국내 육아친화적 마을 조성 사례: 사회혁신기업 더함

가. 개요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 지점들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고자 2014년 12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이다(더함 홈페이지, <http://www.deoham.co.kr/about-us>, 2019. 5. 24. 인출).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인 위스테이(westay: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다(중앙일보, 2018. 6. 29. 보도)¹³. 위스테이 사업은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서 공공성을 보완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게 한 뒤 이 조합에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한겨레, 2017. 1. 7. 보도)¹⁴), 이는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을 통하여 법정 기

13) 중앙일보(2018. 6. 29). 입주민 협동조합 아파트 '위스테이' ... 임대주택 새로운 주거실험. <https://news.joins.com/article/22758070>(2019. 7. 5. 인출)

준 대비 커뮤니티 시설의 2.5배 넓게 구성되는 등 다양한 공동체 서비스를 구상하는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다(최준규, 2018: 12).

위스테이로 처음 2020년 상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물리적 공간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발기인과 설립동일자 모집, 창립총회 등의 과정을 준비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구성된 조합원 사이의 관계 맺기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입주준비와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있다(최준규, 2018: 13). 이와 같이 위스테이 입주자는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공동체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주거환경, 아파트 운영 등과 같은 자유로운 의견을 내게 된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19: 16¹⁴⁾).

본 연구에서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를 구체화하여 논의하고 있는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식 입주를 앞둔 2019년 현재,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커뮤니티와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을 다양한 분과로 나누어 커뮤니티에 거주하게 되는 구성원들과 워크숍 등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중 육아를 중요한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가능하게 됨은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예비 입주자가 실제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젊은 층들이 많음에 기인한다. 실제로 사회혁신기업 더함에서는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모델하우스 방문자 및 계약자 846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예비 입주자 중 30대가 48.7%, 40대 21.5%, 20대 8.2%로 과반 이상이 20~30대 연령이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19: 26). 또한 입주 예상 미성년자는 다음 <표 III-2-1>로 제시되는데, 취학전 만5세 미만 영유아가 2018년 기준 221명으로 나타났다.

14) 한겨레(2017. 1. 6). 사회적기업이 짓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뉴스테이'.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77731.html>(2019. 7. 5. 인출)

15) 사회혁신기업 더함(2019). 위스테이별내 연구보고서-커뮤니티를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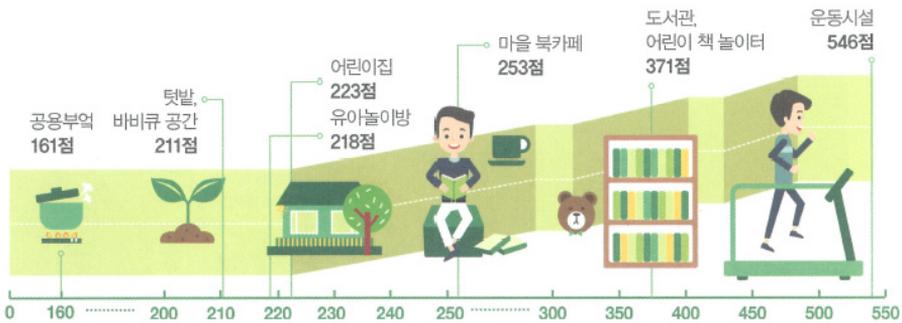
〈표 III-2-1〉 남양주 위스테인 별내 거주 예상 미성년자

구분	응답수 환산	491세대 환산
0~3세	168명	200명
4~7세	53명	63명
8~13세	37명	44명
14~19세	53명	63명

자료: 사회혁신기업 더함(2019). 위스테인별내 연구보고서-커뮤니티를 살다. p. 28.

이들 예비 입주자들이 위스테인에서 희망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2-1]과 같은데, 어린이집, 유아놀이방, 도서관과 어린이 책 놀이터 등 아동을 위한 시설을 원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1] 남양주 위스테인 별내 거주 예정 입주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 1순위, 2순위, 3순위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

자료: 사회혁신기업 더함(2019). 위스테인별내 연구보고서-커뮤니티를 살다. p. 29.

실제로 위스테인에서는 평일 낮시간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거나 입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공유 부엌을 활용한 이웃간 친목도모 등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 놀이광장 등 아이를 위한 시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사회혁신기업 더함 사업소개서, 2019. 5. 29. 인출¹⁶⁾). 남양주 위스테인 별내 커뮤니티 시설 조감도인 [그림 III-2-2]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뿐 아니라 아동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 어린이 도서관이 포함된 다목적도서관 등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16) 사회혁신기업 더함 사업소개서, http://hamkke.org/wp-content/uploads/2018/12/181204_위스테인-지축-사업소개서고객-배포용.pdf(2019. 5. 29. 인출)

[그림 III-2-2]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 시설 조감도



자료: 사회혁신기업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홈페이지, <http://westay.kr/byeollae/sub/community/facility.asp>(2019. 5. 29. 인출)

나. 육아친화마을 관련 논의사항¹⁷⁾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실제 육아친화마을 구축 사례를 분석할 수 없으나 입주 전 다양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자녀 양육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해당 논의 경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육아 관련 분과 논의는 2018년 5월부터 현재 시점인 2019년 상반기 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과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논의 경과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린이집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거주 예정자의 자녀 중 대다수가 영유아인 이유로, 일찍이 어린이집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관련 이슈는 1) 공동육아와 어

17) 다음 내용은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참여형 설계 공동육아팀 회의록(2018. 5. 11. ~ 2019. 1. 30, 내부자료)' 토대로 정리한 결과임.

린이집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안과 2) 전체적으로 공동육아로 진행하는 안이 있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공동육아(안)를 결정하였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시작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철학적으로 공동육아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되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결정하였다.

논의 과정의 말미에 어린이집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단지 내에 설립될 어린이집에 입소하길 원하는 영유아 수는 총 137명이었다. 영유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2세 27명, 만1세 26명 순이었다. 즉 영유아 보육 수요는 만1~2세의 영아와 3세의 유아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 외에 추가로 아이를 맡아주었으면 하는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7시 반 사이가 35%로 가장 많아 부모 직장 퇴근 시간 이후의 보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양주 위스टे이 별내에 거주할 영유아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간 분위기를 고려하여 오감을 자극하고 다양한 색상을 칠하되, 채도는 높지 않게 유지하자는 공통된 의견과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경계의 넘나들을 고려하여 오르내림을 계획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바닥이나 의자 등 아이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공간은 나무 등 촉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III-2-2〉 남양주 위스टे이 별내 어린이집 시설 논의 내용(어린이집 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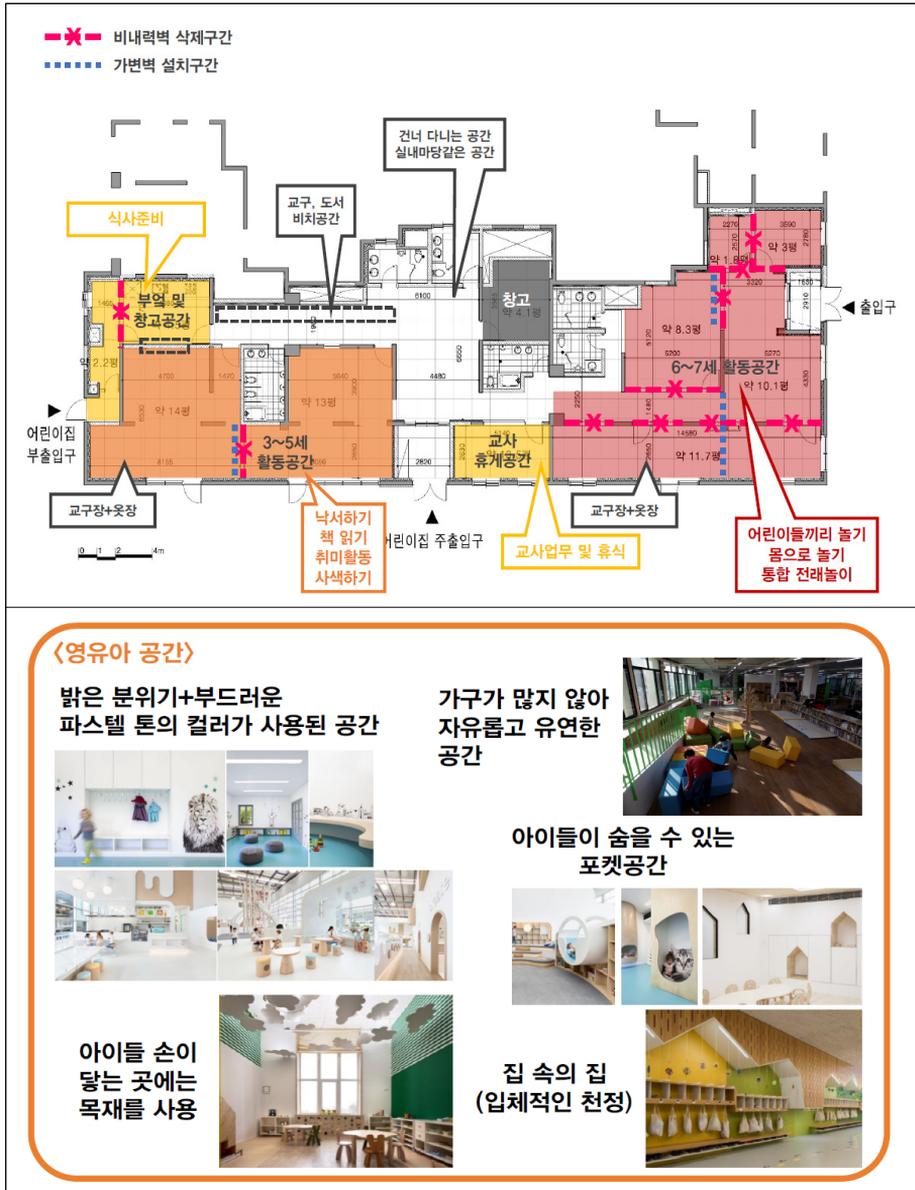
논의 내용	
현관	- 여러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인원 수를 고려한 적정 크기가 필요함(여유있는 공간 계획) -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의 구분이 필요 - 우산, 우비 등의 보관공간이 필요함. 외부에 차양 설치도 권장
원장실 및 휴식공간	- 손님을 접대하고, 학부모들이 상담할 수 있으며 아픈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침대 및 소파, 쿠션 설치 -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을 경우 원장실에 설치
교사실 및 교구실	- 교사들이 업무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중요). - 교재 및 큰 교구(홀라후프 등) 보관공간 필요
부엌	- 주방에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음 - 위생을 위해 식기 세척기 및 각종 소독기 필수 설치(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선호)

논의 내용	
보육실	- 소집단, 대집단 활동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면 편리 - 영아방 내 싱크대가 있으면 다용도로 편리함(손 세척, 식기 세척, 양치질 등)
마루 및 거실	- 아이들 간 소통 및 모임의 공간 및 부모들의 회의 공간이 되기도 하므로 넓은 빈 공간이 좋음
화장실	- 아이들 높이에 맞는 화장실 기구 사용 - 조금 큰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은 성 정체성 및 개인성의 존중을 위해 문 있는 칸막이 설치도 가능
놀이공간	- 요술거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숨거나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의 선호도가 높음
사물함	- 내용을 확인이 용이한 노출식 또는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을 주는 서랍식의 장단점을 비교 후 적용
놀이기구	- 안전기준 준수(한국: KC, 유럽: CE, 일본: ST, 미국: ASTM 마크) - 영아용 놀이기구는 지름 3.17cm 이하 금지 - 무독성 제품 사용(프탈레이트 가소제, 중금속 등 사용 불가) - 탈색 가능성이 있는 놀이기구 금지
책장	- 책의 표지를 볼 수 있도록 비치가 가능한 책장

- 아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야 확보가 필수,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문에는 투시창 설치를 권장
- 안전이 매우 중요
- 개방되고 통합할 수 있는 공간
- 사용하며 채우고 변경 가능한 공간
- 장애아를 위해 단차이가 없는 공간
-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의 파스텔 톤 공간색채
- 전체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면서 각 방 별로 특징을 살려도 좋음
- 바닥재는 약간의 쿠션감이 있어 소음 및 충격을 흡수하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 선호
- 조명은 LED 간접조명 적용, 부분 조명과 전체 조명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상징물이 계획되면 좋음(아름다운 천정, 스테인드글라스, 동물 캐릭터 등)
- 공동육아에서 CCTV 설치에 아동 및 교사 인권문제를 고려하여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참여형 설계 공동육아팀 회의록(2018. 5. 11. ~ 2019. 1. 30, 내부자료) 토대로 정리한 결과임.

[그림 III-2-3]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어린이집 시설 논의 내용



자료: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참여형 설계 공동육아팀 공감워크숍 공유 자료(2018. 12. 31, 내부자료) 중 일부를 발췌함.

2) 초등 방과후 돌봄

남양주 위스태이 별내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을 마을 외부가 아닌 마을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해당 마을에서는 다양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 프로그램만 고민한다는 전제 조건을 토대로, 쉼터/배움터/놀이터를 컨셉으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집을 재원하고 있는 아동과 활동 내용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별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한 마을 내 시설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 <표 Ⅲ-2-3>과 같은데, 우선 외부 공간의 경우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내부 공간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분리도 가능한 유연한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둥근 모서리,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2-3> 남양주 위스태이 별내 초등방과후 학교 시설 논의 내용

시설	논의 내용	
초등방과후 학교	외부공간	-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 - 놀이터보다 운동장 - 물과 흙, 풀과 나무, 벌레와 동물 등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부공간	- 남녀 구분된 공간, 아픈 아이의 휴식공간, 낮잠자기 공간 등 유연한 분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공간
	공동사항 및 기타	- 아이들의 자기표현을 위한 화이트보드 등의 설치가 유용함 -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옷걸이, 선반, 싱크대 등의 설치 - 빈번하게 다치므로 모서리가 둥근 사물함 설치 - 내부가 보이는 선반 및 서랍장, 교재교구실이 이용 및 관리 용이

자료: 남양주 위스태이 별내 참여형 설계 공동육아팀 회의록(2018. 5. 11. ~ 2019. 1. 30, 내부자료) 토대로 정리한 결과임.

3. 일본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¹⁸⁾

가.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인식과 정책 개요 및 특징

1) 일본 저출산 문제의 현황

2018년 일본의 출생인구는 91만 8,397명(출산율 1.42)으로 전년도 대비 2만

18) 본 절은 공동연구자인 Morita Akemi 일본 동양대학교 교수의 원고를 토대로 구성한 것임.

7,668명이 감소하였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2019. 6. 18. 인출¹⁹). 일본이 인구 통계조사를 시작한 1899년 이래 약 1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 출산율 1.26에(일본 내각부 홈페이지a, 2019. 6. 18. 인출²⁰) 비해 증가한 수치이나 전년도 대비 0.01 낮아졌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2019. 6. 18. 인출²¹). 첫 아이를 출생하는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0.7세이며, 25~39세 여성이 출산율의 약 85%를 차지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2만 428쌍이 감소한 58만 6,438쌍이 혼인하였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2019. 6. 18. 인출²²).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이 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과제로 인식하였다(일본 내각부 홈페이지a, 2019. 6. 18. 인출²³). 1990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14개 부처에 의하여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관한 관계부처 연합회가 결성되어 이후 18개 부처로 증가하여, 많은 정부조직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森田明美, 2009: 9)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2040년에는 20~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측되는 「소멸가능성 도시」로 전국 1,789 중 896곳의 지자체가 해당되었다(増田 寛也, 2014: 42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변화와 지자체에서 아동과 가족친화도시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동권리보장, 양성평등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18/dl/kekka30-190626.pdf>(2019. 6. 18. 인출)

20)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a,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14/26pdfhonpen/pdf/s2-1.pdf#search=%27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E3%81%A8%E3%81%AF%E5%8E%9A%E7%94%9F%E5%8A%B4%E5%83%8D%E7%9C%81%27>(2019. 6. 18. 인출)

21)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18/dl/kekka30-190626.pdf>(2019. 6. 18. 인출)

22)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18/dl/kekka30-190626.pdf>. 자료 표1과 표2를 참고로 연구진 산출, 정리(2019. 6. 18. 인출)

23)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a,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14/26pdfhonpen/pdf/s2-1.pdf#search=%27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E3%81%A8%E3%81%AF%E5%8E%9A%E7%94%9F%E5%8A%B4%E5%83%8D%E7%9C%81%27>(2019. 6. 18. 인출)

24) 増田 寛也 (2014). 「地域消滅時代」を見据えた 今後の国土交通戦略のあり方について、国土交通政策研究所 「政策課題勉強会」자료, https://www.mlit.go.jp/pri/kouenkai/syousai/pdf/b-141105_2.pdf#search=%272040%E5%B9%B4%E6%B6%88%E6%BB%85%E5%8F%AF%E8%83%BD%E6%80%A7%E9%83%BD%E5%B8%82%27(2019. 6. 15. 인출)

2) 저출산 대책 전개과정²⁵⁾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된 1994년 이후 국가 계획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3-1>과 같다.

<표 III-3-1> 일본의 저출산·육아지원대책의 흐름

시기	내용
1994년 12월	엔젤플랜 《제1기 1995년도~1999년도》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9년 12월	저출산 대책 추진 기본방침, 신 엔젤플랜 《제2기 2000년도~2004년도》
2001년 1월	대기아동 제로 작전
2002년 9월	저출산대책 플러스 원 제언(후생노동성)
2003년 7월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추진법 성립 저출산 사회 대책기본법 성립
2004년 6월 12월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 (각의 결정)/아동·육아응원 플랜(저출산 사회 대책회의 결정) 책정 《제3기 2005년도~2009년도》
2005년 4월	차세대 육성지원 행동계획(2005년도~2014년도 10년 계획)
2006년 6월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저출산 사회 대책회의 결정)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 일과 생활의 조화 (워크 라이프 밸런스) 현장
2007년 12월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저출산 사회 대책회의 결정)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
2008년 2월 7월	대기아동제로작전/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사회보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5대 안심플랜~
2010년 1월	아동·육아비전/차세대 육성지원 후기 행동계획《제4기 2010년도~2014년도》
2012년 8월	아동 육아 지원법 등 아동 육아관련 3법 성립
2014년 7월	방과 후 아동종합 플랜
2015년 3월 2015년 4월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아동·육아지원 신제도 본격 시행: 아동 육아 사업계획 제1기 《제5기 2015년도~2019년도》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10년 연장 (2015년도~2024년도)
2017년 3월	근로 개혁 실행 계획
2019년 10월 2020년 4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예정 아동 육아 사업계획 제2기 《제6기 2020년도~2024년도》

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b,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18/30pdfgaiyoh/pdf/s1-1.pdf>(2019. 6. 18. 인출 및 재정리)

25) '森田明美(2009). 「子ども計画を位置づける」『子ども計画ハンドブック』日本評論社, 6-16'을 참고로 연구진 재정리

가) 1994년도~1999년도: 저출산 사회에 대응 시작

일본의 버블 경기(Bubble economy)가 본격적인 조정기에 들어간 1991년에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森田明美, 2009: 9). 이 시기의 특징은 각자 정책을 세웠던 부처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수직적 정책 극복의 시도와 보육은 사회적 책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공적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아동시책 역사상 몇몇 획기적인 정책이 행해졌다(森田明美, 2009: 9). 한편, 지자체의 행정이나 보육현장에 대해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용자 뿐만 아니라 1991년에 실시된 총무성의 행정감찰 등 국가 보고서에도 엄격하게 지적되었다(森田明美, 2009: 9). 이에 1994년 3월, 후생성 고령사회 복지비전 간담회에서 「21세기 복지비전 저출산·고령사회」가 발표되었고, 「육아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엔젤플랜)」의 책정을 제안하였다(일본 후생백서, 1996: 4326) 육아지원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의 계획과 연동시킨 엔젤플랜에 대해, 계획책정을 위한 보조금을 국가가 제공하고, 1999년 6월에는 47도도부현에서 종합계획을 책정, 시정촌의 약 18%(585지자체)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 2003에는 지방판 엔젤플랜이 1,300여개의 시정촌에서 수립되었다(森田明美, 2009: 10).

또한 엔젤플랜의 구체화를 위해 준비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은 마지막 해인 1999년 여름, 저출산 대책 임시특례교부금 2000억엔이 각 지자체에 배부되어 보육소(어린이집) 대기아동해소정책이 진행되었다(森田明美, 2009: 10). 하지만 출산율은 상승하지 않았고 1997년 10월에 발표한 인구문제 심의회의에서 전국의 관계자들을 모아 「저출산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 -인구감소사회·미래에의 책임과 선택-」을 바탕으로 엔젤플랜의 5년째에 해당하는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森田明美, 2009: 10-11).

26) 일본 후생백서(1996). [105](https://www.mhlw.go.jp/toukei_hakusho/hakusho/kousei/1996/dl/05.pdf#search=%27%EF%BC%91%EF%BC%99%EF%BC%99%EF%BC%93%E5%B9%B4%EF%BC%93%E6%9C%88%E3%81%AB%E5%8E%9A%E7%94%9F%E7%9C%81%E9%AB%98%E9%BD%A2%E7%A4%BE%E4%BC%9A%E7%A6%8F%E7%A5%89%E3%83%93%E3%82%B8%E3%83%A7%E3%83%B3%E6%87%87%E8%AB%87%E4%BC%9A%E3%81%AF%E3%80%8C%EF%BC%92%EF%BC%91%E4%B8%96%E7%B4%80%E7%A6%8F%E7%A5%89%E3%83%93%E3%82%B8%E3%83%A7%E3%83%B3%27(2019. 8. 23. 인출)</p>
</div>
<div data-bbox=)

나) 2000년도~2004년도: 저출산 사회 대책으로서의 신 엔젤플랜²⁷⁾

1999년 12월에 발표된 신 엔젤플랜은 大藏(재정)·文部(교육)·厚生(보건복지)·労働(노동)·建設(건설)·自治(자치)의 장관들의 합의로 책정되어 실용적인 계획이 추진되었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b, 2019. 6. 20. 인출²⁸⁾).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하여」를 큰 목표로 하여 이전의 엔젤플랜이 육아지원을 중심으로 했던 반면, 신 엔젤플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동의 성장과 육아 지원이 종합적으로 정책화되어, 부모 지원의 한정적 틀을 확대하고, 유치원의 활용, 불임·출산 전후의 의료정비 등이 도입되었다(森田明美, 2009: 11). 또한 저출산 대책 관점이 명확히 제시되고 보육에 한정된 시책을 종합적 지원으로 재검토하였다. 아동의 권리대변자인 부모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사 등 아동을 직접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방법, 결과의 공표기준, 보육의 선택기준 등의 검토가 제3자 평가 방식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작되었다(森田明美, 2009: 10-11). 또한 직장 여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기능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어린이집이나 지역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한 임시보육, 지역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에서의 육아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이 공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일본 후생백서, 2001: 112²⁹⁾). 그러나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는 2002년에 부부의 출산력 저하와 남성의 노동형태를 제고하는 「저출산 대책 플랜 원」을 제안하였다(森田明美, 2009: 11).

다) 2005년도~2014년도: 저출산사회대책법과 차세대육성지원 대책추진법 제정

정부는 한층 더 발전된 대책으로서, 2003년 7월 모든 시정촌에 육아지원사업의 시행과 시정촌 보육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새로운 저출산사회 대책기본법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을 한정한 차세대 육성

27) 森田明美(2009). 「子ども計画を位置づける」『子ども計画ハンドブック』日本評論社, 6-16'을 참고하여 요약 및 정리함.

28)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b, https://www.mhlw.go.jp/www1/topics/syousika/tp0816-3_18.html (2019. 6. 20. 인출)

29) 일본 후생백서(2001). https://www.mhlw.go.jp/toukei_hakusho/hakusho/kousei_roudou/2001/d1/10.pdf(2019. 8. 22. 인출)

지원대책 추진법을 결정하였다(森田明美, 2009: 11). 그 결과, 모든 지방공공단체에 2005년도부터 5년간의 행동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또한 이 계획의 근거법으로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다(일본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³⁰⁾). 이전의 「낳아서 기르다」를 「낳다, 기르다(生み, 育てる)」로 바꿔, 육아는 여성만의 부담이 아닌 남녀공동의 일이며 양부모 등 다른 양육자에 의한 육아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森田明美, 2009: 11).

라) 2015년도~2024년도: 아동·육아사업계획과 차세대 육성 지원계획 종합화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이 연장되었다. 그 결과, 모든 지방공공단체에서 아동양육사업계획과 동시에 2015년도부터 10년간의 행동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일본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 2018: 131).

3) 일본 저출산 대책 특징³²⁾

현재 일본의 아동·육아제도는 2012년 8월 22일에 법제화된 아동양육관련 3법인 「아동·양육지원법」, 「인정어린이원법 일부 개정」, 「아동·육아지원법 및 인정어린이원법 일부 개정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森田明美, 2018: 2), 아동의 성장과 육아지원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임신부 건강진단과 자녀수당 등을 모든 아동과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초 지원으로, 산전산후·육아휴직급여, 유치원·어린이집 및 방과 후 혜택 등을 양립지원·보육 유아교육 급부제도로 하여, 시정촌에서 아동·육아특별계정을 만들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급한다(森田明美, 2018: 3). 사업주와 국가의 부담금과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국가 특별아동·육아예산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출하고, 실시주체인 시정촌이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모두가 평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보육이 필요할 경우 급부를 지급한다는 생각이다(森田明美, 2018: 3).

각 지자체에서 아동의 성장·육아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행정에서 문

30) 일본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meeting/outline/shoushilaw.html>(2019. 7. 1. 인출)

31) 일본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2018).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 책정.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999zentai.pdf>(2019. 6. 28. 인출)

32) 森田明美(2018). 「子ども施策の総合的展開」『公衆衛生』82巻10号, 2-7'을 참고하여 요약 및 정리함.

제의식을 가지고 지역별 문화, 환경, 생활 실태에 맞는 해결방법 모색이 요구된다(森田明美, 2018: 3). 현재 일본의 아동·육아제도의 기본 틀은 정권 교체에 따라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행정을 중심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森田明美, 2018: 3).

나.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행동계획 구체화: 동경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

1) 지자체의 아동·육아계획 만들기³³⁾

앞서 언급한 듯 2014년도에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이 10년 연장되어 많은 지자체는 제2기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행동계획을 작성해야한다(일본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 2018: 1.34). 이 중에는 아동·육아 지원법에 의해 요청 받은 「아동·양육지원 사업계획」을 배치한 지자체도 많으며, 또한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2009년 7월 8일 제정)에 의해 요청된 「아동·청년계획」을 연속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다(森田明美, 2018: 5). 이렇듯 지자체에서 아동의 출생부터 부모가 되고 양육까지 종합적·지속적인 시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森田明美, 2018: 5). 일본에서 엔젤플랜 등의 계획은 국가의 주도 하에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중간지원을 요청, 기초 자치 단체가 그 지역에서 육아를 하는 가정이나 아동의 생활과 지원 받는 구조를 만들어왔다(森田明美, 2018: 5). 엔젤플랜을 만들기 시작한지 20년 만에 주민 생활의 기본을 지탱하는 기초 자치 단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동의 성장과 육아 지원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森田明美, 2018: 5).

임신, 출산을 원해도 모체의 건강이나 자기실현 등의 개인적인 사정, 육아지원환경,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환경,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존재한다(森田明美, 2018: 5). 또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따라 치료, 교육과 필요한 의료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기본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게 정비되어있는가도 지역사회의 조건이 된다(森田明美, 2018: 5). 이런 의미에서 아동·가족 친화 도시 만들기를 통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육아

33) 森田明美(2018). 「子ども施策の総合的展開」 『公衆衛生』 82巻10号, 2-7을 참고하여 요약 및 정리함.

34) 일본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2018).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 책정.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999zentai.pdf>(2019. 6. 28. 인출)

를 하는 가족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하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森田明美, 2018: 5).

2) 세타가야구(世田谷区) 계획수립의 구체화³⁵⁾

지자체에서 시책이 형성되는 구조와 그 기반을 행정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동경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³⁶⁾를 예로 살펴보자.

가) 아동 조례의 구체화와 개정 시도³⁷⁾

아동 조례는 기존의 육아지원과 청소년육성 아동시책에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시책을 전개 등 마을 만들기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荒巻重人, 2008: 19).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 조례, 아동 권리 옹호기관 제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조례, 아동 시책을 추진해 가기 위한 이념과 원칙을 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 원칙조례 등이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를 제정하고 있다(森田明美, 2015: 21). 전체 지자체(1,700개) 수를 생각하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현재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森田明美, 2015: 21).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아동 조례는 2002년 동경에서도 빠른 시기에 아동 시책을 위해 만들어진 원칙조례로 처음에는 아동의 참가, 상담, 구제, 평가위원회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조례였다(岡田篤, 2019: 214). 그러나 2013년, 아동인권옹호기관「세타핫(せたホッと子どもサポート의 약자)」이 개설됨에 따라 아동 조례 개정을 위한「세타핫(せたホッと)」근거법이 정비되었다(森田明美, 2015: 21).

35)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9). 아동·양육 회의 내부 자료'를 근거로 연구진 작성

36) 세타가야구(世田谷区)는 동경도 23구 중 하나이며 동경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58.05km², 인구 906,354명(2018년 6월 기준)으로, 동경도내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으며 5개 지구로 나누어진 지자체이다. 5년간 世田谷区 총 세대수는 17,690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아동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세타가야 개요,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05/006/d00141998_d/fil/aramashi.pdf(2019. 7. 24. 인출))

37) 森田明美(2015). 「子どもにやさしいまりづく自治体 - 子ども政策の総合的展開に求められるもの」, 『ガバナンス』, 20-22.

〈표 III-3-2〉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 조례: 2002년 시행, 2013년 개정

◇ 조례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자녀가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 조례의 목표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빛내도록 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이해하고, 육아의 기쁨과 성장의 기쁨을 나눈다. 아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아동과 함께 지역사회를 만든다.
◇ 조례의 내용	보호자, 학교, 구민, 사업자, 구청의 의무를 규정 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 어린이의 놀이, 자기표현, 편안한 장소와 개성을 펼쳐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는 체험과 활동 지원 아동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집단 따돌림 금지, 방지를 위한 구조 만들기 지역에서의 상부상조와 연계 강화에 의한 육아 지원
◇ 2013년 조례 개정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 침해 당한 아동을 신속하게 구제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 곁에서 아동의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공정·중립적이고 독자성과 전문성이 있는 제3자 아동 인권옹호기관을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자료: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아동조례,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45128_d/fil/panhu.pdf 아동조례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함(2019. 8. 22. 인출)

나) 아동 조례와 아동행정의 관계³⁸⁾

① 행정 조직: 조례는 그 지자체의 아동관련 시책을 종합화하며, 행정을 일체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喜多明人, 2008: 6). 세타가야구(世田谷区)는 2004년에는 보육과, 아동 육성 추진과, 아동 가족과, 학대, 어린이집 설치담당 특명과를 담당하는 아동부(部)를 설치하였고, 아동부 중심으로 종합적인 아동시책이 시작되었다(岡田篤, 2019: 215). 2013년에는 아동부에 청년지원담당과를 설치, 이듬해 2014년에는 아동·청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岡田篤, 2019: 215). 행정부서로는 아동·청년부, 아동의 성장발달에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로 모자보건, 교육 분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년정책이 대상이 되어 39세까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사회

38) '森田明美(2015). 「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と自治体“子ども政策”の総合的展開に求められるもの」『ガバナンス』ぎょうせい, 6月, 20-22'와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내부자료(2019) 등을 구담당자의 승인 및 확인 후 참고로 작성

에 독립 할 청년들의 문화와 사상(思想) 등 최종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전개가 용이한 행정체제를 형성한다(森田明美, 2015: 21).

② 계획의 구체화: 이러한 행정조직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시체계를 구축한다.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행정시책 구상과 검토단계에서 구민의 참가, 전문가와 함께 한 역사는 길다(岡田篤, 2019: 215). 2005년 아동계획 제1기 전기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구행정은 아동계획에 관련한 구 전문 위원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森田明美, 2015: 21).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과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문제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고 계획수립과 시책화는 행정 중심이다. 그런 중에 학대 대응 시스템이나 모자 보건 시스템, 24시간 보육이나 구립 어린이집의 민영화 등 구 행정의 시책 마련되었다(森田明美, 2015: 21). 2006년에는 아동 기금이 설치되어, 구민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을 모금, 지역에서 양육관련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민 참가형 조성금 제도가 시작되었다(岡田篤, 2019: 217). 2010년에는 아동계획 후기계획 또한 수립되었고 그 시기에 Youth Meeting 세타가야가 발족되어 조례에 의한 아동 참가 조직인 청소년 문제 협의회(현 아동·청소년 협의회로 명칭 변경)를 만들게 되었다(森田明美, 2015: 21). 2014년 아동·청년부로 변경되어, 청소년 교류센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다(森田明美, 2015: 21).

③ 행정을 움직이는 평가검증의 구조³⁹⁾

세타가야구(世田谷区)는 1996년 지역보건복지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 확립을 위한 세타가야구지역보건복지추진조례(世田谷区地域保健福祉推進条例)의 책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구제시스템 정비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타가야구보건복지서비스고충심의회(世田谷区保健福祉サービス苦情審議会)가 설치되어있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2018: 440). 그러나 앞서 언급한 듯 아동 조례제정 당시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

39) '森田明美(2015). 「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と自治体“子ども政策”の総合的展開に求められるもの」『ガバナンス』ぎょうせい, 6月, 20-22를' 참고로 작성

40)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8). 일본 세타가야구 보건복지서비스불만 심의회 보고서.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fukushi/005/001/d00015396_d/fil/30katsudouhoukouku.pdf(2019. 8. 20. 인출)

인 아동 권리에 근거한 검증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森田明美, 2015: 21). 문제를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이용자 자신의 발언, 의견 표명이 요구되나, 아동시책에서는 아동 자신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한 그러한 의견을 정리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았었다(森田明美, 2015: 21).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서는 구의회의원, 학계 전문가, 전문위원, 구민, 행정청도 참가하여 공사(公私)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성장·육아에 관련한 사람들로 형성된 청소년문제협의회를 아동부에 두었다(森田明美, 2015: 22). 또한 활동의 일부를 아동 참가에 의한 의견표명을 위한 유스 미팅(Youth Meeting)을 설치, 평가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森田明美, 2015: 22). 특징적으로는 소위원회를 두어 그곳에서 아동시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당사자 입장에서의 평가 검증 및 보고서 제출하는 구조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 협의회로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답변을 하고 있다(森田明美, 2015: 22). 2011년 7월 구청장의 교체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森田明美, 2015: 22). 지방 주권 개혁에 의한 지방 청소년 문제 협의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아동·청소년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장과 구의회에 대한 아동행정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森田明美, 2015: 22). 또한 그 평가에 근거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것부터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시책의 구체화를 추진한다(森田明美, 2015: 22). 예를 들어 아동 권리 옹호 위원제도 등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며, 어린이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안에 설치 및 제도화를 도모한 것이다(森田明美, 2015: 22).

다) 아동·가족 친화 도시 만들기의 구체화를 위해 요구되는 요인⁴¹⁾

동경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아동·가족 친화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아동권리에 근거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꾸준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노력과 행정 담당자의 힘을 합쳐 만들어간다(森田明美, 2015: 22). 2011년 7월 세타가야 구청장 호사가 노부토(長保坂展人)씨의 취임은 이러한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아동 시책을 지금까지의 행정과 시민의 노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森田明美,

41) 森田明美(2015). 「子どもにやさしいまりつく自治体-子ども政策の総合的展開に求められるもの」, 『ガバナンス』 June, 20-22'를 참고로 작성

2015: 22). 2013년 9월까지 1년여를 걸쳐 논의된 세타가야구(世田谷区) 기본구상에서는 「아동이 빛나는, 참여와 협동의 마을 세타가야」가 중심 주제였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2014: 142). 그 과정에서 아동과의 대화가 몇 번씩 이루어졌고, 20년 후의 실시 주역이자 지금을 사는 주체로서 이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중학생판 세타가야구(世田谷区) 기본 구상·기본 계획」이 아동의 참가로 만들어져, 조금씩이지만 아동·청년이 마을 만들기의 주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구민으로서의 중요한 권리가 젊은 층에게 보장된 것을 의미한다(森田明美, 2015: 22). 이렇듯 아동과 청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청년 참가가 한층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森田明美, 2015: 22). 그것이 앞서 언급한 유스미팅(Youth Meeting)이며, 청소년 문제 협의회 위원으로써 2013년도에는 유스미팅 대표가 위원으로 취임하였다(森田明美, 2015: 22).

또한 NPO 「世田谷 의 아이들 참가추진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중고생 세대지원 모델 사업(사업명: 오루파オルパ)」(2013년 6월 1일~2014년 2월 28일)이 실시된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내부자료, 2019)⁴³⁾. 이 사업은 아동과 지역 상점가 및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9개월간의 프로젝트였지만 그 성과가 2014년도 청년 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내부자료, 2019)⁴⁴⁾.

〈표 III-3-3〉은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아동 양육사업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속에, 어린이의 참여와 추진을 행정이 받아들이고 그에 호응한 아동·청년이 활동을 다시 전개하여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 참가의 구체화를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森田明美, 2015: 22).

〈표 III-3-3〉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양육사업 연표

구분	조례·계획·행정조직	주요 시책	국가 신제도 대응
96년	아동가족지원센터 설치		
99년	아동 환경 정비 플랜 책정		
02년	어린이 조례 시행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 개호보험법 시행

42)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4). 세타가야구(世田谷区) 기본계획(2014~2023).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02/001/002/d00131681_d/fil/131681_1.pdf(2019. 8. 22. 인출)

43)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내부자료(2019)'를 근거로 작성. 담당자의 승인 및 확인 절차 진행하였음.

44)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내부자료(2019)'를 근거로 작성. 담당자의 승인 및 확인 절차 진행하였음.

구분	조례·계획·행정조직	주요 시책	국가 신제도 대응
04년	아동부 설치	보육서비스 제3차 평가 개시 보육내용의 제언 등 순회지도원 제도의 충실 이행	
05년	제1기 아동계획 책정	보육넷 카라스야마 지역 발족	후생노동성 신제도 논의 개 시 「사회연대에 의한 차세대 육성지원을 향하여」
06년		육아 스테이션 개설(세이조지역) 어린이기금 설치	
08년		산후 케어 사업 개시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기초한 급부제도개시
09년		보육넷 전 5개지역 발족 24시간 보육 실시 어린이집 개 원, 발달장애 상담·치료교육 센 터 「갱기」개원	
10년	아동계획 후기계획 책정	육아 스테이션 전 5개 지역 개 설. 유스 미팅 세타가야 발족	신제도 논의 개시
12년	어린이 조례 개정		
13년	아동부에 청년지원담당과 설치	아동인권옹호기관「세타하」개설	
14년	아동·청년부로 조직개시	청소년교류센터 개설 청년종합지원센터 개설	
15년	제2기 어린이 계획 책정 (청년계획 병기) 제1기 아동양육사업계획		아동·육아지원법
16년		세타가야구 네우보라, 아동빈곤 대책 종합계획	지방 청소년 문제 협의회법 개정
20년	제2기 아동양육사업계획	세타가야구 아동상담소 개설, 사 회적 양육기관 (아동양육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등 도쿄도로 부터 이관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 법 개정

자료: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내부자료(2019)' 근거 작성 후 담당자의 승인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본 연
구의 공동연구진이 재구성함.

제2기의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계획에서는 아동 조례를 한걸음 더 나아가 아동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다(森田明美, 2015: 22). 아동은 단순히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임을 아동권리의 시점에서 명확히 기 재하여, 아동의 관점에서의 계획이 고려되어질 것이다(森田明美, 2015: 22).

아동권리협약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 활용한 마을 만들기는 구민과 지역의 참가라는 시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친화된 도시 만들기를 표명하는 것이다(岡田篤,

2019: 214). 협약은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아동 문제를 권리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森田明美, 2015: 22). 아동을 전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온 지금까지의 생각을 전환하여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엄성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다(森田明美, 2015: 22). ‘어린이니까’, ‘몸과 마음이 미숙하니까’라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森田明美, 2015: 22). 또한 협약은 아동을 성인과 같은 취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아동기에 적합한, 더욱 더 엄격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森田明美, 2015: 22).

다. 아동·가족 친화 도시 만들기의 관점

지역에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간단하지 않다. 가족대대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역을 선택,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 가족을 형성하고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만으로 양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에 안심하고 그가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조건 등이 중요하다. 또한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동 자신이 장애를 가졌거나,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구성원에게 좋은 장소를 생각하여, 직장이나 학교, 자연환경이나 생활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커플이 자신들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 경력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다. 그리고 그 장을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거점으로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수입을 얻는 장소, 삶을 영위하는 주택을 시작으로 다양한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 환경이 있기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육아는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택,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안심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을 기본요소로 한다. 그 중 어느 것이 결여되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거나,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역할을 일부 보완하거나 완전히 보호 또는 대체가능한 중층적인 지원 체제가 복지,

교육, 의료·보건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며 이는 행정과, 공적 기관, 시민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 계획, 제도(운영 실시 조직), 평가 검증, 예산, 무엇보다 아동과 보호자의 참가에 의해 함께 지원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아동 권리의 관점을 공유하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항상 아동 권리의 구체화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동계획(2015년도~2024년도)은 아동양육사업과 아동·청년을 포함하는 6개의 큰 주제 1.육아를 하는 가정의 지원, 2.보육·유아교육의 충실, 3.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 서포터, 4.질 높은 학교교육의 충실, 5.아동의 성장과 활동 지원, 6.아동이 성장하는 환경 정비로 구성되어있는 계획이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2015. 3: 645). 또한 계획의 중점대책으로 1. 임신기부터의 지속적인 지원·확대예방, 2.육아 가정을 지지하는 기반 정비와 질의 향상, 3. 아동의 생활할 수 있는 힘의 육성으로 결정되었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2015. 3: 646).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대책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보호자, 시민, 사업자, 행정 이 협력하여 아동 권리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岡田篤, 2019: 214). 아동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에는 「아동·육아 응원 도시 선언」을 하고, 구민이 힘을 합쳐 아동이 생기 넘치고 가슴 설레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기본자세를 재차 확인했다(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 2019. 6. 30. 인출47). 아동과 육아 가정을 마을 만들기의 중심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동과 육아 당사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가운데, 항상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개인의 권리의 구체화, 희망의 실현을 향해있는지를 고려하며, 평가·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수정, 구축해나가야 한다.

45)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5. 3).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자녀 계획,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38606_d/fil/honnpenn.pdf(2019. 6. 30. 인출)

46)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5. 3).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자녀 계획,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38606_d/fil/honnpenn.pdf(2019. 6. 30. 인출)

47)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아동·육아 응원도시선언,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38162.html>(2019. 6. 30. 인출)

4. 호주 육아지원 특화 지자체 조성⁴⁸⁾

육아친화도시,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개념은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육아친화에 대한 국외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개념인 가족친화에 대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육아친화마을조성예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가족친화적 도시를 선정하고 발표하며, 지역사회 내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육아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호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가. 호주 양육지원 정책 개요

1) 호주의 인구 현황

[그림 III-4-1]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인구는 2019년 3월에 추정된 호주 인구수는 25,287,400명이었다. 이는 2018년 12월에 비해 388,8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1.6%의 증가를 보였다(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2019. 12. 2. 인출).⁴⁹⁾ 2019년 3월에 측정된 출생 아동 수는 139,100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2.2%(3,200명)가 증가하였다(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2019. 12. 2. 인출).⁵⁰⁾ 해외 이민자의 수는 2018년 3월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총 249,700명의 증가를 보였다(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2019. 12. 2. 인출).

호주 태생 엄마들의 출산율은 1.75로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레바논, 파키스탄, 사모아 등 이민자 출신의 엄마들은 한 명당 3~4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호주 Sydney Morning Herald, 2018. 12. 16, 보도)⁵¹⁾. 특히 시드니 등 대도시의 출산율은 낮은 편이며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호주 Sydney Morning Herald, 2018. 12. 16, 보도)⁵²⁾. 이렇듯

48) 본 절은 공동연구자인 박지윤 교수의 원고를 토대로 구성한 것임.

49)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D56C4A3E41586764CA2581A70015893E?Opendocument>(2019. 12. 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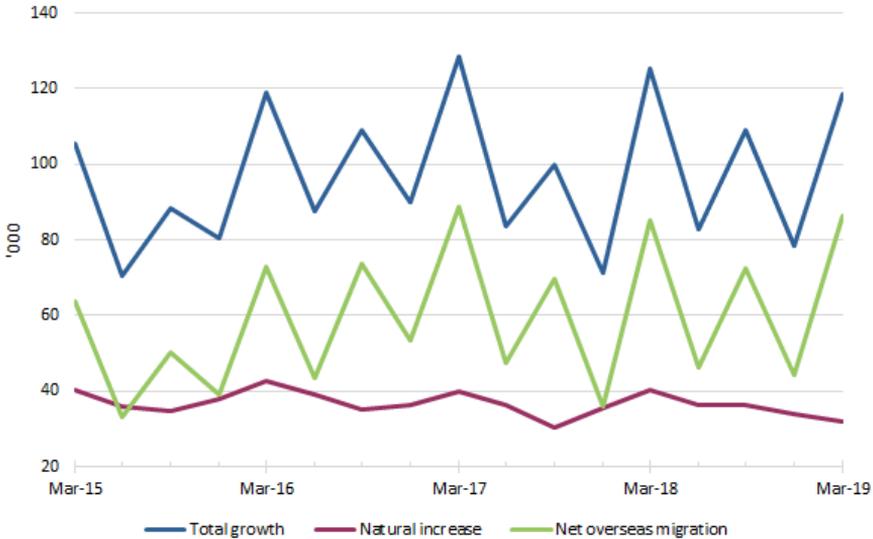
50)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D56C4A3E41586764CA2581A70015893E?Opendocument>(2019. 12. 2. 인출)

51) 호주 Sydney Morning Herald, <https://www.smh.com.au/national/nsw/sydney-s-migrant-mums-keeping-australia-fertile-20181214-p50mei.html>(2019. 6. 17. 인출)

52) 호주 Sydney Morning Herald, <https://www.smh.com.au/national/nsw/sydney-s-migrant-mums-keeping-australia-fertile-20181214-p50mei.html>(2019. 6. 17. 인출)

호주는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1] 호주의 인구현황



출처: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D56C4A3E41586764CA2581A70015893E?Opendocument>(2019. 6. 18. 인출)

2) 호주의 가족 및 아동 지원정책⁵³⁾

호주에서 가족정책은 가족법에 근거한 육아지원 및 가족 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가족과 아동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a, 2019. 6. 5. 인출).⁵⁴⁾ 또한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 지원과 조기 개입 활동 및 가정 붕괴 예방서비스 등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호주 Department Social Service Family and Child 홈페이지, 2019. 7. 24. 인출)⁵⁵⁾.

53) 호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family-support-program/family-support-program-funding-0>(2019. 6. 8. 인출, 이후 내용 정리)

54)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a,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payments-families#a1>(2019. 6. 5. 인출, 이후 내용 정리)

구체적으로 호주의 가족과 아동지원(Australia Family Support System)은 크게 가족 세금 면제 및 양육비지원, 주 보호자 아동수당, 렌트비 지원, 보육비 보조금지원, 청소년지원 양육자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보험(Medicare)지원, 외벌이 지원, 전화비 및 인터넷 통신비지원 등 총 9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⁵⁶⁾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1>과 같다. 2011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취약가정지원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담당처의 불필요한 형식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서비스 가족법 서비스에 관련한 지원에 3년간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였다(호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홈페이지, 2019. 6. 8. 인출⁵⁷⁾). 또한 호주 전역에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서비스로 제공되어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의 복지 및 안전을 개선하고 있다(호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홈페이지, 2019. 6. 19. 인출⁵⁸⁾). 이러한 호주 정부의 가족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4-1> 호주의 가족 및 아동 지원정책

구분	내용
가족 세금 면제 및 양육비지원 ⁵⁹⁾	가정의 형태에 따라 양육비 보조금 등의 차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정규과정 졸업전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며 세금면제 및 양육비는 양육자의 소득에 의해 차등 지원
주 보호자 아동수당 ⁶⁰⁾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8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이상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있고 6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한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또는 소득 및 자산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렌트비 지원 ⁶¹⁾	주거 지원기관(Rent Assistance)에서 연금 및 수당 또는 가족세금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 식사비, 은퇴자마을 요금 등을 지원. 단, 25세 미만에게는 특별규정이 적용

55) 호주 Department Social Service Family and Child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mes-services/parenting/families-and-children-activity>(2019. 7. 24. 인출, 이후 내용 정리)

56)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a,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payments-families#a1>(2019. 6. 5. 인출)

57) 호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family-support-program/family-support-program-funding-0>(2019. 6. 8. 인출)

58) 호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family-support-program/family-support-program-funding-0>(2019. 6. 19. 인출)

59)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b,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2019. 6. 18. 인출)

구분	내용
보육비 보조금 지원 ⁶²⁾	13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소득과 보육서비스유형 및 연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 이는 가족의 소득예상액에 근거하여 지원금액 계산 회계연도말에 각 가정당 보조금 지급을 결산, 가정의 소득 예상액과 실소득액을 비교하여 정확한 액수보조금 지급 조손가족의 경우 부양해야하는 경우 추가보육비보조 지원 또한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소득지원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 보육비지원
청소년지원 ⁶³⁾	16~24세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청소년 수당지급 및 필요에 따라 전기세 75불이 추가지원, 또한 결혼한 청소년의 경우 62.50불의 지원금 제공
양육자 지원 ⁶⁴⁾	양육자가 장애, 심각한 질병, 노인이나 심리적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경우 양육자에게 상황에 맞는 양육비가 지원
건강 및 의료보험 (Medicare)지원 ⁶⁵⁾	Medicare는 호주의 국민의료보험 체계이며 가정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 지원, - 일반의(GP) 및 전문의 진찰/-엑스레이 스캔 및 검사 - 2세에서 17세 사이의 기본치과 검진
외벌이 가정 지원 ⁶⁶⁾	양육자중 한명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 자격요건에 따라 각 가정 당 매년 300불까지 지원
전화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⁶⁷⁾	특정액의 분기별 전화비와 인터넷 비용 제공

출처: 호주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홈페이지a,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payments-families#a1>를 기본 내용으로 각 분야의 지원현황을 파악 정리(각주참고)(2019. 6. 18. 인출)

나. 호주의 가족친화 도시 선정 사례

호주에서는 국가, 주정부차원에서 가족과 아동의 복지와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

- 60)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c,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2019. 6. 19. 인출)
- 61)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d,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rent-assistance>(2019. 6. 19. 인출)
- 62)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d,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rent-assistance>(2019. 6. 19. 인출)
- 63)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e,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2019. 6. 19. 인출)
- 64)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f,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2019. 6. 19. 인출)
- 65)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g,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whats-covered-medicare/health-care-and-medicare>(2019. 6. 19. 인출)
- 66)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h,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single-income-family-supplement>(2019. 6. 19. 인출)
- 67)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i,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telephone-allowance>(2019. 6. 19. 인출 이후 내용 정리)

한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들이 아동과 그 가족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조건들이 지역에서 가족에게 친화적인지 호주의 Suncorp Bank가 가족친화도시(Family Friendly City)를 위한 조사결과를 2013년, 2014년 연속적으로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y Report⁶⁸⁾로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호주의 인구가 많은 상위 30개 도시를 선정, 10개의 주요지표(key indicators)를 구성하여 가족에게 가장 친화적인 도시 선정을 하였다.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양적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수치(Measurements)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하다(호주 Suncorp Bank, 2013: 2-3).

1) Suncorp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2013⁶⁹⁾

2013년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10개의 주요 지표(key indicator)에 따라 친화적인 도시의 등급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보여주는 범죄, 교육과 주거 등으로 구성된 1차 지표(primary indicators)와 소득, 보육 등으로 구성된 2차 지표(secondary indicators)로 분류하였다(호주 Suncorp Bank, 2013: 2-3).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III-4-2>와 같은 제1지표와 제2지표가 사용되었다(호주 Suncorp Bank, 2013: 2-3).

<표 III-4-2> 가족친화적 도시지표 2013: suncorp bank report

지표		내용	사용 데이터
1차 지표	범죄	각 시의 인구당 범죄율	-인구10만명당 범죄율 -각 주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범죄관련 데이터 -호주 통계청, 연방 경찰청 등 6개 주 경찰청데이터
	건강1	각 도시의 인구당 평균 GP 방문수	-인구대비 1년간 GP서비스 받은 횟수(2010/2011년도 데이터 이용)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 데이터(2012)

68)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2019. 5. 4. 인출) / 호주 Suncorp Bank(2014).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documents.site/suncorp-banks-family-friendly-city-the-suncorp-bank-family-friendly-city.html>(2019. 5. 25. 인출)

69)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2019. 5. 4. 인출)

지표	내용	사용 데이터
	교육	학교갈 수 있는 연령의 아이수당 지역별 학교 수 -각도시의 학교수와 학령기 아동 수 -호주 통계청 자료
	주거	각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각 도시 평균 주택가격에 근거
	실업	각 도시당 실업률 -노동 가능한 인구대비 실업률 -2011년 인구조사에서 데이터
2차 지표	소득	주당 평균 가처분소득 -평균 세금납부가능한 수입 조사 -호주통계청자료
	보육	0-4세 아동 수당 및 각 도시의 child care센터수 -child care 센터수당 0-4세 유아수
	건강2	도시 인구당 장기간의 건강관련 자기평가 -건강상태 관련 자기평가와 평가 당시의 장기간 건강상태 평가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 데이터(2012)
	연결성	각 가정 인터넷연결 비율 -각 가정의 인터넷 연결(2011년 인구조사 데이터)
	지역 사회	각도시의 인구 당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 비율 -2012년 10월 각 지방정부의 자료에 근거 -2011년 인구조사에 근거한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 데이터(2012)

출처: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2019. 5. 4. 인출 이후 내용을 토대로 표로 정리함)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2013에서는 TAS주의 론세스톤(Launceston), ACT주의 캔버라(canberra)가 호주에서 가장 가족친화도시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호주 Suncorp Bank, 2013: 4). 특히, 론세스톤(Launceston)은 제1지표 5개 항목 모두 10위 안에 들어 가족이 생활하기 좋은 기본적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호주 Suncorp Bank, 2013: 4). 반면 호주의 주요도시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은 수입, 연결성은 모두 10위 안에 들었으나 범죄, 건강1 등 제1차 지표가 낮은 순위로 전체적으로 각 14위, 23위, 24위를 차지하여 대도시가 가족 친화도시로의 평가는 어려웠다(호주 Suncorp Bank, 2013: 4). 그러나 QLD주는 상위 10위안에 6도시가 속해있어 가장 친화적인 주로 나타났다(호주 Suncorp Bank, 2013: 4). 가족친화성을 평가한 2013년 각 지표별 결과는 이하와 같다⁷⁰⁾.

70)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2019. 5. 4. 인출)

〈표 III-4-3〉 2013 가족친화적 도시결과: suncorp bank report

지표		결과
1차 지표	범죄	- 범죄 인구 10만당 범죄율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 SA주의 아들레이드가 가장 안전한 도시였으며, 론세톤은 3위 케언즈, 캔버라, 브리즈번 등은 10% 이상이 가정폭력이나 사기, 성폭력 등의 범죄를 경험
	건강1	- 북 TAS주의 Burnie는 호주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일 년에 시민 한명이 GP를 방문한 횟수가 평균 1.3회이며, 가장 건강하지 못한 도시인 QLD주의 선사인 코스트의 평균 8회보다 현저히 낮음
	교육	- 5-19세의 연령의 지역 반경 10키로 내 아동수 대비 학교 수를 조사 - 론세톤이 학교 수 당 가장 적은 학생 수를 기록, NSW주의 콕스하버가 1,521명을 기록하여 가장 대규모 학교로 판명
	주거	- 1위와 30위의 평균 집값이 40만불 이상 차이가 있어 지방도시의 경우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반값 이하임
	실업	- QLD주의 가장 큰 내륙도시인 투움바가 가장 낮은 실업률(1.9%), NSW주의 콕스하버가 가장 높은 실업률(8%)로 지난 10년간 제조업 저하가 원인으로 추정
2차 지표	소득	- 2011년 1월부터 1년간 호주 통계청에 보고된 가처분소득과 평균임금을 측정한 결과, 수도인 캔버라가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주 당 가처분 소득 1,009호주달러로 호주 연간 최저임금인 52,000호주달러보다 높은 수준임
	보육	- 캔버라가 가장 교사 대 아동수가 적으며 0-4세 아동이 이용 가능한 장기, 단기 보육시설이 많음 - QLD의 골드코스트가 가장 많은 아동이 한 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건강2	-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기평가한 것으로 주관적이지만 도시 주민들의 자신 건강상태에 대한 자각하고 있음에 가치를 둠. - WA주의 Perth의 72%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QLD주의 Hervey Bay가 인구의 60%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여 건강에 대한 자각이 가장 낮음
	연결성	- 캔버라가 이 지표에서 최상위로 각 가정의 78.4%가 인터넷 연결됨 - 브리즈번(75.10%)과 시드니(73.80%)로 대도시가 연결성이 높으며, TAS주의 Burnie(59.8%)가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남
	지역 사회	- 캔버라의 시민 4명중 1명이 매년 기관 혹은 단체 등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을 호주에서 가장 지역사회중심의 주(state)로 만들었으며, SW주의 Mandurah지역은 15%만이 지역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가장 낮음

출처: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2019).
5. 4. 인출 이후 내용을 토대로 표로 정리함)

2)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2014⁷¹⁾

2014년도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지표에 도로안전, 밤거리 안전, 학생 수 대비 선생님 수, 면역력과 대출스트레스 등이 추가되었다. 전체적 순위에 변화가 있어 켄버라, 시드니, 호바트와 멜버른이 10위 안에 들었다, 또한 혼잡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도시인 동부해안의 주요도시들보다 지방 도시들이 더욱 가족친화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호주 Suncorp Bank, 2014: 1-2). 또한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의 경우 2013년 결과에 비해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가 제시하는 가족친화도시 지수(index)는 많은 지방 도시들이 대도시 보다 가족친화적 도시임을 알 수 있었다(호주 Suncorp Bank, 2014: 1). 2013년과 같이 인구가 많은 상위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요지표들에 따라 가장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선정하였다. 교육, 안전, 건강, 소득, 실업, 대출 스트레스와 같은 지표를 조사하였지만 환경(기후와 날씨), 라이프 스타일(비치와 공원) 등 주관적인 성향이며, 각 주에서 일관성을 찾기 힘든 항목은 제외하였다(호주 Suncorp Bank, 2014: 2). 2014년도의 새로운 지표는 아래 <표 III-4-4>와 같다.

<표 III-4-4> 가족친화적 도시지표 2014: suncorp bank report

지표		내용	사용 데이터
1차 지표	학교	도시 중심부에서 20키로 내 20개 학교 학생 대비 FTE (Fulltime Educator) 교사 수	- the Australia Government's My school Website - 지표는 각 지역의 총 학생등록자수 대비 20개 이상의 학교에서 FTE교사 수입
	대출 스트레스	주 당(weekly)30% 이상의 대출스트레스를 가지는 가정	- the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 2013년 10월 자료 사용 - 지표는 주택대출 스트레스를 가진 가정을 측정
	소득	육아가정의 맞벌이 가정의 수입의 양 측정	- 호주 통계청 - 지표는 육아가정의 맞벌이 가정의 수입을 측정함
	실업	각 도시의 실업률	- 호주 통계청
2차 지표	면역력	5세 이상의 예방접종 (Full Immunization)	- the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2013자료)
	지역 사회	지난 12개월간 무급으로 자원봉사한 사람 수	- the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 - 18세이상 성인 중 지난 12개월 동안 기관이나 단체에

71) 호주 Suncorp Bank(2014).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vdocuments.site/suncorp-banks-family-friendly-city-the-suncorp-bank-family-friendly-city.html>(2019. 5. 25. 인출)

지표	내용	사용 데이터
참여		서 무급자원봉사를 한 사람 수 측정
건강	자신의 장기간 건강상태 자가 평가	- the Social Health Atlas of Australia - 지표는 자신의 건강상태 양호관련 자가로 평가
도로 안전	0-74세의 도로에서 사고와 죽음까지 측정	- 0-74세의 도로에서 사고와 죽음까지 측정
지역 사회 안전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수	- 밤에 홀로 다니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 측정

출처: 호주 Suncorp Bank(2014).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vdocuments.site/suncorp-banks-family-friendly-city-the-suncorp-bank-family-friendly-city.html>, pp. 2-3(2019. 5. 25. 인출 이후 내용을 토대로 표로 정리함)

호주 Suncorp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2014에 의하면 NSW주의 Wagga Wagga가 전년도의 공동 14위에서 1위로 올라와 가장 가족친화도시로 기록되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Wagga Wagga도시는 NSW 중 중심부인 Murrumbidgee 지역에 위치한다(호주 EvoCities 홈페이지, 2019. 6. 15. 인출72). 가족친화성을 평가한 2014년 각 지표별 결과는 이하<표 III-4-5>와 같다73).

<표 III-4-5> 2014 가족친화적 도시결과: suncorp bank report

지표	결과
1차 지표	
학교	시드나와 멜버른이 가장 학생 수가 적은 교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수 대비 full time 선생님의 수를 말하며 각 도시의 수업의 규모를 의미함
대출 스트레스	VIC주의 Burnie 지역 주민이 가장 낮은 대출금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10위안에 호주 주요도시가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Wagga Wagga 지역이 유일하게 NSW주에서 상위 10위 안에 링크됨
소득	캔버라가 대도시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캔버라의 맞벌이 가족들은 평균 3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이는 호주 전체에서 유일한 곳임. 또한 다윈, 퍼스가 2,3위에 링크되어 그 지역 중심의 자원이 직업과 관련되어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
실업	호주의 북쪽 지역(The Northern Territory)이 가장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SA주의 다윈 지역은 호주에서 경제성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드니 Wagga Wagga에서 실업률이 낮은 것은 소매사업이 발달되었으며, 건강 및 공공기관 산업들이 있기 때문임

72) 호주 EvoCities 홈페이지, <https://evocities.com.au/2019-evocity-events/what-is-evocity-life/> (2019. 6. 15. 인출)

73)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음(2019. 5. 4. 인출).

지표		결과
2차 지표	면역력	Albury-wodonga, Bundaberg 등에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을 나타내며, 호주의 주요도시들이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함
	지역사회 참여	Wagga Wagga가 호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참여도가 높은 도시로 링크되었고 지역 주민의 45.4%가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비영리 기관 등에서 자원봉사로 사용
	건강	호주 WA주 수도인 퍼스는 가장 건강한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각 주의 수도인 캔버라와 시드니, 멜버른 등이 상위 5위를 차지함
	도로안전	Wagga Wagga가 이 지표에서 1위, 멜버른, 캔버라 등 많은 대도시가 상위10위 링크
	지역사회 안전	Wagga Wagga가 호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이 밤에 시티주위를 혼자 걷는 것에 대해 안전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각주의 수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TA주 수도인 Hobart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링크

출처: 호주 Suncorp Bank(2014).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vdocuments.site/suncorp-banks-family-friendly-city-the-suncorp-bank-family-friendly-city.html>, pp. 2-3(2019. 5. 25. 인출 이후 내용을 토대로 표로 정리함)

다. 호주 Wagga Wagga 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사례

1) 도입 배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4년 호주에서 가장 가족친화도시로 NSW주의 Wagga Wagga가 링크되었다. 14위에서 1위로 급상승한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전략적인 도시계획이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홈페이지a, 2019. 5. 25. 인출⁷⁴). 호주 Wagga Wagga에서는 “지역의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이며 기회와 선택, 학습과 환경에 있어서 항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3)를 지역사회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명된 지방정부의 목표가 최우선시 되며, 지방 행정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가 이를 공유하고 관련 협력단체들 또한 이 계획의 이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4). 특히 가족중심 지역의 비전을 위한 전략으로 「Ruby and Oliver. Our Future. Our Community」 프로그램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였다. Ruby와 Oliver가 공표되기 전 몇 달간 약 1,200명 이상의 지역사회참여 조사활동을 통해

74) 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홈페이지a, [https://wagga.nsw.gov.au/city-of-wagga-wagga/council/plans-and-reports/planning-for-our-community/planning-for-our-community-2\(2019. 5. 25. 인출](https://wagga.nsw.gov.au/city-of-wagga-wagga/council/plans-and-reports/planning-for-our-community/planning-for-our-community-2(2019. 5. 25. 인출)

수집된 데이터들을 근거로 만들어져, 정식으로 2013년 5월 1일에 지역사회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Community Strategic Plan Ruby and Oliver. Our Future. Our Community」가 공포되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홈페이지b, 2019. 5. 25. 인출). 이렇듯 Ruby와 Oliver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Ruby and Olive

가) Ruby and Oliver란⁷⁵⁾

Wagga Wagga의 지역사회 전략적 계획과 이행을 위한 계획은 지역공동체사회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3). Ruby와 Olive는 2011년 Wagga Wagga에서 가장 많은 여아와 남아의 이름이며, 이는 앞으로 이들이 지역의 학교로 가며, 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갈 어른으로 성장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해진 이름이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3). 즉 Ruby와 Oliver는 지역사회의 현재이며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 지를 보여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가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Wagga Wagga 지역사회 전체의 목표이며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동체사회의 이해를 담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3).

나) Ruby and Oliver 목표

(1) 지역사회와 연계 및 참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라고 느끼며 서로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협의회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킨다. 이

75) 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홈페이지b, <https://www.waggaview.com.au/rubyandoliver?page=3>에서 내용을 인용 정리함(2019. 5. 25. 인출)

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 등 지역사회에 참여를 기본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간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2013: 5-7). 이렇듯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는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준다. 지속적인 관계성과 기본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Ruby와 Oliver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비전을 만들어 지역사회 멤버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실천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분기 말에 작성되는 보고서를 통해 목표의 진행 현황을 지역사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5-7).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치안활동으로 사회의 범죄율 감소와 만족감을 증가하도록 한다. 또한 가정 폭력 감소, 알코올 관련 범죄, 개인범죄, 부동산 범죄 등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8-13).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빠른 대처를 위한 협의회의 형성, 사회의 보호구역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8-10).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비만, 흡연, 알코올 등의 감소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의 큰 목표이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8-10).

(3) 성장하는 경제사회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기회가 있으며, 성장 가능하게 하는 경제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 유익하다. 이러한 것이 Wagga Wagga에서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률감소, 원주민 비원주민 사이의 고용 격차감소, 15-24세 청년층의 고용과 학습증가 그리고 55세 이상의 고용 증가와 직업수의 증가 등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1-13). 또한 가구 수입의 30%, 그 이상을 주택 대출금 혹은 임대비용으로 내는 가정의 수 감소, 정부 수급자의 감소 등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 또한 큰 목표로 하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1-13).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전문

기술 및 학력증진 또한 지역사회의 목표이며, 대학학위, 전문기술(Advance diploma)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구축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실천계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4-16). 이를 위해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산화탄소, 쓰레기, 에너지소비 감소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지역 사회 만족도 상승과 지역전체의 도시정비와 토지계획을 통해 다음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4-16).

라. 시사점

이상의 내용에서 Wagga Wagga시에서는 지역공동체사회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지역사회 전략적 계획과 이행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지역 만들기를 실시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4년 가족친화도시 1위로 선정, 가족과 아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했다. 특히, 주민들의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 등에서 봉사활동 참가율 45.4%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많은 주민들이 속해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호주 Suncorp Bank, 2014: 5). 앞서 언급한 Wagga Wagga city council community strategic plan Ruby and Oliver의 큰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Wagga Wagga 시를 가족친화도시의 기본지표인 주민참가, 도로안전, 지역사회안전에서 모두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Wagga Wagga 시에서는 Community Strategic Plan Ruby and Oliver. Our Future. Our Community(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를 잇는 Community Strategic Plan 2040 지역사회 전략 계획서(호주 City of Wagga Wagga, 2017)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한, 한명이 아닌 공동체가 앞으로 지역사회 미래 발전을 위해 모두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호주 City of Wagga Wagga, 2017: 576). 이것이 Wagga Wagga시를 더욱 가족참여형 가족친화도시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5. 소결

국내외의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사례를 고찰함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마을공동체의 조성은 관(官)이 주도하기보다는 민(民)에서 생겨난 활동을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지자체가 마을공동체조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자생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즉, 정부주도, 지자체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민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마을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활동이 주축을 이루며 그 특징이 생활 속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운영 요소들을 지닌다. 하나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뿐 아니라 아이 기르는 과정, '육아'라는 개념 또한 생활 전 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며 마을공동체사업 중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육아친화적인 요소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 중 육아친화적 요소를 찾아보면, 안전한 환경 조성, 공동육아, 도서 공간 운영, 방과 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공론의 장(場)인 '수다방' 마련, 다양한 생활 나눔, 문화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을공동체사업을 살펴보면 마을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참여를 동기화하는 노력들이었다. 또 그 과정에서 행복감, 공동체성, 주민주도성 같은 효과를 경험할 때 새로운 활동들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목표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는 것이 육아친화적인 마을일 것이다.

넷째, 육아를 위한 마을을 조성할 때는 마을 내 물리적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마을 주민 공통의 가치관과 인식 공유는 필수적이나, 이에 제반되는 물리적 시설 역시 중요하다. 물리적 시설 역시 마을 주민들 전체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고, 특히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76) 호주 City of Wagga Wagga(2017). City of Wagga Wagga Community Strategic Plan 2040. <https://www.waggaview.com.au/35699/documents/76721>에서 내용을 정리함(2019. 6. 5. 인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눈높이를 맞춘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더함 남양주 마을 공동체 조성에서 어린이집 시설과 공동 육아를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 놀이터, 도서관 등의 시설 등의 구축에 앞서 마을 주민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섯째, 호주 Wagga Wagga시의 사례는 종래의 정부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방법과는 달리 행정과 지역주민, 지역자원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시민참가가 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 시민의 생활스타일 등을 고려한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외 사례는 본 연구가 수행하는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모형 개발에서도 지표 개발과 주민참여적 요소를 병행 반영함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IV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 개발

- 01 지표개발 연구개요
- 02 지표개발을 위한 쟁점 검토
- 03 육아친화성 측정지표의 개발
- 04 지역의 육아친화성 측정 및 분석
- 05 소결

IV.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 개발

본 장⁷⁷⁾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과정과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개발」 공동연구·확산 및 상호 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 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육아관련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라는 기준으로 지표구성 영역을 획정하고, 세부지표 풀(pool)을 구성하고, 최종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전국 시군구 자료를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로 분석하여 지역의 육아친화성 측정 진단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지표개발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출산 후 양육자가 직면해야 하는 열악한 육아 환경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내 육아친화성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늠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의 육아친화환경의 수준을 측정하거나, 육아친화성에 관련된 사항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세종특별자치시 해밀리 6-4지구 조성, 2016년)”이라는 단위사업을 통해 아동과 육아에 친화적인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 국가 전체수준에서 육아친화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공간구조의 개선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가차원에서 육아와 양육에 대한 환경을 관리하는 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뜻한다. 아울러 아동과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특정 정책대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

77) 4장은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개발」 공동연구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최지민 부연구위원, 강영주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부분임.

역에서,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육아라는 다양한 생활분야와의 연계성이 필요한 활동(activity)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으로 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친화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지역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단위로 양육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場)이며, 중앙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역 내 육아친화성 지표 개발을 위해 유사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최종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표를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별 육아친화성의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지역의 종합적인 육아친화성 수준 뿐 아니라 지표의 세부 차원 양상까지 고려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각 차원별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구의 문제의식

본 연구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된 육아친화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정량지표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저출산 정책 기조와의 연계성 및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마련된 정책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며, 지역기반의 특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지표의 정책적 함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다양한 유사 개념(아동친화마을, 가족친화마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개념을 통해 구현해야 할 차별화된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개념의 분석이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지역의 속성에 대한 측정방식과 활용방식을 살펴보았다. 셋째, 지역 내 다양한 구조(제도 및 공간)의 육아친화성에 대한 요소와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지표구성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표의 풀(pool)을 도출 후 지표의 중요성에 따라 다시 해당 지표 풀(pool)을 1차 지표와 2차 지표로 나누어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 간 비교를 위해 가용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 및 확보에 집중하였다.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육아친화성 측정한 결과가 추후 유사한 지역 사회 단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연구범위

본 연구의 세부 과업범위는 다음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육아친화성 지표개발 관련 문헌의 검토이다.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개념 정립에 의거해 육아친화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 차원을 선정하며, 하위 차원은 지역사회의 육아친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기존 유사 선행 지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둘째, 기존 유사 지표에 대한 검토와 이를 통해 육아친화성과 관련된 지표의 풀(pool)을 구성한다. 거시지표(시군구, 행정안전부 보유 읍면동 자료, 국가통계포털 읍면동 자료, 읍면동 자체 보유 자료) 확보 후 육아와 관련된 지표를 사후적으로 구성하였다. 육아친화마을 하위 차원별 최종 지표 선정을 위해 거시 지표 중심의 가용 데이터 확인하며, 가용 데이터는 양육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를 고려하되 정책적 설계가 가능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개별 지표 간 관계를 고려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셋째, 최종적으로 육아친화마을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지표를 구성하고 선정하도록 한다. 마을별(읍면동 수준) 육아친화성 지표산출, 지역의 육아친화성에 대한 세부지표수준 분석, 지역유형별 분석과 그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라.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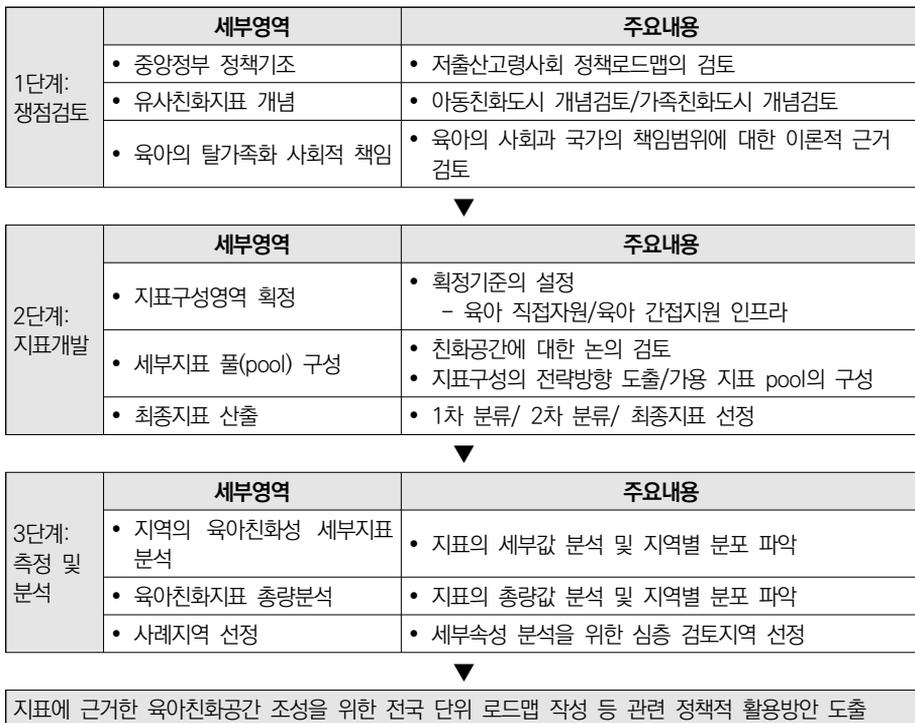
첫째, 문헌연구는 관련 법·령·규칙, 학술연구, 현황자료의 분석을 포함한다. 문헌연구의 목적은 육아정책 지표 개발을 위한 국정철학과의 연계성, 정책수요자의 고려사항, 기존 유사 개념의 확인 및 본 연구의 차별점 부각하는 데에 있다. 해당

개념과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까지 공개·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가장 먼저 수행했으며 국가통계포털, 각 광역 자체 통계포털, 또는 시군구 자체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실증자료 분석이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식, 데이터 수준, 지방(광역 및 기초)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데이터의 접근성, 활용가능성을 토대로 산출된 지표로 지역 내 육아친화성을 측정,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혁신 개념의 적절성, 사업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면담조사과정을 거쳤다. 면담조사의 대상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 육아친화성 지표에 관해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각 학계 전문가 및 지역별 보육담당 행정담당자 등이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별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IV-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IV-1-1] 연구의 수행절차 개관



2. 지표개발을 위한 쟁점 검토

가. 중앙정부 정책기조와의 정합성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사회 3차 기본 계획('16~'20)과 4차 기본계획('21~'25)을 잇는 중점 정책과제('17.5~'22.5) 시행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이 중 육아친화성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의 추진 영역의 지역의 인프라 구축 과제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사회”라는 공간적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물리적 삶의 공간과 추상적 정책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철학은 영유아와 초등학생까지의 생애주기를 망라하고 가정 내 양육부터 시설을 통한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세부과제로 이어진다. 정부는 해당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시설, 가정,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미디어생활, 2018. 12. 10. 보도).

나. 지표의 다양한 정책적 활용성

육아친화마을 지표 개발을 위해서 다음을 고려한다. 첫째, 향후 개발된 지표의 활용도 관점에서 지표 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해당 지역의 종합적 육아친화성 현황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차원별 특성을 제시하고 다른 지역과의 각 차원을 비교해봄으로써 해당 지역의 위치를 지역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다. 둘째, 육아친화마을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 정책 수요자, 정책 대상, 정책 범위 등을 충실히 아울러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육아친화성 지표를 개발하는데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지표상으로 구현하고 지표로 측정된 결과를 통해 정책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육아”라는 행위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양육자와 영아, 유아, 아동의 전 연령을 아우르는 타겟층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친화

마을의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해당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정책범위로 설정하였다. 셋째, 수요자(양육자, 아동)의 생애주기 관점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유아, 아동으로 나눠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표 IV-2-1〉 연구의 수행절차개관 주요쟁점별 지표검토 사항

구분	주요 고려사항	세부 고려사항
지표활용 관점	지표 개발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을 측정하고자 함인가? • 평가를 하고자 함인가? • 정책적 처방을 위함인가?
행정· 정책관점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친화마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상위정책은 무엇인가? • 해당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 해당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은 확보되었는가?
	정책 수요 (정책 문제)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이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대상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친화마을 구축을 위한 수요계층은 누구인가? • 그들의 욕구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정책 범위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측정해야 할 범위는 무엇인가?
수요자 중심적 관점	수요자가 육아 시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가 생애주기별 육아 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는가?

다. 육아의 탈가족화와 사회적 책임

1) 양육의 사회화의 주요내용

육아의 친화적 환경은 육아과정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가족 내에서의 돌봄과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주체가 되는 제도적 돌봄에 이르는 확장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때 가능하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육아정책의 적정역할과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는 “양육의 사회화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이론은 양육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역할이 적정한지, 이 같은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논의들로 활용되고 있다.

양육의 사회화 이론에서는 제도적 가족주의로부터 벗어나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서 제도적 가족주의(institutional familialism)란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 있어 시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 의무, 권리를 강화하고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속성이다(송다영, 2014: 124). 가족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이념형에 해당한다. 양육의 사회화이론은 국가의 소극적 역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사회재생산을 가족에게 대부분 전가 시키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 돌봄과 양육을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송다영, 2014: 121). 따라서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양육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짐으로써 자녀양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봄의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육아와 관련된 모든 비용, 서비스, 시간 자원 등은 사회와 국가의 구조적 지원 하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양육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구분하고 각자 영역의 선택과 집중을 도와 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관심을 가진다. 양자 간의 구별은 “양육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와 같은 양육의 수행 주체의 구분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같은 구분이 이뤄지면 이후 “양육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급여(수당) 지급, 서비스 제공, 휴가제공)의 정책처방으로 이어진다.

먼저 양육의 가족화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양육의 주체는 양육자로 여전히 양육자가 부담하지만 돌봄에 대한 양육자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출산 과정의 출산휴가제도(휴가 급여제공), 양육 과정의 육아휴직제도(휴가 급여제공),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급여 제공) 등이다.

다음으로 양육의 탈가족화의 목표는 기존 가족이 수행하던 양육, 돌봄 기능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며, Leira(2002)와 윤홍식(2006)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 중 서비스의 형태만을 탈가족화라 규정하였다. 이 경우 양육자는 돌봄을 돌봄 노동자에게 의탁함으로써 돌봄의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돌봄 노동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까지 사회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과정의 산후 도우미 지원이나, 양육 과정에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을 통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이다.

기존 논의에 더하여 돌봄의 가족화 정책 수행 시 양육자가 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육과정에 지역 사회 내 돌봄 인프라 확충(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

지원센터), 온마을 돌봄 플랫폼 확충, 공공실내놀이터 확충, 유아숲체험장·공원 등 야외놀이 공간 확충, 지역 사회 내 안전한 돌봄 환경 확충(안전한 지역 사회 내 보행 환경, 안전한 치안 환경,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건 환경 등) 등을 들 수 있다.

2) 육아의 사회적 책임

양육자가 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은 주로 육아에 관련된 인프라 제공에 대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양육이라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구조가 실제 양육의 수요자인 여성과 양육대상인 아동의 삶을 지원할 때 양육의 사회적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양육자의 일상은 지역 내 어떠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에 여부는 실제 양육과 육아에 관련된 여성의 일상과 그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이 일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린 및 공동체 내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므로 열린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언제 어디에서라도 육아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별시설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용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차량을 활용해서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용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집중된 공간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역 사회 내 돌봄 인프라 확충(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온마을 돌봄 플랫폼 확충, 공공실내놀이터 확충, 유아숲체험장·공원 등 야외놀이 공간 확충), 지역 사회 내 안전한 돌봄 환경 확충(안전한 지역 사회 내 보행 환경, 안전한 치안 환경,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같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경우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결, 안전한 이동, 육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시설이용이 무리 없이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쟁점에 대한 주요내용과 지표개발에서 활용할 검토사항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쟁점검토사항 및 시사점 도출

쟁점	검토사항	주안점
중앙정부의 정책정합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의 추진 영역	육아친화성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의 추진 영역”의 지역의 속성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라는 공간적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물리적 삶의 공간과 추상적 정책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함
유사개념검토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욕구와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가족친화도시	가족이 수행하던 과거의 돌봄 기능을 사회가 어떻게 나누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제시
육아 탈가족화 사회적 책임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범위	다양한 환경구조가 실제 양육의 수요자인 여성과 양육대상인 아동의 삶을 지원 할 때 양육의 사회적 책임성이 확보

▼
지표영역의 확정기준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와 돌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육아지원)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친화 인프라의 구축여부(인프라)
 양육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 및 치안 인프라의 제공여부(인프라)

3. 육아친화성 측정지표의 개발

가. 분석절차개관

1) 지표개발의 목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작업은 하나는 지표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육아친화성 지표개발의 목적은 정책을 평가하거나 관리지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와 지표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않고 지표를 포괄하는 상위요인간의 내적타당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지표구성을 위해 개념적 타당성을 우선으로 두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활용하였다.

2) 분석단위의 수준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1차 요소는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 인프라의 속성이다. 마을과 지역, 사회, 국가는 중층으로 상호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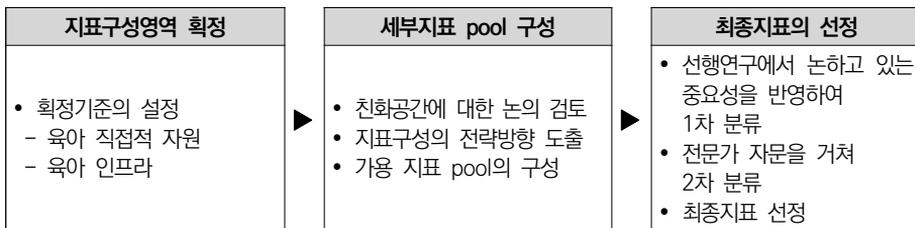
또한 교통발달과 생활환경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작은 지역은 정량지표

개발의 분석단위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 확보의 차원에서 분석단위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의 기초지자체는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의 기초단위이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역 비교의 단위로 적합하다.

3) 지표개발 절차

전문가 자문에서 지표활용에 대한 일반적 절차를 준용한다. 지표개발을 위해 지표구성영역의 확정, 세부지표의 풀(pool) 구성, 최종지표의 선정의 3단계를 거치며 각각의 단계별로 다시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쳤다. 지표개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IV-3-1]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IV-3-1] 지표개발 절차 개관



전문가 자문에서 지표활용에 대한 일반적 절차를 준용한다(김정석·황선재·송유진·김혜영, 2013). 확정된 지표구성영역 내 포함시켜야할 최종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부단계별 논의

1) 1단계: 지표구성 영역의 확정

1단계에서는 <표 IV-3-1>의 쟁점검토사항을 통해 도출된 지표영역의 확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개념적 특성을 연결하고자 한다.

육아친화성은 해당 지역의 속성이 양육자의 가족 내 돌봄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지, 가족을 넘어 지역 내 육아에 관련된 자원이 육아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담는다. 양육의 가족화는 전달체계 및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다. 반면 양육의 탈가족화는 실제 지역 내 육아지표와 관련되어 있으며 육아친화지표 개발 시 지역 사회 단위의 양육자와 유아의 삶의 질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친화성지표의 구축은 수요자가 육아관련 자원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을 핵심개념으로 간주한다.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으로 해석된 육아친화성은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권(돌봄을 안심하고 의탁 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권(양육자가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의 조화를 의미한다.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며 돌봄지원 인프라, 안전 보장 인프라, 보건 인프라 등과 같은 거시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표 IV-3-1〉 양육 사회화 영역별 지표정의 및 관련 지표 예시

구분	정의	예시
육아 직접적 자원 지표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자의 노동권과 아동권 확립을 위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가?	〈거시지표〉 - 전체 보육시설 비율 -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 국공립 아동의 등록 수 - 돌봄 노동자 대 아동 비율 - 급식, 간식 비용 〈인식지표〉 - 돌봄 서비스 접근성 - 돌봄 서비스 만족
육아 인프라 지표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친화적 인프라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 사회복지 시설 수 - 공원 등 녹지 시설 수(면적) - 실내외 놀이시설 수(면적)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자의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인프라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 - 치안 인프라 수준 - 보행환경 인프라 수준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자의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한 보건 인프라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 의료 인프라 수준 - 의료종사자 수준

직접적 자원은 육아에 대한 양육자의 부담 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직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육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문화·사회·교육 등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육아친화마을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로 직접적인 인프라가 잘 갖

취져 있을수록 양육자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육아인프라는 육아에 대한 양육자의 부담 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기반 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2단계: 세부지표 풀(pool) 구성

가) 친화공간에 대한 논의 검토

기존 가족친화마을 지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지표,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지표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요소는 가족, 양육자, 아동이 거주하는 공간을 둘러싼 물리적 시설과 거주 환경을 측정하는 거시 지표들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주로 물리적 시설과 주변 환경들로 구성된 해당 지표들이 강조하는 이론적 기반은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이다. 생태학적 모델은 개인 혹은 가족은 그들을 둘러싼 미시-중간-거시 환경과 같은 중층적 구조에 속해있고 이들은 각각의 구조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간다고 가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이들 기존 지표들이 강조하고 있는 공통의 범주 혹은 영역들은 교육/돌봄, 교통/안전, 보건/의료, 공원/녹지, 여가/문화이며, 이 밖에 법제/행정체계(최인희·홍승아·김은지·최진희, 2015), 지역사회 참여(최인희 외, 2015) 등의 영역이 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의 마을 유형 범주에 가족형 마을이 생태형과 소득형 마을에 더해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김선미 외, 2011). 가족친화마을(사회 환경)의 경우는 가족 내의 주 돌봄 대상자인 노인과 영유아·아동·청소년과 이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지니는 양육자들 모두를 주 표적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지표는 주 돌봄 대상자들이 마을 안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양육자들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일터를 떠나서는 가족들과 충분한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의 지표에서 주목할 점은 해당 범주들은 다시 상위의 개념들로 재구조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즉, 동일한 범주라 하더라도 해당 범주들이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상위 개념들이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범주들은 상위 개념들에 하위 차원으로 속하게 된다. 가령, 가족친화마을의 경우는 모든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반경(거주 공간으로부터 200m 혹은 800m 이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설과 환경 지표들은 보행환경 200m 이내와 800m 이내로 분류된다(박소현·최이명·서한림, 2008).

김선미 외(2011)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않지만 가족친화마을의 주 구성요소로 거주, 경제, 여가 기능이라는 세 축을 강조하고 각 시설과 환경들은 각 기능을 통해 분류된다. 가족친화 사회 환경 지표는 행정인프라, 지역사회 돌봄 운영, 가족친화문화로 분류하고 행정인프라에는 법제, 행정체계를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돌봄 운영에는 돌봄 인프라를 포함하고, 여가/문화, 안전, 공원/녹지(환경) 범주는 가족친화문화에 포함한다.

지역맞춤형 육아지원지표는 육아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육아 정책과 관련된 물리적·인적 자원의 공급 수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주 표적대상은 영유아와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이다.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의 경우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돌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교육/돌봄 영역, 종합 육아지원서비스 영역, 맞춤형 보육지원 서비스 영역으로 범주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

〈표 IV-3-2〉 유사 지표의 정의 및 주요 구성요소

연구	대상	정의	주요 구성요소
박소현 외 (2008)	가족친화 마을	- 가족구성원별 요구 시설을 고루 만족시키며, 이들이 걷기 좋은 가로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별 필요 시설과 공간 - 검토된 시설들을 연령별, 생활권별로 목록화 •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보행환경, 공원/녹지 네트워크/지역 전반에 대한 환경
김선미 외 (2011)	가족친화 마을	- 가족친화마을은 가족을 하나의 생태체계로 파악 -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의 건강한 생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기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의료, 안전, 복지 시설 • 경제기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시설 조성,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대상	정의	주요 구성요소
		질적 향상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 가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달려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가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최인희 외 (2015)	가족친화 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성인, 노인 등이 가족 구성원들과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 구체적으로, 근로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외부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돌봄(care)이 필요한 가족구성원들을 위해 조성된 돌봄시설 - 근로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외부 경제활동 후 귀가하여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여가활동이 가능하게 조성된 여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위한 행정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 행정체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 지역사회 가족돌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인프라 •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 가족친화마을의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시설, 지역사회참여, 자연친화성, 안전성
이주림, 구자훈 (2013)	육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육아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인 육아환경 - 소생활권 단위인 구별을 분석단위로 하고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 양육지원환경- 영유아플라자 • 공원/녹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 도서관, 공공 어린이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 복합상업환경- 백화점, 대형마트 • 의료환경- 의원, 소아청소년과
강은진 외 (2016)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 각 가정의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환경이 육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보육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특수학급 및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아교육진흥원 •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 문화인프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공원/어린이공원, 박물관/미술관, 사회복지관 •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어린이 전문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연구	대상	정의	주요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체험) 교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 아동쉼터

주: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 1) 박소현·최이명·서한림(2008).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 지표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1), 161-172.
- 2) 김선미·이승미·노영주·송혜림·조영희·김소영(2011). 지역 돌봄 기능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3) 최인희·홍승아·김은지·최진희(2015). 동아시아형 가족친화 국제지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5)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처럼 연구의 표적 대상을 둘러싼 시설과 생태환경 체계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와 실질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가족-아동-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도 개발되었다. 해당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조와 기능 뿐 아니라 해당 가족이 지역 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4).

〈표 IV-3-3〉 기존 유사지표 개발

구분	연구 내 세부지표			
1	〈양적지표〉			
	구분	측정항목	대상연령	시설성격
	보행거리 (200m 이내)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경로당	노인	여가
		아채를 파는 식료품점 어린이공원(놀이터)	공통	상업 휴식
	보행 거리 (800m 이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교육
		방과 후 돌봄/교육시설	초/중/고등학생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공통	문화
		교양 및 문화강좌 제공시설	공통	여가
		생활체육센터(수영장)	공통	휴식
		근린공원	공통	
		노인의료시설(전문병원)	노인	의료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노인	복지	
노인 주간보호시설	노인			

연구 내 세부지표				
구분	구분	측정항목	대상연령	시설성격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상업
		보건소	공통	
		재래시장	공통	
		할인점	공통	
	백화점	공통		
<질적지표>				
구분	구분	측정항목	질적 평가기준	
	보행 거리 (200m 이내)	보육시설	기존 인증제도 활용/인증유무	
경로당		직접 평가기준 마련		
	야채를 파는 식료품점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어린이공원(놀이터)	어린이공원시설지표 평가항목 사용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최목화, 2003)		
	초등학교	학교평가 공통지표 매뉴얼참고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 2006)		
	방과 후 돌봄/교육시설	방과후 학교 성과지표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공공도서관평가지표 ⁷⁸⁾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김진숙 외, 2003)		
	교양 및 문화강좌 제공시설	별도의 기준 마련		
	생활체육센터(수영장)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근린공원	별도의 기준 마련		
보행 거리 (800m 이내)	노인의료시설(전문병원)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평가지표(박소현 외, 2007 재인용; 보건복지부, 2006)		
	노인 주간보호시설	주간노인보호시설 평가지표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수련관평가지표(박소현 외, 2007 재인용; 이민희, 2007)		
	보건소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재래시장	별도 기준 마련		
	할인점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백화점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네트워크 환경지표>				
구분	요소영역	측정항목	측정범위	
가로환경	가로특성	유효폭 1.5M 넘는 인도비율		
		도로의 경사도		
네트워크 환경	보행로 연결	단위면적당 인도 총 길이	행정동 단위	
	침투성	교차로 밀도		
지역	접근성	슈퍼마켓(식료품파는)까지의 거리 전철역까지 거리/버스정류장까지 거리	800m	
	밀도	주거밀도, 인구밀도		

구분		연구 내 세부지표		
	구분	요소영역	측정항목	측정범위
	환경	도시형태	블록크기/지역중심 상업지구까지의 인접여부 자연형 공원 및 하천 인접 여부	보행거리내
출처: 박소현 외(2008).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 지표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1), 161-172.				
2	범주		지표	
	가족 돌봄 지원 시설	자녀양육 지원	보육육아교육시설 이용률 방과후돌봄 지원시설 이용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률	
		노인돌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률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률	
			가족지원기관	가족지원기관 제공률
	가족여가·문화 지원시설		공연전시시설 제공률	
			지역문화복지시설 제공률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률	
			지역사회 지원시설 제공률	
			지역도서관 제공률	
	거주지역의 쾌적성과 안전성		공원·공공체육시설 제공률	
녹지면적 확보율				
공원면적				
주거밀도의 역점수				
법제 및 행정체계		교통사고 안전성의 역점수		
		범죄 안전성의 역점수		
		가족친화 조례 유무 가족친화 담당자 유무		
출처: 최인희 외(2015). 동아시아형 가족친화 국제지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구분	지표	측정항목	
	보육시설 환경	어린이집	아동 천인당 어린이집 수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천인당 국공립어린이집 수	
	양육지원환경	유치원	아동 천인당 유치원 수	
		영유아플라자	아동 만인당 영유아플라자 면적	
	공원/녹지환경	공원	인구 당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아동 천인당 어린이공원 면적	
	문화환경	장난감도서관	아동 만인당 장난감 도서관 수	
		공공 어린이도서관	아동 만인당 공공 어린이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아동 만인당 지역문화복지시설	
복합상업환경	백화점	인구 백만인당 백화점 수		
	대형마트	인구 백만인당 대형마트 수		
의료환경	의원	인구 십만인당 종합병원 수		
	소아청소년과	아동 천인당 병원 수		
출처: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구분		연구 내 세부지표	
4	영유아 교육-보육영역	전체유치원 공급수준	
		전체어린이집 공급수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공급수준	
		국공립유치원 공급수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수준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종합)육아지원 서비스 영역	보육교사 1급 비율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맞춤형)돌봄 지원 영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시간제 보육 공급수준(인력규모)	
		시간연장보육공급수준(기관 수)	
		온종일돌봄공급수준(기관 수)	
		아이돌보미사업 공급수준(인력규모)	
		공동육아나눔터공급수준(기관 수)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인력규모)	
		24시간 보육 공급수준(기관 수)	
		휴일보육 공급수준(기관 수)	
		시간연장 보육 수준(인력규모)	
	문화인프라영역	휴일보육 인력규모	
		24시간 보육 인력규모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장난감 도서관 공급수준	
	보건 의료서비스 영역	어린이박물관(과학관)공급수준	
		어린이미술관 공급수준	
		사회복지관	
보건소 공급수준			
안전관리/보호 영역	소아청소년과(병의원)공급수준		
	종합병원 공급수준		
	보건소 인력규모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안전체험 교육 공급수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파출소 공급수준		
출처: 강은진 외(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및 층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범주	지표	
	가족구조	가족구조(family structure)	

연구 내 세부지표	
범주	지표
(Family structure)	가족구조변화(family structure change)
	근처에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가족 (families with grandparents who live nearby)
가족 기능 (family functioning)	어린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온유함과 애정 (parental warmth and affection with younger children)
	부모와 청소년의 긍정적인 관계 (positiv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청소년의 친구와 활동에 대한 부모의 자각 (parental awareness of adolescents' friends and activities)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time spent with parents)
가족, 일, 돌봄	동거하지 않은 부모와의 접촉 (contact with non-residents parents)
	부모의 고용(parental employment by family structure)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work-family stress)
양육자의 학교 활동 참여& 시민행동	가족수입(family income)
	자녀돌봄 패턴(patterns of child care)
	학교에서의 부모참여(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학교의 봉사 참여(volunteering as a family)
	학생들의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stud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service)
	부모 투표(parental voting)
종교	학교친구들과의 관계(youth connection to school peers)
	학교의 지지(school supportiveness)
사회관계	부모의 종교의식 참여(parental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정도(Adolescents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with their families)
	이웃 공동체(neighborhood community)
	친구 공동체(community of friends)
	안전에 대한 고려(concern for safety)
	거주 이동(residential mobility)

출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4). The Social-Ecological Model: A Framework for Prevention.

주: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 1) 박소현·최이명·서한림(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2) 최인희 외(2015). 동아시아형 가족친화 국제지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4) 강은진 외(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Ⅵ):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4). The Social-Ecological Model: A Framework for Prevention.

78) 해당 지표에 대한 내용을 박소현 외(2007)의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2003)의 공공도서관 평가지표로 인용하고 있으나, 본 지표의 개발이 김진숙 외(2003)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본 연구에서는 김진숙 외(2003)으로 출처를 표시하였음

나) 지표구성의 전략 방향 도출

본 연구의 지표구성은 ①질적지표의 상호보완 필요성과 ②수요자 체감형 지표의 구성, ③대상자의 구분 등 세 가지 전략적 방향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첫째, 질적 지표와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육아친화마을이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온마을 돌봄”은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마을 차원에서 육아에 참다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 안에서 양육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즉 정량지표 이면에 존재하는 여유, 가치, 신뢰, 안전, 공동체의 질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정량지표는 이 같은 질적 속성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표 IV-3-4〉 유사지표 중 질적 지표를 차용한 예

구분	측정항목	질적 평가기준
보행 거리 (200m이 내)	보육시설	기존 인증제도 활용/인증유무
	경로당	직접 평가기준 마련
	야채를 파는 식료품점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어린이공원(놀이터)	어린이공원시설지표 평가항목 사용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최목화, 2003)
보행 거리 (800m 이내)	초등학교	학교평가 공통지표 매뉴얼참고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 2006)
	방과 후 돌봄/교육시설	방과 후 학교 성과지표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공공도서관평가지표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김진숙 외, 2003)
	교양 및 문화강좌 제공시설	별도의 기준 마련
	생활체육센터(수영장)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근린공원	별도의 기준 마련
	노인의료시설(전문병원)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보건복지부, 2006) 사회복지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평가지표
	노인 주간보호시설	주간노인보호시설 평가지표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수련관평가지표 (박소현 외, 2007 재인용; 이민희, 2007)
	보건소	균질하다고 가정/별도 기준 수립 안함
	재래시장	별도 기준 마련
할인점	균질하다고 가정, 별도 기준 수립 안함	
백화점	균질하다고 가정, 별도 기준 수립 안함	

주: 셀 색 표시 부분은 질적 지표 해당사항
 자료: 박소현 외(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이에 본 연구에서의 지표 전략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양방향(Two-Track) 연구전략에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량지표는 Top-down 방식으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거시지표에 국한되며 특히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정량지표에 담기 어려운 질적 속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육아주체의 수요를 측정하는 개인단위의 정성자료(Bottom-up)와 결합하고자 한다. 가령, 어린이집 시설 수(보육/돌봄 시설에 관련된 양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급식비용, 어린이집 돌봄 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의 실질적인 돌봄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돌봄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계량지표) 간 관련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 개발이나 집단면접 등을 실시하여 상호 보완함으로써 육아친화성에 대한 다각적 속성을 하나의 연구에 담고자 한다. 또한 기존지표와 같이 모든 범주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입체적 구성과 다양한 지표의 단일수치의 정량수준의 측정이 요구되므로 영역별로 지표의 속성을 구조화하였다. 이는 기존 지표들이 지표를 교육/돌봄 시설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둘째, 수요자 체감형 지표를 포함시킨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사전 면접 결과를 통해 육아를 위해 만족도가 높고 절실히 필요하지만 거시 지표 차원에서 기존 지표에서 누락된 지표들을 발굴하여 이를 본 연구의 지표에 포함하여 보완하였다. 수요자들은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을 꼽을 때 보건/의료, 교통/안전 영역에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기존 지표에서는 소아청소년과만을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는 영유아의 발달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응급실, 휴일진료를 제공하는 소아과 수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꼽을 때 대형쇼핑몰을 우선적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권미량과 김성원(2012)에서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인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실내외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입점되어 있고 수유실·기저귀 갈이대 등과 같은 육아친화적인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주립과 구자훈(2013)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바, 본 연구는 전국 단위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양육대상자의 생애주기(영아-유아-아동) 반영하였다. 기존 연구는 0세~5세까지의 영유아를 표적대상으로 하여 지표를 구성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실질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의 대상에서 누락된 영아부터 아동까지의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영유아기는 0세~5세의 양육 대상자들로서 신체·정서·인지·언어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주로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발달된다는 특성을 지닌다(염동문 외, 2014). 아동기는 6세~10세의 양육 대상자들로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정서적 감정이 풍부해지며, 운동기능이 발달하는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수준이 깊어지고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서 양육자 이외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특성을 지닌다(염동문 외, 2014).

다) 가용 지표 Pool 구성

현재까지 통계청 등을 통해 발굴된 거시지표들을 상기 기술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가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면 <표 IV-3-5>와 같다. 먼저 기존 유사 지표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육아친화성을 지표 또한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권, 부모권, 노동권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는 시설과 주변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지표들은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양육의 사회화 개념을 통해 각각의 범주를 육아직접자원과 육아환경인프라(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 안전, 보건/의료)로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양육 대상자의 영유아부터 초등생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표를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 중 육아친화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1차 지표와 다소 관련성이 적은 2차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표의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분	지표명	하위정보	자료	단위	출처	지표차원	생애주기	
환경 (안전)	교통문화관련 안전부문 척도 중 하나	운전행태영역	2018	시군구	e지방지표	인프라 양적 지표		
		교통안전영역	2018	시군구	e지방지표			
		보행행태영역	2018	시군구	e지방지표			
		자동차 전대량 교통사고발생건수	2017	시군구	e지방지표			
		노외주차장	2016	시군구	e지방지표			
		경찰관수		읍면동	경찰청통계/형사정책연구원			
	안전부문	구급대원1인당 담당주민 수	2017	시군구	e지방지표			
		119안전센터1개센터당 담당주민 수	2017	시군구	e지방지표			
		아동 심만명당 안전사고사망률 지역안전성대유형	2017	시군구	e지방지표			
	환경 (의료/보건)	응급실 현황	응급실 설치현황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지역별 특수진료실 현황	육아환경 (보건/의료 인프라) 양적 지표	영유아기 아동기
		신생아실 현황	신생아실 설치현황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지역별 특수진료실 현황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현황	2018	읍면동		
소아 아간류일 진료기관		소아 아간류일 진료기관 현황	2018	읍면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자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현황	2018	읍면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자료		
산부인과 의원수		지역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2018	시군구	국가통계포털_월별자료_구축			
		소아과 의원 수	지역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2018	시군구	국가통계포털_월별자료_구축		
가정의학과 의원수		지역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2018	시군구	국가통계포털_월별자료_구축			
		종합병원	지역별 종합 의원현황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의원수		지역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의료인 수	지역별 인력현황(의/약사)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소아청소년과 보건소		지역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보건소	시군구 요양기관 현황	2018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3) 3단계: 최종지표의 선정

가) 1차 분류: 양육의 사회화 개념과 기존 선행연구 검토 결과

통계청 등을 통해 발굴된 거시지표들을 우선 ‘육아친화’에 대한 개념 재정립에 활용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가용지표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 1차와 2차를 구분하였다. 중요성에 및 지표의 가용성에 따라 재분류된 가용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최종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를 선정하였다.

먼저 ‘양육의 사회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용지표의 1차 재분류를 실시한 결과 39개 거시지표 중 32개 지표가 1차 선정되었다. 육아의 직접적 자원영역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지표들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8개 지표 모두를 1차 선정하였다. 육아인프라(공원녹지 인프라 영역)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원미집행면적을 제외한 3개 지표를 1차 선정하였다. 육아인프라(여가 문화 인프라 영역)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할인점을 제외한 7개 지표를 1차 선정하였다. 육아인프라(교통안전 인프라 영역)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운전행태 영역과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7개 지표를 1차 선정하였다. 육아인프라(보건의료 인프라 영역)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응급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제외한 7개 지표를 1차 선정하였다.

〈표 IV-3-6〉 육아친화성 측정지표 1차 재분류

영역	범주	지표	평가요소 ^{주1)}									1차 선정	
			1	2	3	4	5	6	7	8	9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보육/육아 지원 시설	보육시설	○	○		○				○			✓
		어린이집			○	○					○		✓
		유치원			○	○							✓
		초등학교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사회복지시설		○		○							✓
		지역아동센터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육아 인프라 (공원/녹지 인프라)	녹지 환경	공원	○	○	○								✓
		어린이공원	○		○	○							✓
		공원미집행면적											
		녹지		○									✓
돌봄인프라 (여가/문화)	문화 환경	공공 어린이도서관	○		○	○						✓	

영역	범주	지표	평가요소 ^{주1)}										
			1	2	3	4	5	6	7	8	9	1차 선정	
인프라)		국공립도서관	○	○			○						✓
		문화기반시설	○	○	○	○	○	○					✓
		체육시설	○	○			○						✓
		백화점	○		○								✓
		할인점											
		대형마트	○		○								✓
		놀이터	○			○							✓
돌봄인프라 (교통/안전 인프라)	교통 안전 환경	대중교통					○						✓
		운전행태영역											
		교통안전영역		○		○							✓
		보행행태영역	○			○		○					✓
		노외주차장											
		안전사고					○						✓
		범죄안전		○		○	○						✓
		화재안전						○			○		✓
돌봄인프라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 의료 환경	응급실											
		신생아실									○		✓
		신생아 중환자실									○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산부인과							○	○			✓
		소아과			○	○							✓
		가정의학과									○		✓
		종합병원			○	○					○		✓
보건소	○			○	○				○		✓		

주 1: 1) 박소현·최이명·서한림(2008).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 지표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1), 161-172.

2) 최인희·홍승아·김은지·최진희(2015). 동아시아형 가족친화 국제지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4) 강은진 외(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유재언·진미정(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가족과 문학, 25(3), 97-127.

7) 김정석·황선재·송유진·김혜영(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3), 79-114.

8) 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2015).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연구진 추가

주 2: 셀 색 표시 부분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지표

나) 2차 분류: 선행연구, 양육대상자의 생애주기, 전문가 FGI 결과 반영

육아친화성 지표는 각 지역단위의 육아친화 현황을 측정함에 있어 지표의 활용 관점과 행정/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개발하였다. 특히 개발된 지표를 통해 지역 내 지속적인 환경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 설계 시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1차 선정된 32개 지표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양육 대상자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1차 지표와 2차 지표로 구분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영유아(0세~5세)와 아동(6세~10세)이므로 이들 대상으로 나눠 적용될 수 있는 지표들을 재분류하였다. 연구진이 추가한 지표를 제외한 선행연구 8편 중 3편 이상에서 지표로 선정한 지표를 1차 지표(주요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2차 지표(보완지표)로 분류하였다.

<표 IV-3-7>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2차 재분류: 선행연구1

영역	범주	1차 지표(주요 지표)		2차 지표(보완지표)		
		지표	선행연구	지표	선행연구	
육아의 직접적 자원	영유아기	보육시설	1, 2, 4, 7	유치원	3, 4	
		어린이집	3, 4, 8	건강가정지원센터	4, 8	
		육아종합지원센터	2, 3, 4, 8			
	아동기	지역아동센터	1, 2, 5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1, 9 2, 4	
육아 인프라	공원 /녹지	공원	1, 2, 3	녹지	3	
		어린이공원	1, 3, 4			
	여가 /문화	공공 어린이도서관	1, 3, 4	백화점	1, 3	
		국공립도서관	1, 2, 5	대형마트	3	
		문화기반시설	1, 2, 3, 4, 5, 6	놀이터	1, 4	
	교통 /안전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체육시설	1, 2, 5		
			보행행태영역	1, 4, 6	대중교통	5
			범죄안전	2, 4, 5	교통안전영역	2, 4
			생활안전	4, 5, 7	생활안전	5
	보건 /의료		화재안전		화재안전	6, 9
종합병원			3, 4, 8	신생아실	9	
보건소			1, 4, 5, 8	신생아중환자실	9	
				산부인과	7, 8	
				소아과	3, 4	
				가정의학과	9	

주: 1) 박소현·최이명·서한림(2008).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 지표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1), 161-172.



- 2) 최인희·홍승아·김은지·최진희(2015). 동아시아형 가족친화 국제지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4) 강은진 외(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5)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유재연·진미정(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가족과 문학, 25(3), 97-127.
- 7) 김정석·황선재·송유진·김혜영(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3), 79-114.
- 8) 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2015).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연구진 추가

마지막으로, 구성적 타당성 및 지표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FGI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적정성 판단정도를 위해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다음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IV-3-8〉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2차 재분류: 선행연구2

영역	범주	1차 지표(주요 지표)		2차 지표(보완지표)		
		지표	선행연구	지표	선행연구	
육아의 직접적 자원	영유아기	보육시설	8.30	유치원	8.89	
		어린이집	8.79	건강가정지원센터	6.79	
		육아종합지원센터	7.23			
	아동기	지역아동센터	6.67	초등학교	7.46	
				사회복지시설	6.02	
육아 인프라	공원 /녹지	공원	8.88	녹지	6.22	
		어린이공원	8.52			
	여가 /문화	공공 어린이도서관	7.34	백화점	6.26	
		국공립도서관	6.22	대형마트	5.72	
		문화기반시설	8.27	놀이터	8.33	
		체육시설	6.18			
	교통 /안전	전 연령 돌봄 인프라	보행행태영역	8.73	대중교통	8.37
			범죄안전	8.94	교통안전영역	8.23
			생활안전	8.02	안전사고	8.85
					생활안전	8.18
보건 /의료		종합병원	7.40	신생아실	6.21	
		보건소	6.29	신생아중환자실	5.79	
				산부인과	7.21	
				소아과	7.02	
				가정의학과	5.63	

주: 행정담당자, 지표전문가, 육아수요자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중요도의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의 부여된 값을 합산(n=12)

다) 최종지표 선정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결과(FGI)의 내용을 토대로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는 특성변수를 다음의 <표 IV-3-9>와 같이 도출하였다. 특히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정책대상인 유아 및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시설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표 IV-3-9>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최종)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시 영유아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⁷⁹⁾
		어린이집 시설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⁸⁰⁾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⁸¹⁾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⁸²⁾
	아동기 (상대지표 시 아동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 ⁸³⁾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 ⁸⁴⁾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읍면동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공원 /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도시계획현황 ⁸⁵⁾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여가 /문화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⁸⁶⁾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 ⁸⁷⁾
	교통 /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 ⁸⁸⁾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교통사고분석시스템 ⁸⁹⁾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시군구	e지방지표 안전 ⁹⁰⁾
	범죄				
	생활안전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⁹¹⁾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79)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가족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

4. 지역의 육아친화성 측정 및 분석

가. 지역의 육아친화성 세부지표 분석

1) 육아의 직접적 자원지표 지역별 현황

가) 영유아기 지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은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어린이집 시설, 유치원 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
- &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80) 국가통계포털-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ZTITLE&list_id=154_154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 81)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82)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전국지역센터현황,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2019. 8. 31. 인출)
- 83)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84)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정보지원센터, http://www.hjy.kr/user/Information05_view.php?num=48&cur_page=1&schSel=title&schStr=&filePath1=./Information05.php&boardType=1(2019. 8. 31. 인출)
- 85) 국가통계포털-도시계획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126&vw_cd=MT_ZTITLE&list_id=315_3150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 8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도서관통계,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2019. 8. 31. 인출)
- 87)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88)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89)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통계보고서, http://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alReportsList.do?menuId=WEB_KMP_IDA_SRS_TSI(2019. 8. 31. 인출)
- 90)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안전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41&vw_cd=MT_GTITLE01&list_id=1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2019. 8. 31. 인출)
- 91)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G&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①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의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관계⁹²⁾는 0.345로 상관관계는 존재하나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화순군(26.0개소)이며, 그 다음이 의정부시(24.0개소)와 동두천시(24.0개소), 양주시(23.5개소), 김해시(23.0개소) 등의 순이었으며, 화순군과 대덕구, 대전 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 지역이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장성군(6.3개소)과 경북 울릉군(6.3개소)이었으며, 전북 장수군(7.2개소), 전북 진안군(7.3개소), 전남 담양군(7.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의 대부분이 군 지역으로 이들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지역 내 영유아 아동의 수가 적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보다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주로 제공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V-4-1〉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 수)
1	화순군	26.0	2,619	1	울릉군	6.3	2,240
2	동두천시	24.0	21,749		장성군	6.3	316
	의정부시	24.0	5,172	3	장수군	7.2	967
4	양주시	23.5	12,093	4	진안군	7.3	1,102
5	김해시	23.0	34,067	5	담양군	7.4	1,748
6	안성시	22.2	10,312	6	영광군	7.6	2,507
7	원주시	21.5	17,617	7	해남군	8.3	3,718
8	포천시	20.9	6,829		보은군	8.3	1,083
9	대덕구	20.8	9,623	9	보성군	8.4	1,792
10	대전 서구	20.6	26,674	10	서초구	8.5	24,696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345$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92)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 0.7 이상일 때 높은 상관관계, $\pm 0.4 \sim 0.7$ 은 보통의 상관관계, $\pm 0.2 \sim 0.4$ 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수준이 낮다고 보며, ± 0.2 미만일 경우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본다.

②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집 시설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976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1,266개로 수원시였으며, 그 다음이 용인시(1,099개소), 창원시(1,044개소), 고양시(1,002개소), 청주시(815개소) 등 시 지역이 어린이집 시설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시설은 경북 울릉군이 2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군위군(5개소), 경북 영양군(6개소), 전북 장수군(7개소), 전북 진안군(8개소) 등의 순이다.

〈표 IV-4-2〉 어린이집 시설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 수)
1	수원시	1,266	71,849	1	울릉군	2	316
2	용인시	1,099	65,496	2	군위군	5	578
3	창원시	1,044	59,413	3	영양군	6	585
4	고양시	1,002	54,168	4	장수군	7	967
5	청주시	815	51,197	5	진안군	8	1,102
6	김해시	782	34,067	6	보은군	9	1,083
7	화성시	748	50,558	7	청송군	10	758
8	성남시	729	49,705	8	임실군	11	1,135
9	전주시	719	35,388		무주군	11	953
10	천안시	717	39,067		구례군	11	952
					의령군	11	916
					양양군	11	893
					웅진군	11	766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97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③ 유치원 시설

유치원 시설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92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192개로 창원시였으며, 그 다음이 수원시(191개소), 용인시(169개소), 고양시(167개소), 청주시(138개소) 등 시 지역이 유치원 시설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시설은 3개로 부산 중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증평군(5개소), 경북 울릉군(6개소) 등 부산 중구와 동구, 과천시, 계룡시, 속

초시를 제외하면 군 지역이 유치원 시설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과천시, 계룡시, 장수군의 경우, 영유아 수가 각각 3,101명과 2,513명, 3,918명으로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4-3〉 유치원 시설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 수)
1	창원시	192	59,413	1	부산 중구	3	1,346
2	수원시	191	71,849	2	증평군	5	2,503
3	용인시	169	65,496	3	울릉군	6	316
4	고양시	167	54,168	4	군위군	8	5728
5	청주시	138	51,197		영양군	8	585
6	화성시	131	50,558		곡성군	8	758
7	성남시	125	49,705		청송군	8	954
8	부천시	123	42,423		과천시	8	2,513
9	전주시	120	35,388		계룡시	8	3,101
10	포항시	116	28,289		10	속초시	9
				부산 동구		9	953
				양구군		9	1,290
				무주군		9	2,841
				장수군		9	3,918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92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418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특별시의 경우, 서울은 25개 지자체 모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의 경우 1개의 지자체, 울산의 경우 2개의 지자체에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도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31개 지자체 모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은 4개, 전북은 6개의 지자체에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IV-4-4〉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시	기초지자체	개수
서울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성북구, 강동구, 관악구, 도봉구, 영등포구, 중랑구,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25
부산	해운대구, 북구, 사하구, 부산진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영도구	9
대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서구, 남구, 중구, 달성군	7
인천	서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강화군	9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5
대전	유성구	1
울산	남구, 울주군	2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이천시, 하남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31
강원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구군, 영월군, 고성군	7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4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서천군	10
전북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6
전남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여주시,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장성군, 구례군	9
경북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9
경남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창원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10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41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나) 아동기 지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요인은 초등학교 시설, 지역아동센터 시설,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로 구성되어 있다.

①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시설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892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106개소)이며, 그 다음이 용인시(100개소), 수원시(97개소), 청주시(89개소), 고양시(82개소) 등 시 지역이 초등학교 시설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시설의 하위 지역은 과천시와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이 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중구(5개), 부산 동구(8개), 인천 동구(8개)등 광역시 자치구 지역도 초등학교 시설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초등학교 시설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아동 수)
1	창원시	106	69,240	1	증평군	4	2,479
2	용인시	100	83,777		울릉군	4	382
3	수원시	97	82,658		과천시	4	4,678
4	청주시	89	59,101	4	부산 중구	5	1,522
5	고양시	82	70,067		계룡시	5	3,988
6	화성시	76	57,131	6	영양군	6	670
7	천안시	71	45,003		웅진군	6	847
8	성남시	68	46,390	8	군위군	7	616
	전주시	68	59,824		청송군	8	885
10	포항시	65	32,052	9	곡성군	8	1,253
					장수군	8	1,194
					부산 동구	8	3,358
					인천 동구	8	4,196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892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시설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706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 북구(119개소)이며, 그 다음이 청주시(77개소), 창원시(75개소), 광주 광산구(66개소), 전주시(65개소) 등 광주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와 시 지역이 지역아동센터시설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시설의 하위 지역은 경북 울릉군과 강원 양구군, 경북 봉화군이 1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수가 각각 34,107명과 6,245명으로 많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강남구(2개), 강서구(3개)도 지역아동센터시설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IV-4-6〉 지역아동센터시설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아동 수)
1	광주 북구	119	29,404	1	울릉군	1	382
2	청주시	77	59,101		양구군	1	1,402
3	창원시	75	69,240		봉화군	1	1,258
4	광주 광산구	66	37,903	4	영양군	2	670
5	전주시	65	46,390		청도군	2	1,412
6	안산시	64	45,889		화천군	2	1,393
7	부천시	63	50,523		울진군	2	2,636
8	포항시	60	32,052		인제군	2	1,957
9	천안시	59	45,003		강남구	2	34,107
	수원시	59	82,658		계룡시	3	3,988
				10	군위군	3	616
					청양군	3	1,256
					옥천군	3	2,628
					연천군	3	2,194
					의령군	3	1,081
					순창군	3	1,560
					철원군	3	2,851
				강서구	3	6,245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70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③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707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 북구(3,108명)이며, 그 다음이 안산시(2,296명), 청주시(2,130명), 창원시(1,867명), 광주 광산구(1,827명) 등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구와 시 지역이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의 하위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이 1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북 봉화군(18명), 강원 양구군(27명), 경북 영양군(36명) 등 군 지역이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가 58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에 자치구로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표 IV-4-7〉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아동 수)
1	광주 북구	3,108	29,404	1	울릉군	12	382
2	안산시	2,296	45,889	2	봉화군	18	1,258
3	청주시	2,130	59,101	3	양구군	27	1,402
4	창원시	1,867	69,240	4	영양군	36	670
5	광주 광산구	1,827	37,903	5	청도군	40	1,412
6	부천시	1,812	50,523	6	울진군	45	2,636
7	전주시	1,734	46,390	7	인제군	49	1,957
8	수원시	1,657	82,658	8	화천군	55	1,393
9	천안시	1,547	45,003	9	강남구	58	34,107
10	남양주시	1,504	52,018	10	옥천군	64	2,628
					의령군	64	1,081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707$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2) 육아 인프라 지표 지역별 현황

가) 공원/녹지 인프라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 인프라에 포함되는 지표는 공원개소, 공원면적, 어린이공원개소, 어린이공원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공원개소

공원개소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846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526개소)이며, 그 다음이 평택시(456개소), 청주시(444개소), 창원시(425개소), 수원시(419개소) 등 시 지역이 공원개소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원개소의 하위 지역은 부산 중구가 3개소로 가장 적은 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이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합천군이 4개소 등 군 지역이 공원개소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지자체인 부산 중구와 더불어 부산 동구(8개소)도 하위 지역에 포함되었다.

〈표 IV-4-8〉 공원개소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화성시	526	107,689	1	부산 중구	3	2,868
2	평택시	456	61,733	2	장수군	4	2,161
3	청주시	444	110,298		합천군	4	3,109
4	창원시	425	128,653	4	영양군	7	1,255
5	수원시	419	154,507		순창군	7	2,668
6	용인시	417	149,273		진도군	7	2,791
7	고양시	331	124,235		강화군	7	5,035
8	시흥시	326	52,365		진안군	7	2,225
9	포항시	324	60,341	9	부산 동구	8	6,199
10	안산시	302	81,824	10	신안군	9	2,623
					임실군	9	2,434
					남해군	9	2,914
					양양군	9	2,152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84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공원면적

공원면적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677로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창원시(23.789291km²)이며, 그 다음이 성남시(17.907761km²), 수원시(16.5681km²), 구미시(16.452983km²), 전주시(16.307573km²) 등 시 지역이 공원면적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자치구인 기장군과 강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공원면적의 하위 지역은 강화군이 0.033696km²로 가장 적은 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이 대전 중구(0.053516km²), 인천 동구(0.060666km²), 부산 동구(0.066093km²), 부산 연제구(0.081835km²) 등 강화군과 청양군을 제외하곤 대부분 광역시 자치구 지역이 공원면적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4-9〉 공원면적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창원시	23.789291	128,653	1	강화군	0.033696	5,035
2	성남시	17.907761	109,529	2	대구 중구	0.053516	7,071
3	수원시	16.568100	154,507	3	인천 동구	0.060666	7,928
4	구미시	16.452983	60,649	4	부산 동구	0.066093	6,199
5	전주시	16.307573	81,778	5	부산 연제구	0.081835	21,076
6	화성시	15.458152	107,689	6	금천구	0.086014	21,133
7	청주시	15.349471	110,298	7	청양군	0.097783	2,326
8	기장군	15.073506	24,637	8	인천 중구	0.100200	15,038
9	부산 강서구	14.798716	14,798	9	대구 남구	0.101030	12,540
10	포항시	13.673263	60,341	10	부산 수영구	0.159122	15,317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677$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③ 어린이공원개소

어린이공원개소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879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공원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230개소)이며, 그 다음이 평택시(224개소), 수원시(223개소), 포항시(219개소), 청주시(209개소) 등 시 지역이 어린이공원개소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공원개소의 하위 지역은 전북 순창군, 경남 합천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경남 하동군, 전남 신안군, 전북 부안군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었으며, 경남 산청군과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남해군, 전남 강진군, 부산 중구에는 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공원이 없거나 1개소밖에 없는 지역의 경우 행정수요가 일정 수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의 특성 상 지자체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역 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표 IV-4-10〉 어린이공원개소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창원시	230	128,653	1	순창군	0	2,668
2	평택시	224	61,733		합천군	0	3,109
3	수원시	223	154,507		영양군	0	1,255
4	포항시	219	60,341		진안군	0	2,225
5	청주시	209	110,298		하동군	0	3,610
6	화성시	205	107,689		신안군	0	2,623
	용인시	205	149,273		부안군	0	4,527
8	구미시	186	60,649	8	산청군	1	2,558
9	천안시	181	84,070		장수군	1	2,161
10	고양시	169	124,235		장흥군	1	3,525
					남해군	1	2,914
					강진군	1	3,441
					부산 중구	1	2,868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879$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④ 어린이 공원면적

어린이 공원면적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845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공원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창원시(23.789291km²)이며, 그 다음이 성남시(17.907761km²), 수원시(16.5681km²), 구미시(16.452983km²), 전주시(16.307573km²) 등 시 지역이 공원면적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자치구인 기장군과 강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어린이공원면적의 하위 지역은 전북 순창군, 경남 합천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경남 하동군, 전남 신안군, 전북 부안군이 어린이공원의 부재로 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부산 중구(0.000198km²), 경남 남해군(0.001500km²), 전북 장수군(0.001514km²)이 어린이공원면적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4-11〉 어린이공원면적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강동구	0.873475	48,107	1	순창군	0	2,668
2	평택시	0.584664	61,733		합천군	0	3,109
3	수원시	0.578982	154,507		영양군	0	1,255
4	창원시	0.573716	128,653		진안군	0	2,225
5	용인시	0.570823	149,273		하동군	0	3,610
6	고양시	0.543211	124,235		신안군	0	,2623
7	화성시	0.503023	107,689		부안군	0	4,527
8	포항시	0.480145	60,341	8	부산 중구	0.000198	2,868
9	천안시	0.463500	84,070	9	남해군	0.001500	2,914
10	성남시	0.454154	109,529	10	장수군	0.001514	2,161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845$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나) 여가/문화 인프라

돌봄 인프라 중 여가/문화 인프라에 포함되는 지표는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과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로 구성되어 있다.

①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423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특별시의 경우, 서울이 15개 지자체에서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부산이 4개 지자체, 대구와 인천이 3개 지자체에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13개 지자체에서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경남이 5개 지자체, 충남과 전남이 3개 지자체에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2〉 지역별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광역	지자체	개수
서울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15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영도구, 기장군	4
대구	달서구, 수성구, 서구	3
인천	부평구, 남구, 연수구	3
광주	광산구, 서구	2
대전	서구	1
울산	남구, 동구	2
경기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의왕시, 양평군	13
강원	춘천시, 화천군	2
충북	청주시, 제천시	2
충남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3
전북	군산시, 정읍시	2
전남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3
경북	안동시, 청도군	2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	5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423$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51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영월군(69.88개소)이며, 그 다음이 강원 고성군(46.62개소), 종로구(41.35개소), 경북 울릉군(40.10개소), 강원 양구군(37.76개소) 등 종로구를 제외하면 군 지역이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랑구(0.98개소)이며, 그 다음이 의정부시(1.36개소), 수영구(1.67개소), 사상구(1.75개소), 동작구와 울산 동구(1.77개소)등 의정부시를 제외하면 자치구 지역이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4-13〉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영월군	69.88	2,987	1	중량구	0.98	38,502
2	강원 고성군	46.62	2,130	2	의정부시	1.36	49,482
3	종로구	41.35	12,546	3	수영구	1.67	15,317
4	울릉군	40.10	698	4	사상구	1.75	22,255
5	양구군	37.76	2,692	5	동작구	1.77	39,967
6	인제군	33.76	3,849		울산 동구	1.77	23,921
7	무주군	32.25	2,251	7	사하구	1.80	34,401
8	영양군	28.61	1,255	8	남동구	1.86	67,879
9	진도군	28.33	2,791	9	양천구	1.91	54,084
10	산청군	27.52	2,558	10	연제구	1.93	21,076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 = -0.519$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다) 교통/안전 인프라

육아 인프라 중 교통/안전 인프라에 포함되는 지표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교통안전지수, 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지역안전상대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018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보성군(2.14건)이며, 그 다음이 울릉군(2.38건), 계양구(2.60건), 용진군(2.88건), 신안군(3.12건) 등 계룡시를 제외하면 자치구와 군 지역이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중구(20.24건)이며, 그 다음이 종로구(18.63건), 용산구(14.60건), 대전 중구(14.25건), 동대문구(13.49건) 등 자치구 지역이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4-14〉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보성군	2.14	3,571	1	서울 중구	20.24	10,299
2	울릉군	2.38	698	2	종로구	18.63	12,546
3	계양구	2.60	37,294	3	용산구	14.60	21,866
4	옹진군	2.88	1,613	4	대구 중구	14.25	7,071
5	신안군	3.12	2,623	5	동대문구	13.49	33,601
6	계룡시	3.20	6,501	6	영등포구	13.31	37,204
7	연수구	3.23	42,703	7	광주 동구	13.29	8,495
8	장수군	3.59	2,161	8	마포구	13.28	40,680
9	인천 동구	3.78	7,928	9	강남구	12.97	60,424
10	완주군	3.80	12,199	10	대구 서구	12.95	15,605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01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6545 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계룡시(85.35)이며, 그 다음이 화천군(85.02), 태백시(84.66), 인천 동구(84.58), 임실군(84.45) 등 시·군·구 지역이 교통안전지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청주시(61.24)이며, 그 다음이 평택시(65.22), 경주시(67.01), 수원시(68.18), 강남구(68.37) 등 강남구를 제외하면 시 지역이 교통안전지수 지표 수준의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4-15〉 교통안전지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1	계룡시	85.35	6,501	1	청주시	61.24	110,298
2	화천군	85.02	2,861	2	평택시	65.22	61,733
3	태백시	84.66	4,929	3	경주시	67.01	25,528
4	인천 동구	84.58	7,928	4	수원시	68.18	154,507

순위	상위			순위	하위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지자체명	지표수준	행정수요 (영유아·아동 수)
5	임실군	84.45	2,434	5	강남구	68.37	60,424
6	단양군	84.14	2,343	6	화성시	68.73	107,689
7	연수구	84.04	42,703	7	전주시	68.78	81,778
8	남해군	83.98	2,914	8	용인시	68.79	149,273
9	의왕시	83.89	19,161	9	부천시	68.81	92,946
10	영도구	83.86	9,601	10	상주시	69.82	8,587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6545$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③ 화재분야 지역 안전 상대 유형

화재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372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별 지자체 수는 1유형이 22개 지자체, 2유형이 56개 지자체, 3유형이 73개 지자체, 4유형이 55개 지자체, 5유형이 20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분야 지역안전상대 1유형에 속하는 시 지역은 김제시, 안동시, 삼척시, 공주시, 안성시, 포천시, 보령시, 김천시, 여주시, 밀양시였으며, 군 지역은 청양군, 순창군, 횡성군, 구 지역은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부산 동구, 영도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분야 지역안전상대 5유형에 속하는 시 지역은 안산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였으며, 군 지역은 증평군, 울주군, 달성군, 기장군, 울릉군, 구 지역은 중랑구, 동작구, 광진구, 노원구, 양천구, 연수구, 계양구로 나타났다.

〈표 IV-4-16〉 지역안전 상대유형(화재)별 지역

유형	지자체		개수	
1	시	김제시, 안동시, 삼척시, 공주시, 안성시, 포천시, 보령시, 김천시, 여주시, 밀양시	10	22
	군	청양군, 순창군, 횡성군	3	
	구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부산 동구, 영도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9	
2	시	원주시, 춘천시, 정읍시, 사천시, 영천시, 나주시, 문경시, 강릉시, 영주시, 군산시, 상주시, 익산시, 당진시, 논산시, 서산시, 김포시, 남원시	17	56

유형	지자체		개수
	군	가평군, 서천군, 진천군, 음성군, 부안군, 해남군, 장영군, 남해군, 정선군, 홍천군, 경북 고성군, 함평군, 양평군, 구례군, 인제군,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 금산군, 합천군, 봉화군, 고창군, 보성군	23
	구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도봉구, 부산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부산 강서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광주 북구, 대덕구, 울산 동구	16
3	시	제천시, 통영시, 평택시, 청주시, 경주시, 충주시, 양주시, 여주시, 동해시, 순천시, 포항시, 이천시, 거제시, 천안시, 파주시, 광양시, 광주시, 김해시, 화성시, 경산시, 아산시, 양산시, 진주시, 계룡시	24
	군	영덕군, 강진군, 양양군, 평창군, 태안군, 담양군, 고흥군, 무안군, 곡성군, 영암군, 예산군, 화순군, 괴산군, 성주군, 의성군, 보은군, 홍성군, 진도군, 군위군, 완도군, 거창군, 예천군, 하동군, 청송군, 부여군, 강화군, 진안군, 장수군, 옹진군	29
	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북구, 서울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 수성구, 남동구, 인천 남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20
4	시	목포시, 속초시, 과천시, 시흥시, 동두천시, 구미시, 의정부시, 오산시, 광명시, 남양주시, 전주시, 구리시, 태백시, 하남시, 용인시, 창원시	16
	군	장흥군, 칠곡군, 장성군, 무주군, 청도군, 영광군, 영월군, 단양군, 고령군, 영양군, 강원 고성군, 연천군, 양구군, 철원군, 옥천군, 영동군, 임실군, 화천군, 울진군, 함안군, 완주군, 신안군	22
	구	성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 부산 북구, 달서구, 인천 서구, 부평구,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중구, 울산 북구	17
5	시	안산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8
	군	증평군, 울주군, 달성군, 기장군, 울릉군	5
	구	종량구, 동작구, 광진구, 노원구, 양천구, 연수구, 계양구	7

행정수요 대비 해당값의 관계(상관계수 값): $r=0.372$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④ 범죄분야 지역안전 상대유형

범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0260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별 지자체 수는 1유형이 23개 지자체, 2유형이 58개 지자체, 3유형이 65개 지자체, 4유형이 58개 지자체, 5유형이 22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범죄분야 지역안전상대 1유형에 속하는 시 지역은 원주시, 강릉시, 목포시, 속초시, 의정부시, 구리시, 안산시, 부천시였으며, 군 지역은 가평군, 진천군, 음성군, 정선군, 양양군, 태안군, 영암군, 연천군, 구 지역은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부산 동구, 부산진구, 대구 중구,

광주동구이다. 반면, 범죄분야 지역안전상대 5유형에 속하는 시 지역은 상주시, 김포시, 계룡시, 과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왕시였으며, 군 지역은 순천군, 함평군, 함양군, 봉화군, 군위군, 진안군, 영양군, 신안군, 구 지역은 도봉구, 수성구,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광산구, 유성구, 울산 북구이다.

〈표 IV-4-17〉 지역안전 상대유형(범죄)별 지역

유형	지자체		개수
1	시	원주시, 강릉시, 목포시, 속초시, 의정부시, 구리시, 안산시, 부천시	8
	군	가평군, 진천군, 음성군, 정선군, 양양군, 태안군, 영암군, 연천군	8
	구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부산 동구, 부산진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7
2	시	안동시, 삼척시, 포천시, 춘천시, 군산시, 통영시, 평택시, 청주시, 경주시, 동해시, 천안시, 김해시, 경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오산시, 태백시, 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20
	군	해남군, 강원 고성군, 양평군, 구례군, 금산군, 평창군, 담양군, 고흥군, 예산군, 홍성군, 진도군, 거창군, 강화군, 장흥군, 칠곡군, 장성군, 청도군, 영광군, 경남 고성군, 함안군, 달성군, 기장군	22
	구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 광진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부평구, 대전 중구	16
3	시	김제시, 안성시, 보령시, 여주시, 정읍시, 사천시, 영천시, 익산시,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 순천시, 포항시, 이천시, 거제시, 아산시, 양산시, 진주시, 구미시, 광명시, 전주시, 안양시	22
	군	황성군, 부안군, 창녕군, 홍천군, 인제군, 산청군, 고창군, 보성군, 영덕군, 강진군, 화순군, 괴산군, 성주군, 하동군, 청송군, 무주군, 영월군, 단양군, 철원군, 영동군, 울진군, 완주군, 울주군	23
	구	서초구, 강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영도구, 동래구, 수영구, 사상구, 연제구, 인천 동구, 남동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20
4	시	공주시, 김천시, 밀양시, 나주시, 문경시, 영주시, 당진시, 논산시, 서산시, 남원시, 양주시, 파주시, 광양시, 광주시, 화성시, 하남시, 고양시, 군포시	18
	군	청양군, 서천군, 남해군, 의령군, 합천군, 무안군, 곡성군, 의성군, 보은군, 완도군, 예천군, 부여군, 장수군, 옹진군, 고령군, 양구군, 옥천군, 임실군, 화천군, 증평군, 울릉군	21
	구	서울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노원구, 부산 강서구, 사하구, 부산 남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 달서구, 연수구, 계양구, 광주 북구, 대덕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19
5	시	상주시, 김포시, 계룡시, 과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7
	군	순천군, 함평군, 함양군, 봉화군, 군위군, 진안군, 영양군, 신안군	8
	구	도봉구, 수성구,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광산구, 유성구, 울산 북구	7

행정수요 대비 해당값의 관계(상관계수 값): $r=0.02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⑤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410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별 지자체 수는 1유형이 24개 지자체, 2유형이 54개 지자체, 3유형이 75개 지자체, 4유형이 53개 지자체, 5유형이 20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안전분야 지역 안전상대 1유형에 속하는 시 지역은 삼척시, 포천시, 김제시, 보령시, 공주시, 당진시, 상주시였으며, 군 지역은 가평군, 양양군, 태안군, 평창군, 인제군, 산청군, 무주군, 단양군, 옹진군, 구 지역은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강서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대전 동구이다. 반면,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상대 5유형에 속하는 시 지역은 수원시, 광명시, 고양시, 군포시, 계룡시, 용인시, 의왕시였으며, 군 지역은 칠곡군, 달성군, 기장군, 철원군, 울주군, 무안군, 양구군, 증평군, 구 지역은 동작구, 양천구, 해운대구, 부산 북구, 울산 중구이다.

〈표 IV-4-18〉 지역안전 상대유형(생활안전)별 지역

유형	지자체		개수
1	시	삼척시, 포천시, 김제시, 보령시, 공주시, 당진시, 상주시	7
	군	가평군, 양양군, 태안군, 평창군, 인제군, 산청군, 무주군, 단양군, 옹진군	9
	구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강서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대전 동구	8
2	시	강릉시, 안동시, 통영시, 경주시, 동해시, 태백시, 안성시, 여주시, 정읍시, 영천시, 제천시, 김천시, 밀양시, 나주시, 문경시, 영주시, 남원시, 양주시, 과천시	19
	군	정선군, 영암군, 양평군, 강화군, 강원 고성군, 횡성군, 영덕군, 괴산군, 청송군, 영월군, 영동군, 남해군, 의령군, 합천군, 곡성군, 보은군, 장수군, 군위군, 진안군, 영양군	20
	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초구, 강북구,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15
3	시	속초시, 의정부시, 춘천시, 군산시, 평택시, 경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사천시, 익산시, 충주시, 여주시, 순천시, 이천시, 거제시, 아산시, 양산시, 논산시, 서산시, 파주시, 광양시, 광주시, 화성시	23
	군	진천군, 연천군, 금산군, 담양군, 고흥군, 진도군, 장흥군, 청도군, 영광군, 홍천군, 보성군, 강진군, 성주군, 하동군, 울진군, 청양군, 서천군, 예천군, 부여군, 고령군, 옥천군, 임실군, 화천군, 순창군, 함평군, 함양군, 봉화군	27
	구	동대문구, 강남구, 구로구, 중랑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은평구, 부산진구, 영도구, 수영구, 사상구, 연제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인천 남구, 부평구, 남동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대덕구	25

유형	지자체		개수	
4	시	원주시, 목포시, 구리시, 안산시, 부천시, 청주시, 천안시, 김해시, 오산시, 창원시, 성남시, 포항시, 진주시, 구미시, 전주시, 안양시, 하남시, 김포시, 남양주시	19	53
	군	음성군, 해남군, 경남 고성군, 구례군, 예산군, 홍성군, 거창군, 장성군, 함안군, 부안군, 창녕군, 고창군, 화순군, 완주군, 의성군, 완도군, 울릉군, 신안군	18	
	구	강동구, 성동구, 서울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래구, 부산 남구, 달서구, 수성구, 연수구,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광산구, 울산 북구	16	
5	시	수원시, 광명시, 고양시, 군포시, 계룡시, 용인시, 의왕시	7	20
	군	철곡군, 달성군, 기장군, 철원군, 울주군, 무안군, 양구군, 증평군	8	
	구	동작구, 양천구, 해운대구, 부산 북구, 울산 중구	5	
행정수요 대비 해당값의 관계(상관계수 값): $r=0.410$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라) 보건/의료 인프라

육아 인프라중 보건/의료 인프라에 포함되는 지표는 산부인과 의원 수, 소아과 의원 수, 가정의학과 의원 수, 종합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산부인과 수

산부인과 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7960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부인과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56개)이며, 그 다음이 수원시(32개), 성남시(28개), 마포구와 창원시(25개), 청주시(24개) 등 자치구와 시 지역이 산부인과 의원 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부인과 의원 수가 없는 지역은 총 59개로 시 지역 1곳과 군 지역 58곳으로 나타나 군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9〉 산부인과 의원 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지자체명	지표 수준	행정수요(영유아·아동 수)
1	강남구	56	60,424
2	수원시	32	154,507
3	성남시	28	109,529

순위	상위		
	지자체명	지표 수준	행정수요(영유아·아동 수)
4	마포구	25	40,680
	창원시	25	128,653
6	청주시	24	110,298
7	서초구	23	55,543
8	송파구	23	74,404
9	전주시	23	81,778
10	대전 서구	20	60,394
	관악구	20	42,470
	안산시	20	81,824
	달서구	20	70,141
	고양시	20	124,235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59개)	시(1개)	광양시	
	군(58개)	가평군, 양양군, 태안군, 평창군, 인제군, 산청군, 무주군, 단양군, 옹진군, 정선군, 영암군, 강화군, 강원 고성군, 횡성군, 영덕군, 괴산군, 청송군, 영월군, 영동군, 의령군, 합천군, 곡성군, 장수군, 군위군, 진안군, 영양군, 연천군, 담양군, 진도군, 청도군, 영광군, 보성군, 강진군, 성주군, 울진군, 청양군, 예천군, 부여군, 고령군, 임실군, 화천군, 순창군, 함평군, 함양군, 봉화군, 경남 고성군, 구례군, 거창군, 장성군, 고창군, 화순군, 의성군, 완도군, 울릉군, 신안군, 철원군, 무안군, 양구군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79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소아과 수

소아과 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938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아과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63개)이며, 그 다음이 성남시(62개), 용인시(61개), 고양시(53개), 송파구(46개) 등 시 지역과 서울시 자치구가 소아과 의원 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아과 의원 수가 없는 지역은 총 54개로 나타나 군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0〉 소아과 의원 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지자체명	지표 수준	행정수요(영유아·아동 수)
1	수원시	63	154,507
2	성남시	62	109,529
3	용인시	61	149,273
4	고양시	53	124,235
5	송파구	46	74,404
6	부천시	39	92,946
	남양주시	39	93,589
	화성시	39	107,689
9	청주시	34	110,298
	전주시	34	81,778
	노원구	34	62,303
	서울 강서구	34	64,323
구분	지자체명		
소아과가 없는 지역 (54개)	군	장흥군, 해남군, 남해군, 보은군, 고흥군, 하동군, 예산군, 함안군, 양양군, 평창군, 인제군, 산청군, 무주군, 단양군, 웅진군, 정선군, 영암군, 영덕군, 강원 고성군, 괴산군, 청송군, 영월군, 영동군, 의령군, 곡성군, 장수군, 군위군, 진안군, 영양군, 연천군, 담양군, 진도군, 청도군, 보성군, 강진군, 성주군, 울진군, 청양군, 예천군, 고령군, 임실군, 화천군, 순창군, 함평군, 봉화군, 구례군, 장성군, 고창군, 의성군, 완도군, 울릉군, 신안군, 철원군, 양구군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93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③ 가정의학과 수

가정의학과 수와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742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30개)이며, 그 다음이 전주시(26개), 수원시(24개), 고양시와 서울강서구(18개) 등 시 지역과 자치구가 가정의학과 의원 수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의학과 의원 수가 없는 지역은 총 59개로 시 지역 9곳과 군 지역 45곳, 구 지역 5곳으로 나타났다.

〈표 IV-4-21〉 가정의학과 의원 수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지자체명	지표 수준	행정수요(영유아·아동 수)
1	청주시	30	110,298
2	전주시	26	81,778
3	수원시	24	154,507
4	고양시	18	124,235
	서울 강서구	18	64,323
6	성남시	17	109,529
	성북구	17	48,884
	광주 북구	17	52,927
9	송파구	15	74,404
	광산구	15	66,880
	군산시	15	34,851
구분	지자체명		
가정의학과가 없는 지역 (59개)	시(9개)	안성시, 제천시, 통영시, 보령시, 영주시, 상주시, 삼척시, 태백시	
	군(45개)	양평군, 화순군, 진천군, 금산군, 강화군, 서천군, 창녕군, 태안군, 황성군, 합천군, 부여군, 남해군, 보은군, 하동군, 양양군, 평창군, 인제군, 무주군, 단양군, 용진군, 강원 고성군, 괴산군, 청송군, 영월군, 의령군, 곡성군, 군위군, 영양군, 연천군, 담양군, 진도군, 청도군, 보성군, 강진군, 성주군, 청양군, 예천군, 고령군, 화천군, 순창군, 함평군, 의성군, 완도군, 울릉군, 신안군	
	구(5개)	금천구, 부산 서구, 영도구, 인천 동구, 울산 동구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742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④ 종합병원 수

종합병원과 지역의 행정수요 간의 상관계수는 0.703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8개)이며, 그 다음이 영등포구(7개), 청주시와 성남시와 광산구(6개) 등 시 지역과 자치구가 종합병원 지표 수준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 없는 지역은 총 81개로 시 지역 12곳과 군 지역 66곳, 구 지역 3곳으로 나타났다.

〈표 IV-4-22〉 종합병원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지자체명	지표 수준	행정수요(영유아·아동 수)
1	창원시	8	128,653
2	영등포구	7	37,204
3	청주시	6	110,298
	성남시	6	109,529
	광산구	6	66,880
6	전주시	5	81,778
	고양시	5	124,235
	광주 북구	5	52,927
	부천시	5	92,946
	목포시	5	31,447
	광주 서구	5	37,075
	포항시	5	60,341
	김해시	5	76,474
	동대문구	5	33,601
	인천 서구	5	72,006
구분	지자체명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81개)	시(12개)	의왕시, 김제시, 하남시, 밀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사천시, 여주시, 계룡시, 과천시, 통영시, 영주시	
	군(66개)	완주군, 칠곡군, 함양군, 영동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달성군, 음성군, 산청군, 증평군, 거창군, 가평군, 경남 고성군, 함안군, 정선군, 영암군, 영덕군, 울진군, 봉화군, 구례군, 장성군, 철원군, 양구군, 양평군, 금산군, 강화군, 서천군, 창녕군, 태안군, 황성군, 합천군, 부여군, 남해군, 보은군, 하동군, 양양군, 평창군, 인제군, 무주군, 단양군, 옹진군, 강원 고성군, 괴산군, 청송군, 의령군, 곡성군, 군위군, 영양군, 연천군, 담양군, 진도군, 청도군, 보성군, 강진군, 성주군, 정양군, 예천군, 고령군, 화천군, 순창군, 함평군, 의성군, 완도군, 울릉군, 신안군	
	구(3개)	마포구, 사하구, 부산 강서구	
행정수요 대비 시설의 설치정도(상관계수 값): $r=0.703$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3) 현황분석결과 요약: 행정수요대비 적정성 여부

상관수준의 높음 정도는 상관계수의 절대 값 수준으로 매우 높음($r \geq 0.9$), 높음($0.7 \leq r < 0.9$), 보통($0.4 \leq r < 0.7$), 낮음($r < 0.4$)으로 수요대비 적정성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행정수요대응정도는 0.7이상인 경우를 적정, 그 이하를 적정하지 않음

으로 구분하였다.

〈표 IV-4-23〉 지표별 행정수요대비 적정성

지표명	상관계수	상관수준	행정수요대응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0.345	낮음	적정하지 않음
어린이집 시설	0.976	매우 높음	적정
유치원 시설	0.928	매우 높음	적정
건강가정지원센터	0.418	보통	적정하지 않음
초등학교 시설	0.892	높음	적정
지역아동센터시설	0.706	높음	적정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0.707	높음	적정
공원개소	0.846	높음	적정
공원면적	0.677	보통	적정하지 않음
어린이공원개소	0.879	높음	적정
어린이공원면적	0.845	높음	적정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0.423	보통	적정하지 않음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0.518	보통	적정하지 않음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0.018	낮음	적정하지 않음
교통안전지수	-0.655	보통	적정하지 않음
화재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	0.372	낮음	적정하지 않음
범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	0.026	낮음	적정하지 않음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	0.410	보통	적정하지 않음
산부인과 의원 수	0.796	높음	적정
소아과 수	0.938	매우 높음	적정
가정의학과 수	0.742	높음	적정
종합병원 수	0.703	높음	적정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매우 높은 상관수준을 나타낸 지표는 어린이집 시설, 유치원 시설, 소아과 수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지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인프라 중 보건/의료 환경을 나타내는 소아과의 수가 많은 지역에 영유아 및 아동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상관 수준을 나타낸 지표는 초등학교시설,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공원개소, 어린이공원개소, 어린이공원면적, 산부인과 의원

수, 가정의학과 수, 종합병원 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시설과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지표로 초등학교시설과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가 많은 지역에 아동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인프라 중 공원/녹지 환경을 나타내는 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많은 지역,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넓은 지역과 보건/의료 환경을 나타내는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종합병원의 수가 많은 지역에 영유아 및 아동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표와 행정수요의 상관수준이 높다는 것은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육아의 직접적 자원이나 육아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관수준이 매우 높음이나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육아 관련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지표는 지역의 육아친화성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육아의 직접적 자원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시설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육아 지원시설에 관한 지표로서 지역 내 해당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경우 양육자의 보육·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녹지 환경적인 요소이며,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와 종합병원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설로서 지역 내 공원/녹지와 보건의료 시설이 많을수록 양육자들이 필요할 경우 이들 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도 지역의 육아친화성 정도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지표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인프라 지표인 공원면적(공원/녹지 환경),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과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여가/문화 환경), 교통안전지수와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교통/안전 환경)은 보통의 상관 수준을 나타냈다. 이 밖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지표인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와 육아인프라 중 교통/안전 환경을 나타내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화재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과 범죄분야 지역안전상대유형은 낮은 상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낮은 상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경우에는 지표 자체가 일정 기준으로 이미 상대화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나. 육아친화지표 총량분석

1) 총량도출의 방식

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2개 부분, 6개 영역의 세부요인의 값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절대육아친화총량지표와 상대육아친화총량지표로 나뉘어 요인점수는 평균이 1, 표준편차 1로 변환된다. 절대육아친화총량지표는 지표의 절대 값을 합산하여 도출하였으며, 상대육아친화총량지표는 지표에 따라 영유아 천명 당 비율, 아동 천명 당 비율, 영유아와 아동의 총합 인구 천명 당 비율로 환산하여 도출하였다.

종합지수 산출을 위한 지수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영역별로 나뉜 지표들을 합산하여 영역지수를 도출하였다. 다만, 해당 방식으로 영역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포함된 지표들의 단위와 비교의 준거가 되는 기준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김정석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요인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요인점수 값이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총량의 합산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지역의 상황에 따라 환경 요소에 대한 우선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면밀하게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 대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육아친화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강은진 외, 2016)에서도 지역별 비교를 각 요소별로 수요자를 고려한 산식을 평가 요소로 확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지표를 활용하여 육아친화지표를 구성함에 따라 일부 지표에서 값이 누락된 지역의 경우 요인점수 도출이 어려워 229개 지역 중 13개 지역(용진군, 청원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신안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하동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이 분석에서 제외하고⁹³⁾ 총 분석대상은 216개 지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지역의 절대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93) 인천 용진군의 경우 아동기 직접인프라와 공원/녹지, 교통안전의 일부 지표가 부재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충북 청원군의 경우 간접인프라의 전 영역의 일부 지표가 부재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전북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과 전남 신안군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의 일부 지표가 부재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경북 청송군은 아동기 직접인프라의 일부 지표가 부재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경북 영양군과 경남 하동군, 합천군은 공원/녹지 인프라, 경북 울릉군은 교통/안전 인프라의 일부 지표가 부재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직접인프라의 전 영역의 일부 지표와 교통/안전 인프라의 일부 지표가 부재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평균 0.122 요인점수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값은 3.989, 중위값은 -0.844, 하위 10%의 평균값은 -3.098 요인점수를 나타냈으며, 상대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평균 -0.206 요인점수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값은 4.766, 중위값은 -1.304, 하위 10%의 평균값은 -3.320 요인점수를 나타냈다.

2) 세부요인별 요인분석 계수⁹⁴⁾

세부요인별 직교회전(varimax)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6개 분야별로 1~4사이의 아이겐벨류 값을 갖는다. 분석에서는 단일요인 축약 옵션을 지정해서 아이겐벨류 값을 조정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요인은 모두 1개만이 도출되었다. 육아친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한 단일 요인의 총 분산은 90%를 상회하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최저기준인 60%를 넘는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4〉 영유아기 직접자원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치

Eigenvalue		2.52431
세부지표	요인적재량	고유치(Uniqueness) ⁹⁵⁾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0.6786	0.5395
어린이집 시설	0.9366	0.1228
유치원 시설	0.9087	0.1743
건강가정 지원센터	0.6008	0.6390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영유아기 육아의 직접자원 요인의 아이겐벨류는 3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부요인들이 묶이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사실상 변수에서 누락되어야 하는 고유치를 갖고 있으나 양육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자원을 드러내주는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하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시설과 유치원 시설의 요인적재량이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대상 직접인프라 지표로, 1에 가까운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94) 세부요인별 계수는 절대값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냄

95) 요인적재량과 고유치는 세부적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부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요인적재량이 통상 0.3이상, 고유치는 0.5 이하이면 유효하다고 여겨지는데 개념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지표의 경우라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아동기 육아의 직접자원 요인의 아이겐벨류도 3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부요인들이 묶이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의 요인적재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대상 직접인프라 지표로 볼 수 있다.

〈표 IV-4-25〉 아동기 직접자원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값

Eigenvalue		2.64994
세부지표	요인적재량	고유치(Uniqueness)
초등학교 시설	0.8706	0.2421
지역아동센터시설	0.9750	0.0493
지역아동센터 직원수	0.9703	0.058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육아 인프라 요인 중 공원/녹지 인프라 지표의 아이겐벨류는 3 이상의 수준으로 세부요인들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개소와 어린이공원개소가 공원 녹지 인프라 지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6〉 공원녹지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값

Eigenvalue		3.4778
세부지표	요인적재량	고유치(Uniqueness)
공원개소	0.9678	0.0633
공원면적	0.8642	0.2532
어린이공원개소	0.9665	0.0658
어린이공원면적	0.9242	0.145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여가/문화 인프라 요인의 아이겐벨류는 1.23383 정도의 수치를 보이며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된다.

〈표 IV-4-27〉 여가문화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값

Eigenvalue		1.23383
세부지표	요인적재량	고유치(Uniqueness)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0.7854	0.3831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0.7854	0.3831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교통/안전 인프라 요인의 아이겐벨류는 1.82808정도 수치를 나타낸다. 교통안전지수는 사실상 변수에서 누락되어야 하는 고유치를 갖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하고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생활안전 영역 지역안전상대유형이 교통안전 인프라 지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다.

〈표 IV-4-28〉 교통안전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값

Eigenvalue		1.82808
세부지표	요인적재량	고유치(Uniqueness)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0.7173	0.2756
교통안전지수	0.0356	0.9811
지역안전상대유형(화재)	0.7203	0.2341
지역안전상대유형(범죄)	0.4480	0.2046
지역안전상대유형(생활안전)	0.7699	0.243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보건/의료 인프라 요인의 아이겐벨류는 3 이상의 수준으로 세부요인들이 묶이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부인과 의원 수와 소아과 의원 수가 보건의료 인프라 지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9〉 보건의료 인프라 지표별 요인적재량과 고유값

Eigenvalue		3.06042
세부지표	요인적재량	고유치(Uniqueness)
산부인과 의원 수	0.9168	0.1595
소아과 의원 수	0.9079	0.1757
가정의학과 의원 수	0.8581	0.2637
종합병원	0.8120	0.340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3) 지역 내 육아친화성 수준: 개별요인 분석

지역 내 육아친화성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표별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부요인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별 요인점수를 고-저의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상위 20%이내: 고, 상위 20~40%사이: 중상, 상위 40%~60%: 중, 하위 20~40%: 중하, 하위 20%이내: 저).

〈표 IV-4-30〉 육아친화성 수준에 따른 분류표

구분	육아 직접적 자원		육아 인프라			
	영유아기	아동기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1유형	고	고	고	고	고	고
2유형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3유형	중	중	중	중	중	중
4유형	중하	중하	중하	중하	중하	중하
5유형	저	저	저	저	저	저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1) 지역 내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

① 개별요인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절대육아친화지표 세부특성의 값은 요인점수로 산출되어 영유아기 대상 육아 직접적 자원은 상위 10%의 경우 1.367 요인점수, 하위 10%는 -1.049의 값을 갖고, 아동기 대상 직접적 자원은 상위 10%의 경우 1.459 요인점수, 하위 10%는 -0.850의 요인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돌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의 요인점수는 상위 10%의 경우 1.238, 하위 10%인 경우 -0.838이며, 여가문화 인프라는 상위 10%의 경우 0.944, 하위 10%인 경우 -1.524를 나타냈다. 교통안전 인프라는 상위 10%에서 1.395 값을, 하위 10%에서 -1.177 요인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프라는 상위 10%에서 1.372 값을, 하위 10%에서 -0.928의 값을 가진다.

〈표 IV-4-31〉 요인별 각 분위에 따른 요인점수(절대)

기술통계값	육아 직접적 자원		육아 인프라			
	영유아기	아동기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상위 10	1.367	1.459	1.238	0.944	1.395	1.372
상위 50	-0.026	-0.274	-0.364	0.076	0.093	-0.250
하위 10	-1.049	-0.850	-0.838	-1.524	-1.177	-0.92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개별요인별 지자체 절대적 육아친화성 유형분포

세부요인별로 유형별 지자체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의 육아 직접적 자원수준이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5개였으며, 2유형은 45곳, 3유형은 46

곳, 4유형은 42곳, 5유형은 38곳으로 나타나 해당 지표의 수준은 지자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 대상의 육아 직접적 자원 수준이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5개였으며, 2유형은 44곳, 3유형은 45곳, 4유형은 40곳, 5유형은 42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육아 인프라 지표를 살펴보면, 공원/녹지 인프라의 경우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3개였으며, 2유형은 44곳, 3유형은 43곳, 4유형은 44곳, 5유형은 42곳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여가/문화 인프라의 경우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0개였으며, 2유형은 40곳, 3유형은 45곳, 4유형은 45곳, 5유형은 46곳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에도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는 43곳, 2유형은 42곳, 3유형은 43곳, 4유형은 43곳, 5유형은 45곳으로 나타나 해당 지표들의 수준은 지자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4개였으며, 2유형은 46곳, 3유형은 44곳, 4유형은 43곳, 5유형은 39곳으로 나타나 해당 지표의 수준은 지자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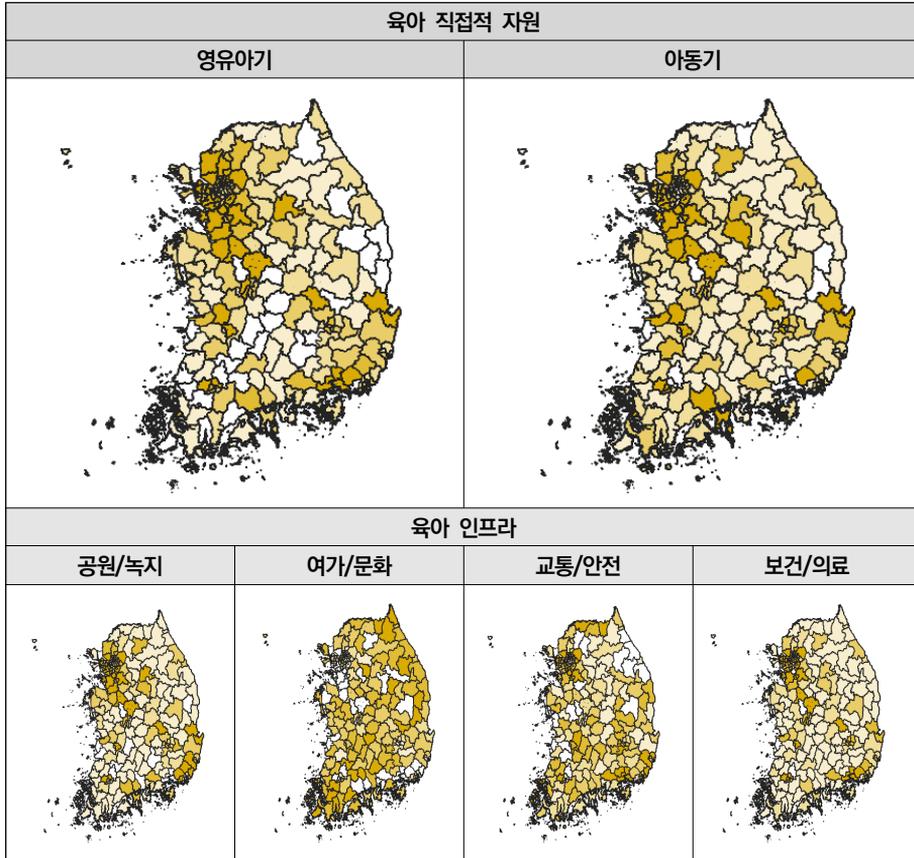
〈표 IV-4-32〉 세부요인별 지자체 분포: 절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육아의 직접적 자원	영유아기	45	45	46	42	38
	아동기	45	44	45	40	42
육아 인프라	공원/녹지	43	44	43	44	42
	여가/문화	40	40	45	45	46
	교통/안전	43	42	43	43	45
	보건/의료	44	46	44	43	39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대상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와 아동기 대상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요인점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로 갈수록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동기 대상 직접적 자원의 값이 영유아기 대상의 값보다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가진다. 또한 공원녹지 인프라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로 갈수록 요인점수가 높았으며, 경부벨트를 중심으로 공원녹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으나, 강원도·전라도 지역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1] 지역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유형분포



주: 1) 절대적 육아친화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할수록 색이 진해짐.
 2)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교통안전 인프라도 공원녹지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의 절대적인 요인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인프라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여가문화 인프라는 지리적 특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보건의료 인프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역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

지역별 절대적 육아친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육아직접적 자원의 경우 1유형에는 30개의 시와 1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22개의 시와 2개의 군, 2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18개의 시와 10개의 군, 18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3개의 시와 28개의 군, 1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2개의 시와 32개의 군, 4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육아직접적 자원의 경우 1유형에는 31개의 시와 14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6개의 시와 4개의 군, 24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17개의 시와 16개의 군, 12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8개의 시와 21개의 군, 1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3개의 시와 31개의 군, 8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IV-4-33〉 지역유형별 육아의 직접적 자원 분포: 절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영유아기 육아직접적 자원			아동기 육아직접적 자원		
	시	군	구	시	군	구
1유형	30	-	15	31	-	14
2유형	22	2	21	16	4	24
3유형	18	10	18	17	16	12
4유형	3	28	11	8	21	11
5유형	2	32	4	3	31	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이상을 종합해보면, 육아 직접적 자원의 경우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 모두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시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1유형에 포함되는 군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군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시·군 지역의 육아 직접적 자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고른 분포 수준을 나타냈다. 육아 인프라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4-34〉와 같다.

〈표 IV-4-34〉 지역유형별 육아 인프라 분포: 절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1유형	31	2	10	6	32	2	13	15	15	21	-	23
2유형	22	3	19	12	25	3	14	14	14	17	-	29
3유형	12	7	24	22	10	13	15	15	13	22	6	16
4유형	9	26	9	16	4	25	17	18	8	15	27	1
5유형	1	34	7	19	1	26	16	10	19	-	39	-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공원/녹지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31개의 시와 2개의 군, 10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22개의 시와 3개의 군, 19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12개의 시와 7개의 군, 24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9개의 시와 26개의 군, 9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1개의 시와 34개의 군, 7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가/문화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6개의 시와 32개의 군, 2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2개의 시와 25개의 군, 3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22개의 시와 10개의 군, 13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6개의 시와 4개의 군, 2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19개의 시와 1개의 군, 26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13개의 시와 15개의 군, 1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4개의 시와 14개의 군, 14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15개의 시와 15개의 군, 13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7개의 시와 18개의 군, 8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16개의 시와 10개의 군, 19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21개의 시와 23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7개의 시와 29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22개의 시와 6개의 군, 16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5개의 시와 27개의 군, 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39개의 군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는 시 지역은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군 지역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자치구 지역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는 3유형에 대부분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에도 1유형과 2유형, 3유형에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1유형과 2유형에 포함되는 군 지역은 없었고, 5유형에 속하는 모든 지자체가 군 지역으로 나타나 공원/녹지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프라는 시·자치구 지역과 군 지역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가/문화 인프라와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에는 전 유형에 걸쳐서 시 지역과 군 지역, 자치구 지역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가/문화 인프라의 경우 1유형과 2유형의 대부분이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2) 지역 내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

① 개별요인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영유아기 대상 육아의 직접적 자원의 상대적 수준요인의 상위 10%의 경우 1.265 요인점수, 하위 10%는 -0.944의 값을 가진다. 아동기 대상 육아의 직접적 자원의 상대적 수준요인의 상위 10%의 경우 1.488 요인점수, 하위 10%는 -0.924의 요인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육아인프라 상대적 수준요인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의 경우, 상위 10%의 경우 1.291, 하위 10%인 경우 -0.911이며, 여가문화 인프라는 상위 10%의 경우 0.662, 하위 10%인 경우 -0.667을 나타냄. 교통안전 인프라는 상위 10%에서 1.461 값을, 하위 10%에서 -0.775 요인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프라는 상위 10%에서 1.049 값을, 하위 10%에서 -1.388의 요인점수를 나타냈다.

〈표 IV-4-35〉 요인별 각 분위에 따른 요인점수(상대)

기술통계값	육아 직접적 자원		육아 인프라			
	영유아기	아동기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상위 10	1.265	1.488	1.291	0.662	1.461	1.049
상위 50	-0.438	-0.348	-0.281	-0.090	-0.526	0.087
하위 10	-0.944	-0.924	-0.911	-0.667	-0.775	-1.38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② 개별요인별 지자체 상대적 육아친화성 분포

세부요인별로 유형별 지자체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의 육아의 직접적 자원요인이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35개였으며, 2유형은 45곳, 3유형은

45곳, 4유형은 45곳, 5유형은 46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 대상의 육아의 직접적 자원요인이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2개였으며, 2유형은 40곳, 3유형은 44곳, 4유형은 45곳, 5유형은 45곳이다.

다음으로 돌봄인프라 요인을 살펴보면, 공원/녹지 인프라의 경우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1개였으며, 2유형은 44곳, 3유형은 43곳, 4유형은 44곳, 5유형은 44곳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여가/문화 인프라의 경우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36개였으며, 2유형은 44곳, 3유형은 45곳, 4유형은 45곳, 5유형은 46곳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에도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는 37곳, 2유형은 44곳, 3유형은 45곳, 4유형은 45곳, 5유형은 45곳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 지표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 수는 44개였으며, 2유형은 45곳, 3유형은 45곳, 4유형은 42곳, 5유형은 40곳으로 나타났다.

〈표 IV-4-36〉 세부요인별 지자체 분포: 상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돌봄환경 인프라	영유아기	35	45	45	45	46
	아동기	42	40	44	45	45
돌봄직접 자원	공원/녹지	41	44	43	44	44
	여가/문화	36	44	45	45	46
	교통/안전	37	44	45	45	45
	보건/의료	44	45	45	4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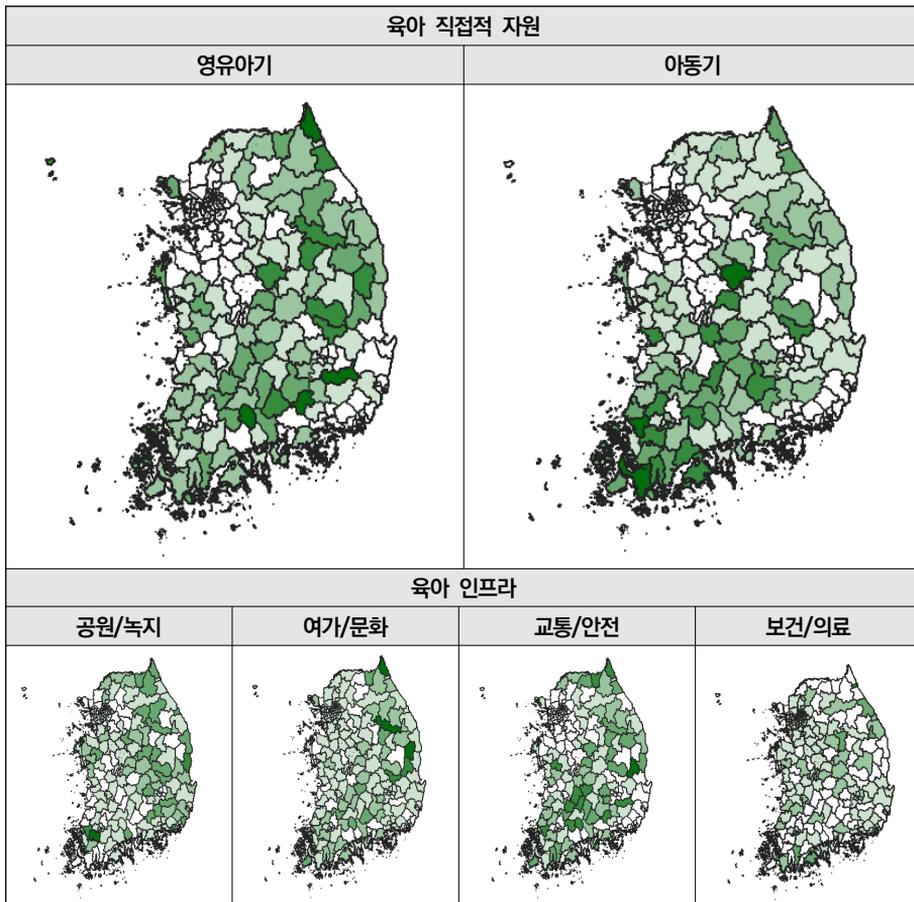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③ 지역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

육아 직접적 자원의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의 경우 상대적 육아친화성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군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1유형에 포함되는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 지역이 포함되는 유형은 5유형이었으며, 가장 많은 자치구 지역이 포함되는 유형은 4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의 영유아 직접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내 행정수요(영유아 수)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

도 영유아기 육아직접적 자원의 지역별 분포현황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1유형과 2유형에는 대부분 군 지역이 속하고 있었으며,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은 대부분 4유형과 5유형에 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의 행정수요(아동 수)를 고려하면 아동기 직접적 자원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역의 행정수요(영유아 수와 아동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이 시와 구 지역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4-2] 지역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유형분포



주: 1) 상대적 육아친화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할수록 색이 진해짐.
 2)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다음으로 육아 인프라 요인을 살펴보면, 공원/녹지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11개의 시와 28개의 군, 2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27개의 시와 12개의 군, 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19개의 시와 12개의 군, 12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7개의 시와 12개의 군, 1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1개의 시와 8개의 군, 3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가/문화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1개의 시와 34개의 군, 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4개의 시와 27개의 군, 3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22개의 시와 6개의 군, 17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9개의 시와 26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19개의 시와 5개의 군, 22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37개의 군만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1개의 시와 28개의 군, 5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21개의 시와 7개의 군, 17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9개의 시와 26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24개의 시와 2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 1유형에는 14개의 시와 4개의 군, 26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20개의 시와 4개의 군, 21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20개의 시와 7개의 군, 18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21개의 시와 17개의 군, 4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40개의 군만 포함되어 있었다.

〈표 IV-4-37〉 지역유형별 육아 인프라 분포: 상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1유형	11	28	2	1	34	1	-	37	-	14	4	26
2유형	27	12	5	14	27	3	11	28	5	20	4	21
3유형	19	12	12	22	6	17	21	7	17	20	7	18
4유형	17	12	15	19	-	26	19	-	26	21	17	4
5유형	1	8	35	19	5	22	24	-	21	-	40	-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이상을 종합해보면,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는 1유형에는 군 지역이, 2, 3, 4유형에는 시 지역이, 5유형에는 자치구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여가/문화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1유형과 2유형의 대부분은 군 지역이었으며, 4, 5유형에는 자치구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에는 군 지역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포함되는 군 지역은 없었다.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의 대부분이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이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교통량이나 지역 내 안전과 관련한 불안요소가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보다 적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에는 1유형과 2유형의 대부분이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5유형에 속하는 모든 지자체가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 시설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행정수요를 고려했을 때도 그 수준이 낮아 보건/의료 시설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 상대적 육아친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육아직접적 자원의 경우 1유형에는 35개의 군만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3개의 시와 28개의 군, 4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19개의 시와 8개의 군, 18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16개의 시와 1개의 군, 28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27개의 시와 19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육아직접적 자원의 경우 1유형에는 4개의 시와 36개의 군, 2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으며, 2유형에는 13개의 시와 20개의 군, 7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었다. 3유형에는 22개의 시와 13개의 군, 9개의 자치구가, 4유형에는 20개의 시와 2개의 군, 23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유형에는 16개의 시와 1개의 군, 28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IV-4-38〉 지역유형별 육아의 직접적 자원 분포: 상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영유아기 육아직접적 자원			아동기 육아직접적 자원		
	시	군	구	시	군	구
1유형	-	35	-	4	36	2
2유형	13	28	4	13	20	7
3유형	19	8	18	22	13	9
4유형	16	1	28	20	2	23
5유형	27	-	19	16	1	28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합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3) 분석결과 요약

지역 내 육아친화성 수준에 대한 앞선 개별요인 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양육자의 보육 및 육아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의 절대적인 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에 많았으나 지역의 행정수요를 고려했을 때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자가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에 많았으며, 경부벨트를 중심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강원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인프라는 지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 지역의 경우 지역 내 행정수요를 고려했을 때 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인프라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인 수준은 지역의 교통량이 적고 안전과 관련한 불안요소가 적은 군 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과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시 지역과 자치구 지역이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지역이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 자치구 지역과 군 지역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절대적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 관련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적 총량수준에서 전남 지역은 자원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출산율 추이를 고려해서 시설운영의 합리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육아 인프라 요인 역시 절대적 총량수준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향후 시설운영의 합리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일정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육아 인프라 중 보건/의료 환경 인프라의 경우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과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 시설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내 육아친화성 수준: 총량수준 분석

세부 요인 값들의 합산을 통해 육아친화지표의 총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절대적 육아친화지표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이 인구규모가 큰 수도권과 특별·광역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수원시가 14.590의 요인점수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창원시(13.705)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친화지표 요소를 영유아 천명 당 비율, 아동 천명 당 비율, 영유아와 아동의 총합 인구 천명 당 비율로 환산하여 도출한 상대적 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상대적으로 영유아·아동의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경북 군위군이 11.774의 요인점수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2위는 충북 단양군(10.396)으로 나타났다.

〈표 IV-4-39〉 상위 10개 지역 요인별 요인점수

순위	지역명	절대육아 친화총합	순위	지역명	상대육아 친화총합
1	수원시	14.590	1	군위군	11.774
2	창원시	13.705	2	단양군	10.396
3	용인시	13.171	3	영월군	9.781
4	청주시	11.830	4	강원 고성군	9.181
5	전주시	11.715	5	의령군	7.693
6	고양시	11.187	6	함평군	7.681
7	성남시	9.720	7	정선군	6.947
8	부천시	9.069	8	보은군	6.825
9	천안시	8.683	9	괴산군	6.362
10	포항시	8.649	10	담양군	6.283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다음으로 하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절대적 육아친화지표가 미흡한 지역은 광역시 자치구가 많았으며, 절대적 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서울 중구가 -5.391의 요인점수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5위는 부산 중구(-5.031)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광역시 자치구 중 부산 동구(212위, -4.154), 부산 영도구(213위, -4.180), 부산 서구(214위, -4.199), 부산 중구(215위, -5.031) 4곳이 절대적 육아친화지표가 미흡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대적 육아친화지표의 총

합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도 광역시 자치구와 시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육아친화지표의 총합은 경기 양평군이 -3.856의 요인점수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5위는 파주시(-3.8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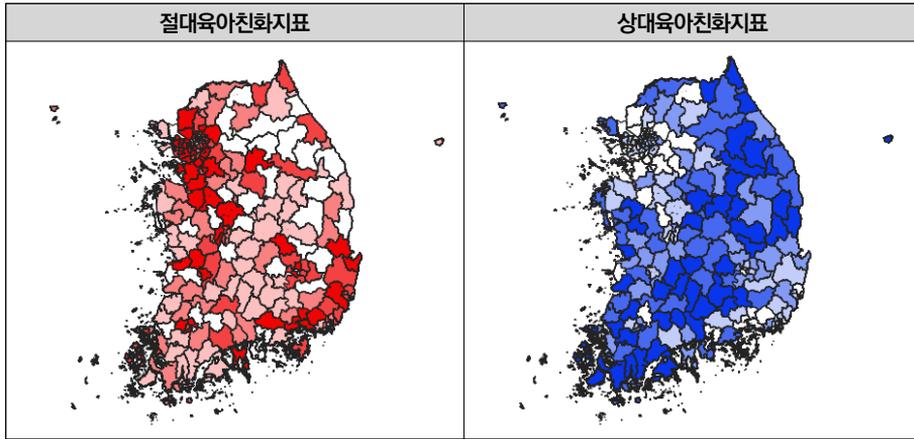
〈표 IV-4-40〉 하위 10개 지역 요인별 요인점수

순위	지역명	절대육아친화총합	순위	지역명	상대육아친화총합
207	양평군	-3.827	207	아산시	-3.556
208	청도군	-3.945	208	울산 동구	-3.651
209	가평군	-4.041	209	김해시	-3.653
210	대구 중구	-4.072	210	서울 도봉구	-3.665
211	양양군	-4.073	211	용인시	-3.685
212	부산 동구	-4.154	212	오산시	-3.698
213	부산 영도구	-4.180	213	거제시	-3.765
214	부산 서구	-4.199	214	서울 구로구	-3.791
215	부산 중구	-5.031	215	파주시	-3.811
216	서울 중구	-5.391	216	양평군	-3.856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최종적으로 지역별 분포현황을 정리해보면, [그림 IV-4-3]과 같다. 절대적 육아친화지표 총량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광역대도시 중심으로 갈수록 절대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낮은 요인점수가 강원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대육아친화지표 총량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은 요인점수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일수록 행정수요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이 높음에도 여전히 적정한 행정수요의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의 신설과 운영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IV-4-3] 지역별 육아친화성 총량 값 분포현황



- 주: 1) 세부요인별 합산 점수인 육아지표총량에 따라 구분하였음.
 2) 육아친화성이 총량이 높은 유형에 해당할수록 색이 진해짐.
 3)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5) 지역 내 육아친화성 수준: 총량유형별 세부특징 분석

지표구축의 궁극적 목적은 총량지표와 그 세부지표의 구성상 특징을 보고 지역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친화환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 지표가 상, 중상(상위 60% 이상)을 “양호”로, 중하, 하(하위 40% 미만)를 “미흡”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황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중간범위(40~60%)인 ‘중’의 경우는 “보통”으로 표기하였다.

가) 절대적 친화성 차원

지자체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을 살펴보면, 1유형에는 46개, 2유형에는 43개, 3유형에는 37개, 4유형에는 49개, 5유형에는 41개 지자체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유형별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육아 직접적 자원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44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없었으며, 미흡한 지자체는 33개였고,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32개, 미흡한 지자체는 6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45개, 미흡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와 교통/안전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27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5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23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8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7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5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6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26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2개, 미흡한 지자체는 11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6개, 미흡한 지자체는 6개였다. 2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와 교통/안전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5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1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4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7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0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3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5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2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5개, 미흡한 지자체는 14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8개, 미흡한 지자체는 14개였다. 3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와 여가/문화, 보건/의료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5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3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5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4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6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39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7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3개, 미흡한 지자체는 25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4개, 미흡한 지자체는 37개였다. 4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와 교통/안전, 보건/의료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5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29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3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2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2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0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3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3개, 미흡한 지자체는 32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7개, 미흡한 지자체는 25개였다. 5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와 교통/안전, 보건/의료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41〉 총량유형별 세부지표수준 분석: 절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육아 직접적 자원	영유아기	양호	46	27	15	1	1
		보통	-	11	11	13	11
		미흡	-	5	11	35	29
	아동기	양호	46	23	14	3	3
		보통	-	12	16	11	6
		미흡	-	8	7	35	32
육아 인프라	공원 /녹지	양호	44	27	10	4	2
		보통	2	11	14	9	7
		미흡	-	5	13	36	32
	여가 /문화	양호	-	6	15	39	20
		보통	13	11	10	3	8
		미흡	33	26	12	7	13
	교통 /안전	양호	32	22	15	13	3
		보통	8	10	8	11	6
		미흡	6	11	14	25	32
	보건 /의료	양호	45	26	8	4	7
		보통	1	11	15	8	9
		미흡	-	6	14	37	25
지자체 총계			46	43	37	49	41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이상을 정리해보면,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은 양호한 수준이나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와 교통/안전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은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와 여가/문화, 보건/의료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 교통/안전, 보건/의료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상대적 친화성 차원

지자체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을 살펴보면, 1유형에는 43개, 2유형에는 44개, 3유형에는 42개, 4유형에는 47개, 5유형에는 40개 지자체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유형별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1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육아 직접적 자원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6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1개였다. 또한 여가/문화 환경은 모든 지자체가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교통/안전 환경의 경우에도 1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9개, 미흡한 지자체는 33개로 나타났다. 1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인프라 중 보건/의료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29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26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5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4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0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30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9개, 미흡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3개, 미흡한 지자체는 17개였다. 2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와 보건/의료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6개이며 미흡

한 지자체는 17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0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1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0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3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6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18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8개, 미흡한 지자체는 19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2개, 미흡한 지자체는 11개였다. 3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 교통/안전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6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4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6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1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26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없었으며, 미흡한 지자체는 36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 미흡한 지자체는 36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23개, 미흡한 지자체는 7개였다. 4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와 교통/안전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5유형의 경우, 영유아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2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7개이다. 한편, 아동기의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8개로 나타났다. 육아 인프라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4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28개이고, 여가/문화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이며, 미흡한 지자체는 34개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개, 미흡한 지자체는 35개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자체는 12개, 미흡한 지자체는 14개였다. 5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들 중 세부요인이 미흡하게 나온 지자체들은 대부분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와 교통/안전 요인에서 미흡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은 양호한 수준이나 육아 인프라 중 보건/의료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은 영유기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 교통/안전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 교통/안전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42〉 총량유형별 세부지표수준 분석: 상대적 육아친화성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육아 직접적 자원	영유아기	양호	42	29	6	1	2
		보통	1	14	19	10	1
		미흡	-	1	17	36	37
	아동기	양호	41	26	10	4	1
		보통	2	13	21	7	1
		미흡	-	5	11	36	38
육아 인프라	공원/녹지	양호	26	24	20	11	4
		보통	6	10	9	10	8
		미흡	11	10	13	26	28
	여가/문화	양호	43	30	6	-	1
		보통	-	11	18	11	5
		미흡	-	3	18	36	34
	교통/안전	양호	42	29	8	1	1
		보통	1	15	15	10	4
		미흡	-	-	19	36	35
	보건/의료	양호	9	23	22	23	12
		보통	1	4	9	17	14
		미흡	33	17	11	7	14
지자체 총계		43	44	42	47	40	

주: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지표별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임.

다) 분석결과 요약

지역 내 육아친화성 수준에 대한 앞의 총량유형별 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은 양호한 수준이나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와 교통/안전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1유형과 2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은 양호한 수준이나 육아 인프라 중 보건/의료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절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공원/녹지, 교통/안전, 보건/의료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4유형과 5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 중 여가/문화, 교통/안전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육아 직접적 자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 직접적 자원이 지자체의 육아친화성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총량이 낮은 4유형과 5유형에 속하는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육아 인프라 중 교통/안전 요인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내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지역 내 육아친화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 모두 육아 직접적 자원이 양호할수록 육아 친화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 시설인 육아 직접적 자원의 설치 및 시설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 내 교통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소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의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육아 인프라 중 교통/안전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흡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부족한 환경·서비스 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결

본 연구는 지역의 육아친화성이라는 개념을 조직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량지표로 변환하여 지역의 육아친화적 수준을 측정,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의 육아친화성의 분석단위를 기초지자체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다양한 쟁점의 검토, 지표개발의 절차를 준용하여 도출하였다. 다양한 유사 개념(아동친화마을, 가족친화마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개념을 통해 구현해야 할 차별화된 가치를 도출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와 돌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육아지원),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친화 인프라의 구축여부(인프라), 양육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 및 치안 인프라의 제공여부(인프라)의 3가지 측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질적 지표의 상호보완의 필요성과 수요자 체감형 지표의 구성, 대상자의 구분 등 세 가지 전략적 방향에 근거하여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세부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세부지표의 총량을 통해 측정된 육아친화성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표의 규모로 측정된 절대 육아친화성 지표의 경우, 육아직접적 자원은 수도권지역에, 시와 구지역, 즉 도시지역일수록 풍부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육아인프라 역시 시와 구지역에 더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유아, 아동인구 대비 시설규모로 환산한 상대적 육아 친화성 지표의 경우, 절대적 지표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일수록 농촌, 과소도시보다 육아친화 등급유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거주하고 있는 양육자가 기타 지역보다 여전히 육아관련 시설의 부족을 경험을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절대적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 관련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 인프라 요인 역시 절대적 총량수준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향후 시설운영의 합리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일정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육아 인프라 중 보건/의료 환경 인프라의 경우 절대적 육아친화성 수준과 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 시설의 경우 절대

적인 규모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환경의 차별화된 특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육아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외 보조적 지원정책(현금성 수당확대)은 실제 육아환경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 따라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는 다양할 것이며 이를 국가차원에서 고려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V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개발

- 01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 02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 풀(pool) 개발
- 03 주민참여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

V.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개발

본 장에서는 마을의 특성에 부응하는 육아친화성을 찾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체크리스트는 마을마다 다른 여건을 구체화하고 해당 마을에 한 수요자의 체감을 반영하는 다소 주관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지표연구들이 행정적·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 등 양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객관적 측정 기준에 국한하였던 것과 달리 수요자의 체감요구를 반영하고자하는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가 기존의 지표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는 두 단계를 거쳐 도출되었다. 먼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육아친화마을 조성 관련 선행연구와 사전 면담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구성하였다. 이후 마을의 양육자들의 직접 참여하는 주민위크숍에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표 측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두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 과정의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가. 육아친화성 담은 체크리스트 풀(pool) 개발

체크리스트는 마을마다 다른 여건을 구체화하고 해당 마을에 한 수요자의 체감을 반영하는 다소 주관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이다. 반면,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는 하향식 방식(Top-down)로 도출된 마을의 행정적·물리적 서비스에 대한 양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객관적 측정 기준이다.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첫 단계로 육아하기 좋은 마을의 육아친화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풀(pool)을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 풀은 90~100개로 구성된다.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친화마을 아동친화마

을 등 유사 지역사회 친화 마을 조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육아담당자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아이 기르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어 최종체크리스트로 만들게 되는 데 바탕이 되는 체크리스트의 모집단이라 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풀(pool) 개발 시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체크리스트는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에 바탕을 두되 육아친화마을 측정 지표와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해 육아친화마을과 관련된 차원적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다만 체크리스트 경우 지표와는 달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중요도 등과 같은 수요자의 인식 수준과 관련된 좀 더 주관적 항목을 담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지표의 경우 지역 별 비교를 위한 시설의 존재 유무·시설 수 등 측정 가능한 지역단위별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양적지표라면 체크리스트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주관적인 지표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체크리스트에는 지표에서 양적지표로 구체화할 수 없었던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담고 있어야 할 철학과 가치, 인적 네트워크 등의 차원과 보행네트워크, 행정 서비스 차원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표 V-1-1 참조). 셋째,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항목들은 최대한 세분화하여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만,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종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을 위한 주민 워크숍 추진 시 주민들의 개방형 요구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넷째, 체크리스트 개발 시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되 가급적 면담 내용에서 나온 요구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육아하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육아를 수행하는 수요자들의 요청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표 V-1-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별 지표와 체크리스트(pool)의 특성 및 차원 비교

구분	지표	체크리스트(pool)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역 별 현황 진단 및 비교 • (지표특성) 시설의 존재유무, 시설 수 등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객관적 양적지표 (철학·가치, 인적네트워크 미포함) • (자료특성) 지역단위별 공공데이터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각 지역별 맞춤형 현황 진단 및 수요자체감형 요구 개선사항 도출 • (지표특성) 철학/가치, 인적네트워크, 물리적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만족도 중심의 주관적 지표 • (자료특성) 수요자 면담, 주민참여워크숍, 설문조사를 활용

구분	지표	체크리스트(pool)
철학/가치		• 포함
인적네트워크		• 포함
서비스인프라	• 포함	•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육아직접 인프라)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 포함	• 포함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보행네트워크 • 치안/안전 • 행정 서비스 인프라

해당 체크리스트는 양적 지표가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미세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즉, 본 체크리스트 풀(pool)은 추후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당 체크리스트 풀(pool)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할 수 있다. 필요 시, 해당 체크리스트 풀(pool)에 각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최종 도출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육아친화마을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차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수립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육아친화 체크리스트 도출 워크숍 개최: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각 지역은 체크리스트 풀(pool)을 토대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최종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제안한다. 본 워크숍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여명 정도가 참여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조건을 찾아가는 속의 토론의 장이다. 이들은 연구진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풀을 가지고 참여자들 간의 다면적인 토론의 방식을 통해 그 마을에 적합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30여개 정도로 추려낸다.

[그림 V-1-1]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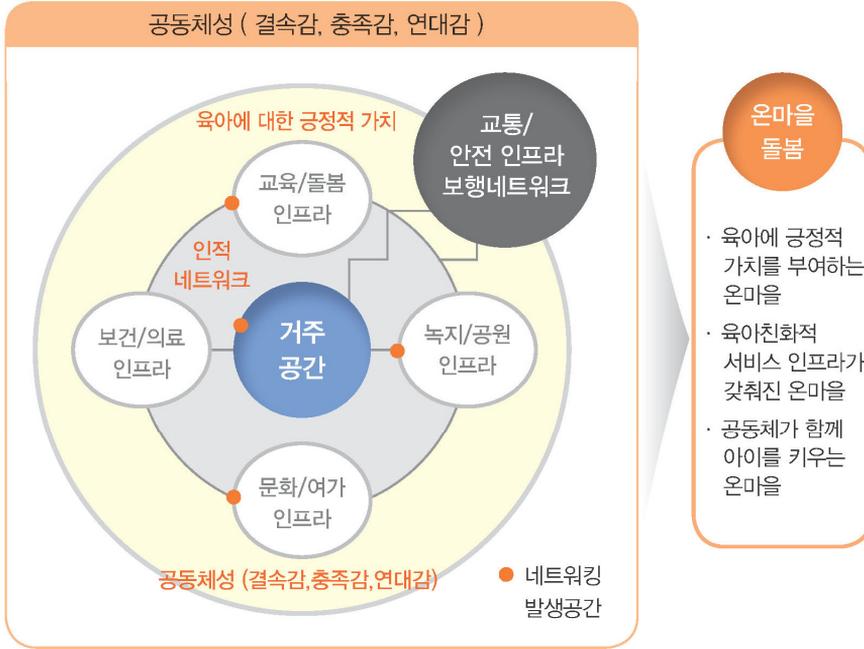
2.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 풀(pool) 개발

가. 체크리스트 풀(pool) 도출 과정

1) 육아친화마을의 공간 도식도 작성

체크리스트 풀(pool)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면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도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도식도를 만들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육아친화마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육아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의 환대(歡待) 속에서 육아행위가 일어나는 생활공간이다. 이상적인 육아친화마을은 육아에 대한 긍정적 철학과 가치가 있으며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와 공동체성도 존재한다. 또한, 육아친화마을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이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육아 지원을 위한 직접 인프라인 교육·돌봄 인프라 뿐 아니라, 육아 지원을 위한 간접 인프라인 보건·의료, 공원·녹지, 여가·문화 인프라도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촘촘히 배치되어있다. 이러한 공간들을 잇는 교통·보행 네트워크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성되어있다.

[그림 V-2-1] 육아친화마을 공간 도식도



2) 차원, 핵심 구성요소 및 측정항목 도출

체크리스트의 차원은 지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수요자의 인식을 좀 더 세밀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면담 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차원 별로 핵심 구성요소와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먼저 체크리스트의 차원은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 9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차원 중 보육(교육)·돌봄 인프라는 지표의 육아직접 지원 인프라와 연결이 되며, 보건·의료,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보행네트워크, 치안·안전 인프라는 육아 간접지원 인프라와 연결된다. 여기에 객관적인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행정 인프라를 추가하였다.

이후 각 차원을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답아야 할 핵심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구성요소별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핵심 구성요소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면담자료를 중심으로 도출하되 면담 결과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반영하였다. 측정항목은 다소 추상적인 구성요소를 수요자의 인식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항목이다. 여기에도 선행 연구와 면담자료가 동시에 활용되었다. 추상적인 구성 요소를 기존 선행연구의 이론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시 해당 이론에서 논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참고하였다. 또한 면담자료도 참고하여 좀 더 추상적 구성요소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가급적 다양한 인식들이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연구진 교차 검토 및 자문

최종적으로 도출된 체크리스트(안)는 110개에 달하였다. 일차적으로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구진들 간의 교차 검토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그 이후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수요자들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나 인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낸 체크리스트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85개를 도출하였다.

나. 체크리스트 풀(pool)(안)

1) 철학과 가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기르는 양육자의 면담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내재되어야 할 철학과 가치와 관련하여 강조되었던 내용을 압축하면 세 가지 정도였다. 첫째,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 대한 환대의 가치이다. 둘째, 아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치이다. 셋째,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가치이다. 면접자들은 육아하기 좋은 마을은 마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자녀를 기르는 가족들을 따뜻한 정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를 바랐다. 또한,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마을 곳곳에 내재되어 있어, 마을을 구성하는 공간·서비스 등이 성평등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설계가 되고 성평등한 문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먼저 환대의 가치는 지역사회에서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성(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을 통해 좀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어 측정될 수 있다. 공동체는 학자마다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상호이념, 정체성을 가진 집

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최근열·장영두, 2002). 공동체성(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은 이 같은 공동체를 다른 집단과 구별 짓는 특성으로, 소속감(membership), 연대감(shared of emotional connection), 충족감(integration of fulfillment of needs) 등으로 구분되어 규정된다(McMillan & Chavis, 1986). 소속감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의식이다. 연대감은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연결감을 갖고 있으며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충족감은 공동체를 통해 내가 원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McMillan & Chavis, 1986).

그렇다면 환대의 가치는 공동체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⁹⁶⁾. 김현경(2016)은 사람은 거주하는 사회의 환대를 통해 장소를 부여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대의 정의와 필요성에 기반을 두어 양육자들이 요구하는 환대의 구체적인 의미를 풀어낼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환대란 내가 사는 마을 즉, 공동체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이유로 배제당하지 않고 “우리(wenness)”라는 구성에 포함되어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수요자들의 요구는 마을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환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환대의 행위를 통해 내 가족이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는 귀속감을 갖게 되고 구성원들이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아이를 기르는 가정들은 마을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이 바탕이 될 때 서로를 환대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더욱 강화되고 다시 환대의 정서가 단단해지는 되먹임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친화마을의 사회적 환경요소로 공동체성과 유사한 신뢰, 호혜성, 규범 등의 특성을 갖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강조한 바 있다(진미정, 2018).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한 육아문화는 면담 자료에 기초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이다움에 인정에 대한 요구는 영유아·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개별

9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환대’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99%98%EB%8C%80>(2019. 12. 12. 인출)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를 보지 말고 아이의 말과 행동을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춘 개별성 그 자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다.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경우 마을 내의 모든 공간 요소, 서비스, 가치가 성평등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바람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독박육아(혹은 고립육아)”라는 단어에서 포착할 수 있듯 현재 육아라는 행위가 주로 여성 양육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양육자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기를 바랐다(예: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비치). 또한 해당 마을에서 제공되는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남성 양육자들의 참여자들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계되기를 요구하였다(예: 남성 양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남성 양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육아 모임 활성화). 이러한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성의 여성의 육아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해주시기를 함께 요구하고 있었다.

〈표 V-2-1〉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철학과 가치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총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다움 인정	영유아/아동의 개별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공간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조성되어 있다(ex: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ex: 남성양육자(아빠/할아버지)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ex: 남성양육자(아빠/할아버지)의 육아 참여 독려 등)

2) 인적 네트워크

면담자료를 통해 나타난 인적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는 크게 지역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성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으로 대분되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의 측정항목은 인적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과 이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지원(자원 및 활동)으로 다시 나누었다. 소통의 공간은 해당 공간의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것”과 연관이 깊었다. 양육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보다는 아이를 기르는 가정 간 혹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마을 구성원들과 연결이 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마을 내에 가족처럼 의지하면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이를 기르기 좋은 마을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봤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끈끈한 네트워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혈연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전통적인 형태의 마을과는 달리 직장과 교육 등의 연유로 터전을 마련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무연결 사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 공동체 조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사회 내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인적 자원과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수영·오찬옥·문경주·류지선, 2014; 이은지·최현선, 2015).

이들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끈끈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조직화 하는 역량 있는 집단과 그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동체 활동의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을 내 구성원들은 이러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의 기회를 만들게 되고 서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다. 면담 시에도 네트워킹을 촉매할 수 있는 조력자(facilitator)나 중간 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킹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물적 기반으로서 마을 내의 공간 자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김수영 외, 2014; 이은지·최현선, 2015). 면담과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공간의 특성은 공간의 존재 여부에 더해 공간의 질적 특성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즉, 수요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역맘 카페 등 실시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양적 수준이 충분하기를 바랐다(다양성). 이들은 현재 마을 내에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아예 없거나 상징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아울러 해당 공간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접근성). 이 같은 소통 공간을 이용할 때 맞벌이 가정 혹은 자녀 간의 연령 격차가 많이 나는 다자녀 가정들도 이용하기 용이하게 이용시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기를 바라기도 하였다(편리성). 지역 사회 내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들이 주차시설이나 수유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육아친화적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표 V-2-2〉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인적네트워크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네트워크의 지원(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소통을 위한 공간	다양성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ex: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3)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육아직접 지원 인프라

면담에서 드러난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핵심 요구는 서비스 인프라의 서비스의 질, 공간의 질, 접근성 등으로 모아졌다. 수요자들은 육아에 대한 핵심 서비스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단지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함께 증대되기를 바랐다. 또한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결국 이러한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의 질적 개선은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보육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이 깊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보육의 공공성은 크게 정부의 재정투입과 관련된 급여 및 공급체제와 관련된 부분과 이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 및 가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김송이·김한나, 2017; 백선희, 2011, 2012; 안현미·김송이, 2011). 먼저 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요소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자질)과 처우(근로환경), 시설환경, 보육서비스의 운영(영양, 위생, 프로그램) 등이다(김송이·김한나, 2017; 안현미·김송이, 2011).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비용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송이·김한나, 2017; 안현미·김송이, 2011). 추구해야 할 가치는 투명성과 참여성이다(김송이·김한나, 2017; 백선희, 2011, 2012; 안현미·김송이,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와 면담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의 측정항목을 서비스의 질은 교사 근로환경, 보육(교육)시간, 공간의 질, 급간식, 프로그램 및 교구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유아(아동)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위해 공간의 질을 강조하여 보육(교육)공간 및 야외 놀이 공간의 충분성, 안전성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성은 비용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접근거리, 접근방법, 차량안전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맞물려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을 핵심 구성요소와 측정항목으로 포함하였다.

〈표 V-2-3〉 보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자	보육 공공성의 구성요소
안현미·김송이(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서비스의 질에 초점 • 이용자 측면: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접근성, 보육비용의 접근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보육서비스의 안전성 • 공급자 측면: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백선희(2011,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전달체계·관리, 거버넌스, 가치로 구분 • 정부관련성-공적 급여체계, 공적 재정체계, 공적 전달체계 • 거버넌스-공개성, 투명성, 참여성 • 가치-권리성, 공동선, 평등성
김송이·김한나(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질, 가치로 구분 • 서비스질: 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영양, 위생, 프로그램 등), 보육 교직원 자질 및 근로환경 • 보편성: 지리적 접근성, 비용적 접근성, 서비스 다양성 • 개방성: 투명한 운영, 민주적 참여

주: 각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진 재정리

- 1) 안현미·김송이(2011). 한국의 보육공공성과 '제 3의 보육체계':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07-137.
- 2)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백선희(2012).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월간 복지동향, (166), 4-7.
- 4) 김송이·김한나(2017).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분석 및 미래 전략 방안 마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67.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교사는 양육자가 자녀들의 대리 양육을 위탁하는 최일선의 주체로 그들의 근로환경은 양육의 질과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양질의 근로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교사는 그 안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영유아(아동)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하며,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장기간 근무할수록 좋다. 교사의 양육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교사가 영유아(아동) 및 양육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홀벌이나 맞벌이 가정 모두에게 양육 이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보육 시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고려한 보육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홀벌이의 경우는 취업준비를 하거나 육아에서 벗어나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급간식을 영유아(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육(교육)시설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도 높을 필요가 있다.

공간의 질의 경우 신체 발달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유아(아동)들이 장시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공간은 그들이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아동(영유아)들의 놀 권리와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간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은 영유아(아동)들에 대한 일상생활의 터전인 보육(교육)공간 뿐 아니라 야외공간도 포함이 된다. 여기에 더해 공간의 질 구성요소에 보육공간의 안전성 항목을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내의 학대 문제가 큰 문제가 된 바 있어 영유아(아동)가 보내는 공간 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면담 시 면접자들은 해당 부분에 대한 요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거버넌스는 참여성과 투명성으로 나누었다. 참여성은 기관에서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의견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투명성은 해당 기관이 운영 과정과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수요자들에게 공개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접근성은 비용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리적 접근성은 접근 거리, 접근 방법, 차량 안전성으로 추가적으로 나누었다. 거리는 보육(교육)기관이 얼마나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며, 접근방법과 차량 안전성은 수단에 대한 내용이다.

〈표 V-2-4〉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의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보육(교육)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 공간이 충분하다.
	야외놀이 공간 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응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ex: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거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4)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는 면담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 구성요소를 접근성, 공간과 시설의 질,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시 면접자들은 공원·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공원·녹지 공간이 존재하는 것 뿐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즉,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비용과 거리 면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공간과 시설의 질도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용시간이나 방법 공간계도 양육자와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종사자들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랐다.

〈표 V-2-5〉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의 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과 시설의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5)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공간도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면담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 구성요소를 접근성, 공간과 시설의 질,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으로 구성하였다. 여가·문화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등의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 공간 내부에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면담 시 면접자들은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와 더불어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 공간의 질적 측면, 종사자의 태도 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표 V-2-6〉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등)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의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과 시설의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 까지 동선 등)

6)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는 면담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 구성요소를 접근성, 서비스의 질, 인력수,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의 육아친화성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시 면접자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장하는 영유아(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영유아(아동)의 경우는 긴급한 사고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병에 대처하거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개인병원의 필요성 뿐 아니라 긴급한 사고나 질병 등의 대처하기 위해 대형병원의 필요성도 아울러 요구하였다. 이들은 대형병원과 개인병원의 지리적 근접성과 충분한 인력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랐다. 또한 병원 종사자의 우호적인 태도와 물리적 공간이 양육자들과 자녀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는 것도 아울러 요구하였다.

〈표 V-2-7〉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접근성	대형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개인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대형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개인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대형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개인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대형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개인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개인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개인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7)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는 핵심 구성요소는 접근성, 다양성, 교통·운전 문화로 구성하였다. 전술한 면담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접근성은 다른 서비스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비용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접근거리, 접근방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홀벌이 혹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직장과 거주 공간의 직주 근접성이 뛰어날수록 양육자들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에는 대중교통에 더해 보행도로의 상태도 포함시켰다. 어린 연령의 자녀일수록 양육자들은 대중교통보다 유모차, 키보드, 자전거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턱이 없는 등 보행도로의 안전한 상태가 중요한 측정항목이 된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공원·녹지 공간, 여가·문화 공간을 찾아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의 체험을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 다채로운 대중교통이 거주 공간 주변에 존재

하여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문화이다. 면담 과정에서 면접자들은 버스, 택시 등을 이용 시 운전자들이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운전자들이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표 V-2-8〉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 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다양성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교통/운전 문화	운전자의 태도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8)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면담 시 면접자들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녀가 성장할수록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양육자가 안심하고 양육 이외의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는 접근성, 인력,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접근성은 치안·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서 및 경찰서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측정항목을 설정하였다. 인력 경찰 등의 방법인력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도는지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CCTV의 설치 정도, 유해 시설의 정도, 보행도로의 안전도 등을 마을의 안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표 V-2-9〉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접근성	소방서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인력	방법인력 순찰	경찰 등 방법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물리적 환경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9) 행정 서비스 인프라: 육아간접지원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 행정체계, 정보접근, 거버넌스로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행정체계는 아동친화마을이나 청소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해당 마을에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예산의 정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거버넌스의 경우 육아와 관련된 제도 설계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정보접근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면접자들이 다수 강조하였던 사항이다. 이들은 육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다.

〈표 V-2-10〉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행정 서비스 인프라 체크리스트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풀(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행정체계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3. 주민참여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

가. 워크숍 개요

1) 워크숍 목적

앞서 최종적으로 발굴된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사용하여 육아친화마을 수준을 측정할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범 지역(인천 서구, 시흥시)을 선정한 바 있다. 본 워크숍은 기(既) 선정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을 반영한 최종적인 체크리스트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육아친화마을 수준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두 지역의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어떻게 차별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 발굴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추출된 체크리스트 풀(pool)이 수요자의 눈높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수요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하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수요자 체감형 육아친화적 요소(지표 및 체크리스트)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과 모형을 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과 모형은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고도화 및 안정화를 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직접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적 방식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발굴하게 하는데 있다. 금번 워크숍은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 단계에서의 실험적인 의미도 지닌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것이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나, 실제 적용 시에는 이런 과정을 수차례 진행한다면 더욱 대표성을 지니는 체크리스트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2) 워크숍 방법

지역맞춤형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발굴하기 위한 주민 참여 워크숍은 인천광역시 서구(2019. 9. 17(화))와 시흥시(2019. 9. 18(수))에서 두 차례에 진행되었다. 인천 서구 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진행하였고 시흥시는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워크숍은 약 4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0:00~13:00), 진행 시간과 장소는 영유아를 둔 양육자의 이동이 편리한 시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모집은 인천광역시청과 시흥시청을 먼저 접촉하여 해당 연구를 설명 후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인천 서구지역의 모집은 인천광역시청 담당자에게 서구지역 거주자가 다수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를 소개받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해당 온라인 카페 지기에게 해당 연구의 의의와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해당 카페의 운영진을 통해 영아·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가 골고루 안내될 수 있도록 모집을 부탁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시흥시는 시흥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인원은 인천광역시 서구는 29명, 시흥시는 24명이었다. 모든 참여자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었다.

워크숍 참여자는 5개 조로 나누어 연구진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풀(pool)을 가지고 다면적인 속의·토론 방식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적합한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워크숍 참여 전 본 연구진은 해당 연구의 개요와 의의 및 해당 지역 선정 이유를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여 워크숍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속의·토론과정은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 업체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상세한 순서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V-3-1] 연구진 연구 개요 및 지역선정 이유 설명



〈표 V-3-1〉 워크숍 진행순서

진행 순서	상세 내용	시간	소요
오프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워크숍 취지 안내(육아정책연구소) • 워크숍 진행순서 및 목표산출물 안내, • 기본 규칙(Ground Rule) & 작성물과 작성방법(Parking Board)안내 	10:00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아이스브레이킹 및 워밍업 • 상호 인사: 사는동네, 이름, 자녀현황, 나의 하루일과 	10:10	0:20
우리가 바라는 육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가지 관점에서 참여자가 바라는 육아환경에 대한 질문 및 토론 - 1라운드: 지역 사람들(알고지내는 사람 또는 육아하며 마주치게 되는 많은 지역주민)이 육아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10:30	0:15
휴식시간		10:45	0:10
우리가 바라는 육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라운드: 인적 네트워크, 이웃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 3라운드: 서비스인프라(교육/보육, 의료/보건, 공원/녹지/여가공간, 교통/보행, 치안/안전 등)에 대해 	10:55	0:35
과감하게 지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조로 재편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체크리스트 차트 하나씩 맡아 검토함 >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을 진행자 안내에 따라 2~4개씩 지워나감 > 110개 항목 중 45개 내외 항목으로 줄임 	11:30	0:40
sandwich break		12:10	0:30
다 함께 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서 거른 항목을 전체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투표를 통해 25개 내외의 최종 체크리스트 확정 	12:40	0:40
1회차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과정 결과 요약 및 회고, 향후 진행사항 소개 • 참석자참여소감청취, Exit survey 안내 후 종료 	13:20	0:10

나. 주요 진행 사항

1) 도입단계

먼저 도입단계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을 통해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 긴장감을 완화하고 조원들 간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를 다졌다. 아이브레이킹은 조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육아일과표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일상생활을 함께 공감하고 그 중 육아와 관련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 대한 사전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림 V-3-2] 참여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2)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요구 토론 단계

가) 도출과정

아이스 브레이킹 후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바라는 육아친화환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해당 토론은 본격적으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기 전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관점, 인적 네트워크 및 소통 관점, 서비스 인프라 관점 등을 주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체크리스트를 평가할 공감대를 조성하는 단계로 기획되었다. 각 지역 별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인천광역시 서구 토론 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관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 조 별로 공통적으로 나온 핵심 내용은 아이와 아이를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였다. 이들은 노키즈존(no-kids zone)이 생기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여 가게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마음을 토로하였다. 또한 아파트 등 주거 공동체에서도 아이에 대한 아이다움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출하였다.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건물 등을 방문할 때 교통약자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누었다. 이러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아이가 지나치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 경우 보호자들이 제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다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시

선보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 부분에서는 공동육아를 할 수 있고 경계를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마을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여 이웃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해당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품앗이 활동을 주도하고 이웃들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체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예: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이러한 주체들이 진행하는 양육자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품앗이 활동을 알리고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교류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아이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공동 주택이나 주민 센터 내 공동체 공간(육아사랑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비스 인프라 관점에서는 크게 제도적 육아와 공동체적 육아에 대한 의견이 대분되었다. 제도적 육아 관점에서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이 양성되었으면 좋겠고 이들을 통한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육과 심리 치료 등의 시설 개선과 바우처 예산을 증가시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공동체적 육아는 공동육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거점 공간 등과 같은 제도 및 인프라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해당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이웃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 달에 한 번 육아코칭도 받기를 원했다. 그 외, 숲 체험장 등의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 공간, 안전한 보행길, 운전자들의 교육을 통해 대중교통 탑승 시 안전이 보장되고 경찰의 치안활동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시흥시 토론 결과

시흥시에서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관점에서 토론한 결과, 각 조 별로 공통적으로 나온 핵심 내용도 인천광역시 서구와 유사하게 아이와 아이를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였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요구는 아이와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어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간소음이나 노키즈존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

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보다는 절충점이 필요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시흥시의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 부분에서는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가장 큰 화두였다. 육아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양육자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부족하고 그 결과 양육자들은 정보의 부재 속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은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금번 워크숍과 같은 형식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해당 네트워크의 장에 양육부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서비스 인프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자녀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아이 전문 병원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 혹은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교육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교육의 경우 신도심의 쏠림 현상이 과밀하고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 밖에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보육시설 차량 승하차 정류소 설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보행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에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도출되었다.

시흥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와는 달리 행정 인프라 부족에 대한 의견도 다수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육아 정보와 육아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앞서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와 공간 마련에서도 행정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 시흥시 워크숍 참여자들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3] 워크숍 토론 결과



3) 지역별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

가) 도출과정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 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앞서 토론 과정을 통해 모인 지역별 육아친화마을 요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 차원별 육아친화환경 체크리스트를 검토 후,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첫 번째 단계에서 남은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인천 서구 지역의 경우 참가자들이 다소 많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교차 검토하였고, 시흥시의 경우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최종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풀에서 영아·유아·초등학교 저학년·맞벌이 부부가 육아 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체크리스트를 투표를 통해 각각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체크리스트를 참가자들이 모여 살펴본 뒤 의견을 나누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은 별도의 의견으로 수합하였다.

[그림 V-3-4]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과정



나) 인천광역시 서구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결과

상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인천광역시 서구의 최종 체크리스트는 <표 V-3-2>와 같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은 육아친화마을의 철학과 가치 측면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도움을 마을과 마을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토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꼽았다. 해당 지역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성평등한 육아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을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과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적네트워크 측면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는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과 모임이 공존하기를 요구하였다.

보육·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안전성과 충분한 근로시간 보장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한 보육·교육 기관의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급식수준을 우선적인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보건·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주 공간 근처에 아이가 진료 받을 수 있는 개인병원이 많으며 대형병원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또한 해당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공원·녹지 및 여가·문화 인프라 측면에서는 관련 공간이 거주 공간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의 안전성, 육아친화적인 설계 및 이용의 편리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이들 시설 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양육자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교통·보행네트워크에서는 거주 공간 주변에 존재하는 대중교통의 다양성과 거주공간으로부터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마을 내 운전자들의 우호적인 태도도 우선순위 항목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인프라 측면에서는 예산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다.

〈표 V-3-2〉 인천 서구지역 최종 도출 체크리스트

Chart 1. 철학, 가치	
1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도움을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
2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3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 (ex: 남성양육자(아빠/할아버지)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4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ex: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Chart 2. 인적 네트워크	
5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6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7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정부조직 등)
Chart 3. 보육/교육 인프라	
8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9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10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11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ex: 어린이집, 유치원)
12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은 아이의 숫자가 적다
13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Chart 4. 보건/의료 인프라	
14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아이가 진료받을 개인 병원 등이 많다
15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16	내가 사는 집에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일은 편리하다(교통, 보행도로 상태 등)
Chart 5. 공원/녹지/여가/문화 인프라	
17	공원/녹지 공간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18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19	공원/녹지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20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21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22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23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등)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다
Chart 6. 교통/보행네트워크/치안/안전/행정 인프라	
24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25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다
26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27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영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보건·의료 인프라 중 거주 공간 주변의 개인 병원과 보육·교육 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았다. 이는 영아일수록 잦은 예방접종과 아플 시 긴급히 대처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집 근처의 개인 병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춤으로서 영아에게 개별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공원·녹지 공간의 육아친화적인 공간 설계이다.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아동을 육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여가·문화 공간까지의 안전한 접근성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경우는 교육적인 측면보다 신체적인 활동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신체적인 활동보다 교육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여가·문화 공간에 더욱 무게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면 부모의 동행 없이 혼자서 거주공간과 여가·문화 공간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아와 아동 모두 공동체 활동 공간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꼽아 공동 육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보육·교육 기관의 충분한 돌봄 시간 보장 및 충분한 예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V-3-3〉 인천 서구지역 각 타겟 대상별 최종 도출 우선 체크리스트

영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1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아이가 진료받을 개인 병원 등이 많다
2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은 아이의 숫자가 적다
유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3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4	공원/녹지 공간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아동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5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등)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다
6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맞벌이 부부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7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하다
8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다) 시흥시 최종 체크리스트 도출결과

시흥시에서는 24개의 체크리스트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철학과 가치 측면에서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배려하는 문화와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성평등한 관점에서 설계된 양육 프로그램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이용의 편리성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또한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요구를 표명하였다.

보육·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만족스러운 급식수준, 충분한 야외 놀이 공간 등 보육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한 시설에서의 안전성과 거주공간과 시설까지 가는 길의 안전성 등 해당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보건·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주 공간 주변에 있는 개인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의료인의 수를 중요한 요소

로 꼽았고, 대형병원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원·녹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해당 시설들이 집 근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시설들이 있고 해당 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를 바랐다. 또한 해당 시설들의 공간 설계가 육아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를 요구하였다. 여가·문화 인프라 측면에서도 시설의 다양성을 강조하였고 육아친화적인 공간 설계를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교통·보행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보행도로가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거주 공간 근처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 또한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고 경찰 등 방법인력이 순찰을 도는 등 치안의 안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표 V-3-4〉 시흥 지역 최종 도출 체크리스트

Chart 1. 철학, 가치	
1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2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3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 (ex: 남성양육자(아빠/할아버지)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Chart 2. 인적 네트워크	
4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5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ex: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6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Chart 3. 보육/교육 인프라	
7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은 아이의 숫자가 적다
8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9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10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11	내가 사는 집과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다
Chart 4. 보건/의료 인프라	
12	내 아이가 진료 받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료서비스는 만족스럽다
13	내 아이가 진료받는 소아과, 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14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Chart 5. 공원/녹지/여가/문화 인프라	
15	공원/녹지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16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17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18	공원/녹지 공간 내 시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19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20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시설, 수유시설, 식사시설 등)
Chart 6. 교통/보행네트워크/치안/안전/행정 인프라	
21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22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3	경찰 등 방법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24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시흥시에서는 영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동이 편리한 보행도로와 교사대 아동비율을 꼽았다. 유아와 아동 육아 시에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는 여가·문화 인프라 내 다양한 체험시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유아 육아 시에는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을 아동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거주공간까지 시설까지의 안전한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한 체크리스트로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 및 거주 공간 주변의 대중교통의 유무를 꼽고 있다.

〈표 V-3-5〉 시흥 지역 각 타겟 대상별 최종 도출 우선 체크리스트

영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1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2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은 아이의 숫자가 적다
유아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3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4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아동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5	내가 사는 집과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다
6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맞벌이 부부 육아 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7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8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시사점

두 지역에서 도출된 체크리스트는 두 지역의 육아친화마을의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시흥시는 앞서 지역 환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통점이 많다. 인구 재생산과 유입이 활발한 도시이며, 주거 공간 뿐 아니라 산업 공간이 활발히 조성되어 생산성이 높으며 신도시 등의 건설도 진행 중인 지역이다. 그러나 두 지역의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는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따라서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측정되어온 지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것은 육아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지표들은 향후 지표이 가중치를 매길 시 다른 지표들보다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줄 수 있으며 우선적인 일차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두 지역 모두 육아친화마을의 철학과 가치 측면에서는 아이다음에 인정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육·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과 급간식 수준을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놓았다. 보건·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주 공간 주변의 대형병원 유무를 중요한 요소로 봤다. 공원·녹지 시설과 여가·문화 시설의 육아친화적인 공간 설계도 공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의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형 숙의·토론 과정을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높은 정책적 효용감을 보였고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책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했을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VI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와 체크리스트 적용사례

- 01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적용 사례
- 02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적용 요구 조사
- 03 소결

VI.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와 체크리스트 적용사례

본 장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의 적용과 체크리스트의 적용 과정을 인천 서구와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4장에서 개발된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에 대한 인천 서구와 시흥시 자료 분석⁹⁷⁾을 실시하였다. 또한 5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9년 9월 중 두 개 지역에서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 서구와 시흥시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적용 사례

가. 분석 대상 선정 기준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목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육아친화성 증진을 위한 개별 수요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역의 개별적 상황과 자원이 고려되지 않은 표준화된 지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실질적 체감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하향식 객관적·양적 지표 및 지역 실정과 수요자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상향식 마을 맞춤형 체크리스트 발굴 병행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97) 지표 내용 분석은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진행한 부분임. '가. 분석대상 선정기준'의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로 작성하였고 '나. 분석대상(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의 지역·인구 규모 및 산업 특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작성하였음. '다. 분석대상(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의 정책 특성 비교, '라. 분석대상(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 육아친화성 특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로 작성함.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육아친화성 수준을 제외하고 다른 조건들은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둘째, 첫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인구·지역 면적·산업 특성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육아 수요에 따라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포착할 수 있는 지역 선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구·지역 면적·산업 특성은 해당 지역의 행정력과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인구의 경우 절대적인 전체 인구수와 영유아수도 유사하지만 출산율과 사망률 등의 동태적인 인구 수준도 비슷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차별화된 육아 수요의 경우는 객관적인 양적 지표로 측정된 육아친화성 수준을 유사하지만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차별화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즉, 시설 수 중심의 양적 지표 수준은 유사하지만 지역의 개별적 상황이 고려된 수요자의 면담,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지역의 차별화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후속 사업의 연계성의 고려하여 행정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범사업·인증사업 등 후속 연구의 연계성을 고려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적극적 행정 자원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나. 분석대상(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의 지역·인구 규모 및 산업 특성

전술한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사례 분석 지역은 인천 서구와 경기 시흥시이다. 두 지역 모두 2019년 5월 기준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서구와 시흥시는 재생산 인구유입이 활발한 대도시로 분류되었다(김이선·김재인·김반석·박경숙, 2019)⁹⁸). 또한 시흥시의 경우 배곧신도시, 시화MTV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인천 서구의 경우 공항고속도로, 북항 신항만,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교통 및 신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98) 김이선 외(2019)는 전국 247개시군구(기초지방정부)를 지역을 출생률, 연령별 사망률, 연령별 이동률을 분석하여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그 결과 1유형은 재생산과 인구유입이 활발한 대도시형 2유형은 재생산과 인구유입이 저조한 대도시형, 제3유형은 대규모 인구유입 도농복합형 제4유형은 고령도시와 농촌 지역 혼합형 5유형은 인구 활성화 조짐이 관찰되는 고령농촌지역형 제6유형은 인구 크기가 작으며 인구 크기도 감소하고 있는 고령 농촌지역형으로 분류하였음.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남동구·서구·연수·중구의 경우는 1유형으로 분류되지만, 남구·계양구·동구·부평구의 경우는 제2유형으로 분류됨.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인천 서구와 시흥시는 각각 광역시 자치구와 50만 이상 시로 행정체제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지표 비교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표 VI-1-1〉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별 현황

구분	시흥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구	-총계: 525,712명 (내국인 470,759명 / 외국인 54,953명) 1989년(93,284명)보다 432,428명 증가	-인구: 527,935명(내국인 516,017명/외국인 11,918명) (2018년 기준) 남녀비율: 남 260,649명/ 여 255,368명
면적	138.652km ²	116.90km ²
행정구역	18개동/509통	21개동/677통(2018년기준)
재정규모	18,686억원 일반회계10,727억원/특별회계7,959억원	7,488억(2018년 기준) 일반회계 6,553억원/특별회계934억원
행정기구	6국, 5담당관, 35과, 1의회, 2작속기관, 3사업소 공무원: 1,283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약 350명	4국, 3실, 26과, 1의회, 1보건소, 1출자소, 21동 공무원: 999명(2018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약 517명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청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승격 26년(1998년 시승격) - 주민평균연령(33.1세) ※ 경기도 평균 35.3세 •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복합산업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의 28.8%가 논밭지역 (특산물: 시흥쌀 햇도미, 포도) - 시흥스마트허브/ 233개 도시형 아파트 단지 • 녹지 및 자연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의 64.4% 개발제한구역 - 서해바다, 저수지, 오이도, 시흥갯골 등 인접 • 자연자원 풍부 •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곧신도시, 시화MTV, 4대 공공주택 지역개발 등 • 인접지역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태: 4대 권역으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주거/상업지역, - 남부: 공업지역(목재단지, 수출5·6공단) - 서부: 해안매립지역(청라국제도시) - 북부: 농경/신흥개발지역(검단신도시) • 교통 및 신항개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ktx), 인천도시 철도 2호선 - 북항 신항만 및 경인아라뱃길 -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 검단신도시

- 주: 1) 시흥시 인구, 면적, 행정구역, 재정규모, 지역특성: 시흥시 홈페이지-시흥시 시흥현황 및 지역여건 내용(2019. 10. 31 기준) 참고 재정리, <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502020000>(2019. 12. 2. 인출)
- 2) 시흥시 행정기구: 시흥시 홈페이지-행정조직도(<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503020000>, 2019. 12. 2. 인출) 및 시흥시 조직운영지표 참고 재정리, <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303030000>(2019. 12. 2. 인출)
- 3)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구, 면적, 행정구역, 재정규모, 행정기구, 지역특성은 2018년 백서 반현황 참고 재정리(인천광역시 서구청, 2018)

다. 분석대상(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의 정책 특성 비교⁹⁹⁾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성 수준의 차이에 대해 두 지역 간 정책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조직 및 행정인력이다. 시흥시는 복지국 내의 아동보육과(행정인력 27명)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여성가족과도 양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인천 서구는 복지문화국 내의 가정보육과(행정인력 23명)가 양육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아동행복과와 복지정책과도 양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영유아 및 아동 인구수가 시흥시는 40,019명, 인천 서구는 60,16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흥시가 인천 서구에 비해 영유아 및 아동 인구수가 적으나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인력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양육관련 지자체 시책의 특성을 2019년 시정계획과 구정계획을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시흥시는 ‘시흥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조례에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시설 설치 운영,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돌봄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6가지의 추진영역을 바탕으로 27가지 전략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공간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 ‘아이사랑 나눔터’를 운영함에 따라 부모와 아동에게 자유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 부모·아동상담(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양육관련 지자체 시책의 경우 시흥시와 인천 서구 모두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시흥시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인천 서구의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주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99) <표 VI-1-2>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책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본문을 기술함.

〈표 VI-1-2〉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정책현황

구분	시흥시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병택 시흥시장(민선 7기/초선) •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현 인천서구청장(민선7기/초선)
영유아·아동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19명(2018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164명(2018년 기준)
육아관련 업무담당 행정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여성 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육아관련 업무담당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명
육아관련 주요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돌봄조례 제정, 학교돌봄 46개교 104학급으로 확대,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0개소) •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좌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아동전용 공간 확보 • 아동전용도서관 건립 • 아동 물놀이공간 조성 • 영유아 놀이공간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3개소) •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정책 실현
연도별 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시흥의 미래입니다'를 모토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 15개 시흥형 어린이집 운영 - 시간제보육실을 2개소로 확대 -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24시 2개소, 시간연장 90개소로 확대함 -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추진 -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조성(가족품앗이) - 공동육아나눔터 8개소로 확대 운영 -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워킹맘, 워킹대디 사업 활성화) - 행복건강센터 맞춤 안심보육 추진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운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교육 확대 -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민간 산후조리원 공공성 강화 •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34개소로 확충 -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 공원 내 물놀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 행복한 세상을 위한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 건강짱! 재미짱! 어린이 건강캠프 - 아이사랑 나눔터 운영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리 - 튼싹(튼튼한 싹) 미취학 아동 바른자세 운동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洞 확대 - 아동친화도시 정착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이상,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추진 -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운영



구분	시흥시	인천광역시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문화 거점 공공형실내놀이공간 조성 2개소로 확대 - 출산장려금 확대 - 시흥출산육아학교 운영(25회) • 2019년 -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구축: 아동권리 전문 시민강사 양성(20명),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초중생 1,200명) -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확충을 통한 일가정양립지원 - 시흥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돌봄조례 제정, 학교돌봄 46개교 104학급으로 확대,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3개소 확충 - 우리 가족 행복돌봄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운영(이용가정 445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행복센터(가칭) 건립
기타	아동친화도시시흥 홈페이지 운영 http://www.siheung.go.kr/2019/adong/html/main-01.html	어린이구청 홈페이지 운영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child/

출처: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및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주: 상세 주소 참고문헌 참조

라. 분석대상(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 육아친화성 특성

1) 시흥시와 인천 서구 유형별·지표별 특성 비교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경우 절대적 육아친화성 총량의 경우 모두 1유형에 해당하였으나 상대적 육아친화성 총량의 경우 시흥시는 3유형에 인천 서구는 4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두 지역 모두 지표 상으로는 시설의 총량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행정수요 대비 충분하지 않거나 적은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두 지역의 수준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포착할 수 있다. 육아 직접적 자원인 보육(교육) 돌봄 인프라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절대적 지표는 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대적 지표는 시흥시가 영유아기 대상 하 수준, 아동기 대상 중 수준을 나타냈고, 인천 서구가 영유아기 대상 중하 수준, 아동기 대상 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육아 인프라를

살펴보면, 공원/녹지 인프라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절대적 지표는 상의 수준을 나타냈고, 상대적 지표는 시흥시가 중상, 인천 서구가 중의 수준을 나타냈다. 여가/문화 인프라의 경우 절대적 지표와 상대적 지표 모두 시흥시가 하, 인천 서구가 중하의 수준을 나타냈다. 교통/안전 인프라의 경우 절대적 지표는 시흥시가 중, 인천 서구가 상의 수준을 나타냈고, 상대적 지표는 두 지역 모두 하의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 절대적 지표는 두 지역 모두 상의 수준을 나타냈고, 상대적 지표는 시흥시가 중상, 인천 서구가 중 수준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기 대상 육아 직접적 자원의 경우 인천 서구가 시흥시에 비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좀 더 잘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지역 모두 상대적 수준으로 환원하면 하, 중하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한 환경적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 대상 육아 직접적 자원의 경우에는 시흥시가 인천 서구에 비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좀 더 잘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육아 인프라의 경우 시흥시가 인천 서구에 비해 공원/녹지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지역의 행정수요에 좀 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1-3〉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육아친화성 비교

구분		시흥시	인천 서구
총량유형	절대	1	1
	상대	3	4
육아 직접적 자원	절대	영유아기	상
		아동기	상
	상대	영유아기	하
		아동기	중
육아 인프라	절대	공원/녹지	상
		여가/문화	하
		교통/안전	중
		보건/의료	상
	상대	공원/녹지	중상
		여가/문화	하
		교통/안전	하
		보건/의료	중상

2) 분석대상의 지표로 측정된 육아친화성 특성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성 지표별 특성을 구체적인 분위와 점수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육아친화지표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시흥시의 절대육아친화지표 총합은 3.742로 9분위로 나타났으며, 인천 서구의 절대육아친화지표 총합은 5.989로 10분위로 나타나 인천 서구가 시흥시에 비해 절대적 양육친화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 양육의 직접적 자원은 인천 서구가 시흥시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아동 대상 양육의 직접적 자원은 시흥시가 인천 서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인프라의 수준은 시흥시가 인천 서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이 인천 서구가 시흥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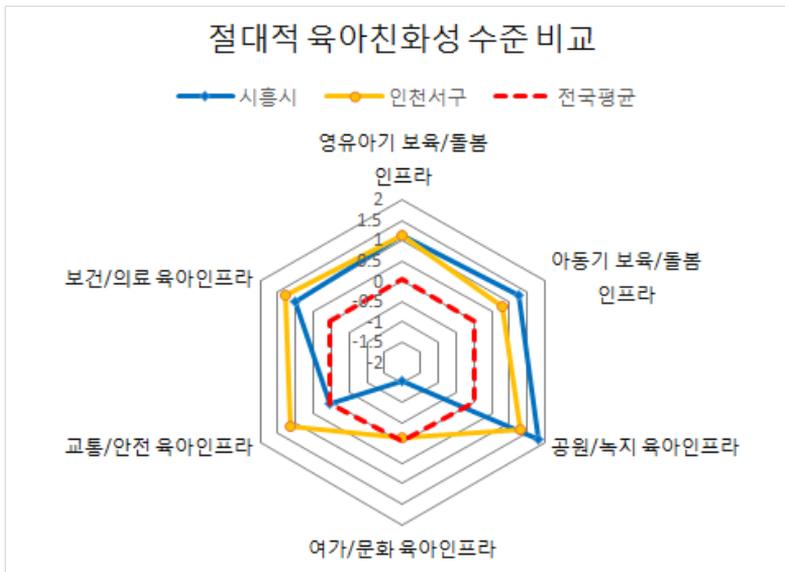
다음으로 상대적 육아친화지표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시흥시의 상대육아친화지표 총합은 -2.028로 5분위로 나타났으며, 인천 서구의 상대육아친화지표 총합은 -2.694로 3분위로 나타나 시흥가 인천 서구에 비해 상대적 양육친화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 육아 직접적 자원은 인천 서구가 시흥시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아동 대상 양육의 직접적 자원은 시흥시가 인천 서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육아 인프라의 경우, 공원녹지, 교통안전, 보건의료 인프라의 수준은 시흥시가 인천 서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여가문화 인프라 수준이 인천 서구가 시흥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상대육아친화지표의 분위의 차이는 대부분의 육아 인프라의 상대적인 지표에서 시흥시가 인천 서구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절대육아친화지표의 분위의 차이는 대부분의 양육의 돌봄 직접자원의 절대적인 지표에서 인천 서구가 시흥시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1-4〉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분위와 요인별 요인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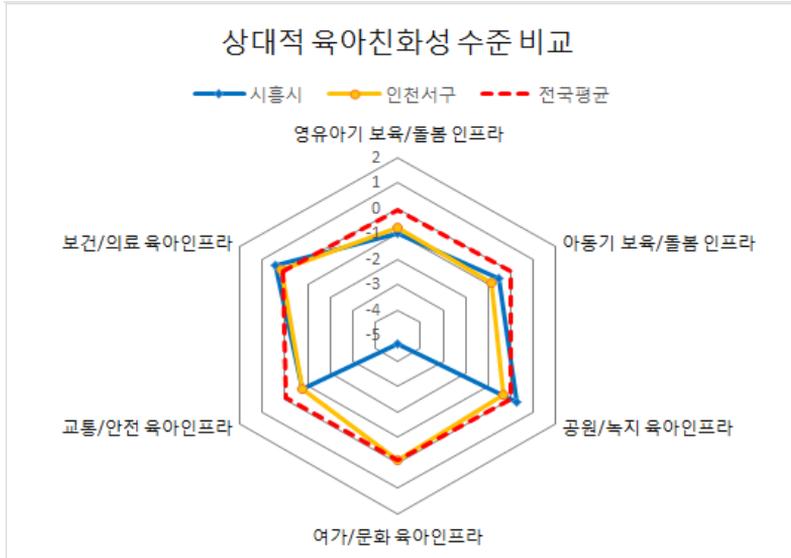
구분	육아친화 지표분위	육아친화 지표총합	육아 직접적 자원		육아인프라				
			영유아기	아동기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시흥시	절대	9	3.742	1.121	1.281	1.817	-1.519	0.034	1.007
	상대	5	-2.028	-0.979	-0.553	0.273	-4.663	-0.757	0.454
인천 서구	절대	10	5.989	1.147	0.778	1.307	-0.142	1.161	1.285
	상대	3	-2.694	-0.752	-0.893	-0.342	-0.110	-0.780	0.184

[그림 VI-1-1]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¹⁰⁰⁾



100) 본 그림은 두 지역을 비교하는 목적보다는 육아친화 총량 점수와 유형은 유사하지만 세부 차원별로는 육아친화성 현황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지역 간 차별화된 육아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는 데 목적이 있음

[그림 VI-1-2]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2.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적용 요구 조사

본 절에서는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으로 현재 육아 중인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천 서구와 시흥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육아관련 일반적인 현황과 인식,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천 서구와 시흥시에서 도출된 체크리스트를 각각 반영한 설문으로 지역맞춤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요구를 구체화하였다.

가. 육아(育兒) 관련 일반 현황 및 인식

1) 마을(동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가 <표 VI-2-1>이다. '살고 있는 동'이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아 행정구역으로 동(洞)이 마을로 여겨짐이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살고 있는 단지(18.3%),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18.1%)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VI-2-1〉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범위: 전체

단위: %(명)

구분	살고 있는 건물 한 동	살고 있는 단지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	살고 있는 동	살고 있는 구	살고 있는 시	계(수)
전체	5.8	18.3	18.1	54.9	2.4	0.5	100.0 (415)
지역							
경기 시흥	2.9	18.3	13.9	63.5	1.0	0.5	100.0 (208)
인천 서구	8.7	18.4	22.2	46.4	3.9	0.5	100.0 (207)
$\chi^2(df)$			19.135(5)**				
자녀 연령							
영아	5.9	18.4	16.9	55.9	2.2	0.7	100.0 (136)
유아	2.2	19.9	22.1	53.7	2.2	0.0	100.0 (136)
초등 저학년	9.1	16.8	15.4	55.2	2.8	0.7	100.0 (143)
$\chi^2(df)$			9.122(1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1	17.4	20.5	54.5	0.8	0.8	100.0 (132)
400~600만원	4.5	19.7	18.2	54.5	2.5	0.5	100.0 (198)
600만원 이상	8.2	16.5	14.1	56.5	4.7	0.0	100.0 (85)
$\chi^2(df)$			7.030(10)				
주택 유형							
아파트	4.8	18.8	18.2	56.0	1.6	0.5	100.0 (373)
연립/다세대주택	9.7	12.9	16.1	54.8	6.5	0.0	100.0 (31)
단독주택	30.0	20.0	20.0	10.0	20.0	0.0	100.0 (10)
기타	0.0	0.0	0.0	100.0	0.0	0.0	100.0 (1)
$\chi^2(df)$			32.922(15)**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1$.

지금의 마을(동네)에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표 VI-2-2〉와 같이 3년 미만이라는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고, 3년~4년 사이 29.4%, 7년 이상 21.7%, 5년~6년 17.1% 등으로 평균 4.4년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까지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현재 동네의 거주기간이 길지 않음이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주기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VI-2-2〉 현재 동네에 거주한 기간: 전체

단위: %(명), 년

구분	3년 미만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31.8	29.4	17.1	21.7	4.4	100.0 (415)
지역						
경기 시흥	48.6	26.4	13.5	11.5	3.3	100.0 (208)
인천 서구	15.0	32.4	20.8	31.9	5.6	100.0 (207)
<i>t</i>					-7.5***	
자녀 연령						
영아	32.4	43.4	15.4	8.8	3.7	100.0 (136)
유아	36.8	21.3	19.9	22.1	4.3	100.0 (136)
초등 저학년	26.6	23.8	16.1	33.6	5.3	100.0 (143)
<i>F</i>					8.7***(a)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0	25.3	19.3	29.3	5.1	100.0 (150)
맞벌이 아님	35.1	31.7	15.8	17.4	4.0	100.0 (265)
<i>t</i>					3.1**	
주택 유형						
아파트	33.5	29.0	16.1	21.4	4.4	100.0 (373)
연립/다세대주택	16.1	32.3	19.4	32.3	5.4	100.0 (31)
단독주택	10.0	40.0	50.0	0.0	4.2	100.0 (10)
기타	100.0	0.0	0.0	0.0	1.0	100.0 (1)
<i>F</i>					1.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1$, *** $p < .001$.

지금의 마을(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표 VI-2-3〉과 같이 ‘직장과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고, ‘근린시설 잘 되어 있어서’라는 경우도 18.1%로 많았다. 인천 서구의 경우는 직장으로 인한 이주가 73.4%로 나타나 마을 인근에 일자리가 많음을 유추하게 하고, 시흥시의 경우는 근린시설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이 32.2%로 많아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맞벌이 가구에서 ‘외조부모집 가까이’라는 응답이 10%에 달함도 친정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맞벌이 가족의 육아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은 맞벌이 상황이기 쉽고 이 경우도 ‘외조부모집 가까이’라는 응답이 14.1%로 높다.

〈표 VI-2-3〉 현재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한 이유: 전체

단위: %(명)

구분	직장 가까움	친조부 모집 가까움	외조부 모집 가까움	지인 가까이 있음	자연 환경 좋음	기관 가까움	근린 시설 잘 되어 있음	기타	계(수)
전체	51.1	4.8	6.0	3.1	6.0	3.9	18.1	7.0	100.0 (415)
지역									
경기 시흥	28.8	3.8	6.7	1.4	9.6	6.3	32.2	11.1	100.0 (208)
인천 서구	73.4	5.8	5.3	4.8	2.4	1.4	3.9	2.9	100.0 (207)
$\chi^2(df)$				116.481(7)***					
자녀 연령									
영아	52.2	5.9	5.9	5.1	4.4	2.9	16.9	6.6	100.0 (136)
유아	49.3	6.6	5.9	2.2	8.8	3.7	16.2	7.4	100.0 (136)
초등 저학년	51.7	2.1	6.3	2.1	4.9	4.9	21.0	7.0	100.0 (143)
$\chi^2(df)$				10.672(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3	9.3	10.0	5.3	5.3	4.0	11.3	7.3	100.0 (150)
맞벌이 아님	53.2	2.3	3.8	1.9	6.4	3.8	21.9	6.8	100.0 (265)
$\chi^2(df)$				26.517(7)***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7.4	3.0	2.3	3.0	2.3	3.0	14.4	4.5	100.0 (132)
400~600만원	48.5	4.5	5.1	1.5	9.1	3.5	20.7	7.1	100.0 (198)
600만원 이상	31.8	8.2	14.1	7.1	4.7	5.9	17.6	10.6	100.0 (85)
$\chi^2(df)$				46.890(14)***					
주택 유형									
아파트	47.7	4.6	6.2	2.9	6.7	4.3	19.8	7.8	100.0 (373)
연립/다세대주택	83.9	6.5	6.5	0.0	0.0	0.0	3.2	0.0	100.0 (31)
단독주택	70.0	10.0	0.0	20.0	0.0	0.0	0.0	0.0	100.0 (1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chi^2(df)$				34.452(2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마을(동네)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질의한 결과, 〈표 VI-2-4〉와 같이 비교적 좋은 환경(3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3점, 연립/다세대주택 2.7점, 단독주택 2.4점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VI-2-4〉 자녀 양육에 있어 현 동네 환경 평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좋은 환경	비교적 좋은 환경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	매우 좋지 않은 환경	평균	계(수)
전체	14.7	69.6	15.2	0.5	3.0	100.0 (415)
지역						
경기 시흥	24.5	72.1	3.4	0.0	3.2	100.0 (208)
인천 서구	4.8	67.1	27.1	1.0	2.8	100.0 (207)
<i>t</i>					8.9***	
자녀 연령						
영아	11.8	75.0	13.2	0.0	3.0	100.0 (136)
유아	13.2	72.1	14.7	0.0	3.0	100.0 (136)
초등 저학년	18.9	62.2	17.5	1.4	3.0	100.0 (143)
<i>F</i>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0	60.0	21.3	0.7	3.0	100.0 (150)
맞벌이 아님	12.8	75.1	11.7	0.4	3.0	100.0 (265)
<i>t</i>					-0.9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8.3	76.5	13.6	1.5	2.9	100.0 (132)
400~600만원	16.7	65.2	18.2	0.0	3.0	100.0 (198)
600만원 이상	20.0	69.4	10.6	0.0	3.1	100.0 (85)
<i>F</i>					2.6	
주택 유형						
아파트	16.4	70.5	12.6	0.5	3.0	100.0 (373)
연립/다세대주택	0.0	71.0	29.0	0.0	2.7	100.0 (31)
단독주택	0.0	40.0	60.0	0.0	2.4	100.0 (10)
기타	0.0	0.0	100.0	0.0	2.0	100.0 (1)
<i>F</i>					8.1***	

*** $p < .001$.

주 1: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주 2: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환경으로 인지함을 의미함.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VI-2-5〉와 같이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공원이 있어서' 42.3%,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 가까이 있어서' 27.7%로 유의하게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양육자에게 놀이터와 공원, 보육 시설이 양육의 주요 환경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흥시는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이, 인천 서구는 자연환경이 좋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VI-2-5〉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자녀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전체

단위: %(명)

구분	놀이터/ 공원 있음	보육/ 교육 시설 가까움	안전한 지역임	자연 환경 좋음	복지/ 문화 시설 가까움	도로/ 교통 편리함	이웃/ 동네 주민 친절함	계(수)
전체	42.3	27.7	9.1	8.0	7.4	3.7	1.7	100.0 (350)
지역								
경기 시흥	49.3	23.9	13.4	3.5	7.0	2.5	0.5	100.0 (201)
인천 서구	32.9	32.9	3.4	14.1	8.1	5.4	3.4	100.0 (149)
$\chi^2(df)$	35.600(6)***							
자녀 연령								
영아	45.8	18.6	11.0	10.2	11.0	1.7	1.7	100.0 (118)
유아	37.9	36.2	8.6	6.0	4.3	3.4	3.4	100.0 (116)
초등 저학년	43.1	28.4	7.8	7.8	6.9	6.0	0.0	100.0 (116)
$\chi^2(df)$	20.044(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6	34.2	7.7	8.5	6.0	5.1	0.9	100.0 (117)
맞벌이 아님	44.6	24.5	9.9	7.7	8.2	3.0	2.1	100.0 (233)
$\chi^2(df)$	6.236(6)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5.7	29.5	10.7	12.5	6.3	5.4	0.0	100.0 (112)
400~600만원	48.1	24.7	7.4	4.9	8.0	3.1	3.7	100.0 (162)
600만원 이상	39.5	31.6	10.5	7.9	7.9	2.6	0.0	100.0 (76)
$\chi^2(df)$	17.897(12)							
주택 유형								
아파트	43.8	28.7	9.3	6.8	7.1	2.8	1.5	100.0 (324)
연립/다세대주택	27.3	13.6	9.1	18.2	13.6	18.2	0.0	100.0 (22)
단독주택	0.0	25.0	0.0	50.0	0.0	0.0	25.0	100.0 (4)
$\chi^2(df)$	45.260(1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01$.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VI-2-6〉과 같이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지 않아서' 36.9%, '범죄 발생이 많거나 유해시설이 많아 자녀를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36.9%로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VI-2-6〉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자녀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전체

단위: %(명)

구분	자연 환경 좋지 않음	안전 하지 못한 지역임	복지/ 문화 시설 멀리 있음	도로/ 교통 불편함	보육/ 교육 시설 멀리 있음	놀이터/ 공원 없음	이웃/ 동네 주민 불친절함	계(수)
전체	36.9	36.9	13.8	4.6	3.1	3.1	1.5	100.0 (65)
지역								
경기 시흥	28.6	0.0	42.9	0.0	28.6	0.0	0.0	100.0 (7)
인천 서구	37.9	41.4	10.3	5.2	0.0	3.4	1.7	100.0 (58)
$\chi^2(df)$	25.109(6)***							
자녀 연령								
영아	38.9	33.3	11.1	0.0	5.6	11.1	0.0	100.0 (18)
유아	40.0	35.0	15.0	10.0	0.0	0.0	0.0	100.0 (20)
초등 저학년	33.3	40.7	14.8	3.7	3.7	0.0	3.7	100.0 (27)
$\chi^2(df)$	10.263(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4	33.3	12.1	6.1	3.0	6.1	0.0	100.0 (33)
맞벌이 아님	34.4	40.6	15.6	3.1	3.1	0.0	3.1	100.0 (32)
$\chi^2(df)$	3.763(6)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0.0	25.0	10.0	5.0	0.0	0.0	0.0	100.0 (20)
400-600만원	30.6	44.4	13.9	2.8	2.8	2.8	2.8	100.0 (36)
600만원 이상	11.1	33.3	22.2	11.1	11.1	11.1	0.0	100.0 (9)
$\chi^2(df)$	13.853(12)							
주택 유형								
아파트	38.8	32.7	16.3	4.1	4.1	2.0	2.0	100.0 (49)
연립/다세대주택	22.2	44.4	11.1	11.1	0.0	11.1	0.0	100.0 (9)
단독주택	50.0	50.0	0.0	0.0	0.0	0.0	0.0	100.0 (6)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
$\chi^2(df)$	8.620(1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01$.

응답자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네)에서 다음 문항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질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VI-2-7〉과 같이 ‘우리 마을(동네)는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다’ 3.7점,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신뢰할 만하다’ 3.3점, ‘우리 마을(동네)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3.1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2-7〉 마을 전반에 대한 인식: 전체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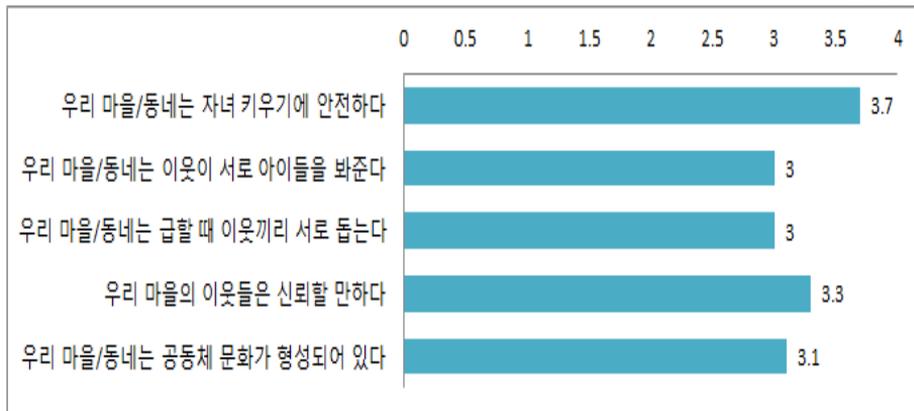
구분	우리 마을(동네)은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다	우리 마을(동네)은 이웃이 서로 아이들을 봐준다	우리 마을(동네)은 급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 마을(동네)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수)
전체	3.7	3.0	3.0	3.3	3.1	(415)
지역						
경기 시흥	4.0	2.7	2.7	3.2	2.9	(208)
인천 서구	3.4	3.3	3.3	3.5	3.3	(207)
<i>t</i>	7.4***	-6.4***	-5.5***	-4.1***	-4.9***	
자녀 연령						
영아	3.8	2.9	2.9	3.3	3.2	(136)
유아	3.8	2.9	2.9	3.3	3.1	(136)
초등 저학년	3.6	3.1	3.1	3.3	3.0	(143)
<i>F</i>	2.4(a)	1.1	2.2	0.0	1.4	
주택 유형						
아파트	3.7	2.9	2.9	3.3	3.0	(373)
연립/다세대주택	3.5	3.3	3.2	3.5	3.5	(31)
단독주택	3.3	3.5	3.6	3.5	3.6	(10)
기타	3.0	3.0	3.0	4.0	3.0	(1)
<i>F</i>	2.5	2.0	1.8	0.9	3.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그림 VI-2-1〉 마을 전반에 대한 인식: 전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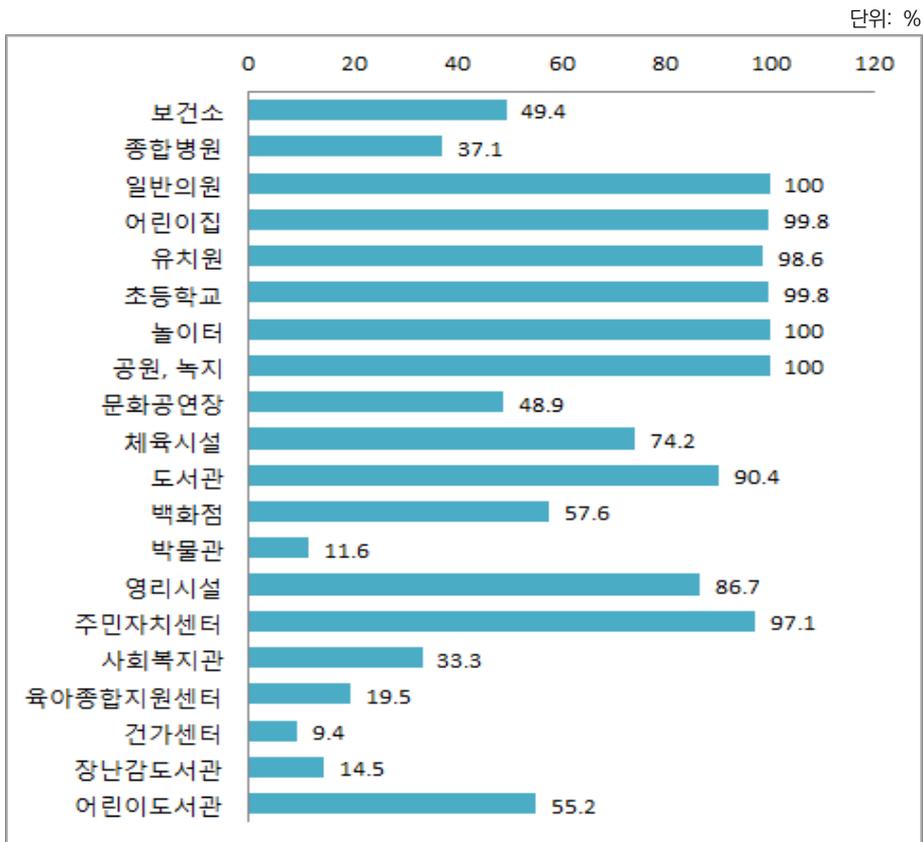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2) 마을(동네) 내 육아관련 시설 이용 및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시설 20가지에 대해 시설의 유무, 집과의 거리, 최근 1년간의 이용 경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용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육아관련 시설 인지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표 VI-2-8>과 <표 VI-2-9>, [그림 VI-2-2]에서와 같이 육아관련 시설의 유무를 질의하였다. 일반의원, 놀이터, 공원녹지는 모두 있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의 비율도 거의 100% 가까이 높았다.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설치 비율도 높았다.

[그림 VI-2-2] 마을 내 시설 유무: 전체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표 VI-2-8〉 마을 내 시설 유무 1: 전체

구분	단위: %(명)										
	보건소	종합병원	일반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공원, 녹지	문화공연장	체육시설	계(수)
전체	49.4	37.1	100.0	99.8	98.6	99.8	100.0	100.0	48.9	74.2	100.0 (415)
경기 시흥	9.6	11.1	100.0	99.5	100.0	100.0	100.0	100.0	58.2	85.1	100.0 (208)
인천 서구	89.4	63.3	100.0	100.0	97.1	99.5	100.0	100.0	39.6	63.3	100.0 (207)
$\chi^2(df)$	264.026(2)***	121.899(2)**	-	0.998(1)	6.117(2)*	1.007(1)	-	-	22.334(2)***	37.125(2)**	
재녀 연령											
영아	52.2	3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2	70.6	100.0 (136)
유아	46.3	36.0	100.0	100.0	98.5	99.3	100.0	100.0	58.8	75.7	100.0 (136)
초등 저학년	49.7	35.7	100.0	99.3	97.2	100.0	100.0	100.0	49.7	76.2	100.0 (143)
$\chi^2(df)$	4.825(4)	-	-	1.907(2)	7.798(4)	2.056(2)	-	-	12.984(4)*	11.32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0	60.7	100.0	99.3	97.3	100.0	100.0	100.0	53.3	73.3	100.0 (150)
맞벌이 아님	47.9	61.5	100.0	100.0	99.2	99.6	100.0	100.0	46.4	74.7	100.0 (265)
$\chi^2(df)$	0.644(2)	0.235(2)	-	1.771(1)	5.346(2)	0.567(1)	-	-	2.669(2)	1.241(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6.7	42.4	100.0	100.0	98.5	99.2	100.0	100.0	41.7	63.6	100.0 (132)
400-600만원	42.4	70.7	100.0	99.5	98.0	100.0	100.0	100.0	47.0	79.3	100.0 (198)
600만원 이상	38.8	6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7	78.8	100.0 (85)
$\chi^2(df)$	23.770(4)***	33.344(4)***	-	1.099(2)	5.203(4)	2.149(2)	-	-	15.313(4)**	13.235(4)*	
주택 유형											
아파트	44.2	63.8	100.0	99.7	98.7	100.0	100.0	100.0	49.1	75.3	100.0 (373)
연립/다세대주택	96.8	35.5	100.0	100.0	96.8	96.8	100.0	100.0	35.5	64.5	100.0 (31)
단독주택	9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60.0	100.0 (10)
기타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chi^2(df)$	39.458(6)***	12.254(6)	-	0.113(3)	3.296(6)	12.417(3)**	-	-	11.200(6)	5.260(6)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VI-2-9〉 마을 내 시설 유무 2: 전체

구분	도서관	백화점/쇼핑센터	박물관	영리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계(수)
전체	90.4	57.6	11.6	86.7	97.1	33.3	19.5	9.4	14.5	55.2	100.0 (415)
경기 시흥	90.4	61.1	6.7	96.6	96.6	5.3	3.4	2.4	1.4	26.4	100.0 (208)
인천 서구	90.3	54.1	16.4	76.8	97.6	61.4	35.7	16.4	27.5	84.1	100.0 (207)
$\chi^2(df)$	4.445(2)	2.413(2)	10.644(2)**	37.289(2)***	6.286(2)*	147.736(2)***	72.317(2)***	26.934(2)***	60.787(2)***	142.849(2)***	
자녀 연령											
영아	84.6	58.8	8.1	80.9	97.1	28.7	16.2	9.6	12.5	50.0	100.0 (136)
유아	90.4	58.1	15.4	90.4	96.3	36.8	22.1	7.4	17.6	58.1	100.0 (136)
초등 저학년	95.8	55.9	11.2	88.8	97.9	34.3	20.3	11.2	13.3	57.3	100.0 (143)
$\chi^2(df)$	12.804(4)*	2.695(4)	5.104(4)	8.111(4)	2.027(4)	5.055(4)	3.000(4)	3.991(4)	4.072(4)	4.81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7	58.0	15.3	82.7	96.0	36.7	20.7	8.0	16.7	60.0	100.0 (150)
맞벌이 아님	90.2	57.4	9.4	89.1	97.7	31.3	18.9	10.2	13.2	52.5	100.0 (265)
$\chi^2(df)$	0.218(2)	1.477(2)	4.071(2)	4.308(2)	1.399(2)	1.519(2)	1.316(2)	0.686(2)	2.184(2)	2.210(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90.9	53.8	11.4	84.8	97.7	44.7	35.6	17.4	25.8	66.7	100.0 (132)
400~600만원	90.9	57.1	9.1	88.4	97.5	26.3	13.6	5.6	10.1	51.5	100.0 (198)
600만원 이상	88.2	64.7	17.6	85.9	95.3	31.8	8.2	5.9	7.1	45.9	100.0 (85)
$\chi^2(df)$	0.613(4)	4.346(4)	6.112(4)	4.855(4)	1.529(4)	14.715(4)**	42.892(4)***	23.451(4)***	27.519(4)***	15.935(4)**	
주택 유형											
아파트	90.1	57.9	11.8	88.7	97.6	29.2	18.0	9.1	13.1	50.9	100.0 (373)
연립/다세대주택	93.5	51.6	3.2	74.2	93.5	77.4	32.3	12.9	32.3	93.5	100.0 (31)
단독주택	90.0	60.0	20.0	50.0	90.0	40.0	30.0	0.0	0.0	90.0	100.0 (10)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chi^2(df)$	0.795(6)	2.189(6)	11.667(6)	18.580(6)**	9.787(6)	35.894(6)***	11.125(6)	19.006(6)**	21.167(6)**	27.045(6)**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1) 보건소

보건소의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표 VI-2-10>과 같이 마을 내 보건소와의 거리에 대해서는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 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고,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48.8%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VI-2-10>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 보건소: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41.0	56.6	2.4	48.8	100.0(205)	3.8
지역						
경기 시흥	50.0	40.0	10.0	50.0	100.0(20)	3.3
인천 서구	40.0	58.4	1.6	48.6	100.0(185)	3.8
$\chi^2(df)/t$		6.712(2)*		0.013(1)		-3.3**
자녀 연령						
영아	40.8	57.7	1.4	62.0	100.0(71)	3.8
유아	30.2	68.3	1.6	41.3	100.0(63)	3.6
초등 저학년	50.7	45.1	4.2	42.3	100.0(71)	3.8
$\chi^2(df)/F$		8.061(4)		7.578(2)*		1.9(a)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3.2	54.5	2.3	62.5	100.0(88)	3.8
400~600만원	42.9	54.8	2.4	39.3	100.0(84)	3.8
600만원 이상	30.3	66.7	3.0	36.4	100.0(33)	3.5
$\chi^2(df)/F$		1.860(4)		11.697(2)**		2.3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2)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표 VI-2-11>과 같이 종합병원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 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37%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11>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2) 종합병원: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차/지하철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16.2	61.0	22.1	0.6	37.0	100.0 (154)	3.5
지역							
경기 시흥	34.8	43.5	21.7	0.0	65.2	100.0 (23)	3.5
인천 서구	13.0	64.1	22.1	0.8	32.1	100.0 (131)	3.5
$\chi^2(df)/t$	7.273(3)				9.226(1)**		-0.1
자녀 연령							
영아	11.1	66.7	20.4	1.9	22.2	100.0 (54)	3.6
유아	10.2	65.3	24.5	0.0	32.7	100.0 (49)	3.6
초등 저학년	27.5	51.0	21.6	0.0	56.9	100.0 (51)	3.5
$\chi^2(df)/F$	9.253(6)				14.086(2)***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8	59.6	24.6	0.0	43.9	100.0 (57)	3.5
맞벌이 아님	16.5	61.9	20.6	1.0	33.0	100.0 (97)	3.6
$\chi^2(df)/t$	0.880(3)				1.820(1)		-0.7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8.7	66.7	13.3	1.3	38.7	100.0 (75)	3.5
400~600만원	17.0	56.6	26.4	0.0	37.7	100.0 (53)	3.6
600만원 이상	7.7	53.8	38.5	0.0	30.8	100.0 (26)	3.6
$\chi^2(df)/F$	9.504(6)				0.535(2)		0.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1$, *** $p < .001$.

(3) 일반병원

일반병원의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2>과 같이 일반병원과의 거리는 도보로 접근가능하다는 경우가 85.1%로 많았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99.3%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12>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3) 일반병원: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85.1	14.7	0.2	99.3	100.0 (415)	3.8
지역						
경기 시흥	92.3	7.7	0.0	99.0	100.0 (208)	3.7
인천 서구	77.8	21.7	0.5	99.5	100.0 (207)	3.9
$\chi^2(df)/t$		17.507(2)***		0.331(1)		-2.9**
자녀 연령						
영아	78.7	20.6	0.7	98.5	100.0 (136)	3.8
유아	84.6	15.4	0.0	100.0	100.0 (136)	3.8
초등 저학년	91.6	8.4	0.0	99.3	100.0 (143)	3.9
$\chi^2(df)/F$		10.558(4)*		2.051(2)		1.6(a)
맞벌이 여부						
맞벌이	86.0	14.0	0.0	100.0	100.0 (150)	3.9
맞벌이 아님	84.5	15.1	0.4	98.9	100.0 (265)	3.8
$\chi^2(df)/t$		0.668(2)		1.710(1)		1.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76.5	23.5	0.0	99.2	100.0 (132)	3.8
400~600만원	88.4	11.1	0.5	99.0	100.0 (198)	3.8
600만원 이상	90.6	9.4	0.0	100.0	100.0 (85)	3.9
$\chi^2(df)/F$		13.074(4)*		0.849(2)		1.5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3>과 같이 도
 보로 접근가능하다는 경우가 95.4%로 많았다. 이는 어린이집이 육아하는 가족에게
 접근성 높게 분포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37.9%이며, 이용
 했던 경우 만족도는 3.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를 보였다.

<표 VI-2-13>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4) 어린이집: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있음		
전체	95.4	4.6	37.9	100.0 (414)	3.9
지역					
경기 시흥	99.0	1.0	33.3	100.0 (207)	3.8
인천 서구	91.8	8.2	42.5	100.0 (207)	3.9
$\chi^2(df)/t$	12.412(1)***		3.704(1)		-1.6
자녀 연령					
영아	92.6	7.4	49.3	100.0 (136)	3.8
유아	95.6	4.4	52.9	100.0 (136)	3.9
초등 저학년	97.9	2.1	12.7	100.0 (142)	4.1
$\chi^2(df)/F$	4.371(2)		58.909(2)***		1.8(a)
맞벌이 여부					
맞벌이	94.0	6.0	45.0	100.0 (149)	3.9
맞벌이 아님	96.2	3.8	34.0	100.0 (265)	3.8
$\chi^2(df)/t$	1.119(1)		4.906(1)*		0.9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92.4	7.6	40.2	100.0 (132)	3.8
400~600만원	96.4	3.6	35.0	100.0 (197)	3.9
600만원 이상	97.6	2.4	41.2	100.0 (85)	3.9
$\chi^2(df)/F$	4.142(2)		1.363(2)		0.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5) 유치원

유치원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4>와 같이 도별로 접근가능하다는 경우가 88%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19.3%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를 보였다.

<표 VI-2-14>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5) 유치원: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88.0	11.7	0.2	19.3	100.0 (409)	3.9
지역						
경기 시흥	92.8	7.2	0.0	20.7	100.0 (208)	3.7
인천 서구	83.1	16.4	0.5	17.9	100.0 (201)	4.0
$\chi^2(df)/t$		9.511(2)**		0.501(1)		-2.1*
자녀 연령						
영아	84.6	15.4	0.0	0.0	100.0 (136)	3.8
유아	89.6	10.4	0.0	50.0	100.0 (134)	4.0
초등 저학년	89.9	9.4	0.7	8.6	100.0 (139)	0.8
$\chi^2(df)/F$		4.674(4)		123.69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89.7	10.3	0.0	23.3	100.0 (146)	3.9
맞벌이 아님	87.1	12.5	0.4	17.1	100.0 (263)	3.9
$\chi^2(df)/t$		1.044(2)		2.299(1)		-0.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82.3	17.7	0.0	15.4	100.0 (130)	4.0
400~600만원	88.7	10.8	0.5	19.1	100.0 (194)	3.8
600만원 이상	95.3	4.7	0.0	25.9	100.0 (85)	3.9
$\chi^2(df)/F$		9.757(4)*		3.648(2)		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6)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5>와 같이 도
 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95.4%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34.5%이
 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를 보였다.

<표 VI-2-15>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6) 초등학교: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있음		
전체	95.4	4.6	34.5	100.0 (414)	3.9
지역					
경기 시흥	98.6	1.4	33.7	100.0 (208)	3.9
인천 서구	92.2	7.8	35.4	100.0 (206)	3.8
$\chi^2(df)/t$	9.455(1)**		0.146(1)		0.3
자녀 연령					
영아	94.1	5.9	0.0	100.0 (136)	-
유아	94.8	5.2	0.0	100.0 (135)	-
초등 저학년	97.2	2.8	100.0	100.0 (143)	3.9
$\chi^2(df)/F$	1.678(2)		414.000(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96.7	3.3	40.7	100.0 (150)	4.0
맞벌이 아님	94.7	5.3	31.1	100.0 (264)	3.8
$\chi^2(df)/t$	0.848(1)		3.904(1)*		1.9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90.8	9.2	29.8	100.0 (131)	3.9
400~600만원	97.5	2.5	36.9	100.0 (198)	3.9
600만원 이상	97.6	2.4	36.5	100.0 (85)	3.8
$\chi^2(df)/F$	9.148(2)*		1.933(2)		0.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7) 놀이터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6>과 같이 도별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97.3%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96.6%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8점으로 나타났다. 놀이터는 가까이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이 이용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표 VI-2-16>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7) 놀이터: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있음		
전체	97.3	2.7	96.6	100.0 (415)	3.8
지역					
경기 시흥	99.5	0.5	95.7	100.0 (208)	3.8
인천 서구	95.2	4.8	97.6	100.0 (207)	3.8
$\chi^2(df)/t$	7.609(1)**		1.163(1)		0.4
자녀 연령					
영아	95.6	4.4	91.2	100.0 (136)	3.8
유아	97.8	2.2	100.0	100.0 (136)	3.7
초등 저학년	98.6	1.4	98.6	100.0 (143)	3.7
$\chi^2(df)/F$	2.608(2)		18.852(2)***		0.7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95.5	4.5	97.0	100.0 (132)	3.7
400~600만원	98.0	2.0	96.0	100.0 (198)	3.8
600만원 이상	98.8	1.2	97.6	100.0 (85)	3.8
$\chi^2(df)/F$	2.858(2)		0.589(2)		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1$, *** $p < .001$.

(8) 공원 및 녹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7>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93%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96.6%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9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17>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8) 공원/녹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93.0	6.5	0.5	96.6	100.0 (415)	3.9
지역						
경기 시흥	94.7	4.8	0.5	99.0	100.0 (208)	3.9
인천 서구	91.3	8.2	0.5	94.2	100.0 (207)	3.8
$\chi^2(df)/t$		1.978(2)		7.442(1)**		1.2
자녀 연령						
영아	91.2	8.8	0.0	92.6	100.0 (136)	3.9
유아	91.2	8.1	0.7	99.3	100.0 (136)	3.8
초등 저학년	96.5	2.8	0.7	97.9	100.0 (143)	3.9
$\chi^2(df)/F$		5.932(4)		10.225(2)**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93.3	5.3	1.3	98.0	100.0 (150)	3.8
맞벌이 아님	92.8	7.2	0.0	95.8	100.0 (265)	3.9
$\chi^2(df)/t$		4.032(2)		1.359(1)		-0.7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91.7	8.3	0.0	94.7	100.0 (132)	3.8
400~600만원	94.4	5.6	0.0	98.0	100.0 (198)	3.9
600만원 이상	91.8	5.9	2.4	96.5	100.0 (85)	3.9
$\chi^2(df)/F$		8.851(4)		2.626(2)		1.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1$.

(9)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8>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44.8%,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42.4%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52.2%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6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18>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9) 문화공연장: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44.8	42.4	10.8	2.0	52.2	100.0 (203)	3.6
지역							
경기 시흥	62.8	35.5	1.7	0.0	67.8	100.0 (121)	3.5
인천 서구	18.3	52.4	24.4	4.9	29.3	100.0 (82)	3.6
$\chi^2(df)/t$	54.122(3)***				29.037(1)***		-0.5
자녀 연령							
영아	38.5	53.8	7.7	0.0	32.7	100.0 (52)	3.9
유아	47.5	36.3	13.8	2.5	56.3	100.0 (80)	3.4
초등 저학년	46.5	40.8	9.9	2.8	62.0	100.0 (71)	3.6
$\chi^2(df)/F$	5.564(6)				11.174(2)**		3.9*(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3	43.8	15.0	0.0	55.0	100.0 (80)	3.6
맞벌이 아님	47.2	41.5	8.1	3.3	50.4	100.0 (123)	3.5
$\chi^2(df)/t$	5.149(3)				0.410(1)		0.3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4.5	47.3	10.9	7.3	41.8	100.0 (55)	3.6
400~600만원	47.3	37.6	15.1	0.0	49.5	100.0 (93)	3.6
600만원 이상	50.9	45.5	3.6	0.0	67.3	100.0 (55)	3.5
$\chi^2(df)/F$	17.728(6)**				7.663(2)*		0.4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10) 체육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19>와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59.4%,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35.7%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52.3%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6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19>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0) 체육시설: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59.4	35.7	4.9	52.3	100.0 (308)	3.6
지역						
경기 시흥	75.1	24.3	0.6	63.3	100.0 (177)	3.4
인천 서구	38.2	51.1	10.7	37.4	100.0 (131)	4.0
$X^2(df)/t$		48.356(2)***		20.199(1)***		-5.8***
자녀 연령						
영아	58.3	35.4	6.3	33.3	100.0 (96)	3.4
유아	58.3	37.9	3.9	51.5	100.0 (103)	3.5
초등 저학년	61.5	33.9	4.6	69.7	100.0 (109)	3.7
$X^2(df)/F$		0.950(4)		27.137(2)***		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0	35.5	4.5	59.1	100.0 (110)	3.7
맞벌이 아님	59.1	35.9	5.1	48.5	100.0 (198)	3.5
$X^2(df)/t$		0.050(2)		3.188(1)		2.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50.0	42.9	7.1	45.2	100.0 (84)	3.6
400~600만원	61.8	33.8	4.5	52.2	100.0 (157)	3.5
600만원 이상	65.7	31.3	3.0	61.2	100.0 (67)	3.6
$X^2(df)/F$		5.004(4)		3.804(2)		0.3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11) 도서관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0>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54.1%,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43.5%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69.1%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0>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1) 도서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54.1	43.5	2.1	0.3	69.1	100.0 (375)	3.7
지역							
경기 시흥	66.5	31.9	1.6	0.0	72.3	100.0 (188)	3.5
인천 서구	41.7	55.1	2.7	0.5	65.8	100.0 (187)	4.0
$X^2(df)/t$	23.723(3)***				1.891(1)		-5.9***
자녀 연령							
영아	48.7	50.4	0.9	0.0	51.3	100.0 (115)	3.8
유아	52.0	45.5	2.4	0.0	70.7	100.0 (123)	3.7
초등 저학년	60.6	35.8	2.9	0.7	82.5	100.0 (137)	3.7
$X^2(df)/F$	8.104(6)				28.682(2)***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1	39.7	1.5	0.7	73.5	100.0 (136)	3.7
맞벌이 아님	51.9	45.6	2.5	0.0	66.5	100.0 (239)	3.8
$X^2(df)/F$	3.508(3)				1.989(1)		-0.6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9.2	48.3	1.7	0.8	64.2	100.0 (120)	3.8
400~600만원	55.6	41.7	2.8	0.0	69.4	100.0 (180)	3.7
600만원 이상	58.7	40.0	1.3	0.0	76.0	100.0 (75)	3.7
$X^2(df)/F$	4.717(6)				3.048(2)		1.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01$.

(12) 백화점, 복합쇼핑센터

백화점 및 복합쇼핑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1>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59.4%,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 인 경우 26.8%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88.3%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6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1>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2) 백화점·복합쇼핑센터: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59.4	26.8	12.1	1.7	88.3	100.0 (239)	3.6
지역							
경기 시흥	81.9	16.5	1.6	0.0	95.3	100.0 (127)	3.4
인천 서구	33.9	38.4	24.1	3.6	80.4	100.0 (112)	3.8
$\chi^2(df)/t$	63.097(3)***				12.806(1)***		-4.5***
자녀 연령							
영아	55.0	30.0	13.8	1.3	88.8	100.0 (80)	3.6
유아	62.0	22.8	11.4	3.8	91.1	100.0 (79)	3.6
초등 저학년	61.3	27.5	11.3	0.0	85.0	100.0 (80)	3.6
$\chi^2(df)/F$	5.008(6)				1.474(2)		0.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3.7	38.0	16.9	1.4	85.9	100.0 (71)	3.7
400~600만원	65.5	25.7	7.1	1.8	87.6	100.0 (113)	3.6
600만원 이상	67.3	14.5	16.4	1.8	92.7	100.0 (55)	3.4
$\chi^2(df)/F$	15.283(6)*				1.484(2)		2.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13) 박물관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2>와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2.1%,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56.3%, 차나 지하철로 30분 이내인 경우 33.3%, 나타났다. 박물관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35.4%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4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2>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3) 박물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2.1	56.3	33.3	8.3	35.4	100.0 (48)	3.4
지역							
경기 시흥	7.1	71.4	21.4	0.0	64.3	100.0 (14)	3.2
인천 서구	0.0	50.0	38.2	11.8	23.5	100.0 (34)	3.5
$\chi^2(df)/t$		5.725(3)			7.202(1)**		-0.7
자녀 연령							
영아	0.0	63.6	18.2	18.2	9.1	100.0 (11)	5.0
유아	0.0	57.1	33.3	9.5	38.1	100.0 (21)	3.3
초등 저학년	6.3	50.0	43.8	0.0	50.0	100.0 (16)	3.3
$\chi^2(df)/F$		6.149(6)			4.886(2)		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56.5	39.1	4.3	34.8	100.0 (23)	3.1
맞벌이 아님	4.0	56.0	28.0	12.0	36.0	100.0 (25)	3.6
$\chi^2(df)/t$		2.208(3)			0.008(1)		-1.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7	53.3	26.7	13.3	33.3	100.0 (15)	3.4
400~600만원	0.0	55.6	38.9	5.6	33.3	100.0 (18)	3.2
600만원 이상	0.0	60.0	33.3	6.7	40.0	100.0 (15)	3.5
$\chi^2(df)/F$		3.295(6)			0.200(2)		0.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1$.

(14) 영리시설(문화센터, 키즈카페)

영리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3>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63.9%,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33.3%로 높게 나타났다. 영리시설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78.1%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8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3>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4) 영리시설: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63.9	33.3	2.5	0.3	78.1	100.0 (360)	3.8
지역							
경기 시흥	80.6	18.4	0.5	0.5	88.1	100.0 (201)	3.9
인천 서구	42.8	52.2	5.0	0.0	65.4	100.0 (159)	3.7
$\chi^2(df)/t$	58.390(3)***				26.591(1)***		2.3*
자녀 연령							
영아	60.9	38.2	0.9	0.0	71.8	100.0 (110)	3.8
유아	63.4	30.1	5.7	0.8	85.4	100.0 (123)	3.8
초등 저학년	66.9	32.3	0.8	0.0	76.4	100.0 (127)	3.8
$\chi^2(df)/F$	11.089(6)				6.545(2)*		0.4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8.2	47.3	3.6	0.9	70.5	100.0 (112)	3.7
400~600만원	66.3	30.9	2.9	0.0	79.4	100.0 (175)	3.9
600만원 이상	82.2	17.8	0.0	0.0	86.3	100.0 (73)	3.8
$\chi^2(df)/F$	25.110(6)***				6.788(2)*		2.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15)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4>와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76.9%,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22.8%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74.9%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4>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5) 주민자치센터: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76.9	22.8	0.2	74.9	100.0 (403)	3.7
지역						
경기 시흥	90.0	10.0	0.0	83.1	100.0 (201)	3.6
인천 서구	63.9	35.6	0.5	66.8	100.0 (202)	3.7
$\chi^2(df)/t$		39.112(2)***		14.171(1)***		-1.7
자녀 연령						
영아	75.0	25.0	0.0	75.0	100.0 (132)	3.7
유아	71.8	27.5	0.8	70.2	100.0 (131)	3.6
초등 저학년	83.6	16.4	0.0	79.3	100.0 (140)	3.7
$\chi^2(df)/F$		7.426(4)		2.956(2)		2.9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4.3	35.7	0.0	75.2	100.0 (129)	3.6
400~600만원	82.4	17.1	0.5	73.1	100.0 (193)	3.7
600만원 이상	84.0	16.0	0.0	79.0	100.0 (81)	3.7
$\chi^2(df)/F$		18.720(4)***		1.084(2)		0.6(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01$.

(16)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5>와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40.6%,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52.9%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19.6%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5>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6) 사회복지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40.6	52.9	6.5	19.6	100.0 (138)	3.7
지역						
경기 시흥	45.5	36.4	18.2	9.1	100.0 (11)	3.0
인천 서구	40.2	54.3	5.5	20.5	100.0 (127)	3.7
$\chi^2(df)/t$		3.180(2)		0.833(1)		-
자녀 연령						
영아	38.5	59.0	2.6	15.4	100.0 (39)	3.8
유아	40.0	46.0	14.0	16.0	100.0 (50)	3.8
초등 저학년	42.9	55.1	2.0	26.5	100.0 (49)	3.6
$\chi^2(df)/F$		7.610(4)		2.348(2)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6	45.5	10.9	23.6	100.0 (55)	3.7
맞벌이 아님	38.6	57.8	3.6	16.9	100.0 (83)	3.7
$\chi^2(df)/t$		3.867(2)		0.963(1)		-0.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0.7	57.6	1.7	13.6	100.0 (59)	3.5
400~600만원	34.6	53.8	11.5	21.2	100.0 (52)	3.8
600만원 이상	51.9	40.7	7.4	29.6	100.0 (27)	3.8
$\chi^2(df)/F$		6.461(4)		3.174(2)		1.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6>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34.6%,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56.8%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34.6%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5점으로 높지 않았다.

<표 VI-2-26>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7)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있음		
전체	34.6	56.8	7.4	1.2	34.6	100.0 (81)	3.5
지역							
경기 시흥	14.3	57.1	28.6	0.0	57.1	100.0 (7)	3.8
인천 서구	36.5	56.8	5.4	1.4	32.4	100.0 (74)	3.5
$\chi^2(df)/t$		5.640(3)			1.726(1)		0.7
자녀 연령							
영아	36.4	59.1	4.5	0.0	50.0	100.0 (22)	3.4
유아	33.3	50.0	13.3	3.3	33.3	100.0 (30)	3.6
초등 저학년	34.5	62.1	3.4	0.0	24.1	100.0 (29)	3.7
$\chi^2(df)/F$		4.419(6)			3.731(2)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9	45.2	9.7	3.2	25.8	100.0 (31)	3.8
맞벌이 아님	30.0	64.0	6.0	0.0	40.0	100.0 (50)	3.5
$\chi^2(df)/t$		3.947(3)			1.704(1)		1.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8.3	59.6	2.1	0.0	40.4	100.0 (47)	3.4
400~600만원	29.6	51.9	14.8	3.7	25.9	100.0 (27)	4.0
600만원 이상	28.6	57.1	14.3	0.0	28.6	100.0 (7)	3.0
$\chi^2(df)/F$		6.849(6)			1.716(2)		2.7(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18)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7>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25.6%,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56.4%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30.8%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4점으로 높지 않았다.

<표 VI-2-27>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8)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25.6	56.4	17.9	30.8	100.0 (39)	3.4
지역						
경기 시흥	0.0	60.0	40.0	20.0	100.0 (5)	3.0
인천 서구	29.4	55.9	14.7	32.4	100.0 (34)	3.5
$\chi^2(df)/t$		3.037(2)		0.312(1)		-
자녀 연령						
영아	38.5	53.8	7.7	30.8	100.0 (13)	3.3
유아	20.0	40.0	40.0	30.0	100.0 (10)	3.7
초등 저학년	18.8	68.8	12.5	31.3	100.0 (16)	3.4
$\chi^2(df)/F$		5.914(4)		0.005(2)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0	58.3	16.7	25.0	100.0 (12)	4.0
맞벌이 아님	25.9	55.6	18.5	33.3	100.0 (27)	3.2
$\chi^2(df)/t$		0.030(2)		0.271(1)		5.3***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9.1	47.8	13.0	43.5	100.0 (23)	3.3
400~600만원	9.1	72.7	18.2	9.1	100.0 (11)	4.0
600만원 이상	0.0	60.0	40.0	20.0	100.0 (5)	4.0
$\chi^2(df)/F$		6.584(4)		4.443(2)		1.8(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01$.

(19)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8>과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21.7%,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70%로 나타났다. 장난감도서관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46.7%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9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8>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19) 장난감도서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21.7	70.0	8.3	46.7	100.0 (60)	3.9
지역						
경기 시흥	0.0	66.7	33.3	66.7	100.0 (3)	4.5
인천 서구	22.8	70.2	7.0	45.6	100.0 (57)	3.8
$\chi^2(df)/t$		3.058(2)		0.508(1)		1.6
자녀 연령						
영아	23.5	70.6	5.9	70.6	100.0 (17)	3.8
유아	16.7	66.7	16.7	41.7	100.0 (24)	3.9
초등 저학년	26.3	73.7	0.0	31.6	100.0 (19)	4.0
$\chi^2(df)/F$		4.275(4)		5.887(2)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0	76.0	8.0	48.0	100.0 (25)	4.0
맞벌이 아님	25.7	65.7	8.6	45.7	100.0 (35)	3.8
$\chi^2(df)/t$		0.861(2)		0.031(1)		0.9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9.4	67.6	2.9	52.9	100.0 (34)	3.8
400~600만원	15.0	70.0	15.0	35.0	100.0 (20)	4.0
600만원 이상	0.0	83.3	16.7	50.0	100.0 (6)	4.3
$\chi^2(df)/F$		5.584(4)		1.658(2)		1.4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20)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VI-2-29>와 같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경우가 49.8%,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인 경우 45.4%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58.5%이며, 이용했던 경우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9> 마을 내 시설 집과의 거리 및 이용 경험, 만족도-20) 어린이도서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집과의 거리			이용 경험	계(수)	만족도
	도보 가능	차/지하철 15분 이내	차/지하철 30분 이내	있음		
전체	49.8	45.4	4.8	58.5	100.0 (229)	3.7
지역						
경기 시흥	72.7	21.8	5.5	63.6	100.0 (55)	3.8
인천 서구	42.5	52.9	4.6	56.9	100.0 (174)	3.7
$\chi^2(df)/t$		16.594(2)***		0.782(1)		0.6
자녀 연령						
영아	50.0	42.6	7.4	39.7	100.0 (68)	3.7
유아	48.1	49.4	2.5	73.4	100.0 (79)	3.7
초등 저학년	51.2	43.9	4.9	59.8	100.0 (82)	3.8
$\chi^2(df)/F$		2.277(4)		17.190(2)***		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46.7	3.3	64.4	100.0 (90)	3.9
맞벌이 아님	49.6	44.6	5.8	54.7	100.0 (139)	3.6
$\chi^2(df)/t$		0.720(2)		2.147(1)		2.4*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7.7	51.1	1.1	52.3	100.0 (88)	3.6
400~600만원	52.9	39.2	7.8	62.7	100.0 (102)	3.8
600만원 이상	46.2	48.7	5.1	61.5	100.0 (39)	3.9
$\chi^2(df)/F$		6.408(4)		2.311(2)		3.4*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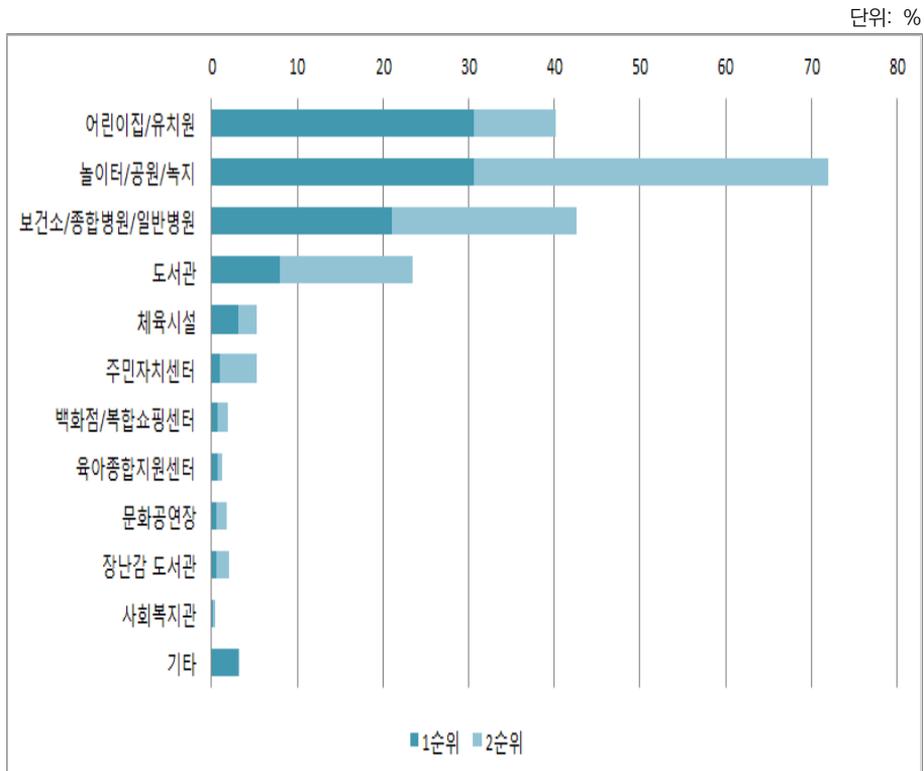
이상에 살펴본 육아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최근 3개월 동안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시설에 두 가지를 순서대로 답한 결과가 <표 VI-2-30>이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30.6%, 놀이터, 공원, 녹

지라는 응답도 30.6%, 보건소, 종합병원, 일반병원이라는 경우도 21%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림 VI-2-3]과 같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놀이터, 공원, 녹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건소, 종합병원, 일반병원, 세 번째로 높은 것이 어린이집으로 나타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 녹지 등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도 높고, 또 가장 양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과정에서 예방접종, 감기 등 잦은 병원의 이용이 있기에 보건소,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의 병의원 시설에 대한 도움체감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어린이집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양육 시 도움 시설임이 분명하다.

[그림 VI-2-3] 자녀 양육에 가장 도움 된 서비스-1순위/2순위 합산: 전체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표 VI-2-30〉 자녀 양육에 가장 도움 된 서비스-1순위/2순위: 전체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유치원	놀이터/공원/녹지	보건의료/종합병원/일반병원	도서관	체육 시설	주민자치 센터	백화점/복합쇼핑센터	육아종합 지원센터	문화 공연장	장난감 도서관	사회 복지관	기타	계(수)
전체	30.6	30.6	21.0	8.0	3.1	1.0	0.7	0.7	0.5	0.5	0.2	3.1	100.0(415)
경기 시흥	36.1	32.7	17.3	3.4	1.9	0.0	1.4	0.5	1.0	0.0	0.0	5.8	100.0(208)
인천 서구	25.1	28.5	24.6	12.6	4.3	1.9	0.0	1.0	0.0	1.0	0.5	0.5	100.0(207)
$\chi^2(df)$			41.891(11)**										
영아	25.7	29.4	38.2	1.5	0.0	0.7	2.2	1.5	0.0	0.0	0.7	0.0	100.0(136)
유아	64.7	19.1	7.4	5.1	1.5	0.0	0.0	0.0	0.7	1.5	0.0	0.0	100.0(136)
초등 저학년	2.8	42.7	17.5	16.8	7.7	2.1	0.0	0.7	0.7	0.0	0.0	9.1	100.0(143)
$\chi^2(df)$			214.627(22)**										
맞벌이	34.0	28.7	16.0	9.3	4.0	0.7	0.0	0.7	1.3	0.7	0.0	4.7	100.0(150)
맞벌이 이남	28.7	31.7	23.8	7.2	2.6	1.1	1.1	0.8	0.0	0.4	0.4	2.3	100.0(265)
$\chi^2(df)$			13.017(11)										
400만원 미만	31.1	23.5	28.0	10.6	0.0	2.3	0.8	1.5	0.0	1.5	0.8	0.0	100.0(132)
400-600만원	26.8	37.4	18.2	7.1	5.6	0.5	1.0	0.5	0.0	0.0	0.0	3.0	100.0(198)
600만원 이상	38.8	25.9	16.5	5.9	2.4	0.0	0.0	0.0	2.4	0.0	0.0	8.2	100.0(85)
$\chi^2(df)$			54.868(22)**										
아파트	31.4	29.5	21.7	7.0	3.2	1.1	0.8	0.8	0.5	0.3	0.3	3.5	100.0(373)
연립/다세대주택	19.4	38.7	19.4	16.1	3.2	0.0	0.0	0.0	0.0	3.2	0.0	0.0	100.0(31)
단독주택	40.0	4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10)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1)
$\chi^2(df)$			20.566(33)										
2순위	9.6	41.4	21.6	15.4	2.2	4.2	1.2	0.5	1.2	1.5	0.2	0.1	100.0(40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전체' 결과임

** $p < .001$.

나. 인천 서구

인천 서구에서 도출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적 마을 조성을 위한 요구를 수렴하였다. 주민참여 워크숍에서 직접 도출한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인천 서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보육과 교육 인프라,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라는 범주들을 중심으로 그 중요도를 가늠해보고, 실제 마을의 환경들에 대해 진단하여 그 인식의 차이를 살폈다. 또한 영아자녀를 둔 가정, 유아자녀를 둔 가정,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 맞벌이 가정의 특성에 따라 강조되어야하는 마을 조성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1) 응답자 특성

2019년 9월~10월 중 실시된 면대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208명의 특성은 다음 <표 VI-2-31>과 같다. 영아와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참여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 20.7%, 400만원~600만원 56.3%, 600만원 이상 23.1%이다. 응답자의 30.8%가 맞벌이 가구이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9%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6시간~8시간이 63.9%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이하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30분~1시간 사이라는 응답은 30.8%, 1시간 초과되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무 시간은 6시간~8시간이 55.6%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하라는 응답이 79.4%로 가장 많았다. 30분~1시간 사이라는 응답은 14.3%, 1시간 초과되는 경우는 6.3%로 나타나 어머니 직장이 아버지의 직장보다 가까운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VI-2-31> 응답자 특성: 인천 서구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인천시 서구>	100.0 (208)		
자녀구분		부 하루 근무 시간	
영아	32.7 (68)	6시간 이하	1.5 (3)
유아	33.7 (70)	6시간~8시간	63.9 (133)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초등 저학년	33.7 (70)	8시간~10시간	27.4 (57)
가구 소득		10시간 초과	7.2 (15)
400만원 미만	20.7 (43)	부 하루 통근시간(편도)	
400~600만원	56.3 (117)	30분 이하	56.7 (118)
600만원 이상	23.1 (48)	30분~1시간	30.8 (64)
맞벌이 여부(1)		1시간 초과	12.5 (26)
외벌이	69.2 (144)	모 하루 근무 시간 ^{주1)}	
맞벌이	30.8 (64)	4시간 이하	9.5 (6)
맞벌이 여부(2)		4시간~6시간	14.3 (9)
부모 모두 취업	30.3 (63)	6시간~8시간	55.6 (35)
부 취업, 모 미취업	69.2 (144)	8시간~10시간	19.0 (12)
한부모 취업	0.5 (1)	10시간 초과	1.6 (1)
주택 유형		모 하루 통근시간(편도) ^{주2)}	
아파트	99.0 (206)	30분 이하	79.4 (50)
연립/다세대주택	0.5 (1)	30분~1시간	14.3 (9)
단독주택	0.5 (1)	1시간 초과	6.3 (4)

주: 1)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2) 모 취업자 63명에 한정된 분석임.

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이 추구하는 가치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표 VI-2-32>와 같이 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5점 척도로 그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아이 다음을 인정'이라는 가치가 4.5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다음은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와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이 4.4점으로,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환대',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성평등하게 조성',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하게 제공' 등은 4.2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3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단위: 점(명)

구분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확대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성평등 하게 조성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 하게 제공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2	0.7	4.5	0.5	4.4	0.6	4.4	0.7	4.2	0.7	4.2	0.6	(208)
자녀 연령													
영아	4.3	0.6	4.6	0.5	4.4	0.7	4.5	0.6	4.1	0.7	4.2	0.7	(68)
유아	4.1	0.7	4.4	0.5	4.3	0.5	4.2	0.7	4.1	0.7	4.2	0.6	(70)
초등 저학년	4.3	0.7	4.5	0.6	4.5	0.6	4.5	0.6	4.3	0.7	4.4	0.7	(70)
<i>F</i>	2.8		3.1*		1.9(a)		2.9		1.7(a)		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	0.6	4.4	0.5	4.4	0.6	4.4	0.6	4.2	0.6	4.2	0.6	(64)
맞벌이 아님	4.2	0.7	4.5	0.6	4.4	0.6	4.4	0.7	4.1	0.7	4.2	0.7	(144)
<i>t</i>	0.5		-0.6		0.0		0.4		0.6		-0.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1	0.8	4.4	0.6	4.3	0.7	4.4	0.7	4.1	0.6	4.1	0.6	(43)
400~600만원	4.2	0.7	4.5	0.5	4.4	0.6	4.4	0.7	4.1	0.7	4.2	0.7	(117)
600만원 이상	4.3	0.7	4.4	0.5	4.4	0.6	4.4	0.6	4.3	0.6	4.3	0.6	(48)
<i>F</i>	1.0		0.5		0.3		0.1		0.5		1.0		
주택 유형													
아파트	4.2	0.7	4.5	0.5	4.4	0.6	4.4	0.7	4.2	0.7	4.2	0.7	(206)
연립/다세대주택	5.0	-	4.0	-	5.0	-	5.0	-	4.0	-	4.0	-	(1)
단독주택	4.0	-	4.0	-	4.0	-	4.0	-	4.0	-	4.0	-	(1)
<i>F</i>	0.7(a)		0.7(a)		0.7(a)		0.6(a)		0.1(a)		0.1(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 $p < .05$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로 선정한 문항들에 대해 살면서 경험한 마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5점 척도로 진단 평가한 결과가 〈표 VI-2-33〉이다.

〈표 VI-2-3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명)

구분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확대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성평등하게 조성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하게 제공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3	0.7	3.3	0.7	3.2	0.7	3.3	0.7	2.6	0.9	2.8	0.8	(208)
자녀 연령													
영아	3.3	0.7	3.3	0.7	3.2	0.6	3.2	0.6	2.5	0.9	2.6	0.9	(68)
유아	3.3	0.7	3.3	0.6	3.1	0.6	3.3	0.6	2.7	0.9	2.8	0.7	(70)
초등 저학년	3.3	0.7	3.4	0.8	3.3	0.8	3.3	0.7	2.6	0.9	3.0	0.7	(70)
F	0.0		0.4(a)		1.0(a)		0.3		0.7		5.2**(a)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2	0.6	3.2	0.5	3.0	0.6	3.3	0.6	2.6	0.9	2.7	0.7	(43)
400~600만원	3.4	0.7	3.4	0.8	3.3	0.7	3.3	0.7	2.7	0.9	2.8	0.8	(117)
600만원 이상	3.1	0.7	3.2	0.7	3.1	0.7	3.1	0.7	2.5	0.9	2.8	0.8	(48)
F	2.6		1.4(a)		3.6*		1.4		1.2		0.2		
주택 유형													
아파트	3.3	0.7	3.3	0.7	3.2	0.7	3.3	0.7	2.6	0.9	2.8	0.8	(206)
연립/다세대주택	4.0	-	4.0	-	4.0	-	5.0	-	4.0	-	4.0	-	(1)
단독주택	4.0	-	3.0	-	3.0	-	3.0	-	2.0	-	2.0	-	(1)
F	1.0(a)		0.6(a)		0.7(a)		3.6*(a)		1.4(a)		1.7(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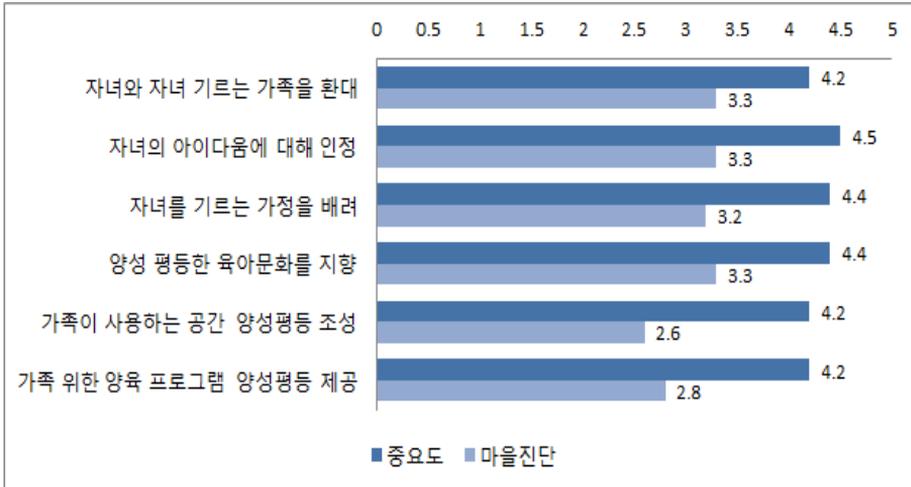
* $p < .05$. ** $p < .01$.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확대’,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이라는 가치가 3.3점 정도로 평가되었고, 다음은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3.2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성평등하게 조성’ 2.6점,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하게 제공’ 등은 2.8 점 등으로 점으로 평가 정도가 높지 않았다. 즉, [그림 VI-2-4]에서 보는 것처럼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로 선정한 문항들에 대해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마을에서의 조성정도는 낮게 체감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시된 문항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해야하는 철학과 가치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많은 곳’,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주민의식’, ‘서로 서로 배려하는 동네’, ‘동네 다니는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관심을 갖는 분위기 조성’ 등이 제언되었다.

[그림 VI-2-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로 선정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각각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34>와 같다.

<표 VI-2-34>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인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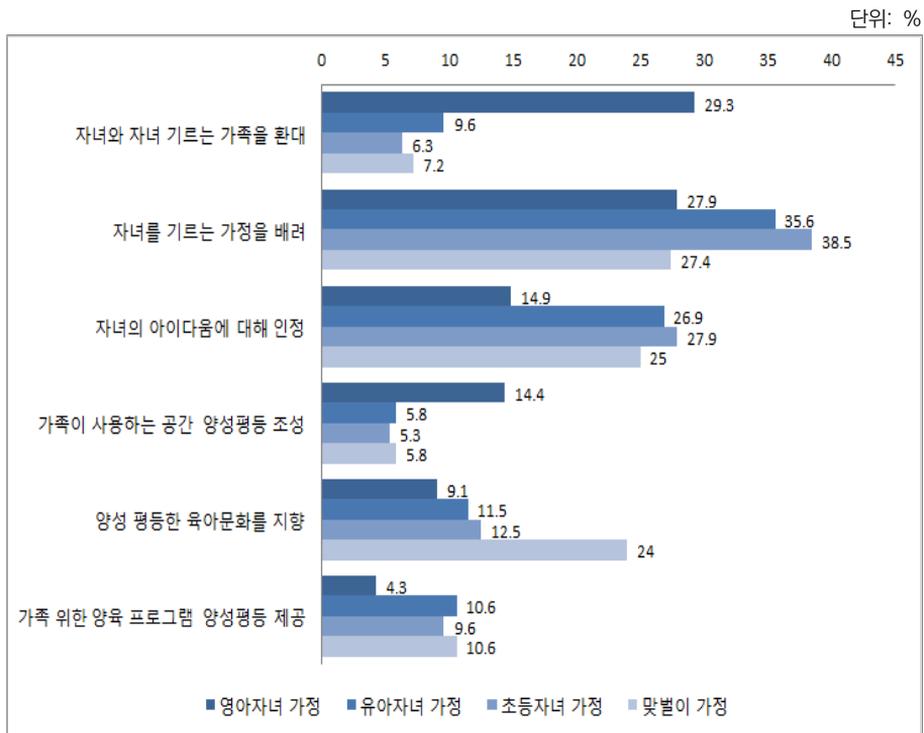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확대한다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양성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 평등하게 제공한다	계(수)
영아자녀 가정	29.3	27.9	14.9	14.4	9.1	4.3	100.0 (208)
유아자녀 가정	9.6	35.6	26.9	5.8	11.5	10.6	100.0 (208)
초등자녀 가정	6.3	38.5	27.9	5.3	12.5	9.6	100.0 (208)
맞벌이 가정	7.2	27.4	25.0	5.8	24.0	10.6	100.0 (20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 29.3%,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27.9%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35.6%,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26.9%로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도 유아가구와 같이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38.5%,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27.9%로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27.4%,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25%,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24%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림 VI-2-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에는 <표 VI-2-35>와 같이 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5점 척도로 그 중요도를 확인할 결과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등이 4.6점으로,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등은 4.5점으로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표 VI-2-3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단위: 점(명)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6	0.6	4.6	0.6	4.5	0.6	4.5	0.6	4.6	0.6	(208)
자녀 연령											
영아	4.7	0.5	4.7	0.6	4.6	0.6	4.7	0.5	4.7	0.5	(68)
유아	4.4	0.7	4.5	0.7	4.3	0.7	4.4	0.7	4.4	0.7	(70)
초등 저학년	4.6	0.5	4.6	0.6	4.5	0.6	4.6	0.6	4.6	0.5	(70)
F	3.6*(a)		1.6(a)		2.5		3.9*(a)		3.7*(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	0.5	4.6	0.6	4.5	0.6	4.5	0.6	4.5	0.6	(64)
맞벌이 아님	4.6	0.6	4.6	0.6	4.5	0.6	4.5	0.6	4.6	0.6	(144)
t	-0.3		-0.6		0.0		-0.2		-2.0*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6	0.6	4.7	0.6	4.6	0.6	4.6	0.5	4.7	0.5	(43)
400~600만원	4.6	0.6	4.6	0.6	4.5	0.6	4.5	0.6	4.6	0.6	(117)
600만원 이상	4.5	0.6	4.5	0.7	4.4	0.6	4.5	0.6	4.5	0.7	(48)
F	0.1		0.8		0.5		0.1		2.4(a)		
주택 유형											
아파트	4.6	0.6	4.6	0.6	4.5	0.6	4.5	0.6	4.6	0.6	(206)
연립/다세대주택	5.0	-	5.0	-	4.0	-	4.0	-	4.0	-	(1)
단독주택	5.0	-	5.0	-	5.0	-	5.0	-	5.0	-	(1)
F	0.5(a)		0.4(a)		0.6(a)		0.7(a)		0.7(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 $p < .05$.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해 살면서 경험한 마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 평가한 결과가 <표 VI-2-36>이다.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는 부분이 3.4점으로 그 중 높게 평가되었고,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 등은 3.3점 정도로 평가되었고, 다음은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3.2점으로,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은 3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3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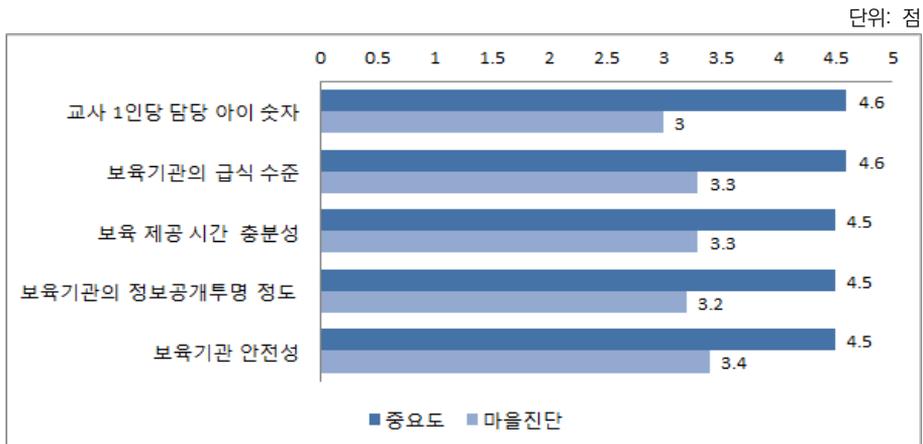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0	0.8	3.3	0.7	3.3	0.7	3.2	0.8	3.4	0.7	(208)
자녀 연령											
영아	3.0	0.7	3.2	0.6	3.2	0.6	3.1	0.7	3.4	0.6	(68)
유아	3.2	0.9	3.4	0.6	3.4	0.6	3.1	1.0	3.4	0.8	(70)
초등 저학년	2.9	0.9	3.3	0.8	3.3	0.8	3.2	0.8	3.3	0.7	(70)
F	2.3		1.4(a)		0.8		0.1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	0.9	3.3	0.7	3.3	0.7	3.3	0.9	3.4	0.7	(64)
맞벌이 아님	3.0	0.8	3.3	0.7	3.3	0.7	3.1	0.8	3.4	0.7	(144)
t	1.4		0.6		0.5		1.2		0.7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9	0.8	3.3	0.7	3.3	0.7	3.2	0.8	3.4	0.7	(43)
400~600만원	3.1	0.8	3.3	0.7	3.3	0.7	3.1	0.8	3.4	0.7	(117)
600만원 이상	2.9	0.9	3.3	0.7	3.3	0.7	3.3	0.8	3.5	0.7	(48)
F	2.2		0.0		0.2		0.6		0.4		
주택 유형											
아파트	3.0	0.8	3.3	0.7	3.3	0.7	3.2	0.8	3.4	0.7	(206)
연립/다세대주택	3.0	-	3.0	-	3.0	-	2.0	-	3.0	-	(1)
단독주택	4.0	-	3.0	-	3.0	-	3.0	-	3.0	-	(1)
F	0.7(a)		0.2(a)		0.1(a)		1.0(a)		0.3(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그림 IV-2-6]에서 보는 것처럼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로 선정한 문항들에 대해서도 그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지만 현재 마을에서의 조성 정도는 낮게 체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시된 문항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시간외에 급하게 24시간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서비스’, ‘실내 운동장, 놀이시설 설치’, ‘오픈된 교육시스템을 통한 신뢰감 형성’, ‘교사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그림 VI-2-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 인천 서구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로 선정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37>과 같다.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보육기관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숫자가 적절해야 함’이 59.1%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25%, ‘보육기관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숫자가 적절해야 함’이 24%,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20.2%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고르게 제시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32.7%,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26%,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22.6%로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41.3%,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24%,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해야 함’ 23.6%로 강조되었다.

〈표 VI-2-37〉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인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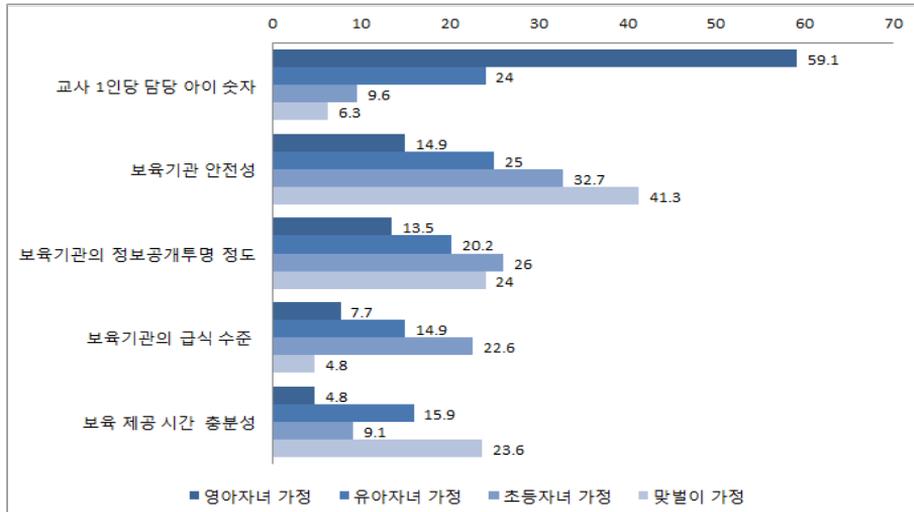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보육기관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 근무하기에 충분	계(수)
영아자녀 가정	59.1	14.9	13.5	7.7	4.8	100.0 (208)
유아자녀 가정	24.0	25.0	20.2	14.9	15.9	100.0 (208)
초등자녀 가정	9.6	32.7	26.0	22.6	9.1	100.0 (208)
맞벌이 가정	6.3	41.3	24.0	4.8	23.6	100.0 (20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그림 VI-2-7〉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인천 서구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는 <표 VI-2-38>과 같이 9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5점 척도로 그 중요도를 확인할 결과 그 중요도가 4점을 상회하는 가운데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부분과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한 점’이 4.5점으로 비교적 더 높았다.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 등은 4.4점으로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한 부분은 4.1점으로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로 선정한 9개 문항들에 대해 살면서 경험한 마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5점 척도로 진단 평가한 결과가 <표 VI-2-39>이다. 중요도의 평가는 4.5점에 수렴하였던 것과 달리 마을의 진단은 3점, 보통이다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높이 평가된 문항은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한 점’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한 점’ 3.7점,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이라는 부분이 3.6점 등으로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2.9점,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등은 3점 등으로 평가 정도가 높지 않았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 정책수요자인 인천 서구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와 현재 진단의 결과는 [그림 VI-2-8]과 같이 중요도는 높이 고려하나, 현재 마을의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2-38〉 아이 키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단위: 점(명)

구분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		(수)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평균		
전체	4.4	0.6	4.5	0.6	4.5	0.6	4.4	0.7	4.4	0.6	4.4	0.6	4.1	0.8	4.4	0.7	4.4	0.6	(208)	
자녀 연령																				
영아	4.5	0.6	4.7	0.5	4.5	0.6	4.5	0.7	4.5	0.6	4.5	0.5	4.1	0.8	4.5	0.6	4.5	0.5	(68)	
유아	4.4	0.6	4.4	0.6	4.5	0.6	4.3	0.6	4.4	0.5	4.3	0.6	4.0	0.9	4.3	0.7	4.4	0.6	(70)	
초등 저학년	4.4	0.6	4.5	0.6	4.5	0.6	4.4	0.7	4.4	0.7	4.4	0.6	4.2	0.8	4.4	0.7	4.5	0.6	(70)	
F	0.8		4.3*(a)		0.4		0.8		0.3		2.9		0.8		2.3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	0.5	4.4	0.7	4.5	0.6	4.4	0.6	4.4	0.6	4.3	0.6	4.1	0.9	4.3	0.7	4.4	0.6	(64)	
맞벌이 아님	4.5	0.6	4.6	0.6	4.5	0.6	4.4	0.7	4.4	0.6	4.4	0.6	4.1	0.8	4.4	0.6	4.5	0.6	(144)	
t	-1.9		-1.5		0.1		0.4		-0.6		-1.5		-0.3		-0.7		-0.5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5	0.6	4.4	0.6	4.5	0.5	4.3	0.7	4.3	0.6	4.4	0.6	3.9	0.8	4.3	0.6	4.3	0.6	(43)	
400~600만원	4.4	0.6	4.6	0.6	4.6	0.6	4.4	0.7	4.5	0.6	4.4	0.6	4.2	0.8	4.5	0.6	4.5	0.5	(117)	
600만원 이상	4.4	0.5	4.4	0.6	4.4	0.6	4.4	0.6	4.3	0.6	4.3	0.7	4.1	0.9	4.3	0.8	4.3	0.6	(48)	
F	0.8		3.3*		1.7		0.3		2.1		0.6		2.5		2.7		5.2**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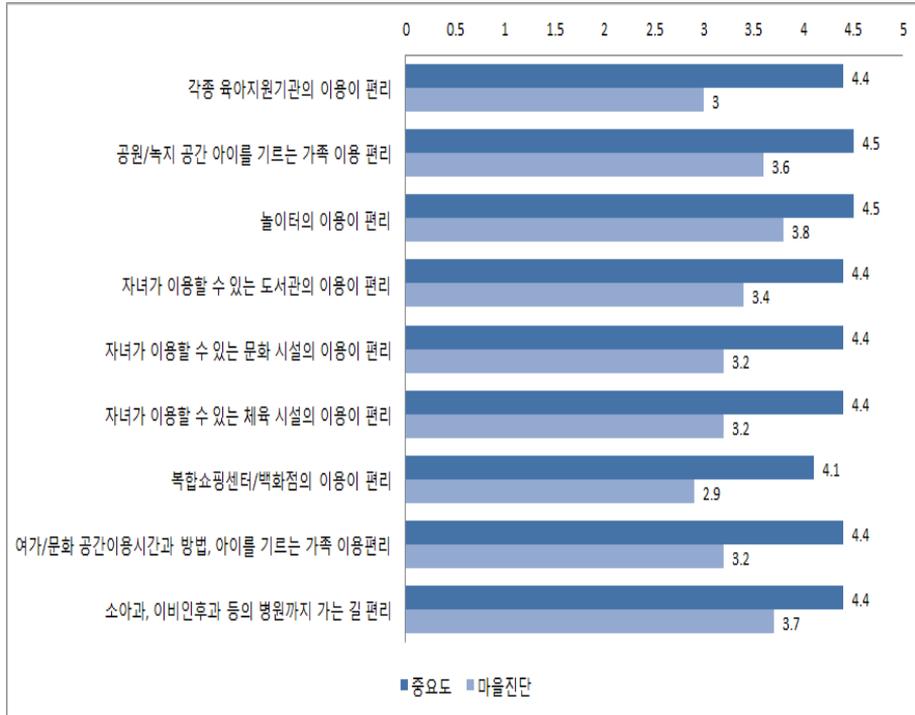
〈표 VI-2-39〉 아이 키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명)

구분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키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키르는 가족 이용편리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0	0.9	3.6	0.7	3.8	0.7	3.4	0.8	3.2	0.8	3.2	0.8	2.9	1.0	3.2	0.8	3.7	0.8	(208)
자녀 연령																			
영아	2.9	0.9	3.5	0.9	3.7	0.8	3.4	0.8	3.1	0.8	3.1	0.8	2.8	1.0	3.1	0.8	3.6	0.7	(68)
유아	3.2	0.9	3.6	0.6	3.9	0.8	3.3	1.0	3.3	0.9	3.1	0.9	2.9	1.1	3.3	0.9	3.8	0.7	(70)
초등 저학년	3.0	1.0	3.8	0.7	3.9	0.7	3.5	0.8	3.3	0.7	3.3	0.8	3.1	0.9	3.3	0.9	3.6	0.8	(70)
F	1.5		2.7(a)		1.5		0.5		0.7		1.5		1.2		1.1(a)		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	0.9	3.6	0.7	3.8	0.8	3.4	0.8	3.2	0.8	3.2	0.8	3.0	1.0	3.2	0.9	3.6	0.7	(64)
맞벌이 아님	3.0	1.0	3.7	0.7	3.8	0.7	3.4	0.9	3.3	0.8	3.2	0.9	2.9	1.0	3.3	0.8	3.7	0.8	(144)
t	1.3		-0.5		-0.3		-0.2		-1.0		0.0		0.7		-0.6		-0.6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0	1.0	3.7	0.7	3.9	0.7	3.3	0.9	3.3	0.8	3.1	0.9	2.9	1.0	3.3	0.7	3.7	0.7	(43)
400~600만원	3.0	0.9	3.6	0.8	3.8	0.8	3.4	0.8	3.2	0.8	3.2	0.8	3.0	0.9	3.2	0.9	3.6	0.8	(117)
600만원 이상	3.2	0.9	3.7	0.7	3.8	0.8	3.4	0.8	3.2	0.8	3.1	0.9	2.9	1.1	3.2	0.9	3.8	0.8	(48)
F	1.2		0.3		0.1		0.2		0.2		0.4		0.2		0.1		0.5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그림 VI-2-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제시된 문항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과학관 건립', '어린이 수영장, 문화시설 확충, 스포츠센터 시설 확충', '아이들이 발표 할 수 있는 소강당', '교통이나 차량의 위험으로 부터 부담없는 전체 활동 공간 등이 있어서 체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곳' 등이 제언되었다.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로 선정한 9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40>과 같다.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해야 함’이 46.6%로 단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20.2%,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 17.3%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23.1%,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부분이 21.2%,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21.2%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제시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23.1%,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 18.3%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 32.7%,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22.6%로 강조되었다.

〈표 VI-2-40〉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 인천 서구

단위: %(명)

구분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영아자녀 가정	46.6	20.2	1.9	1.4	5.3
유아자녀 가정	21.2	23.1	21.2	4.3	10.1
초등자녀 가정	11.5	12.0	11.1	23.1	9.1
맞벌이 가정	22.6	11.1	5.3	2.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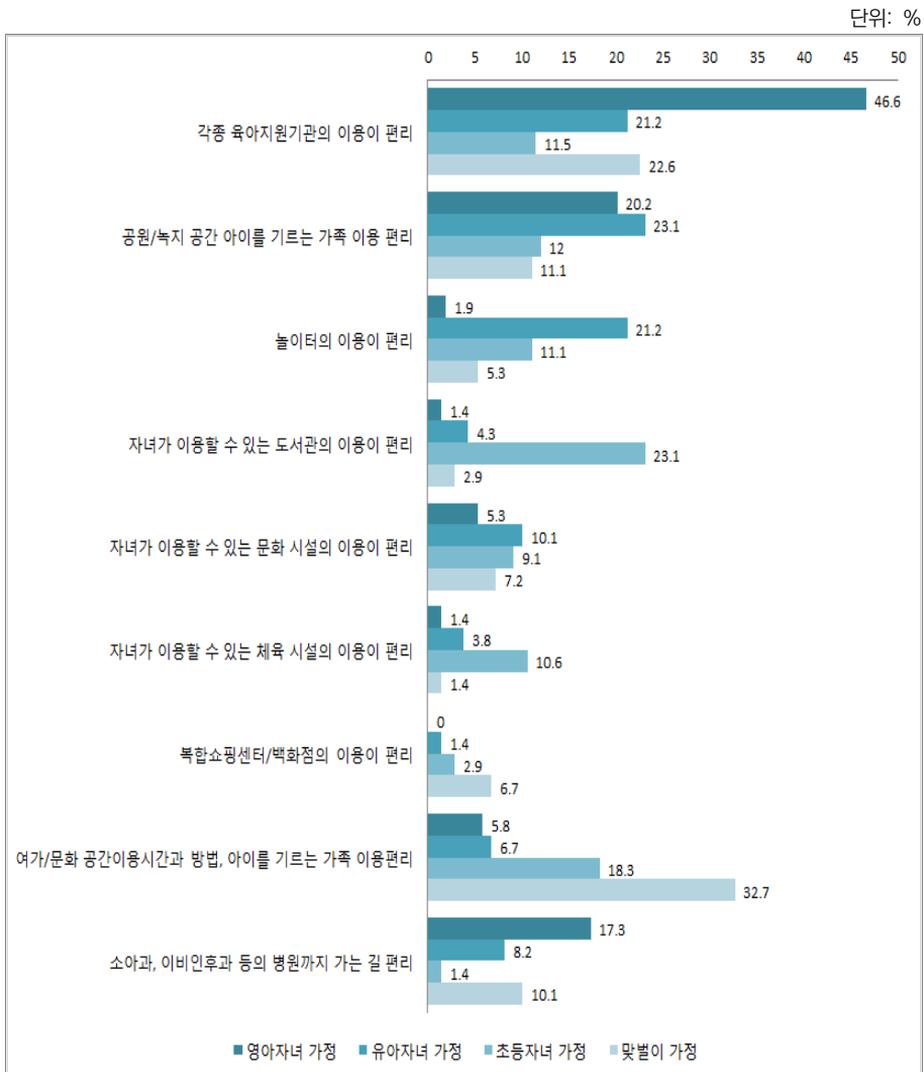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	계(수)
영아자녀 가정	1.4	0.0	5.8	17.3	100.0 (208)
유아자녀 가정	3.8	1.4	6.7	8.2	100.0 (208)
초등자녀 가정	10.6	2.9	18.3	1.4	100.0 (208)
맞벌이 가정	1.4	6.7	32.7	10.1	100.0 (20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그림 VI-2-9]에서 각 가구별 특성이 보인다. 영아의 경우는 각종육아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유아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증가하는 특성으로 공원 녹지 공간의 이용이 필수적임을,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을,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2-9]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 인천 서구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에는 <표 VI-2-41>과 같이 11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5점 척도로 그 중요도를 확인할 결과 그 중요도가 4.5점에 수렴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함’,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함’이 4.6점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도를 비교적 더 높이 평가하였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지님’,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등이 4.5점,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등은 4.4점으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육아하는 가정 수다 공간/소통의 장 마련’이라는 부분은 4.3점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으로 선정한 11개 문항들에 대해 살면서 경험한 마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5점 척도로 진단 평가한 결과가 <표 VI-2-42>이다. 물리적 환경 부분 또한 중요도의 평가보다 마을의 진단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적 잘 되어있다고 높이 평가된 문항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한 점’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한 점’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3.8점,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3.6점 등으로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함’ 2.5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2.8점으로 3점(보통이다)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정책수요자인 인천 서구 응답자들이 제시한 중요도와 현재 진단의 결과 또한 [그림 VI-2-10]과 같이 중요도는 높이 고려하나, 현재 마을의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2-4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구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지진거들 타고 다니기에 편리	아이들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마을(동네) 안에도 유해시설이 없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육아하는 가정/소통의 장 마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수)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전체	4.5 0.6	4.5 0.5	4.4 0.6	4.6 0.6	4.5 0.6	4.6 0.5	4.6 0.6	4.6 0.6	4.3 0.7	4.4 0.6	(208)
지역 연령											
영아	4.5 0.5	4.6 0.5	4.5 0.6	4.6 0.5	4.6 0.5	4.8 0.5	4.7 0.5	4.7 0.5	4.3 0.7	4.4 0.6	(68)
유아	4.5 0.5	4.4 0.5	4.3 0.6	4.5 0.6	4.4 0.6	4.6 0.6	4.5 0.6	4.5 0.7	4.3 0.7	4.3 0.7	(70)
초등 저학년	4.5 0.6	4.5 0.6	4.3 0.6	4.7 0.5	4.5 0.6	4.6 0.6	4.5 0.6	4.5 0.7	4.4 0.7	4.4 0.6	(70)
F	0.2	1.5	1.5	2.2(a)	3.4*(a)	2.7(a)	2.3(e)	2.1(a)	0.7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 0.6	4.5 0.6	4.3 0.6	4.5 0.6	4.4 0.6	4.6 0.5	4.4 0.6	4.4 0.8	4.2 0.7	4.3 0.6	(64)
맞벌이 아님	4.5 0.5	4.5 0.5	4.4 0.6	4.6 0.5	4.6 0.6	4.7 0.6	4.6 0.6	4.6 0.6	4.4 0.7	4.4 0.6	(144)
t	-0.5	0.1	-1.4	-1.9	-1.7	-1.1	-2.2*	-2.0	-1.7	-1.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4 0.5	4.4 0.5	4.3 0.6	4.6 0.5	4.5 0.7	4.6 0.6	4.6 0.6	4.7 0.5	4.3 0.7	4.4 0.6	(43)
400~600만원	4.5 0.6	4.5 0.6	4.4 0.6	4.6 0.5	4.6 0.6	4.7 0.5	4.6 0.5	4.6 0.7	4.4 0.7	4.4 0.6	(117)
600만원 이상	4.5 0.5	4.5 0.6	4.3 0.6	4.5 0.6	4.4 0.6	4.5 0.6	4.4 0.6	4.5 0.7	4.3 0.7	4.4 0.6	(48)
F	0.4	0.4	0.1	1.9	1.7	2.0(a)	3.1*	1.6(a)	0.1	0.0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 $p < .05$

〈표 VI-2-42〉 아이 키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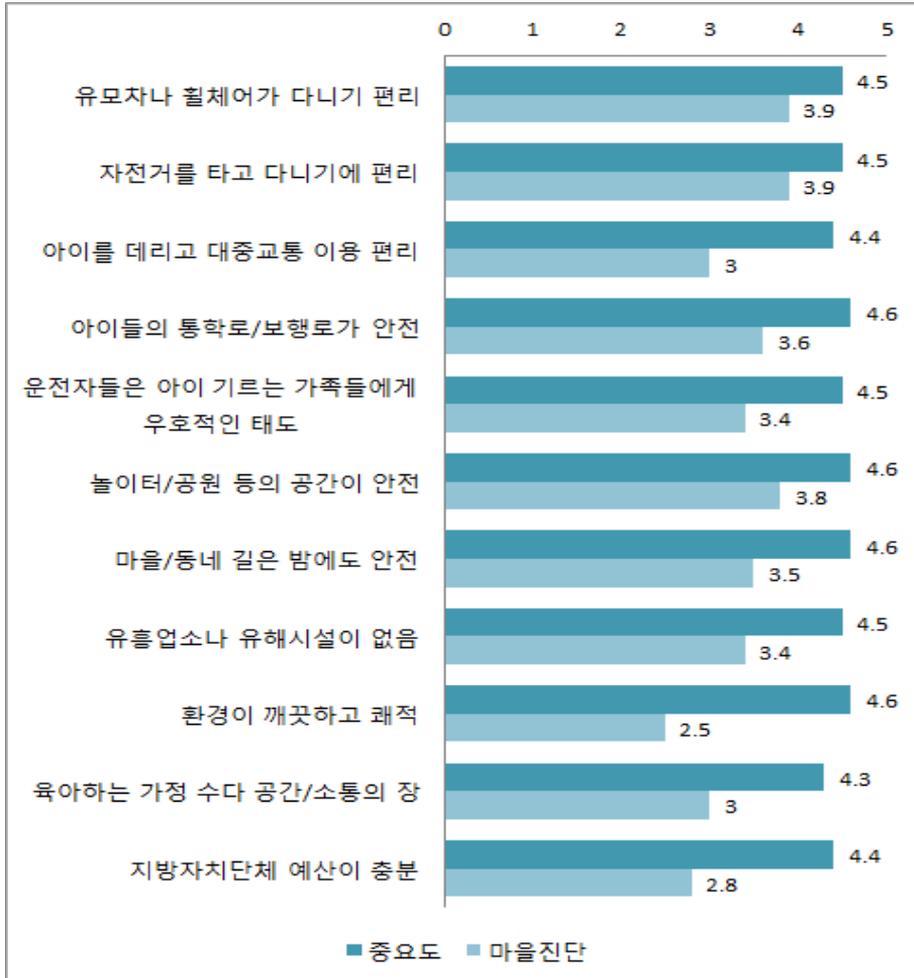
구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아이들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운전자들은 아이 키르느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마을(동네) 안건	우울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육아하는 가정 공간/소통의 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수)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표준 평균 편차	
전체	3.9 0.7	3.9 0.7	3.0 0.9	3.6 0.8	3.4 0.7	3.8 0.7	3.5 0.7	3.4 0.9	2.5 1.1	3.0 0.9	2.8 0.9	(208)
지역 연령												
영아	4.0 0.7	3.9 0.7	3.1 1.1	3.6 0.8	3.4 0.7	3.8 0.6	3.6 0.7	3.5 0.9	2.5 1.2	2.9 0.9	2.8 0.9	(68)
유아	3.8 0.7	3.8 0.7	2.9 0.8	3.6 0.8	3.3 0.7	3.8 0.7	3.5 0.7	3.4 0.8	2.5 1.0	3.0 1.0	2.8 0.8	(70)
초등 저학년	4.0 0.7	4.0 0.7	3.1 0.9	3.7 0.7	3.5 0.8	3.9 0.8	3.5 0.8	3.4 0.9	2.5 1.0	3.0 0.9	2.7 0.9	(70)
F	0.8	1.3	1.6(a)	0.2	1.0	0.3	0.6	0.1	0.0	0.3	0.1	
맛별이 여부												
맛별이	4.0 0.7	3.9 0.6	3.1 1.0	3.6 0.8	3.4 0.8	4.0 0.7	3.6 0.7	3.5 0.8	2.5 1.1	3.1 0.9	2.9 1.0	(64)
맛별이 아님	3.9 0.7	3.9 0.7	3.0 0.9	3.6 0.7	3.4 0.7	3.7 0.7	3.5 0.8	3.4 0.9	2.5 1.1	2.9 0.9	2.8 0.8	(144)
t	0.6	0.2	0.6	-0.2	0.1	2.1*	1.6	0.5	0.4	1.1	0.8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8 0.7	3.8 0.7	3.0 0.8	3.7 0.7	3.4 0.7	3.7 0.6	3.4 0.7	3.3 0.9	2.3 1.1	2.9 0.9	2.7 0.8	(43)
400~600만원	4.0 0.6	3.9 0.6	3.1 0.9	3.6 0.8	3.4 0.7	3.8 0.7	3.6 0.8	3.4 0.9	2.5 1.1	3.0 0.9	2.8 0.9	(117)
600만원 이상	3.8 0.8	3.9 0.7	2.9 1.0	3.7 0.8	3.4 0.8	3.9 0.8	3.5 0.7	3.5 0.8	2.5 1.0	3.1 0.9	2.9 0.8	(48)
F	1.4(a)	0.4	0.5	0.1	0.1	0.9	0.8	0.5	0.7	1.0	1.1(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 $p < .05$

[그림 VI-2-1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제시된 문항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흡연구역지정 확대', '도로와 인도 구별을 명확하게 표시', '놀이공간의 친환경 재질 사용', '매립지에서 냄새 등 제거조치', '가로등, CCTV 설치 많이 해서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로 선정된 9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43>과 같다.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함'이 52.4%로 단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고, 다음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19.7%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47.6%로 단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고, 다음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함'이 12.5%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30.8%,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26.4%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36.5%,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13%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2-4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인천 서구

단위: %(명)

구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영아자녀 가정	52.4	0.0	3.4	3.4	1.4	7.2
유아자녀 가정	1.0	6.7	1.0	9.6	7.7	47.6
초등자녀 가정	0.0	6.7	1.9	30.8	2.9	26.4
맞벌이 가정	0.5	7.2	13.0	5.8	3.4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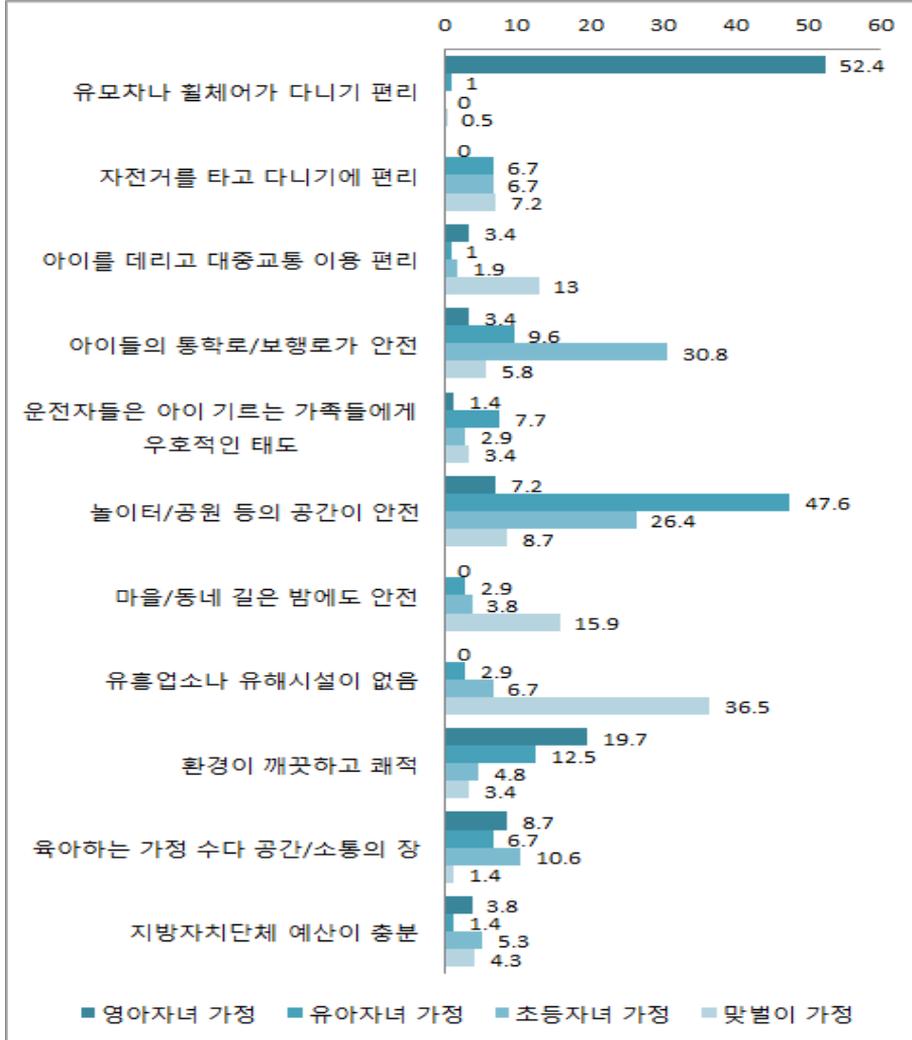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육아하는 가정 수다 공간/소통의 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계(수)
영아자녀 가정	0.0	0.0	19.7	8.7	3.8	100.0 (208)
유아자녀 가정	2.9	2.9	12.5	6.7	1.4	100.0 (208)
초등자녀 가정	3.8	6.7	4.8	10.6	5.3	100.0 (208)
맞벌이 가정	15.9	36.5	3.4	1.4	4.3	100.0 (20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그림 VI-2-11]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인천 서구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는 <표 VI-2-44>와 같이 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5점 척도로 그 중요도를 확인할 결과 그 중요도가 4.3점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부분이 4.4점으로 다소 높았다.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등은 4.3점으로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는 부분은 4.2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4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 인식: 인천 서구

단위: 점(명)

구분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공동체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3	0.6	4.3	0.6	4.2	0.6	4.3	0.7	4.4	0.6	(208)
자녀 연령											
영아	4.3	0.6	4.4	0.7	4.3	0.6	4.4	0.7	4.5	0.6	(68)
유아	4.2	0.6	4.3	0.6	4.1	0.6	4.3	0.6	4.3	0.6	(70)
초등 저학년	4.3	0.6	4.3	0.6	4.3	0.6	4.3	0.7	4.4	0.7	(70)
F	0.9		0.3		1.4		0.5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	0.5	4.2	0.7	4.2	0.6	4.2	0.7	4.3	0.6	(64)
맞벌이 아님	4.3	0.6	4.4	0.6	4.2	0.6	4.3	0.7	4.4	0.6	(144)
t	-1.5		-1.5		-0.4		-1.1		-1.3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3	0.6	4.4	0.7	4.2	0.6	4.3	0.7	4.4	0.6	(43)
400~600만원	4.3	0.6	4.3	0.6	4.3	0.6	4.3	0.7	4.4	0.6	(117)
600만원 이상	4.3	0.6	4.3	0.7	4.2	0.7	4.4	0.6	4.4	0.6	(48)
F	0.1		0.2		0.3		0.3		0.0		
주택 유형											
아파트	4.3	0.6	4.3	0.6	4.2	0.6	4.3	0.7	4.4	0.6	(206)
연립/다세대주택	4.0	-	4.0	-	3.0	-	3.0	-	4.0	-	(1)
단독주택	4.0	-	4.0	-	4.0	-	4.0	-	4.0	-	(1)
F	0.3(a)		0.2(a)		2.0(a)		2.0(a)		0.4(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선정한 5개 문항들에 대해 살면서 경험한 마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5점 척도

로 진단 평가한 결과가 <표 VI-2-45>이다. 중요도의 평가는 4.3점에 수렴하였던 것과 달리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진단은 그리 높지 않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 높이 평가된 문항은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부분이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1점,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이라는 부분이 3점 등으로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등은 2.8점 등으로 평가 정도가 높지 않았다.

<표 VI-2-4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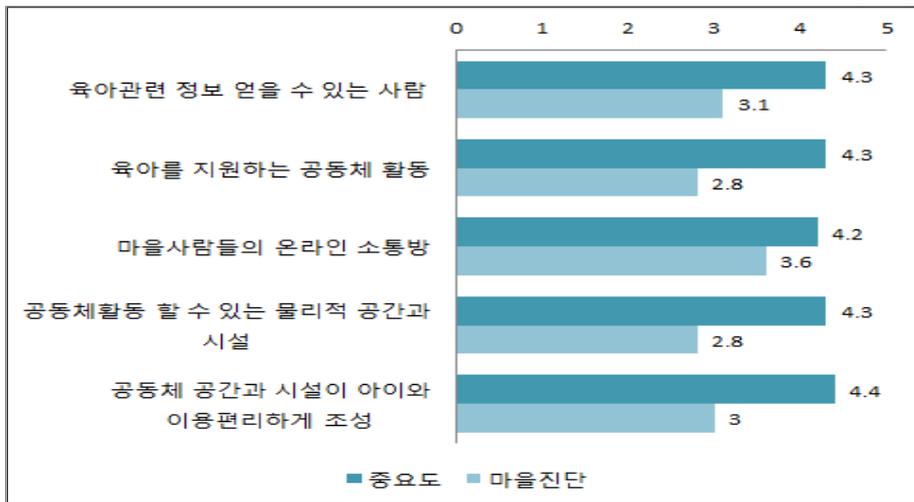
구분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공동체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1	0.9	2.8	0.9	3.6	0.8	2.8	1.0	3.0	0.8	(208)
자녀 연령											
영아	3.1	0.9	2.8	0.8	3.7	0.8	2.8	0.9	3.1	0.8	(68)
유아	3.0	0.9	2.8	0.9	3.5	0.8	2.7	1.0	3.0	0.7	(70)
초등 저학년	3.4	0.9	3.0	0.9	3.7	0.9	2.8	0.9	3.0	0.8	(70)
F	4.1*		1.3		1.3		0.1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	0.9	3.0	0.9	3.7	0.8	2.7	0.9	3.1	0.7	(64)
맞벌이 아님	3.0	0.9	2.8	0.8	3.6	0.8	2.8	1.0	3.0	0.8	(144)
t	2.1*		1.7		1.0		-0.5		0.5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0	1.0	2.8	0.8	3.5	0.9	2.7	1.0	2.9	0.8	(43)
400~600만원	3.1	0.9	2.8	0.9	3.6	0.8	2.8	0.9	3.0	0.8	(117)
600만원 이상	3.4	0.9	3.0	0.8	3.6	0.8	2.7	1.0	3.1	0.7	(48)
F	2.0		1.4		0.3		0.5		0.7		
주택 유형											
아파트	3.1	0.9	2.8	0.9	3.6	0.8	2.8	1.0	3.0	0.8	(206)
연립/다세대주택	3.0	-	2.0	-	3.0	-	3.0	-	3.0	-	(1)
단독주택	3.0	-	3.0	-	4.0	-	3.0	-	3.0	-	(1)
F	0.0(a)		0.5(a)		0.4(a)		0.1(a)		0.0(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 $p < .0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정책수요자인 인천 서구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와 현재 진단의 결과 또한 [그림 VI-2-12]와 같이 중요도는 높고 고려하나, 현재 마을의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격차가 큰 부분이 바로 정책적 보완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임을 시사한다.

[그림 VI-2-1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과 진단: 인천 서구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제시된 5개의 문항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기타 의견으로는 ‘육아정보 및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해주는 인적지원이 필요’, ‘플리마켓 등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학습과 학교소식 육아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엄마들의 자율적 만남의 광장 조성’, ‘전문육아인과의 상담 기회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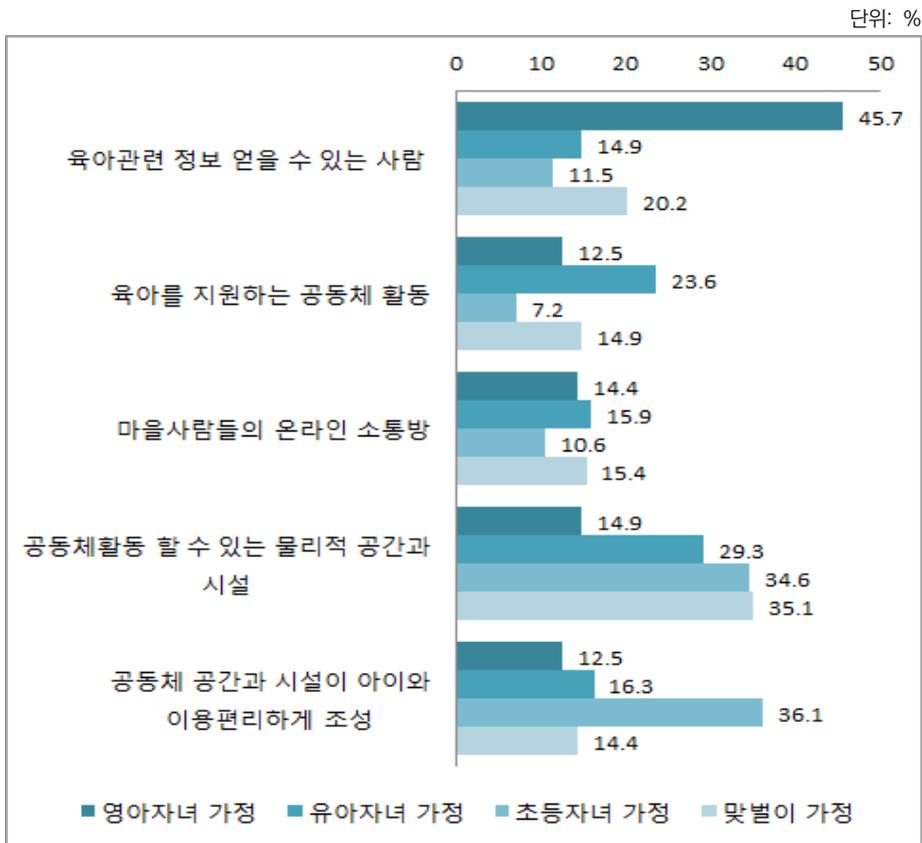
인천 서구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선정한 5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46>과 같다.

〈표 VI-2-46〉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인천 서구
단위: %(명)

구분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공동체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계(수)
영아자녀 가정	45.7	12.5	14.4	14.9	12.5	100.0 (208)
유아자녀 가정	14.9	23.6	15.9	29.3	16.3	100.0 (208)
초등자녀 가정	11.5	7.2	10.6	34.6	36.1	100.0 (208)
맞벌이 가정	20.2	14.9	15.4	35.1	14.4	100.0 (208)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그림 VI-2-1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인천 서구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5.7%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29.3%,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23.6%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36.1%,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34.6%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35.1%,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0.2%로 높게 나타났다.

다. 시흥시

1) 응답자 특성

시흥시도 인천 서구 지역과 동일한 시기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207명이고,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표 VI-2-47>과 같다.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현황과 요구에 대한 응답을 전반적으로 듣기 위해서 응답자는 자녀의 연령별로 고르게 할당되어 모집되었다. 가구의 근로 상황별로도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맞벌이·외벌이 가구도 고르게 안배하여 모집하였다. 취업부모의 근로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취업부의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8시간이 57.5%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10시간 일한다는 응답도 36.3%에 달하였다. 취업모의 하루 근무 시간의 경우 6시간~8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아 부의 평균 근로 시간과 다소 대조를 이뤘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도 39.1%를 차지하였다. 본 조사에는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육아친화마을 조성 요구가 다소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괄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의 80.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다수의 응답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도 각각 14.5%와 4.3%를 차지하여 시흥시의 경우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47〉 응답자 분포표: 경기 시흥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경기도 시흥시〉	100.0 (207)		
자녀구분		부 하루 근무 시간	
영아	32.9 (68)	6시간 이하	0.5 (1)
유아	31.9 (66)	6시간~8시간 이하	57.5 (119)
초등 저학년	35.3 (73)	8시간~10시간 이하	36.3 (75)
가구 소득		10시간 초과	5.8 (12)
400만원 미만	43.0 (89)	부 하루 통근시간(편도)	
400~600만원	39.1 (81)	30분 이하	76.3 (158)
600만원 이상	17.9 (37)	30분~1시간	21.3 (44)
맞벌이 여부(1)		1시간 초과	2.4 (5)
외벌이	41.5 (121)	모 하루 근무 시간 ^{주1)}	
맞벌이	58.5 (86)	4시간 이하	11.6 (10)
맞벌이 여부(2)		4시간~6시간 이하	9.4 (8)
부모 모두 취업	41.5 (86)	6시간~8시간 이하	62.8 (54)
부 취업, 모 미취업	58.5 (121)	8시간~10시간 이하	13.9 (12)
주택 유형		10시간 초과	2.3 (2)
아파트	80.7 (167)	모 하루 통근시간(편도) ^{주2)}	
연립/다세대주택	14.5 (30)	30분 이하	88.4 (76)
단독주택	4.3 (9)	30분~1시간 이하	8.2 (7)
기타	0.5 (1)	1시간 초과	3.5 (3)

주: 1)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2) 모 취업자 86명에 한정된 분석임

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이 추구하는 가치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로 추구하는 가치'에는 〈표 VI-2-48〉과 같이 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시흥시와 인천 서구와 비교해서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성평등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하고,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서 인정'하며,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매우 근소한 차이지만 '양성평등 문화를 지향'하고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양성평등하게 제공' 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각각 4.3점과 4.2점으로 조사되었다. 선정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대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하다고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2-4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환대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하게 제공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4	0.6	4.4	0.6	4.4	0.7	4.3	0.6	4.2	0.6	(207)
자녀 연령											
영아	4.5	0.6	4.4	0.6	4.4	0.7	4.4	0.6	4.2	0.6	(68)
유아	4.3	0.7	4.4	0.5	4.3	0.7	4.1	0.6	4.1	0.6	(66)
초등 저학년	4.4	0.6	4.4	0.6	4.4	0.6	4.3	0.6	4.2	0.6	(73)
<i>F</i>	1.5		0.0		0.2		5.1**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	0.6	4.3	0.6	4.3	0.7	4.3	0.6	4.1	0.6	(86)
맞벌이 아님	4.4	0.6	4.4	0.6	4.5	0.6	4.3	0.6	4.2	0.6	(121)
<i>t</i>	-1.0		-1.4		-2.0*		0.2		-1.6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3	0.6	4.4	0.6	4.5	0.6	4.3	0.6	4.2	0.6	(89)
400~600만원	4.4	0.6	4.4	0.6	4.4	0.6	4.3	0.6	4.2	0.7	(81)
600만원 이상	4.5	0.6	4.3	0.6	4.1	0.8	4.2	0.7	4.1	0.5	(37)
<i>F</i>	0.9		0.5		3.5*		0.6		0.8(a)		
주택 유형											
아파트	4.4	0.6	4.4	0.6	4.4	0.6	4.3	0.6	4.2	0.6	(167)
연립/다세대주택	4.5	0.6	4.5	0.6	4.4	0.7	4.3	0.6	4.4	0.6	(30)
단독주택	4.7	0.5	4.4	0.5	4.3	0.7	4.3	0.5	4.1	0.6	(9)
기타	4.0	-	4.0	-	5.0	-	4.0	-	4.0	-	(1)
<i>F</i>	1.4		1.0		0.4		0.2		1.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로 추구하는 가치' 관련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문항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3점대로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점수가 낮았다. '가족들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양성하게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평가가 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 '양성평등한 문화를 지향'한다는 응답은 동일하게 3.6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는 응답은 3.7점으로 아주 근소하게 높았지만 다른 항목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I-2-49〉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환대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하게 제공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7	0.5	3.6	0.6	3.6	0.7	3.6	0.6	3.5	0.7	(207)
자녀 연령											
영아	3.7	0.5	3.6	0.6	3.5	0.6	3.6	0.6	3.6	0.6	(68)
유아	3.7	0.5	3.7	0.6	3.7	0.7	3.6	0.7	3.5	0.7	(66)
초등 저학년	3.6	0.5	3.6	0.7	3.6	0.7	3.5	0.6	3.3	0.8	(73)
<i>F</i>	2.2		1.4		1.0		0.3		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	0.5	3.7	0.6	3.6	0.7	3.5	0.7	3.5	0.8	(86)
맞벌이 아님	3.6	0.6	3.6	0.6	3.6	0.7	3.6	0.6	3.5	0.6	(121)
<i>t</i>	1.0		0.3		0.4		-0.1		0.3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6	0.6	3.6	0.7	3.4	0.7	3.5	0.7	3.3	0.7	(89)
400~600만원	3.7	0.5	3.7	0.7	3.8	0.6	3.6	0.6	3.5	0.7	(81)
600만원 이상	3.8	0.4	3.6	0.5	3.6	0.5	3.6	0.6	3.7	0.6	(37)
<i>F</i>	3.8*(a)		1.2		6.3**(a)		1.5		5.4**(a)		
주택 유형											
아파트	3.6	0.6	3.6	0.7	3.6	0.7	3.5	0.6	3.4	0.8	(167)
연립/다세대주택	3.7	0.5	3.8	0.5	3.6	0.6	3.7	0.6	3.6	0.5	(30)
단독주택	4.0	0.0	4.2	0.4	4.0	0.0	3.6	0.5	3.8	0.4	(9)
기타	4.0	-	4.0	-	4.0		4.0	-	4.0	-	(1)
<i>F</i>	1.6(a)		4.1**(a)		1.3(a)		1.1		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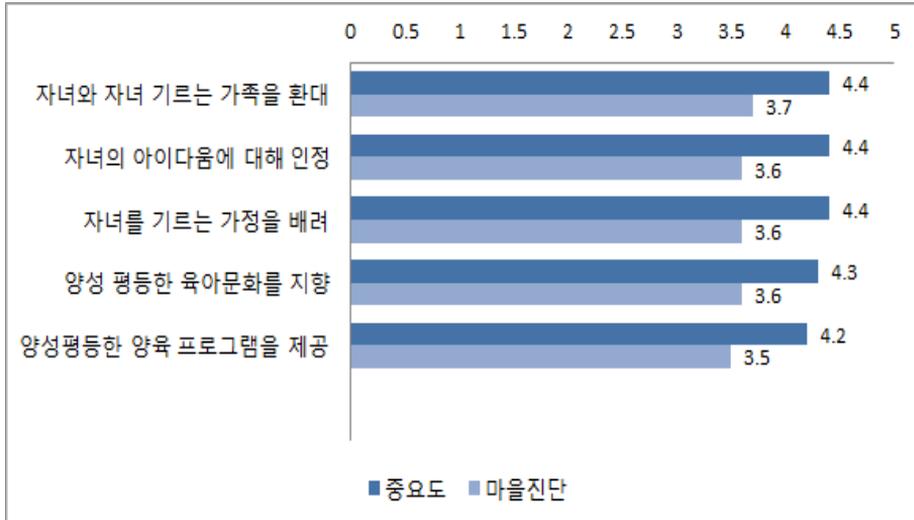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자면 [그림 VI-2-14]와 같다. 응답자가 거주지역에서 아이를 기르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는 항목에 대해 현재 응답자의 평가는 다소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문항 이외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달라'는 요구와 '아이에게 항상 친근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등의 응답이 나와 아이의 개별성에 대한 인정과 환대를 한 번 더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대하는 태도',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이웃 아이들도 잘 대해준다'고 하여 공동체적 육아의 가치도 표명하였다.

[그림 VI-2-1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로 선정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각각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50>과 같다. 인천 서구지역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 특성별로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가 차별화되게 도출되었다. 영아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5.6%로 그 뒤를 이었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5.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가정과 유사하게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 '양성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초등자녀를 둔 가정의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가족들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이 양성평등하게 제공'되었으

면 좋겠다는 응답이 21.3%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모든 가정들이 전반적으로 높게 추구하는 가치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에 대한 가치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양성평등한 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I-2-50〉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경기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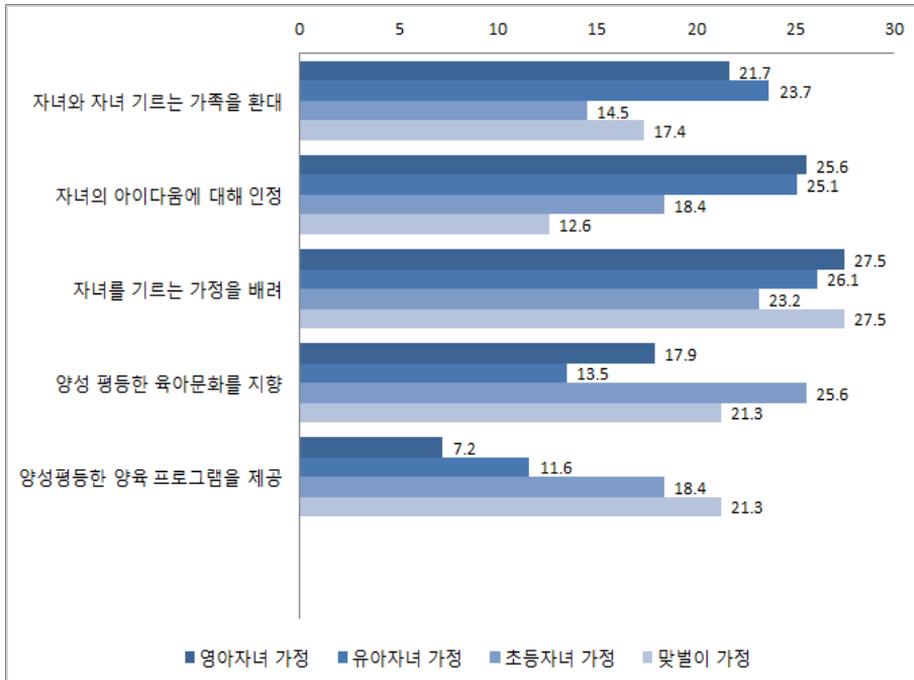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자녀와 자녀 기르는 가족을 환대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평등하게 제공	계(수)
영아자녀 가정	21.7	25.6	27.5	17.9	7.2	100.0 (207)
유아자녀 가정	23.7	25.1	26.1	13.5	11.6	100.0 (207)
초등자녀 가정	14.5	18.4	23.2	25.6	18.4	100.0 (207)
맞벌이 가정	17.4	12.6	27.5	21.3	21.3	100.0 (2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그림 VI-2-1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에는 <표 VI-2-51>과 같이 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인천 서구지역과 비교하여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아이 비율’,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정도는 시흥시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시흥시에서는 ‘보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성’과 ‘보육기관 가는 길까지의 안전도’가 인천 서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비중 있게 요구되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4.4~4.5점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I-2-5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		보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5	0.6	4.5	0.6	4.4	0.6	4.4	0.6	4.4	0.6	(207)
자녀 연령											
영아	4.5	0.6	4.6	0.6	4.4	0.6	4.4	0.6	4.3	0.5	(68)
유아	4.4	0.7	4.4	0.6	4.4	0.7	4.3	0.6	4.4	0.6	(66)
초등 저학년	4.5	0.6	4.5	0.6	4.4	0.7	4.4	0.6	4.4	0.6	(73)
<i>F</i>	0.2		1.3		0.2		0.5		1.2(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	0.7	4.4	0.6	4.4	0.7	4.3	0.6	4.4	0.6	(86)
맞벌이 아님	4.5	0.6	4.5	0.6	4.4	0.6	4.4	0.6	4.4	0.5	(121)
<i>t</i>	-0.3		-1.3		0.8		-1.0		0.3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5	0.7	4.6	0.7	4.3	0.6	4.3	0.6	4.4	0.6	(89)
400~600만원	4.5	0.6	4.4	0.5	4.4	0.6	4.4	0.5	4.4	0.5	(81)
600만원 이상	4.2	0.7	4.4	0.6	4.6	0.6	4.4	0.6	4.3	0.6	(37)
<i>F</i>	2.8		1.0		2.1		0.7		0.5		
주택 유형											
아파트	4.4	0.6	4.4	0.6	4.4	0.7	4.4	0.6	4.3	0.6	(167)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		보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립/다세대주택	4.5	0.7	4.7	0.5	4.4	0.6	4.4	0.6	4.5	0.5	(30)
단독주택	5.0	0.0	4.8	0.4	4.2	0.4	4.0	0.0	4.7	0.5	(9)
기타	5.0	-	5.0	-	4.0	-	5.0	-	5.0	-	(1)
<i>F</i>	2.5(a)		2.4(a)		0.4(a)		1.7(a)		2.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해 살면서 경험한 마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 평가한 결과가 <표 VI-2-52>이다.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평가도 가치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요도에 비해 평가는 3점대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성',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성', '보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도'는 모두 동일하게 평균 3.6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소 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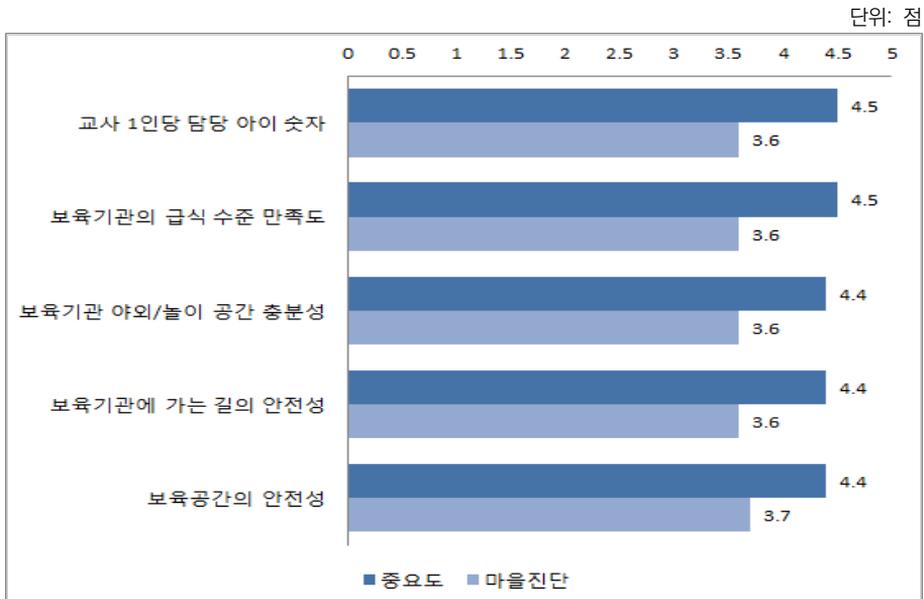
<표 VI-2-5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		보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	0.7	3.6	0.6	3.6	0.7	3.6	0.7	3.7	0.6	(207)
자녀 연령											
영아	3.7	0.5	3.6	0.6	3.6	0.7	3.6	0.6	3.7	0.6	(68)
유아	3.5	0.7	3.6	0.6	3.6	0.7	3.6	0.7	3.7	0.6	(66)
초등 저학년	3.5	0.8	3.5	0.6	3.6	0.8	3.5	0.7	3.6	0.5	(73)
<i>F</i>	2.1(a)		0.4		0.0		0.6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	0.6	3.6	0.6	3.6	0.8	3.5	0.7	3.7	0.6	(86)
맞벌이 아님	3.6	0.7	3.6	0.6	3.6	0.7	3.6	0.6	3.7	0.5	(121)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 아이의 숫자가 적절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보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		보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i>t</i>	0.0		-0.2		0.6		-0.6		0.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4	0.6	3.5	0.7	3.4	0.8	3.5	0.7	3.5	0.6	(89)
400~600만원	3.7	0.7	3.7	0.6	3.7	0.7	3.6	0.6	3.8	0.5	(81)
600만원 이상	3.8	0.5	3.6	0.5	3.8	0.5	3.7	0.6	3.7	0.5	(37)
<i>F</i>	4.7*(a)		1.0		7.6***(a)		1.4		9.2***(a)		
주택 유형											
아파트	3.6	0.7	3.6	0.6	3.6	0.8	3.6	0.7	3.6	0.6	(167)
연립/다세대주택	3.8	0.4	3.6	0.5	3.7	0.6	3.7	0.6	3.7	0.5	(30)
단독주택	4.0	0.0	3.8	0.4	3.9	0.3	3.7	0.5	4.0	0.0	(9)
기타	4.0		4.0		3.0	-	3.0	-	3.0	-	(1)
<i>F</i>	2.1(a)		0.5(a)		0.9(a)		0.5		1.7(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01$.

[그림 VI-2-1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제시된 문항 이외에, 보육기관 이후 자녀와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실내·외 놀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하교 길에 자녀와 함께 동행 귀가할 수 있는 인력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로 선정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53>과 같다. 해당 항목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가치 항목과 비교하여 각 가정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이 자녀의 연령별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자녀의 경우는 ‘보육기관의 교사 대 보육 아동 비율’에 대해서 29.0%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유아 자녀의 경우는 ‘보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의 충분성’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보육기관에 가는 길의 안정성’에 대해서 29.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응답자들은 자녀가 성장발달에 따른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차별화된 요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영아에서 초등학교 자녀로 성장할수록 독립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반경이 넓어지고 그에 따른 요구도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라는 항목에 가장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홀벌이 가정에 비해 아이를 대리 양육하는 시간이 길어 실내 생활의 안전성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2-5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경기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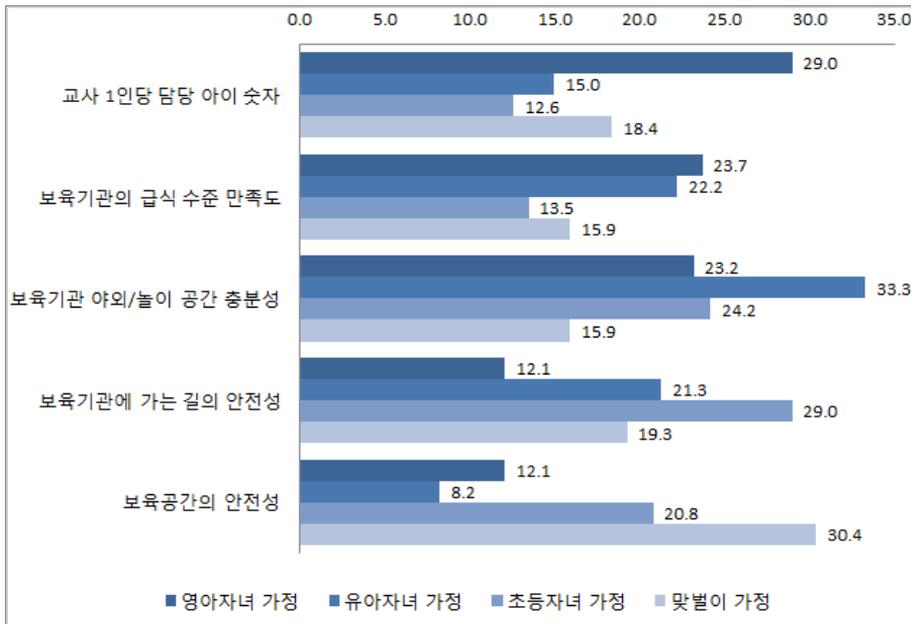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보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숫자	보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	보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	보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계(수)
영아자녀 가정	29.0	23.7	23.2	12.1	12.1	100.0 (207)
유아자녀 가정	15.0	22.2	33.3	21.3	8.2	100.0 (207)
초등자녀 가정	12.6	13.5	24.2	29.0	20.8	100.0 (207)
맞벌이 가정	18.4	15.9	15.9	19.3	30.4	100.0 (2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그림 VI-2-17〉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경기 시흥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시흥시에서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는 <표 VI-2-54>와 같이 1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인천 서구지역과 비교하여 시흥시에서는 ‘공원/녹지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존재’와 ‘소아과/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의 충분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에 인식은 평균적으로 4점대로 높게 나왔다. 특히 ‘각종 육아지원 기관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중요성이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4.1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가치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3점대로 낮게 평가되었다. ‘각종 육아지원기관 이용 편리성’과 ‘놀이터의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 3.7점으로 높은 반면,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3.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당 항목은 소득군 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 정책수요자인 시흥시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와 현재 진단의 결과는 [그림 VI-2-18]과 같이 여타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서비스 인프라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한 반면, 현재의 서비스 인프라 현황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관련 문항 이외의 추가 요구는 숲 체험 공간 조성 and 복합쇼핑센터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표 VI-2-54〉 아이 기르기에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각종 육아지원기관 이용 편리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가족이 기르는데 이용하기에 편리		공원/녹지공간에는 아이들이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		놀이터의 놀이감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수 있는 시설의 이용이 편리		복합쇼핑센터/배화점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가족이 기르는데 이용하기에 편리		소아과/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5	0.6	4.4	0.6	4.4	0.7	4.4	0.6	4.3	0.6	4.3	0.6	4.1	0.8	4.2	0.6	4.2	0.5	(207)
자녀 연령																			
영아	4.6	0.5	4.5	0.5	4.3	0.7	4.3	0.6	4.4	0.6	4.3	0.6	4.2	0.7	4.2	0.7	4.2	0.4	(88)
유아	4.4	0.6	4.4	0.5	4.5	0.7	4.3	0.6	4.3	0.6	4.3	0.6	4.1	0.8	4.3	0.6	4.3	0.5	(66)
초등 저학년	4.4	0.6	4.4	0.7	4.4	0.7	4.4	0.7	4.3	0.6	4.2	0.7	3.9	0.9	4.3	0.6	4.2	0.5	(73)
F	3.2*		0.9		0.7		0.4		0.0		0.1		1.7		0.6		0.9(e)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	0.6	4.3	0.7	4.3	0.7	4.3	0.6	4.3	0.6	4.2	0.6	3.9	0.8	4.3	0.6	4.2	0.5	(86)
맞벌이 아님	4.5	0.6	4.5	0.5	4.4	0.6	4.4	0.6	4.3	0.6	4.3	0.6	4.2	0.8	4.2	0.7	4.3	0.5	(121)
t	-1.1		-2.8*		-1.3		-0.3		-0.1		-1.4		-1.3		0.9		-1.2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6	0.6	4.4	0.7	4.6	0.6	4.4	0.6	4.4	0.6	4.4	0.6	4.2	0.7	4.2	0.7	4.2	0.5	(89)
400~600만원	4.4	0.6	4.5	0.5	4.4	0.7	4.4	0.6	4.3	0.6	4.2	0.5	4.0	0.9	4.3	0.6	4.3	0.5	(81)
600만원 이상	4.4	0.6	4.2	0.6	4.0	0.7	4.3	0.7	4.4	0.7	4.1	0.8	3.9	0.8	4.2	0.6	4.2	0.5	(37)
F	2.3		3.0*		11.2***		0.5		0.4		2.1(e)		3.4(e)		0.5		0.5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VI-2-55〉 아이 키르기 좋은 미술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진단: 경기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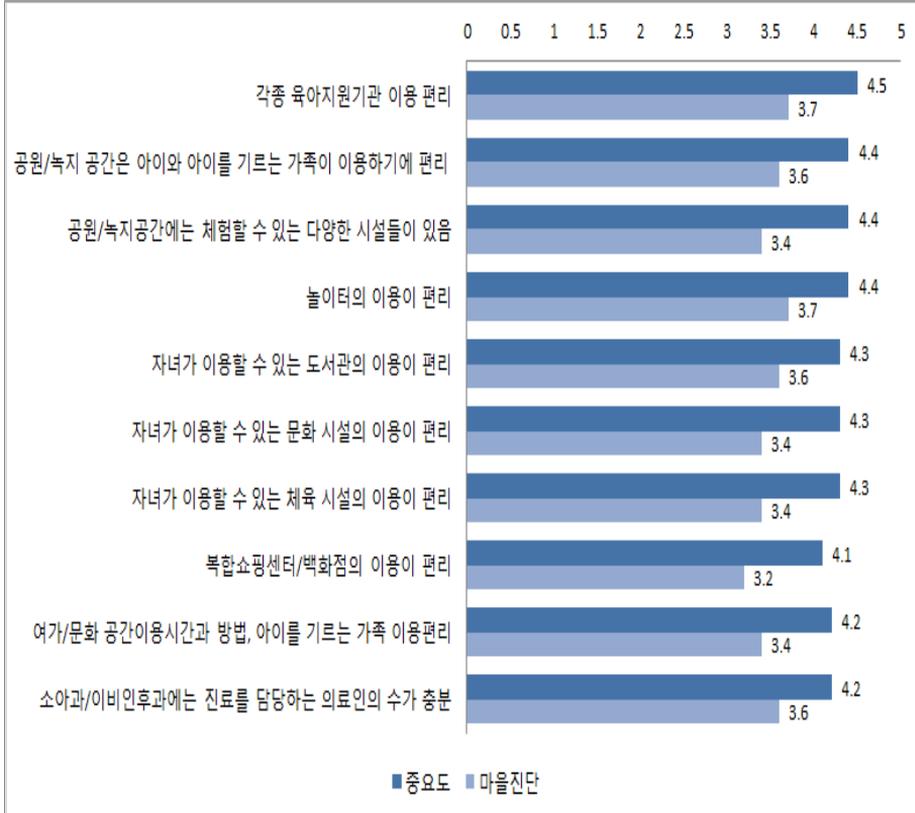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각종 육아지원기관 이용 편리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공원/녹지공간의 아이들 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소아과/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		(수)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평균		
전체	3.7	0.6	3.6	0.6	3.4	0.7	3.7	0.7	3.6	0.8	3.4	0.8	3.4	0.8	3.2	0.9	3.4	0.8	3.6	0.7	(207)
자녀 연령																					
영아	3.8	0.6	3.7	0.6	3.5	0.8	3.8	0.7	3.5	0.8	3.4	0.8	3.4	0.8	3.3	1.0	3.4	0.8	3.6	0.8	(68)
유아	3.6	0.7	3.6	0.6	3.4	0.7	3.7	0.7	3.6	0.8	3.4	0.7	3.5	0.8	3.1	0.9	3.5	0.7	3.6	0.7	(66)
초등 저학년	3.6	0.6	3.6	0.7	3.3	0.7	3.7	0.7	3.6	0.8	3.5	0.9	3.4	0.8	3.3	0.9	3.3	0.8	3.6	0.7	(73)
F	1.1		0.9		1.0		0.4		0.2		0.3		0.3		0.9		0.8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	0.7	3.7	0.6	3.3	0.7	3.7	0.8	3.6	0.8	3.4	0.7	3.5	0.8	3.2	1.0	3.5	0.8	3.7	0.6	(86)
맞벌이 아님	3.7	0.6	3.6	0.7	3.4	0.7	3.7	0.7	3.6	0.8	3.4	0.9	3.4	0.8	3.3	0.8	3.3	0.7	3.5	0.7	(121)
t	0.0		0.4		-1.3		-0.8		0.4		0.5		0.9		-0.4		1.0		1.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6	0.7	3.6	0.7	3.3	0.8	3.6	0.7	3.5	0.8	3.2	0.8	3.3	0.8	3.0	0.9	3.2	0.8	3.4	0.8	(89)
400~600만원	3.7	0.6	3.7	0.6	3.5	0.7	3.8	0.7	3.7	0.8	3.6	0.8	3.5	0.9	3.4	0.8	3.4	0.7	3.8	0.6	(81)
600만원 이상	3.7	0.5	3.6	0.6	3.4	0.6	3.7	0.7	3.6	0.9	3.4	0.7	3.5	0.8	3.4	0.9	3.7	0.8	3.7	0.6	(37)
F	1.0(a)		0.8		2.8		1.1		1.3		3.7*		2.3		4.1*		5.6**		7.3***(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I-2-18]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로 선정한 10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56>과 같다. 각 자녀의 연령별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졌다. 영아자녀를 둔 '가정의 각종 육아지원 기관의 이용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1.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유아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의 편리성'과 '공원/녹지 공간의 다양한 체험

시설'에 22.7%와 20.8%로 각각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는 '공원/녹지 공간', '놀이터' 등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뿐 아니라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도 골고루 10%대 이상의 응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는 육아지원기관, 공원/녹지 공간/문화시설의 이용의 편리성에 요구의 방점이 찍혀있다. 맞벌이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편리성 부분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2-56〉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경기 시흥
단위: %(명)

구분	각종 육아지원기관 이용 편리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공원/녹지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영아자녀 가정	25.6	21.7	17.4	11.1	2.9	5.8
유아자녀 가정	9.7	22.7	20.8	19.3	6.8	5.8
초등자녀 가정	7.2	12.1	16.9	15.0	13.5	15.0
맞벌이 가정	20.8	11.1	16.4	6.8	9.7	14.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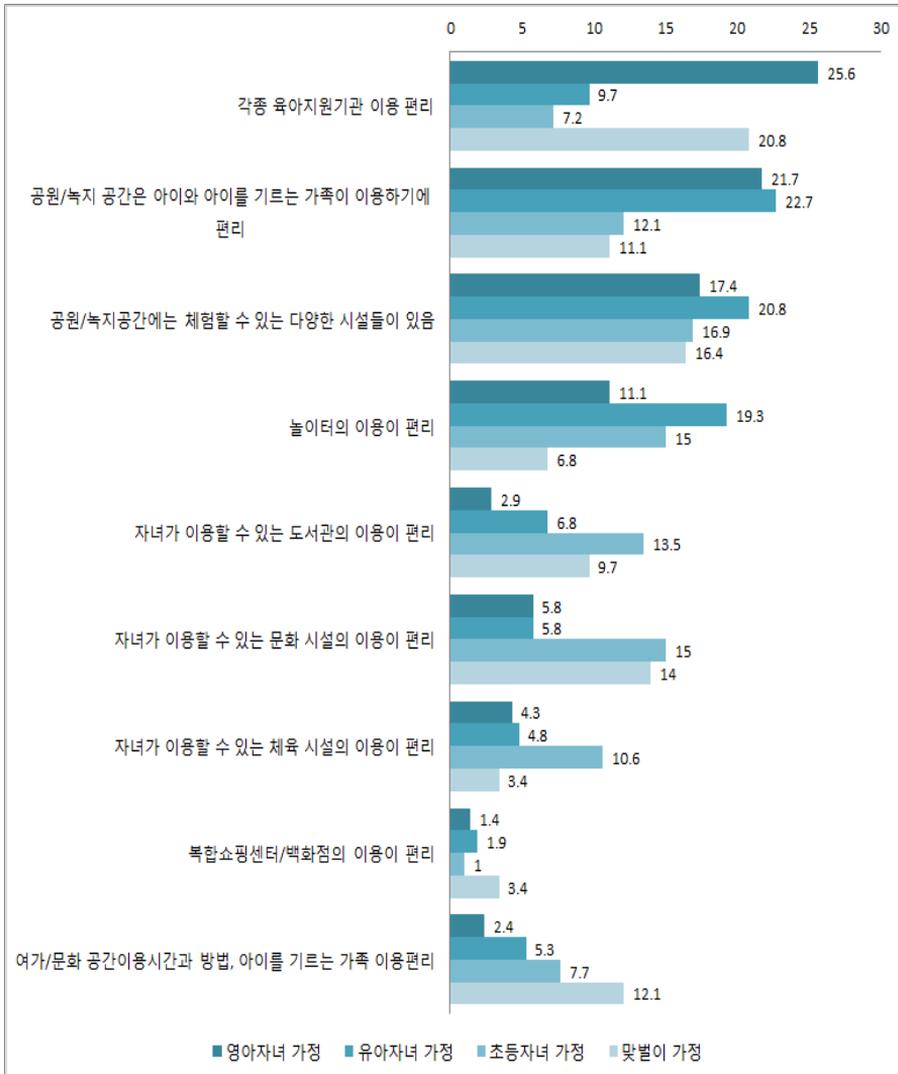
구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소아과/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	계(수)
영아자녀 가정	4.3	1.4	2.4	7.2	100.0(207)
유아자녀 가정	4.8	1.9	5.3	2.9	100.0(207)
초등자녀 가정	10.6	1.0	7.7	1.0	100.0(207)
맞벌이 가정	3.4	3.4	12.1	2.4	100.0(2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시화하면 다음 [그림 VI-2-19]와 같다. 시흥 지역의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실내놀이터나 북카페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보육·교육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공원/녹지·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터의 경우 안전진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안전진단표를 공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림 VI-2-19]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경기 시흥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시흥시에서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에는 <표 VI-2-57>과 같이 11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인천 서구지역과 비교해서는 ‘경찰 등 방범인력의 순찰 강화’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었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의 여러 항목 중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의 안전성’과 ‘야간의 마을(동네) 길 안전성’에 부분에 평균 4.5점을 부여하여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반면, ‘육아하는 가정 수다 공간/소통의 장 마련’에 대한 중요도에는 평균 4.1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평균 4.3점~4.4점으로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행도로나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영아일수록 높은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영아자녀를 둔 가정, 4.5점,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 4.2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진단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에 비해 평가 점수는 낮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은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에 3.2점을 부여하여 해당 부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육아하는 가정의 수다 공간/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균 3.3점으로 낮은 점수로 평가하였다. 다른 항목의 경우는 3.4점~3.7점으로 다소 간의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각 유형별로 항목별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야간의 마을(동네) 길의 안전성’과 ‘경찰 등 방범 인력 등의 잦은 순찰’ 등 치안안전에 관련 항목에서 대한 평가가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인식을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VI-2-20]과 같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약 1점씩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도와 진단 간의 가장 큰 편차가 있는 항목은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에 대한 항목이었으나 모든 항목들이 비슷한 수준이다.

〈표 VI-2-57〉 아이 기르기에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우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아이들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데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	경찰 등 불법 인력이 자주 순찰.	우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육아하는 가정 수다공간 /소통의 장 마련	지방자치 단체 예산이 충분	(수)
	평균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	
전체	4.3 0.7	4.3 0.6	4.4 0.6	4.4 0.6	4.4 0.6	4.5 0.6	4.5 0.6	4.4 0.6	4.3 0.6	4.4 0.6	4.1 0.7	4.3 0.6	(207)
지역 연령													
영아	4.5 0.6	4.3 0.6	4.4 0.6	4.3 0.6	4.3 0.6	4.4 0.6	4.4 0.6	4.3 0.6	4.3 0.6	4.3 0.6	4.1 0.6	4.3 0.5	(68)
유아	4.2 0.6	4.3 0.6	4.4 0.7	4.4 0.6	4.3 0.7	4.6 0.6	4.5 0.6	4.4 0.6	4.3 0.6	4.5 0.7	4.1 0.7	4.2 0.6	(66)
초등저학년	4.2 0.7	4.3 0.7	4.4 0.7	4.5 0.6	4.4 0.6	4.5 0.7	4.5 0.6	4.4 0.6	4.4 0.7	4.4 0.6	4.2 0.8	4.3 0.6	(73)
F	6.1**	0.0	0.1	1.7	0.8	2.5	1.0	0.4	1.2	1.3	0.7(e)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 0.7	4.3 0.7	4.4 0.7	4.4 0.7	4.3 0.7	4.5 0.7	4.5 0.6	4.4 0.7	4.3 0.6	4.4 0.7	4.1 0.7	4.2 0.6	(86)
맞벌이 아님	4.4 0.6	4.3 0.6	4.4 0.6	4.5 0.6	4.4 0.6	4.5 0.6	4.4 0.6	4.3 0.6	4.3 0.6	4.4 0.6	4.2 0.7	4.3 0.6	(121)
t	-3.2**	-0.3	0.2	-0.4	-1.2	-0.5	1.7	1.1	0.0	-0.2	-1.0	-1.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3 0.7	4.3 0.6	4.4 0.6	4.5 0.5	4.4 0.6	4.5 0.6	4.4 0.6	4.3 0.6	4.4 0.6	4.4 0.6	4.3 0.6	4.3 0.6	(89)
400~600만원	4.2 0.7	4.3 0.6	4.4 0.7	4.4 0.6	4.4 0.6	4.6 0.6	4.4 0.6	4.4 0.6	4.4 0.6	4.5 0.6	4.1 0.7	4.3 0.6	(81)
600만원 이상	4.2 0.7	4.4 0.6	4.4 0.7	4.4 0.8	4.2 0.7	4.4 0.7	4.6 0.6	4.4 0.7	4.2 0.7	4.3 0.8	3.9 0.8	4.1 0.6	(37)
F	0.5	0.2	0.0	0.6(a)	0.9	0.7	0.7	1.4	0.9	1.1	4.5*	2.0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표 VI-2-58〉 아이 기르기에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아이들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미음(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	경찰 등 방범 인력이 자주 순찰.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육아하는 가정 수다공간 /소통의 장 마련	지방자치 단체 예산이 충분	(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전체	3.5 0.7	3.5 0.7	3.4 0.9	3.6 0.8	3.5 0.8	3.7 0.8	3.5 0.8	3.4 0.8	3.2 0.9	3.3 0.9	3.3 0.9	3.4 0.8	(207)
자녀 연령													
영아	3.6 0.6	3.5 0.7	3.5 0.9	3.5 0.7	3.5 0.7	3.7 0.7	3.6 0.7	3.5 0.8	3.4 0.8	3.4 0.7	3.4 0.8	3.5 0.7	(68)
유아	3.5 0.8	3.6 0.7	3.6 0.9	3.6 0.8	3.5 0.8	3.7 0.9	3.6 0.8	3.5 0.9	3.1 0.9	3.3 1.0	3.4 0.9	3.4 0.8	(66)
초등저학년	3.4 0.7	3.5 0.6	3.3 1.0	3.6 0.9	3.4 0.8	3.6 0.8	3.3 0.9	3.4 0.8	3.2 1.0	3.2 1.0	3.2 0.9	3.2 0.9	(73)
F	1.6	0.6	1.4	0.8	1.1	0.1	1.8	0.5	1.3	1.0	1.9	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 0.8	3.5 0.6	3.4 1.0	3.5 0.9	3.4 0.9	3.7 0.9	3.4 0.9	3.4 0.9	3.1 1.1	3.2 1.0	3.2 0.9	3.3 0.9	(86)
맞벌이 아님	3.6 0.6	3.5 0.7	3.5 0.9	3.6 0.8	3.5 0.7	3.6 0.8	3.5 0.8	3.4 0.7	3.3 0.8	3.4 0.9	3.4 0.8	3.4 0.8	(121)
t	-1.0	0.2	-0.3	-0.5	-0.7	1.0	-1.2	-0.1	-1.0	-1.6	-1.8	-0.9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4 0.7	3.4 0.7	3.2 1.0	3.5 0.8	3.3 0.8	3.6 0.8	3.3 0.9	3.2 0.8	3.2 0.9	3.3 0.9	3.2 0.9	3.3 0.9	(89)
400-600만원	3.6 0.7	3.6 0.6	3.6 0.9	3.6 0.8	3.6 0.7	3.7 0.8	3.7 0.8	3.7 0.8	3.2 1.0	3.4 1.0	3.3 0.9	3.4 0.9	(81)
600만원 이상	3.6 0.7	3.6 0.6	3.6 0.7	3.7 0.7	3.6 0.9	3.8 0.8	3.5 0.6	3.6 0.7	3.3 0.9	3.2 0.8	3.4 0.8	3.5 0.7	(37)
F	2.1	1.8	3.9(e)	1.0	2.1	2.0	4.4*(e)	7.8**	0.1	0.6	0.7	1.1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01.

[그림 VI-2-2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로 선정한 11개 문항 중 영아자녀를 둔 가구, 유아자녀를 둔 가구, 초등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I-2-5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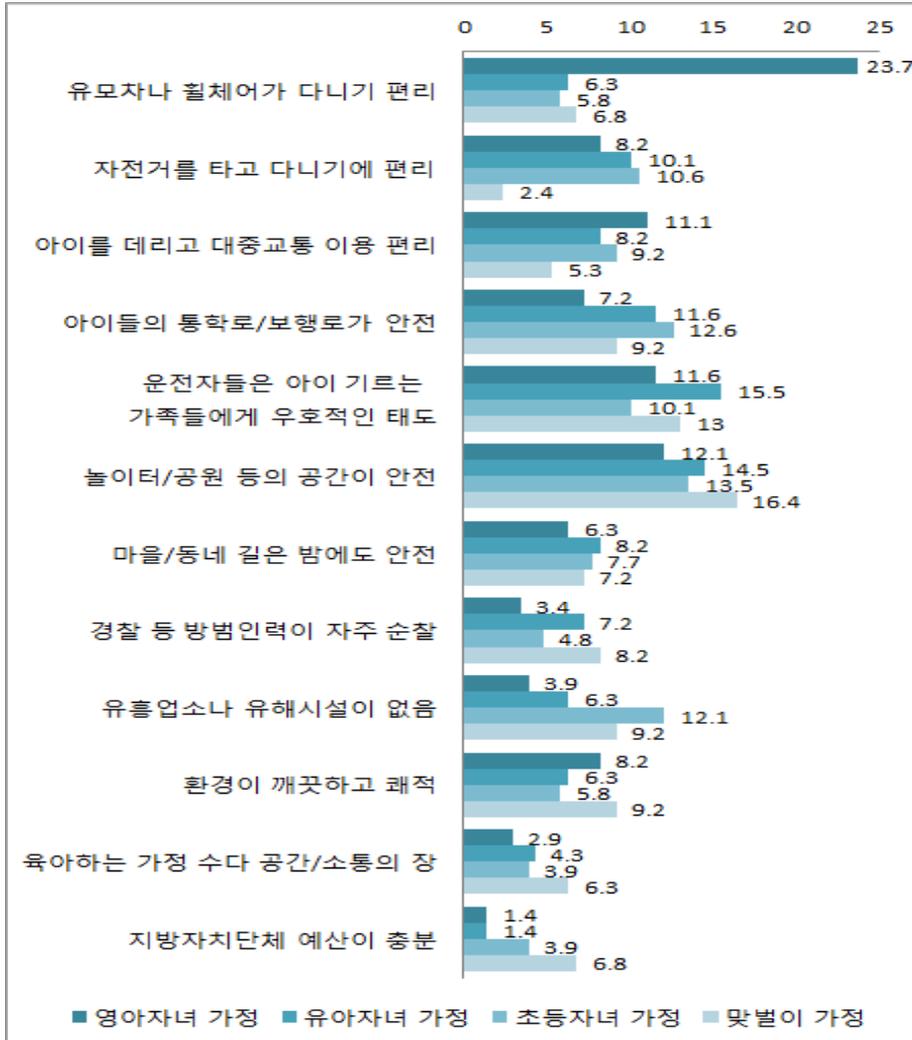
영아자녀 가정의 경우 응답자들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한 보행도로' 부분에 23.7%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운전자들이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달라는 응답도 11.6%로 높았다.

유아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운전자들이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 (15.5%)'와 '안전한 놀이터/공원(14.5%)'에 높은 순위를 주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은 '안전한 놀이터/공원(13.5%)',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12.6%)'에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로 꼽았다.

[그림 VI-2-21]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경기 시흥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표 VI-2-59〉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경기 시흥

단위: %(명)

구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마을(동네) 같은 밤에도 안전
영아자녀 가정	23.7	8.2	11.1	7.2	11.6	12.1	6.3
유아자녀 가정	6.3	10.1	8.2	11.6	15.5	14.5	8.2
초등자녀 가정	5.8	10.6	9.2	12.6	10.1	13.5	7.7
맞벌이 가정	6.8	2.4	5.3	9.2	13.0	16.4	7.2

단위: %(명)

구분	경찰 등 방범 인력이 자주 순찰.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육아하는 가정 수다공간 /소통의 장 마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계(수)
영아자녀 가정	3.4	3.9	8.2	2.9	1.4	100.0(207)
유아자녀 가정	7.2	6.3	6.3	4.3	1.4	100.0(207)
초등자녀 가정	4.8	12.1	5.8	3.9	3.9	100.0(207)
맞벌이 가정	8.2	9.2	9.2	6.3	6.8	100.0(2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6)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관련

가) 중요성 인식과 진단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는 〈표 VI-2-60〉과 같이 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중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항목이 4.4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았다.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는 평균 4.3점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는 부분은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모든 항목이 평균적으로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6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 인식: 경기 시흥

단위: 점(명)

구분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망이 있다.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4	0.7	4.3	0.7	4.1	0.7	4.2	0.7	4.2	0.6	(207)
자녀 연령											
영아	4.5	0.6	4.5	0.6	4.2	0.6	4.2	0.6	4.2	0.5	(68)
유아	4.4	0.6	4.3	0.7	4.3	0.7	4.2	0.6	4.2	0.6	(66)
초등 저학년	4.3	0.8	4.2	0.7	3.9	0.8	4.2	0.8	4.2	0.6	(73)
F	1.3		2.8		4.5*		0.2		0.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5	0.6	4.3	0.7	4.1	0.7	4.2	0.6	4.2	0.6	(89)
400~600만원	4.3	0.7	4.3	0.7	4.1	0.7	4.1	0.7	4.2	0.6	(81)
600만원 이상	4.2	0.6	4.4	0.6	4.1	0.9	4.2	0.7	4.2	0.6	(37)
F	3.2*		0.4		0.1		0.5		0.1		
주택 유형											
아파트	4.3	0.7	4.3	0.7	4.1	0.7	4.2	0.7	4.2	0.6	(167)
연립/다세대주택	4.5	0.6	4.5	0.6	4.4	0.7	4.6	0.6	4.2	0.6	(30)
단독주택	4.4	0.5	4.7	0.5	4.1	0.6	4.0	0.5	4.1	0.6	(9)
기타	3.0		3.0	-	4.0	-	3.0		3.0	-	(1)
F	1.9		2.4		1.6		5.2**		1.5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반면,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선정한 5개 문항들에 응답자가 진단한 평가 결과는 중요도에 비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VI-2-61 참조). 전반적으로 3점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가 그 가운데 높게 점수를 부여한 항목은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부분이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항목들은 평균 3.4점으로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문항 이외의 네트워크 관련 해당 지역의 요구로는 주민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마을의 육아공동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품앗이 육아보육시설에 대한 안내와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센터나 도우미 지원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표 VI-2-6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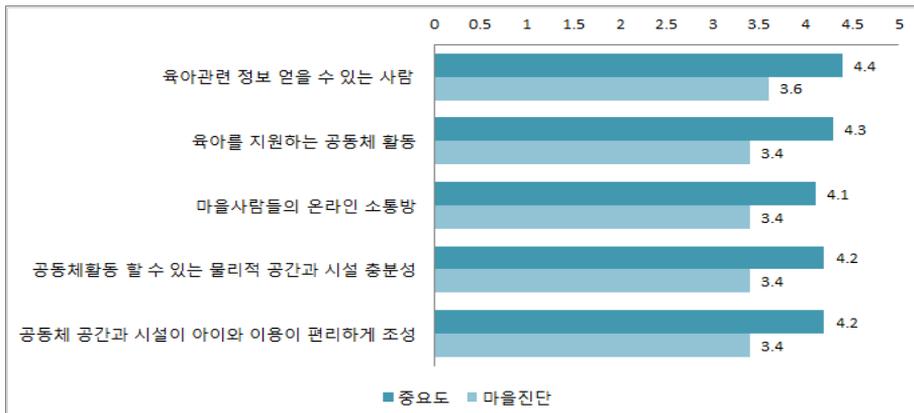
구분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	0.7	3.4	0.9	3.4	0.9	3.4	1.0	3.4	0.8	(207)
자녀 연령											
영아	3.6	0.6	3.5	0.8	3.3	0.8	3.4	0.9	3.5	0.8	(68)
유아	3.7	0.7	3.4	0.9	3.6	0.8	3.4	1.0	3.5	0.9	(66)
초등 저학년	3.4	0.8	3.4	0.9	3.3	0.9	3.3	1.0	3.2	0.8	(73)
F	3.4*(a)		0.6		2.5		0.5		2.1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3.4	0.8	3.3	1.0	3.3	0.9	3.2	0.9	3.3	0.9	(89)
400~600만원	3.6	0.7	3.5	0.9	3.4	0.9	3.5	1.0	3.4	0.8	(81)
600만원 이상	3.8	0.4	3.5	0.6	3.5	0.8	3.5	0.9	3.5	0.6	(37)
F	5.1**(a)		1.0(a)		1.0		2.3		1.3(a)		
주택 유형											
아파트	3.5	0.7	3.4	0.9	3.3	0.9	3.3	1.0	3.4	0.9	(167)
연립/다세대주택	3.7	0.7	3.5	0.9	3.4	0.8	3.5	0.9	3.5	0.7	(30)
단독주택	4.0	0.0	3.9	0.3	4.2	0.7	4.3	0.5	4.0	0.0	(9)
기타	3.0	-	4.0	-	3.0	-	3.0	-	3.0	-	(1)
F	2.1(a)		1.2(a)		3.3*		4.0**		1.9(a)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 $p < .05$, ** $p < .01$.

〔그림 VI-2-2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과 진단: 경기 시흥

단위: 점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나) 가구 특성별 강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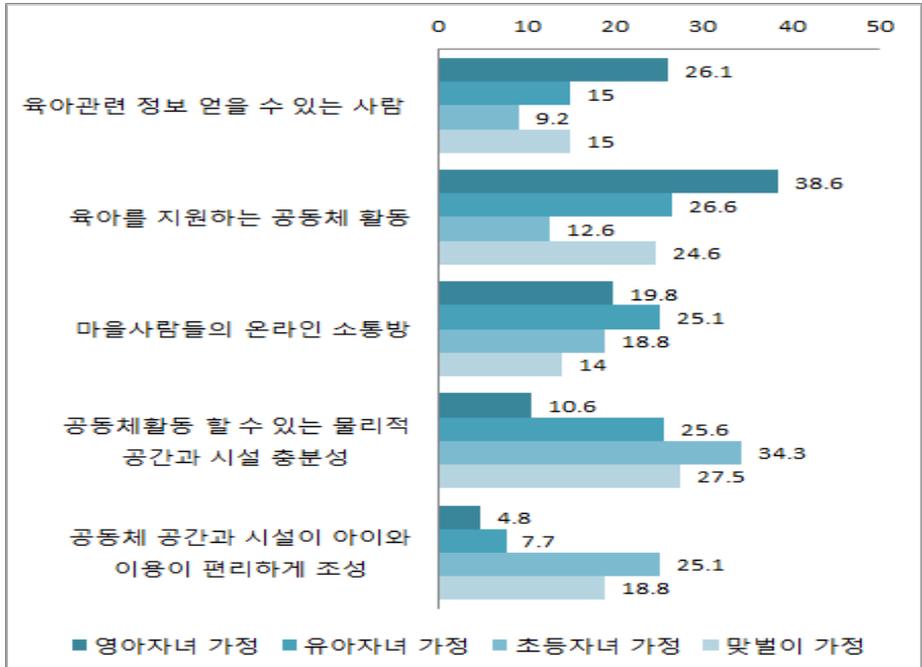
시흥시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관련 각 가구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는 다음 <표 VI-2-62>와 같다.

<표 VI-2-62>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경기 시흥
단위: %(명)

구분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계(수)
영아자녀 가정	26.1	38.6	19.8	10.6	4.8	100.0(207)
유아자녀 가정	15.0	26.6	25.1	25.6	7.7	100.0(207)
초등자녀 가정	9.2	12.6	18.8	34.3	25.1	100.0(207)
맞벌이 가정	15.0	24.6	14.0	27.5	18.8	100.0(207)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그림 VI-2-2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경기 시흥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시흥시' 결과임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공동체 활동 존재 여부에 38.6%로 가장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 26.1%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활동과 공간과 시설의 충분성에 각각 26.6%와 25.6%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었다. 초등자녀의 경우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의 시설의 충분성이 34.3%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초등자녀를 둔 가정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에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구 특성을 망라하고 모든 수치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아 자녀의 경우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력에 더욱 무게를 실고 있다.

3. 소결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의 적용과 체크리스트의 적용 과정을 인천 서구와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육아화마을 조성 모형 설계 시 시사점

첫째, 설문조사 결과 정책 수요자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범주는 살고 있는 동(洞) 단위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동(洞) 단위의 접근이 쉽지 않더라도 최대한 동(洞)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조성에 대한 기본 단위 획정과 해당 정책 마련 시 정책수요자의 체감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은 자녀의 연령 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녀를 동반하여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을 더욱 친숙한 마을의 범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살고 있는 단지나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라는 응답도 각각 18.3%와 18.1%로 높게 나왔다는 많은 수요자들은 생활권 개념을 마을로 인식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권 단위로 지나치게 단

위를 좁힐 경우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단위와 생활권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동(洞) 단위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 간 기초지자체인 구(區)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범위는 동(洞) 단위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각 분야별·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평가가 두 지역이 차별화되게 나타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각 지역 별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인 요소가 설문조사 설계 시 존재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두 지역의 요구와 평가가 확연히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령,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내 시설 유무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두 지역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용 경험의 경우도 두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두 지역 간의 두 지역의 일부 등을 표본으로 한 것이기에 해당 지역 전체의 현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 해당 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화된 하향 방식의 친화마을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해당 결과는 보여준다. 각 지역은 각기 다른 현황, 자원을 갖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수요자의 특성도 다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생애주기에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구 특성별로 육아친화마을 조성 분야별 중요한 항목을 도출된 결과 각 가구의 특성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별로 신체적 발달과 활동의 독립성에 따라 보행도로의 편리성에, 혹은 안전성 부분에 더 방점이 찍히기도 하였다. 물론 자녀의 생애주기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초등학교, 보육기관, 유치원 밀집 지역 등으로 공간을 특화하여 해당 부분에 수요자의 요구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마을로 이사한 이유에서 일·가정 양립을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로 놓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의 특성이 보인다. 현재 마을(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가 '직장과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현재 거주지로 이사한 가장 많은 이유가 직장이 가깝다는 결과는 영유아, 초등 저학년 등 육아기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맞벌이의 경우 외조부모 가까이 사는 비율이 높음은 친정 부모님의 육아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따라서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항목들에 좀 더 집중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령,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더불어, 그들의 긴급돌봄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수요자들은 육아친화적인 환경은 안전하고 자연환경이 좋고, 보육시설이 잘 마련된 곳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와 공원이 있고, 돌봄 지원이 가능한 보육시설이 가까이 있는 환경으로 요약된다. 그와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은 안전하지 않고 자연환경이 좋지 못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섯째,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보육기관과 더불어 놀이터, 공원녹지의 조성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 내 육아관련시설의 접근성과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공원 및 녹지, 장난감도서관 등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다른 시설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시 도움이 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놀이터와 공원 녹지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시사점

인천 서구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각 분야 별 항목 간 중요도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¹⁰¹⁾ 공통적으로는 모든 항목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지역에 현황은 거주하는 정책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조성 정도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101) 다만, 해당 설문조사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제시하는데 적용 사례로 실시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화된 정책적 시사점이기 보다는 향후 육아친화마을 조성 정책 추진 시 해당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인천 서구 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지 않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확보의 측면에서 육아기 가정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보인다. 응답한 육아기 정책수요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30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라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둘째, 인천 서구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자녀의 아이다움을 인정하는 것을 육아친화마을의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였다. 육아기 정책수요자들이 배려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구의 여러 가지 육아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 서구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와 관련하여 중요도 평가와 현재 진단 사이 격차가 큰 부분은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 부분이었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보조 교사의 지원 등 지자체 수준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형성과 관련하여 인천 서구는 녹지공원과 녹지 공간, 놀이터 등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진단점수가 높았다. 이에 대한 중요도 평가와 현재 진단 사이 격차가 큰 부분은 각종 육아지원기관(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 편리성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정책 수요자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천 서구 아이 기르기 좋은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좋고, 자전거의 이용도 편리하고 놀이터와 공원 공간도 안전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중요도 평가와 현재 진단 사이 격차가 큰 부분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가’ 라는 부분인데 이런 결과는 최근 서구의 붉은 수돗물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곱째, 인천 서구 아이 기르기 좋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는 마을사람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방에 대해 평가가 높았고, 중요도 평가와 현재 진단 사이 격차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시흥시의 경우**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가치로는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하고 배려하며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한 문화의 지향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시 남성과 영

성 양육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설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양성평등한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보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성’과 ‘보육기관 가는 길까지의 안전도’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었다. 보육기관의 교사 대 보육 아동 비율 및 급식수준의 개선 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인 요구이다. 반면 해당 요구는 지역에서 특화된 요구이기 때문에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제도 보완 시 해당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부문에서는 ‘공원/녹지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존재’와 ‘소아과/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의 충분성’에 대한 차별화된 요구가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시설의 양적 보급과 접근성과 함께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시흥 지역의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응답자의 추가적인 요구를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실내놀이터나 북카페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의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고 있다.

물리적 환경 부분에서는 인천 서구지역과 비교해서는 ‘경찰 등 방범인력의 순찰 강화’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 환경 부분을 진단했을 때 ‘야간의 마을(동네) 길의 안전성’과 ‘경찰 등 방범 인력 등의 잦은 순찰’ 등 치안안전에 관련 항목에서 대한 평가가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련 해당 지역의 특별한 요구로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주민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랐다. 육아하는 가정들이 공유할 수 있는 품앗이 육아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센터나 도우미 지원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V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 0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 02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 03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 04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정부의 역할
- 05 향후 추진 계획

V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본 연구는 아이 하나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온 마을의 구성을 도모하는 연구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하는 가정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3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연구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단일 척도로의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친화적 요소를 마을에 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과정적 절차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정리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찾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력하여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육아친화적 요소 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풀(pool)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모형을 인천 서구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보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구체화하고, 조성 시 고려해야하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차년도는 기초연구 과정으로 모형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시범적용을 통해 그 현장 적합성을 찾고 구체적 정책화 과정을 모색하고자한다.

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란 육아친화성을 객관적 측정요소로 접근하여 진단하는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와 실제 거주민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를 병행하여 마을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은 다음 [그림 VII-1-1]과 같다.

즉,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마을 진단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VII-1-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이 모형은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시범적용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는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 또는 마을 안에 육아친화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안내이며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가. 1단계: 지표적용을 통한 진단 단계

1) 수행내용

현재 육아친화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을 통해 진단하는 과정이다. 지역별 육아친화성을 육아 관련 직접자원 인프라와 간접자원 인프라 등을 진단한다. 지역 육아친화성 정도 진단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 및 점검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2)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 측정 변수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의 <표 VII-1-1>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를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로 명명하였다. 이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와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등의 범주를 아우르는 육아 인프라를 포함한다. 특히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정책대상인 유아 및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시설수)를 모두 고려하고자 함이 특징이다.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도출 시 고려점, 진행과정, 그를 적용한 시군구 육아친화성 진단 등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4장에 기술하였다.

<표 VII-1-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시)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어린이집 시설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영유아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유치원 시설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https://www.familynet.or.kr
	아동기 (상대지표 시 아동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http://www.hjy.kr/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읍면동	http://www.hjy.kr/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상대지표 시 영유아+아동 총인구 1천명 비율)	공원/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여가/문화	도서관시설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광역지자체기본통계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도로관리교통공단
		지역안전 상대유형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시군구	e지방지표
				범죄		
생활안전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나.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1) 수행내용

육아친화마을에 담길 가치와 철학,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체크리스트 풀(pool)을 행정 담당자, 지역 전문가들이 점검 또는 검토하고 주민참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한다. 워크숍의 규모는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 교환이 가능한 30명 정도가 적절하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워크숍에서 주민들은 제시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더 적합한 요소들을 20~25개 정도로 선별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워크숍을 2~3회 실시하여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육아친화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은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마을 구성에 주체로 참여한 경험을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았고, 개최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형으로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의 장(場)이 되기도 하였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육아친화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은 기존의 지표들이 표준화된 적용으로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요구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렴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 부분이 본 연구가 기존의 지표개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인천 서구와 시흥시에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해 본 결과, 두 지역에서 객관적 지표 수준은 유사하였어도 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체크리스트의 내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육아친화마을 지역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시범적용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5장에 기술하였다.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선행연구 검토와 심층면담,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 측정 변수를 다음의 <표 VII-1-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를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로 명명하였다.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서비스 인프라, 공원 녹지공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서비스 인프라 등의 9개 부분에서의 핵심요소와 측정항목을 반영한 85개의 체크리스트 풀(pool)이다.

<표 VII-1-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철학과 가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충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다음 인정	영유아/아동 개별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음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공간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조성되어 있다(ex: 남성화장실 내 기저기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ex: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ex: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등).	
인적 네트 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인적네트워크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네트워크 의 지원(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소통을 위한 공간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성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ex: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보육(교육) 공간충분성
		야외놀이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을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ex: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거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공원 녹지 공간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과 시설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여가문 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 시설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있다.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대형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개인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대형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개인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대형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개인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대형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개인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개인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개인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교통 보행 네트워크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다양성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교통/운전 문화	운전자의 태도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소방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인력	방법인력순찰	경찰 등 방법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물리적 환경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행정 서비스 인프라	행정체계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다. 3단계: 요구조사 실시

1) 수행내용

3단계,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KICCE 요구조사 초안’을 토대로 2단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을 구성하여 정책수요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육아 중인 영아자녀, 유아자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육아친화성 현황 진단과 평가하게 하고 지역의 육아친화성 향상을 위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하는 설문에 2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2) 지역별 설문지

3단계, 요구조사에 사용되는 질문지는 지역마다 그 특성이 반영되어 최대한 수 요자에게 체감되는 육아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로 제시하기에 한계를 지녀 부록으로 연구과정에 개발한 설문문 사 례로 제시하였다. 이는 부록 2로 첨부하였다.

라.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4단계에서는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담은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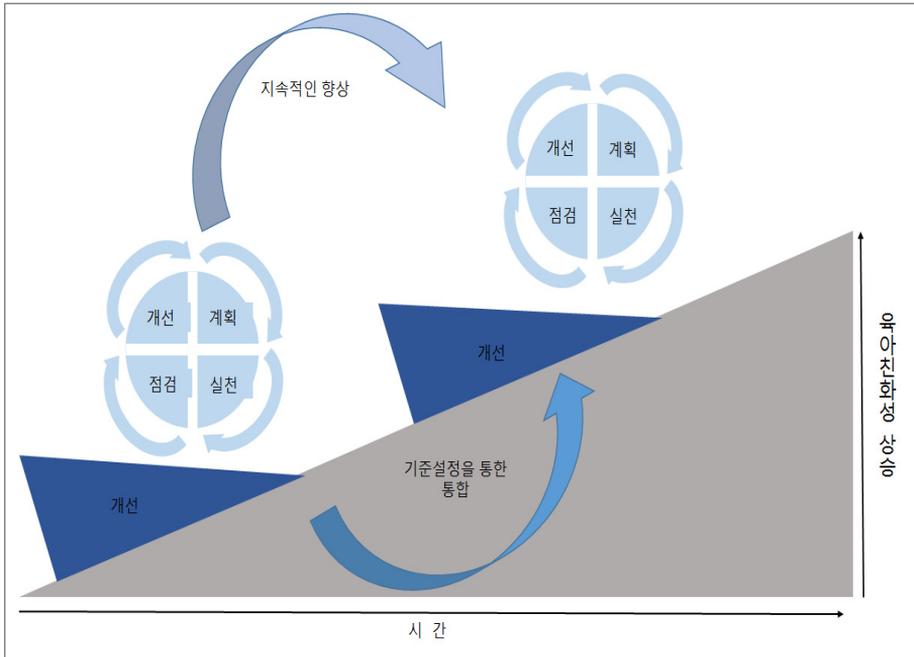
1단계에서 지표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족 한 육아 관련 자원인프라가 도출되며,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의 개발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워크숍으로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필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 부분의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합된다. 4단계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 하여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현 정책의 개선점을 구체화하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2.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1회의 진단과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성을 지닌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경영학에서의 품질 관리 모형인 PDCA 순환모형¹⁰²⁾을 고려할 수 있다. PDCA 순환모형은 목표와 과 정을 설정하는 계획(Plan)단계, 실제 운영하는 실천(Do)단계, 계획의 실천을 평가 확인(Check)하는 단계,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도출하는 개선(Act)단계로 구성되 며, 이러한 체계가 새로운 계획 단계로 재순환되는 모형을 의미한다.¹⁰³⁾

102) PDCA는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Deming circle, Shewhart cycle로도 알려짐. <https://en.wikipedia.org/wiki/PDCA>(2019. 12. 4. 인출). 본문의 관련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구성함.

[그림 VII-2-1]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순환모형



주: 경영학에서의 PDCA 순환모형을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적용함.
 자료: 위키피디아-PDCA. <https://en.wikipedia.org/wiki/PDCA>((2019. 12. 4. 인출).

이런 맥락에서 이상에 제시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은 경영학에서의 PDCA 순환모형 중 진단과 계획 단계(Plan)에 해당한다. 계획한 육아친화성 부여 방안들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천하고(Do), 점검하고(Check),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Act)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는 더 나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3.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1차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육아친화적 마을 조성을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103) 본문의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PDCA>(2019. 12. 4. 인출)를 참고하여 구성함.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마을의 범위는 구(區)단위 접근이 현실적이지만 동(洞)의 특성을 반영해야한다.

기초지자체인 구(區)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어 구(區)단위 접근이 현실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범위는 동(洞)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마을이라는 범위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육아에 필요한 활동성에 기초하여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영아, 유아, 초등학생으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체감하는 마을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책 수요자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범주는 살고 있는 동(洞)이었다.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조성에 대한 기본 단위 획정과 해당 정책 마련 시 정책수요자의 체감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야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녀가 영아기에는 기저귀 갈이 공간, 유모차 접근성 등에,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증가하는 활동성을 수용할 놀이터 등에, 초등학교 시기에는 또래 친구의 형성과 교육, 도서관 등에 육아친화 요구가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이 어느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공간의 구성과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한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는 구성원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기회들이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歡待)와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과정에 세대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간 소통의 장(場)이, 참여의 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획되고,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모이는 공간, 소통하는 장(場)의 마련은 그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마을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의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육

아친화적 환경조성에서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지자체가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네트워크가 기능하도록 할 때 효과적이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자체가 계획 착수하여 육아친화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체감되는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될 것이다. 행복감, 공동체성, 주민주도성 같은 성공적인 참여 경험이 다음의 참여를 동기화 한다. 관(官)이 주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주민의 인적 네트워크, 민간, 주민 주도로 전환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는 것이 육아친화적인 마을이다.

육아친화마을 지표적용 분석결과는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시 계량적인 결과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도출 반영해야함을 시사한다.

선정된 지표를 세부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세부지표의 총량을 통해 측정된 육아친화성, 각 지표의 규모로 측정한 절대 육아친화성 지표의 경우, 육아직접적 자원은 수도권 지역에, 시와 구지역, 즉 도시지역일수록 풍부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육아인프라 역시 시와 구지역에 더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 아동인구 대비 시설규모로 환산한 상대적 육아 친화성 지표는 수도권일수록 농촌, 과소 도시보다 육아친화 등급유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거주 양육자가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우수할지라도 여전히 육아관련 시설의 부족을 경험을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5장에서 살펴본 인천광역시 서구와 시흥시의 경우도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유사점이 많으나,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수요자들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괄 측정되어온 지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것은 육아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요구 수렴 시 주민 참여형 워크숍의 운영을 제안한다.

주민참여형 숙의·토론 과정을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높은 기대를 보였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책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했을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구 특성별로 육아친화마을 조성 분야별 중요한 항목을 도출된 결과 각 가구의 특성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별로 신체적 발달과 활동의 독립성에 따라 보행도로의 편리성에, 혹은 안전성 부분이 더 강조되었다. 물론 거주 주민의 생애주기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초등학교, 보육기관, 유치원 밀집 지역 등으로 공간을 특화하여 해당 부분에 수요자의 요구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정부의 역할¹⁰⁴⁾

대부분의 정책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설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분야의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정책 실패의 이유는 여러 관련 주체가 각기 부분 합리성만을 갖기 때문이다. 한정된 그리고 서로 다른 정보를 토대로 동일한 정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육아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지역의 특수성과 주체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성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육아친화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본 연구는 어느 정도 ‘부분 합리성’을 극복하고 ‘전체 합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104) 본 절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간 행정 실행 시 고려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함.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육아친화 환경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국가, 지자체)에게 차별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 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관련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또는 예산 부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획득한 자원을 ‘전체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표 값의 패턴을 고려하여 육아친화성 정책을 시설중심으로 갈 것인지, 직접적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또는 지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자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먼저 시설관리에 대한 시사점이다. 절대지표의 수준이 높지만, 상대지표의 수준이 낮은 지역은 양육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향후 육아인프라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지역이다. 앞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절대지표 값에 비해 상대지표의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지표수준이 낮는데 상대지표수준이 높은 지역은, 지역 내 육아 인프라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상자체가 적은 지역이다. 인구과소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출산감소상황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복합적 정책개입과 동시에 인프라의 신설대신 기존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거나 자체의 고유한 육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적 전략마련이 유용할 수 있다.

〈표 VII-4-1〉 시설확충 및 관리전략

정책접근유형	절대지표수준	상대지표수준
시설우선 확충지역	고	저
기존시설 관리지역	저	고

한편, 저출산 정책관리에 해당지표의 값이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육아친화성 지표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하고, 지표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등 정책 처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금처럼 지자체 우수사례를 단순히 수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자체가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동질적 정책을 수행토록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자료 제공은 지양하여야 한다.

나. 지자체 차원

지금까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방분권 기조가 확대되고 지자체 행정 서비스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 역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¹⁰⁵⁾ 그런데,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자체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종류는 매우 많으나 실효성이 미미한 현금지원성 사업에만 치우쳐져 있다.

무엇보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조직, 인력과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 조례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안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행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법적 기초마련이 무엇보다 선제적 요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육아친화지표 등급을 토대로 지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인프라 지표를 토대로 어느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접근할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해야 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민을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사업 등 복지 분야의 사업들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더욱 주민의 수요에 민감

105) 충분하지 않은 재원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현시점에서도 지자체가 기획력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예산의 권한이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지역정보 수준이 낮으나,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정보 수준이 높고 기초지자체보다는 기획력 수준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광역지자체는 여러 기초지자체 중에서 육아친화성 종합지표 상으로 등급이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및 정책 처방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시설 관리 등 규제성 업무를 담당하여 재원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향후 추진 계획

‘아이 기르기 좋은 온 마을’을 만들기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구축하는 3개년 연구 중 모형 초안의 구성과 2개 지역에서의 사례 적용을 추진하였던 1차년도 연구를 종료하면서 다음과 같이 2차년도의 연구를 계획한다. 전체 추진 계획 및 연구내용은 앞서 1장의 [그림 I-2-1]과 같다.

가. 2차년도 연구

육아하는 환경, 아이 기르는 환경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표 적용을 통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농산어촌), 신규 조성 마을 등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적용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그림 VII-1-1)을 실제로 선정된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여 모형의 현장 적절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시범적용 이후 개선점을 반영하여 모형을 수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차년도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위한 마을을 선정한다. 대도시와 읍면지역(농산어촌), 신규 조성 마을 등으로 구분하여 육아친화마을을 계량지표를 적용하여 특성을 구분하고, 지역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몇 개의 대상지역을 선별하고, 연구진이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과정에 시범참여를 독려한다. 협력이 가능한 곳으로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둘째, 선정한 3개 시범지역에서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적용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다. 지표를 적용하고, 지역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담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행계획을 위한 자료를 구성한다.

나. 3차년도 연구

3차년도에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제시한다. 연구를 종료하면서 육아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기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적 절차가 담겨, 적용할 수 있는 KICCE 육아친화마을 모형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구성한다.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육아친화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관계부처 합동(2008).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 국제아동인권센터(2018. 11).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
- 권미량·김성원(2012).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4), 141-162.
- 김도희(2017).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울산시 북구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2), 91-130.
- 김선미·이승미·노영주·송혜림·조영희·김소영(2011). 지역 돌봄 기능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소영·선보영·전미영·남지민(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송이·김한나(2017).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분석 및 미래 전략 방안 마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67.
- 김수영·오찬옥·문경주·류지선(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337-381.
- 김웅수(2017).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485-491.
- 김이선·김재인·김반석·박경숙(2019). 동태적 연령구조 모형에 기초한 지역 유형화와 지역의 인구·경제·교육·복지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인구학, 42(2), 83-113.
- 김정석·황선재·송유진·김혜영(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3), 79-114.
- 김진숙·변태준·박양하·송기호·이병기·이상훈(2003). 학교도서관 평가 적용 및 교육적 효과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현경(2016).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참여형 설계 공동육아팀 회의록(2018. 5. 11. ~ 2019. 1. 30, 내부자료)
-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참여형 설계 공동육아팀 공감워크숍 공유 자료(2018. 12. 31, 내부자료)
- 노경혜(2018).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노신애·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35-149.
- 문화관광부(2003).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문화관광부.
- 박금식·박지영(2018).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금식·하정화·손주영·박지영, 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소현·최이명·서한림(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소현·최이명·서한림(2008).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 지표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1), 161-172.
- 박세경(2016. 3.).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62-72.
-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선희(2012).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월간 복지동향, (166), 4-7.
- 보건복지부(2006).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 사회혁신기업 더함(2019). 위스데이별내 연구보고서-커뮤니티를 살다.
- 송다영(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 한국여성학, 30(4), 119-152.
- 안현미·김송이(2011). 한국의 보육공공성과 '제 3의 보육체계':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07-137.
- 염동문·김교정·정현태·전재명·이경은·김미정(2014). 사회복지개론. 서울: 청목

- 오해섭·김세광·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 유재언·진미정(2012). 도시화 규모에 따른 미취학자녀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39-51.
- 유재언·진미정(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가족과 문학, 25(3), 97-127.
- 윤홍식(2006). OECD 21개국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서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보육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이미화·이윤진·박상신(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민희(2007). 청소년수련관의 평가지표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3), 75-87.
- 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2015).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지·최현선(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5-94.
-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4). 인천마을을 잇다.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5). 인천마을을 잇다.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6). 인천마을을 잇다.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7). 인천마을을 잇다.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8a). 인천마을을 잇다.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18b).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안내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2018). 2018년 구정백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2), 337-361.
-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최근열·장영두(2002).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공동체형성의 가능성과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59-180.
- 최근희·진수경(2014). 가족친화형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7(1), 235-258.
- 최목화(2003). 대전시 어린이 놀이터 환경의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9(7), 105-115.
- 최인희·홍승아·김은지·최진희(2015). 동아시아형 가족친화 국제지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준규(2018). 공공주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경기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06). 학교평가 공통지표 매뉴얼.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재가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행정자치부(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 연구.
-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승애·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 황옥경·김영지(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Leir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UNICEF(2005). *Cities With Children-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신문기사]

- 경북매일(2019. 10. 16). 교육, 누가 하는가,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647>. 2019. 12. 5. 인출.
- 미디어생활(2018. 12. 10). 출산장려→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 2019. 12. 5. 인출.
- 조선일보(2019. 1. 19). '작년 출산율 '0.96 쇼크'... 결국 무너진 저출산 한계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9/2019011900135.html. 2019. 6. 5. 인출.
- 중앙일보(2018. 6. 29). 입주민 협동조합 아파트 '위스데이' ... 임대주택 새로운 주거실험. <https://news.joins.com/article/22758070>. 2019. 7. 5. 인출.
- 한겨레(2017. 1. 6). 사회적기업이 짓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뉴스데이'.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77731.html>. 2019. 7. 5. 인출.

[온라인 자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http://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 2019. 6. 20. 인출.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전국지역센터현황,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 2019. 8. 31. 인출.
- 교통사고분석시스템-통계보고서, http://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ReportsList.do?menuId=WEB_KMP_IDA_SRS_TSI, 2019. 8. 31.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 2019. 6. 20.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환대’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

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99%98%EB%8C%80, 2019. 12. 12. 인출.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가족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 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ZTITLE&list_id=154_154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 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도시계획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126&vw_cd=MT_ZTITLE&list_id=315_3150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9. 8. 31. 인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도서관통계,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 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 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 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안전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41&vw_cd=MT_GTITLE01&list_id=1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19. 8. 31. 인출.

- 국가통계포털-건강보험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G&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 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9. 8. 31. 인출.
- 사회혁신기업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대표 홈페이지, <http://westay.kr/byeollaesub/community/facility.asp>, 2019. 5. 29. 인출.
- 사회혁신기업 더함 사업소개서, http://hamkke.org/wp-content/uploads/2018/12/181204_위스테이-지축-사업소개서고객-배포용.pdf, 2019. 5. 29. 인출.
- 사회혁신기업 더함 홈페이지, <http://www.deoham.co.kr/about-us>, 2019. 5. 24. 인출.
- 시흥시청 홈페이지 시흥현황 및 지역여건, <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502020000>, 2019. 12. 2. 인출.
- 시흥시청 홈페이지 시흥시 조직운영지표, <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303030000>, 2019. 12. 2. 인출.
- 시흥시청 홈페이지 시흥시 시정안내, <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503020000>. 2019. 12. 3. 인출.
- 시흥시청 홈페이지 행정조직도, <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503020000>, 2019. 12. 2. 인출.
- 아동친화도시시흥 홈페이지 운영, <http://www.siheung.go.kr/2019/adong/html/main-01.html>, 2019. 12. 2. 인출.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a, https://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2019. 4. 28. 인출.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b, https://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2019. 6. 16. 인출.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c,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 2019. 12. 6. 인출.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incheonmaeuil.org/?page_id=2135#center4, 2019. 3. 10. 인출.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http://legal.incheon.go.kr/now_lae

w/html/now_law.php?act=word_2&table=jomunT&type=0&id=11875&keyword=%B8%B6%C0%BB%B0%F8%B5%BF%C3%BC, 2019. 3. 10. 인출.

인천광역시 서구청 어린이 구청 홈페이지 우리구 아동정책 참고,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dream/introduction/policy.jsp, 2019. 12. 3. 인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app/organize-www/6286530>, 2019. 3. 10. 인출.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PDCA 순환모형, <https://en.wikipedia.org/wiki/PDCA>, 2019. 12. 4. 인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정보지원센터, http://www.hjy.kr/user/Information05_view.php?num=48&cur_page=1&schSel=title&schStr=&filePath=./Information05.php&boardType=1. 2019. 8. 31. 인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4). The Social-Ecological Model: A Framework for Prevention.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ublichealthissue/social-ecologicalmodel.html>

[해외사례: 일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a,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14/26pdfhonpen/pdf/s2-1.pdf#search=%27%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E3%81%A8%E3%81%AF%E5%8E%9A%E7%94%9F%E5%8A%B4%E5%83%8D%E7%9C%81%27>, 2019. 6. 18. 인출.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b,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18/30pdfgaiyoh/pdf/s1-1.pdf>, 2019. 6. 18. 인출.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9). 내부 자료.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9). 아동·양육 회의 내부 자료.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4). 일본 세타가야구 기본계획(2014-2023).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02/001/002/d00131681_d/f

- il/131681_1.pdf, 2019. 8. 22. 인출.
-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5. 3). 일본 세타가야구 자녀 계획,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51923_d/fil/cyousei.pdf, 2019. 6. 30. 인출.
-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2018). 일본 세타가야구 보건복지서비스불만 심의회 보고서.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fukushi/005/001/d0015396_d/fil/30katsudouhoukoku.pdf, 2019. 8. 20. 인출.
-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세타가야 개요,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05/006/d00141998_d/fil/aramashi.pdf, 2019. 7. 24. 인출.
-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아동·육아 응원도시선언,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38162.html>, 2019. 6. 30. 인출.
-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홈페이지-아동조례,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odomo/010/d00145128_d/fil/panhu.pdf, 2019. 8. 22. 인출.
- 일본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meeting/outline/shoushilaw.html>, 2019. 7. 1. 인출.
- 일본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2018).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 측정.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999zentai.pdf>, 2019. 6. 28. 인출.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18/dl/kekka30-190626.pdf>, 2019. 6. 18. 인출.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b, https://www.mhlw.go.jp/www1/topics/syousika/tp0816-3_18.html, 2019. 6. 20. 인출.
- 일본 후생백서(1996). https://www.mhlw.go.jp/toukei_hakusho/hakusho/kousei/1996/dl/05.pdf#search=%27%EF%BC%91%EF%BC%99%EF%BC%99%EF%BC%93%E5%B9%B4%EF%BC%93%E6%9C%88%E3%81%AB%E5%8E%9A%E7%94%9F%E7%9C%81%E9%AB%98%E9%BD%A2%E7%A4%BE%E4%BC%9A%E7%A6%8F%E7%A5%89%E3%83%93%E3%82%B8%E3%83%A7%E3%83%B3%E6%87%87%E8%AB%87%E4%BC%9A%E3%81%AF%E3%80%8C%EF%BC%92%EF%BC%91%E4%B8%96%E

7%B4%80%E7%A6%8F%E7%A5%89%E3%83%93%E3%82%B8%E3%83%A7%E3%83%B3%27, 2019. 8. 23. 인출.

일본 후생백서(2001). https://www.mhlw.go.jp/toukei_hakusho/hakusho/kousei_roudou/2001/dl/10.pdf, 2019. 8. 22. 인출.

森田明美(2009). 「子ども計画を位置づける」『子ども計画ハンドブック』日本評論社, 6-16.

森田明美(2015). 「子どもにやさしいまりづくると自治体 - 子ども政策の総合的展開に求められるもの-」, 『ガバナンス』 June, 20-22.

森田明美(2018). 「子ども施策の総合的展開」『公衆衛生』 82巻10号, 2-7.

喜多明人 (2008). 「子ども条例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子ども条例ハンドブック』6-11日本評論社.

岡田篤 (2019) 「世田谷区における子ども支援・子育て支援の総合的展開」『子ども権利の新たな地平』日本評論社, 212-219.

荒巻重人(2008) 「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と条例」『子ども条例ハンドブック』 18-26, 日本評論社.

増田 寛也 (2014) 「地域消滅時代」を見据えた今後の国土交通戦略のあり方について, 国土交通政策研究所「政策課題勉強会」, https://www.mlit.go.jp/pri/kouenkai/syousai/pdf/b-141105_2.pdf#search=%272040%E5%B9%B4%E6%B6%88%E6%BB%85%E5%8F%AF%E8%83%BD%E6%80%A7%E9%83%BD%E5%B8%82%27, 2019. 6. 15. 인출.

[해외사례: 홈페이지]

호주 City of Wagga Wagga(2017). City of Wagga Wagga Community Strategic Plan 2040, <https://www.waggaview.com.au/35699/documents/76721>에서 내용을 정리함, 2019. 6. 5. 인출.

호주 Department Social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family-support-program/family-support-program-funding-0>, 2019. 6. 8. 인출.

호주 Department Social Service Family and Child 홈페이지, <https://www>.

- 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mes-services/parenting/families-and-children-activity, 2019. 7. 24. 인출, 이후 내용 정리.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a,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payments-families#a1>, 2019. 6. 5.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b,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 2019. 6. 18.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c,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 2019. 6. 19.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d,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rent-assistance>, 2019. 6. 19.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e,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 2019. 6. 19.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f,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 2019. 6. 19.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g,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whats-covered-medicare/health-care-and-medicare>, 2019. 6. 19.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h,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single-income-family-supplement>, 2019. 6. 19. 인출.
- 호주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홈페이지i,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telephone-allowance>, 2019. 6. 19. 인출.
- 호주 EvoCities 홈페이지, <https://evocities.com.au/2019-evocity-events/>

what-is-evocity-life_/, 2019. 6. 15. 인출.

호주 Suncorp Bank(2013).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tatic.townsvillebulletin.com.au/docs/Suncorp%20Bank%20Family%20Friendly%20City%20Report_FINAL.pdf, 2019. 5. 4. 인출

호주 Suncorp Bank(2014). Suncorp Bank family friendly cities report, <https://vdocuments.site/suncorp-banks-family-friendly-city-the-suncorp-bank-family-friendly-city.html>. 2019. 5. 25. 인출.

호주 Sydney Morning Herald, <https://www.smh.com.au/national/nsw/sydney-s-migrant-mums-keeping-australia-fertile-20181214-p50mei.html> 2019. 6. 17. 인출.

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홈페이지a, <https://www.waggaview.com.au/rubyandoliver?page=2>, 2019. 5. 25. 인출.

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홈페이지b, <https://www.waggaview.com.au/rubyandoliver?page=3>, 2019. 5. 25. 인출.

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2013). Wagga Wagga Community Strategic Plan Ruby and Oliver. Our Future. Our Community. Wagga Wagga City Council.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D56C4A3E41586764CA2581A70015893E?Opendocument>, 2019. 6. 18, 2019. 12. 2 인출.

[기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심층면담(2019년 5월 8일).



A Study on Development of Child-Care-Friendly Community For Coping with Lowest-low Fertility Rate Social Phenomenon(I)

MeKyung Kwon·Sunyoung Hwang·Hyemin Lee·Morita Akemi·Jiyoon Park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for raising children can be compressively highlighted in the African proverb: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This study mainly aims to specify 'what whole village is' for developing child-care-friendly community, where consumers of child care policies live in daily life, and suggest the way how to realize it in terms of institutional system. In that manner, the specific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ep-by-step process of how to reflect child-care-friendly elements in the community at local governmental level for making a good environment for child care rather than present a single scale index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uses the mix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since it contains a wide range of research contents from defining concept of child-care-friendly community to developing plan of child-care-friendly community for local governments.

The elements of child-care-community are derived as the philosophy and values, the service infrastruc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the creation a supportive human network. The KICCE child-care-friendly Community indicators including direct resource indicators (7) and child care infrastructure-related indicators (10) are developed.

The following model is suggested as the process for establishing KICCE child-care-friendly Community. The research implication of this

study for establishing KICCE child-care-friendly Community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development of child-care- friendly Community by only one trial of diagnosis and improvement and requires continuous and tireless efforts for change.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rom the life-cycle perspective of child when the local governments develop the child-care-friendly Community. Above all, opportunities for making consensus of the community members should be planned and provided before making it. Development of Child-care-friendly community should be started by local governments, but gradually the human network of the community should functionally work.

Keyword: child-care-friendly community

부록 1. 면담질문지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부모 면담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귀하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면담에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응답자 일반 특성

1. 귀하의 자녀 연령 및 낮 시간 이용 기관
 - 첫째아: 만 __세, 어린이집 이용 or 유치원 이용 or 기타 이용 or 이용 안함
 - 둘째아: 만 __세, 어린이집 이용 or 유치원 이용 or 기타 이용 or 이용 안함
 - 셋째아: 만 __세, 어린이집 이용 or 유치원 이용 or 기타 이용 or 이용 안함
2. 기관, 부모 외에 양육 지원자
3. 부모 근로 형태 및 맞벌이 유무
4. 현재 거주 지역

주요 면담 내용

1. 귀하는 '나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강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사는 동 or 우리 아파트 단지 or 걸어서 10분 거리 반경 등)
2. 귀하는 지금의 동네에서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3.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3-1.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2.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이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동네와 그 이유는?
4. 육아를 위해 마을에서 이용해 본 시설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 4-1.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육아에 있어 귀하의 마을에서는 문화 인프라, 의료 시설 등이 충분하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1.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측면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6. 마을 내에 육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7. 육아에 있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끼십니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8. 육아하기 좋은 마을은 어떤 가치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다양한 마을공동체 조성 과 지원이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아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10.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어떠합니까?
이를 독려하기 위한 마을 안에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록 2-1. 경기도 시흥지역 대상 설문지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1)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귀하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 주 관 기 관 :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 02-398-7775 mkkwon@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이혜민 연구원 02-398-7727 hmlee@kicce.re.kr
- 실 사 기 관 : 한국리서치 ☎ 02-3014-0983

ID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첫째 자녀 연령	① 영아(0~만2세) ② 유아(만3~5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2학년) ④ 초등학교 3학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조사 중단		주양육자 여부	① 주양육자이다 ② 주양육자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조사 중단 ※ 한부모인 경우, ① 주양육자이다
			자녀와의 관계	① 아버지 ② 어머니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
최종면접일시	___월 ___일 ___시 ___분	수퍼바이저 검증		



A. 응답자 가구의 양육 현황

A1. 현재 귀하의 첫째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학교는 어디입니까?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반일제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 ④ 초등학교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⑥ 이용 기관/학교 없음

A2. 부모 또는 'A1' 에서 응답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외에 첫째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이 조부모
- ② 친인척(이모, 고모 등)
- ③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 ④ 기관 돌봄 서비스 종사자(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⑥ 없음

A3. 현재 자녀를 양육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 ② 이용 가능한 기관(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이 부족하다
- ③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 ④ 개인 시간이 부족하여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 ⑤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 ⑥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
- ⑦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된다
- ⑧ 없음

A4.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	매우 부담을 느낀다
1. 부모로서의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⑤
2. 체력적 부담	①	②	③	④	⑤
3. 심리적·정서적 부담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부담	①	②	③	④	⑤



B. 마을/동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B1. 우리 마을 또는 우리 동네를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라고 할 때 귀하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빌라 건물 한 동
- ②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빌라/주택 등의 단지
- ③ 집에서 자녀와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
- ④ 내가 살고 있는 동
- ⑤ 내가 살고 있는 구
- ⑥ 내가 살고 있는 시

B2. 귀하는 지금의 마을/동네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약 년 전부터 살고 있음.

B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마을/동네로 이사 오시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남편(아내)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
- ② 아이의 친조부모 집(시가)과 가까워서
- ③ 아이의 외조부모 집(처가)과 가까워서
- ④ 조부모 외 자녀를 돌봐 줄 지인이 가까이 있어서
- ⑤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⑥ 어린이집/유치원이 가까워서
- ⑦ 근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 ⑧ 기타



C. 마을/동네 내 육아관련 시설 이용 만족도

C1.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동네에는 다음 시설이 있습니까? 'B1'의 마을/동네 범위를 기준으로 응답하십시오. 각 시설의 거리, 이용경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 (1) 마을/동네에 시설이 있는 경우만 (2) 집과의 거리, (3) 최근 1년 이내 이용 경험에 응답하십시오. (3) 최근 1년 이내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만 (4) 만족도에 응답하십시오.

시설	(1) 마을/동네에 시설이 있는지 여부			(2) 집과의 거리					(3) 최근 1년 이내 이용 경험			(4) 이용 시, 만족도					
	있음	없음	모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1) 시설유무 ① 있음인 경우만 응답		차나 지하철로 15분 이내	차나 지하철로 30분 이내	차나 지하철로 1시간이내	이용함	(1) 시설유무 ① 있음인 경우만 응답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의료 기관	1. 보건소	1	2	3	1	2	3	4	1	2	1	2	3	4	5		
	2. 종합병원	1	2	3	1	2	3	4	1	2	1	2	3	4	5		
	3. 일반병(의)원 (소아과, 어린이 치과 등)	1	2	3	1	2	3	4	1	2	1	2	3	4	5		
	4. 어린이집	1	2	3	1	2	3	4	1	2	1	2	3	4	5		
	5. 유치원	1	2	3	1	2	3	4	1	2	1	2	3	4	5		
	6. 초등학교	1	2	3	1	2	3	4	1	2	1	2	3	4	5		
놀이 공간	7. 놀이터	1	2	3	1	2	3	4	1	2	1	2	3	4	5		
	8. 공원, 녹지	1	2	3	1	2	3	4	1	2	1	2	3	4	5		
	9. 문화공연장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0. 체육시설	1	2	3	1	2	3	4	1	2	1	2	3	4	5		
문화 공간	11. 도서관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2. 배화점·북림소공센터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3. 박물관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4. 영리시설 (문화센터, 카즈파페 등)	1	2	3	1	2	3	4	1	2	1	2	3	4	5		
공공 시설	15. 주민자치센터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6. 사회복지관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7. 육아종합지원센터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8. 건강가정지원센터	1	2	3	1	2	3	4	1	2	1	2	3	4	5		
	19. 장난감도서관	1	2	3	1	2	3	4	1	2	1	2	3	4	5		
	20. 어린이도서관	1	2	3	1	2	3	4	1	2	1	2	3	4	5		



D.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로의 요건

※ 다음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각 내용이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해주시고,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동네의 수준은 어떠한지 평가해주시시오.

D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철학과 가치·태도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양성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예시 :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1-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해야 하는 철학이나 가치·태도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D1-2. D1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시시오.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1-3. D1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시시오.

D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보육/교육기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숫자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보육(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보육(교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보육(교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2-1. D2의 항목 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2-2. D2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2-3. D2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D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예시 :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8. 복합쇼핑센터, 백화점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9.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소아과, 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3-1. D3의 항목 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3-2. D3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3-3. D3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D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리적 환경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놀이터, 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7.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8. 경찰 등 방범 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9.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환경(공기질, 수질 등)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수다 공간, 소통의 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4-1. D4 환경 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D4-2. D4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4-3. D4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D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2.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3.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지역맘카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4.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풀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5.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D5-1. D5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D5-2. D5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5-3. D5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E. 응답자 배경문항

E1. 귀댁은 어떤 주택에서 살고 계십니까?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③ 단독주택
- ④ 기타

E2. 귀하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아이의 아버지	(2) 아이의 어머니
1) 경제활동 상태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일을 하지 않음 ③ 아이의 아버지 없음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일을 하지 않음 ③ 아이의 어머니 없음
2) 근무시간 -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응답 - 초과근무 시간도 포함하여 실제 일하는 시간 전체를 응답	1일 평균 () 시간 일함	1일 평균 () 시간 일함
3) 통근시간 -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 편도를 기준으로 응답	편도 기준 () 분 걸림	편도 기준 () 분 걸림

E3.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600만원 미만
- ⑥ 600만원~700만원 미만
- ⑦ 700만원~800만원 미만
- ⑧ 800만원~900만원 미만
- ⑨ 900만원~1000만원 미만
- ⑩ 1,000만원 이상

부록 2-2. 인천 서구지역 대상 설문지

(A, B, C, E 문항 부분은 시흥과 동일함)



D.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로의 요건

※ 다음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각 내용이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를 만드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해주시고,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동네의 수준은 어떠한지 평가해주시고.

D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철학과 가치·태도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양성평등하게 조성되어 있다 (예시 : 남성 화장실 내 거저귀 같이대 비치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양성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예시 :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1-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해야하는 철학이나 가치·태도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D1-2. D1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1-3. D1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D2.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보육/교육기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숫자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보육(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보육(교육)기관의 보육(교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2-1. D2의 항목 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2-2. D2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2-3. D2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D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예시 :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7. 복합쇼핑센터, 백화점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8.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9.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하다 (교통, 보행도로 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3-1. D3의 항목 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3-2. D3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3-3. D3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D4.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리적 환경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놀이터, 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7.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8.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9. 환경(공기질, 수질 등)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수다 공간, 소통의 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D4-1. D4 환경 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D4-2. D4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4-3. D4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D5.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마을/동네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2.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3.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지역맘카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4.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5.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D5-1. D5 이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D5-2. D5 항목 중에서 '영아, 유아,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2) 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 3) 초등(1,2학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 1가지

D5-3. D5 항목 중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